

중구항토사 관계자료 제8집

# 중구의 축제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



중구향토사 관계자료 제8집

# 중구의 축제

중구문화원





중구향토사관계자료 제8집 《중구의 축제연구》를 발간하게 된 것을 중구문화가족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중구는 한양천도 이래로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유서깊은 고도로서 수많은 문화재와 최첨단 빌딩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우리문화원에서는 향토사의 체계적인 연구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 국사를 정립시키는 밑바탕이라 생각하면서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이 문화원의 중요한 고유사업으로 인식하여 개원 초부터 향토사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연구위원과 관계석학들의 자문 속에 그동안 꾸준히 향토사관계자료집을 체계적으로 발행하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계 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왔습니다.

축제(祝祭, festival)란 제천의식과 예술적 요소, 오락적 요소를 포함하는 종합예술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우리나라는 고대 부족국가인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등 각 부족국가마다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중구의 축제연구는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타지역의 축제를 벤치마킹하고 우리구의 과거의 축제, 현재 시행되고있는 축제 등을 조사 연구하여 전통적인 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2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본원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주민, 구청, 구의회, 각지역 축제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우리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있는 축제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지원육성 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영화의 대명사인 「충무로 변천사」를 편찬 보급하는 등 우리구의 잊혀져 가는 향토사료를 수집 발굴하는 데 부단히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향토사 연구사업을 지원해주는 중구청과 중구 구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필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중앙대 김선봉 교수님과 향토사 연구위원과 자문위원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장 남 상 만

# 목 차

발간사 .....	3
<b>제 1 장 민속축제와 놀이 구조 .....</b>	<b>17</b>
1. 민속놀이의 개념과 구조 .....	19
2. 민속축제의 개념과 구조 .....	26
3. 축제의 어원과 주기 .....	32
1) 어원 .....	32
2) 주기 .....	34
<b>제 2 장 민속놀이의 역사와 분류 .....</b>	<b>41</b>
1. 한국 민속놀이의 분류 .....	43
2. 중구 민속놀이의 분류 .....	58
3. 중구 민속놀이의 종류와 역사 .....	71
1) 종류 .....	71
2) 역사 .....	95
<b>제 3 장 중구 축제의 현황 .....</b>	<b>119</b>
1. 무교다동축제 .....	121
2. 명동축제 .....	122
3. 정동축제 .....	124
4. 남대문축제 .....	125
5. 신당동떡볶이축제 .....	125
6. 충무로애견축제 .....	126
7. 장충단지 .....	127
8. 장충동족발축제 .....	127
9. 신당5동가구상가거리축제 .....	128
<b>제 4 장 현대 민속축제의 현황 .....</b>	<b>131</b>

1. 세계 각국의 축제 현황 .....	133
2. 한국 민속축제의 현황 .....	140
3. 강릉단오축제와 금산인삼축제 .....	158
4. 한국 민속축제의 문제점 .....	163
제 5 장 목멱산축제 개발과 그 방안 .....	167
1. 목멱산축제 .....	169
1) 단군신화와 주몽·수로·태백신화의 구조 .....	169
2) 태백산신화의 구조 .....	176
3) 목멱산·삼각산·백악산신화의 구조 .....	180
2. 장충단축제 .....	205
1) 명성황후해원곳의 축제적 의미 .....	205
2) 목멱산신화의 주인공 .....	208
3. 먹거리축제 .....	218
제 6 장 중구축제의 발전방안 .....	221
1. 축제와 관중 .....	223
2. 놀이의 주체 .....	232
3. 중구축제의 발전방안 .....	235
1) 행사내용의 재구성 .....	236
2) 공간의 재구성 .....	236
3) 운영의 활성화 .....	237
4) 관광자원의 활성화 .....	238
제 7 장 마무리 .....	247
* 참고문헌	
* 색인	



명동축제





무교 다동축제



남대문 축제



남산골 전통축제





남산골 단오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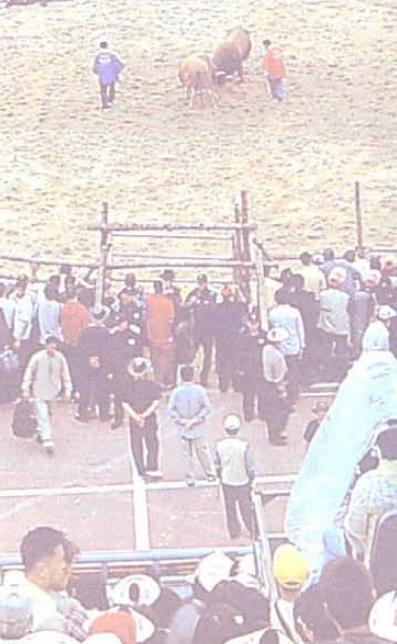
장충동 족발축제



충무로 애견 축제



신당동 떡볶이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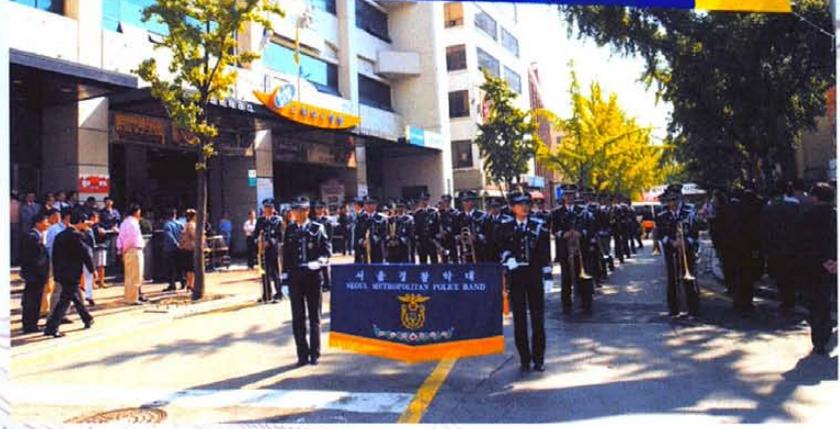
신당동 가구 거리 축제



백학 축제

정동문화축제  
10. 8(수) ~ 12(일) 정동길 (경향신문사 앞 ~ 덕수궁길)

정동 축제





장충단제



통일 봉화식







제 1 장

.....

민속축제와 놀이 구조







## 1. 민속놀이의 개념과 구조

우리나라의 놀이는 오늘날의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오락(pastime)과 즐기기 위한 오락(amusement)의 차원을 넘어서 이해되어야 한다.

민속놀이는 흔히 민속오락, 민속경기, 민속유희, 민속예능, 전승놀이, 향토오락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민속놀이라는 개념 속에서 싸움(game)을 뜻하는 경쟁의식을 비롯해서 흥을 뜻하는 유희성, 즐거움을 나타내는 오락성,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성이 복합적으로 숨어 있기 때문이다.

놀이는 종교적 형식(行式)이나 세시풍속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네덜란드의 중세 역사가인 호이징하(Johann Huizinga)의 학설처럼 문화보다 오랜 것이다.<sup>1)</sup> 곧, 문화 이전의 발생양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모방본능에서 출발했다든가 단순히 휴식을 위한 필요성에서 출발했다는 설도 합당치 않다. 인류학자들은 프라트리아(부족의 소분자) — 씨족, 형제애 등을 단순히 ‘놀이공동체’라고 설명하는데 이것도 경솔한 노릇이다. 인류학자들은 원시만족의 마음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형상화의 의미를 캐는 데 역점을 두었고, 미개민족의 놀이개념에만 치우쳐 놀이와 생산, 놀이의 발생원인 등에만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호이징하는 그같은 관념을 넘어 놀이의 정의를 ‘자유활동(free activity)’<sup>2)</sup>이라고 내리고 있다. 그런데 터너(Victor Turner)가 그의 학설을 비판했듯이, 그 자유활동이란 것도 그 자신 내부에 자체로부터 발생한 질서를 강요하고 있으며 그 규칙(rule)에 따라 지배되고 있음<sup>3)</sup>을 본다. 그는 또 놀이와 신성성과의 긴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놀이 자체가 종종 극적인 구경거리의 존재이고, 퍼레이드(parade)나 올림픽 등에서처럼 난허세(난하고 야한 허세)를 부리는 것도 있음을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투기나 내기 놀이의 중요한 역할에

1) Johann Huizinga, 권영빈 譯, 《놀이하는 인간》, 흥성사, 1985, p.7.

2) Johann Huizinga, 권영빈 譯, 前掲書, pp.16~22.

3) Victor Turner, 《Carnival, Ritual, and Play in Rio de Janeiro》, 《Time out of Time》, Alessandro Falassi, ed., the Univ. of New Mexico Press, 1987, p.77.

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다.

호이징하의 설은 후에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까이요와(Roger Caillois)에 의해서 더욱 발전되었다. 그는 좀 색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놀이를 분명한 개념으로 세분한 공이 있다. 그에 의하면 놀이에는 두 축(axes)이 있다는 것이다. 그 두 축은 파이디아(paidia)라는 축과 루두스(ludus)라는 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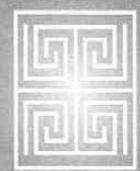
원래 파이디아란 그리스어로 '어린이(child)'를 뜻하는데, '분할할 수 없는 원리', '전환(오락)의 공유지', '난폭한 공유지', '자유스런 즉흥극', '근심 없는 환락(흥겨움)'의 의미로 '억제 받지 않는 자유스런 환상(uncontrolled fantasy)'이란 말이다. 이같은 무정부적이고 변덕스런 어린이의 성향은 라틴어인 '싸움(game)과 놀이(play)'라는 뜻을 가진 루두스란 말과 대립된다.

문화행위의 가정법적 시공 속에서 인간은 퍼즐(puzzle)이나, 미로놀이(maze), 십자말풀이(crossword), 서양장기(chess)에서처럼 변덕스런 장애물을 설정하고 그를 극복하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 루두스, 곧 규칙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장애물에 대처하는 훈련도 되고, 또한 전적으로 놀이하는 사람이 복잡한 규칙에 의해서 규범화되고, 닫혀진 놀이의 세계 속에서 전적으로 마음을 쏠리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즉, 파이디아에 이들 루두스가 서로 연결되고 반복됨으로써 놀이는 추진되고 형식구조가 발생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까이요와는 놀이를 네 가지 상황인 아곤(Agôn), 알레아(alea), 미미크리(mimicry), 일링크스(ilinx)로 세분해서 이해하고 있다.

첫째, 아곤은 그리스어로 관계(context) 또는 경쟁(competition)이란 뜻이다. 이것은 카니발적인 구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경쟁의식과 형식으로 치루어진다. 평등의 관계가 주어진 환경에서 외부의 간섭 없이 기술과 기교, 힘, 속도, 기억력 등의 재능으로 상대방과 겨루는 놀이이다.

싸움이나 운동은 파이디아, 곧 소란, 혼란, 폭소가 담긴 어린이놀이에서 신기축(新機軸)을 이루는 루두스 축으로 지향한다는 것이다. 아곤은 전투와 같은 전면적 싸움놀이로, 경쟁놀이이다. 그것은 평등한 기회가 인위적으로 창조되고 있는데, 역경을 서로 이상적인 조건하에서 직면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놀이를 말한다. 경쟁의 결과는 외부의 조력 없이 한



정된 범위 내에서 속도, 내구력, 힘, 기억력, 기교, 기술 등과 같은 단순한 재능과 소질에 따라 정해진다. 이같은 방식으로 승자는 패자보다 공적을 더 인정받고 있다. 아곤적 싸움(Agônistic games)의 범주는 규칙이 없는 육상경기나 레슬링 등 아이들 경기 같은 파이디아적인 목적을 가진 놀이와, 복싱, 당구, 배구, 펜싱, 체스, 올림픽 게임 등조직적인 스포츠인(루두스적인) 목적을 가진 놀이가 이에 속한다.

둘째는 알레아인데, 알레아는 주사위란 뜻으로 운수 또는 운(chance)을 의미한다. 이 놀이는 아곤과 정반대 놀이로 놀이자의 독립된 결정과 놀이자가 규제할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며, 이로 말미암아 역경을 딛고 승리하는 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운명과 운수에 맡겨 이기는 놀이이다. 이 결과 게임의 운은 인도의 서사시 <Mahabharata>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제의적 상황에서는 신의 뜻을 지시한 것으로 여겨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는 미미크리인데, 이것은 라틴어로 게임의 시작이라는 뜻을 가진 'in-lusio'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으며 영어의 '환상 또는 착각(illusion)'에 해당한다. 또 미미크리 속에는 밀봉된, 전통적인, 또 어떤 면에서는 가상적인 우주의 세계가 포함되어 있다. 미미크리를 통하여 인간은 자기 자신이 환상의 등장인물이 되어 자기가 마치 자기가 아닌 어떤 존재인 것처럼 믿게 한다거나 자기마저도 그렇게 믿으려 하는 놀이라는 것이다.

파이디아의 극(pole)에서 살필 때 어린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성인이 된 것처럼 성인역을 한다거나 이방인이나 인디언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데, 모의유희나 각국의 탈춤, 가장행렬이 이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원시적인 면을 넘어서 지적인 루두스 곧, 다양한 가면, 변장, 의상, 가장무도회, 행진(march), 퍼레이드 등의 다양한 제스처 게임(charade)을 인간은 놀이화시킨다. 심지어 큰 경기는 관중을 미미크리의 주술 속에 몰아 넣고 만다. 경기자는 아곤 곧, 경쟁의식에 의해서 지배되지만, 관중 또한 경기자를 돕는 마음으로 일치되어 가고 육체적인 시련의 접촉감념상태를 맞보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볼 만한 대형 게임에서는 경쟁적 미미크리가 일반 대중에게도 발생하여 아곤은 배가되어 가는 것이다.

넷째는 일링크스이다. 이것은 영어의 '현기 · 어지러움(vertigo)'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기증나는 광기의 놀이를 뜻한다. 곧, 불안정하고 불안한 상태를 창출하는 모든 경기를 말하는데, 이를테면 어린이들이 타는 회전목마나 그네를 위시해서 위험한 스키(수상스키), 자동차

경기, 롤러코스터 등과 같은 회전하거나 빙빙 돌아감으로써 현기증이 나고 현실을 불안정하고 지각하지 못하는 상태로 마비시키고, 의식을 무력화시키는 놀이를 말한다. 그리하여 일링크스의 질서와 조화의 완전체계인 코스모스(cosmos)뿐만 아니라 혼돈의 카오스(chaos)가 들어 있다.

인간의 삶이란 것은 변증법적 성격에서 이해되는 바 구조에서 반구조 내지 변이구조로, 계급의식에서 평등의식으로, 명령법에서 가정법으로, 단일성에서 다양성으로, 인간 본위에서 개별인간 본위로, 사회단위 신분조직체계에서 공동사회단위 신분조직체계로 발전되어 왔거니와 이런 속에서 미미크리와 일링크스는 큰 활력의 원천이 되어 왔다. 신성하지 않은 미미크리와 일링크스의 결합은 원시적이고 무절제한(Dionysian) 표현을 추구하는 바 문화현상이나 싸움놀이에 그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아곤과 알레아는 곧, 공적(공혼)과 유전과 같은 것으로 생에 있어서도 제1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안토닌 어타우드(Antonin Artaud)는 적어도 가면과 트랜스(trance)의 연극, 곧 모의와 현란이 없이는 인간은 멸망한다<sup>4)</sup>고 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카이요와의 설은 다분히 진화론에만 입각한 학설인 점이 옥의 티가 되고 있으며, 하류사회의 서민놀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결점으로 남아 있다. 물론 귀족계급도 놀이 생산에 참여한 바 있겠으나 —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도 않지만 — 놀이 하면 서민대중의 놀이가 지배적인 한국적 상황에는 때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택규는 호이징하와 카이요와의 ‘놀이론’은 20세기 전반에서 산업화된 서구의 귀족적 놀이들을 기준으로 하여 이른바 미개사회나 전근대사회의 놀이들을 회구적(懷舊的)으로 인용하면서 쓴, 인간의 이성인(homo sapiens)으로서의 한 측면에 대하여 유희인(homo ludens)으로서의 측면을 강조한 시도라고 볼 수도 있는 이론<sup>5)</sup>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그러면 우선 이를 표로 제시하고 우리의 놀이문화와의 상황대비와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논급해 보기로 한다.

4) Victor Turner, 前掲書, pp.74~80 및 Roger Caillois, 《Man Play and Games》, Schocken Books, New York, 1979, pp.11~36.

5) 金宅圭, 《韓國農耕歲時の研究》,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5, p.182.



	아곤 (Agôn) 〈경쟁〉	알레아 (Alea) 〈운수〉	미미크리 (Mimicry) 〈모의〉	일링크스 (Ilinx) 〈현기〉
↓파이디아↓ (Paidia) 떠들썩함, 동요(흥분), 폭소.  연날리기, 혼자 두는 장기, 패배기, 말매꾸기 루두스 ↑(Ludus) ↑	육상 레스링 등 규칙 없는 경기	노래부르기, 전후면 말맞추기.  도박, 루올렛, 제비뽑기. (단식, 복식, 연속)	아이들의 입사식, 환상적 놀이, 술래잡기, 전쟁놀이, 가면놀이, 변장놀이, 연극, 일반적 초대형 예술.	아이들이 타고 노는 놀이, 회전목마, 그네, 원무곡.  보라도르, 순회, 카니발, 스키, 등산, 줄타기.

〈도표 1〉 놀이의 분류6)

〈도표 1〉에서 살필 수 있는 바대로 실제 까이요와가 예로 든 놀이는 스포츠나 아이들의 운자놀이(rhyme), 내기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집단적 놀이형태나 제의적 놀이가 별로 없다는 데 한국적 놀이문화와의 차이점을 찾게 된다. 실상 우리의 동요나 모든 민속놀이는, 거슬러 올라가면 제의성과 무관한 것이 없을 정도로 많다. 이들 학자들이 발표한 이론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의 분석자료가 20세기를 전후한 그들 사회의 놀이문화의 분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해가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놀이문화에 대입시켜 볼 때 무엇인가 빠진 곳이 있다는 아쉬움을 직감할 수 있다.<sup>7)</sup>

그런 면에서는 호이징하의 제사와 놀이에 대한 이론이 돋보인다 하겠다. 그는, “제사란 행동되어진 행위 속에서 상징화된 이미지로서의 효과를 낳고, 제의 기능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

6) Roger Caillois, 前掲書, p.36. 및 Victor Turner, 前掲論文, p.79.

7) Roger Coillois는 前掲書, p.71에서 놀이를 지배하고 있는 이들 네 가지는 고립되어 있지 않고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놀이문화의 복합적인 난해성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Agôn-alea, Agôn-mimicry, Agôn-ilinx, alea-mimicry, alea-ilinx, mimicry-ilinx.”



## 종구의 축제

라 신성한 행위 자체가 참여한다는 존경심을 유발시키는 것이며, 그리스인들의 사고처럼 모방적(mimetic)이기보다는 융합적(methetic)<sup>8)</sup>이라는 해리슨의 이론을 들면서, 원시사회의 제사는 공동체의 복지에 빼놓을 수 없는 성스러운 놀이이며, 그것은 우주적 통찰에 충만된 사회적 발전을 잉태한 놀이<sup>9)</sup>라고 언급하여, 까이요와보다는 대범한 발상으로 놀이의 사회성을 파헤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제의와 밀의(密儀)가 형식적으로 원시종교와 같다는 이유 때문에 종교를 구성하는 신성한 의식, 높은 신앙을 놀이라는 성격과 연결할 수 있는 지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신에 바쳐진 놀이’라는 플라톤의 놀이개념이론을 들면서도 제사행위, 그 중요한 부분은 언제나 놀이의 범주 속에 남아 있고 놀이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0)</sup>고 결론짓고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놀이를 살필 때 우리는 오히려 플라톤의 ‘신에 바쳐진 놀이’로 출발하여, 풍농과 풍어를 빌었다는 점에서 제 1의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제의놀이를 구체화시켜 대동단결하는 핵을 만들어 나갔다는 점이 서구의 놀이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플라톤은 제사와 놀이 사이의 동일성을 그의 《대화편》 법률(7장 83항) 속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

“최고의 진지함으로써 일을 행할 가치가 있는 것은 다만 신일 뿐이다. 여기에 비해 인간은 신의 놀이감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그것이 인간의 가장 잘 된 부분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른 삶의 방법인가? 어떤 게임을 하든, 헌납의식을 하든, 노래하며 춤을 추든, 놀이를 하듯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인간은 신의 은총을 받을 것이며, 적으로부터 그를 막을 것이며 투쟁에서도 이기게 될 것이다.”<sup>10)</sup>

한국인 또한 신성물의 헌납, 제의와 경기, 연희 등을 통해 우주적 질서, 초현실의 현실화를 꾀했다. 거기에서 나온 놀이가 ‘굿놀이판’이다. 오늘날의 탈(가면) 속에는 어린이나 미개인

8) Huizinga, 권영빈 譯, 前掲書, p.25.

9) Huizinga, 권영빈 譯, 前掲書, p.41.

10) Huizinga, 권영빈 譯, 前掲書, pp.30~31.



의 시가 들어 있다. 그것은 일상의 평범성을 뛰어 넘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것은 놀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그 놀이는 모든 과거를 형상화하고 신의 세계를 구현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각 지역 지신밟기나 농악대에서도 그 옛 모습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데, 그야말로 놀이판은 신성한 성역, 생활의 마당, 가설 놀이판으로 되어 있으며 장식은 신상, 신대, 신기, 영기, 신길, 꽃 등 미려하게 꾸민 극락세계를 상징<sup>11)</sup>하고 있는 것이다. 까이요와의 모순은 변장연극과 변장가면은 있으되 신들의 연극, 신들의 대화, 신들의 형상화, 집단의 형상화 내지 구현화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이제 파이디아의 소란과 혼란과 폭소가 어떻게 루두스와 만나게 되는가를 살펴보자.

루두스나 파이디아는 놀이의 범주가 아니라 놀이의 방식을 말하고 있다. 까이요와는 파이디아의 요소인 소란 · 혼란 · 폭소가 부단히 루두스의 요소가 증가하면 할수록 감소되어 가고 있다고 보았다. 연날리거나, 혼자서 두는 장거나, 혼자서 노는 트럼프, 말메꾸기 등을 지적인 놀이로 보았다. 영어로 'solitaire'는 '고독한(solitary)'에서 나온 것으로 고독하게, 혼자서 외롭게 자기와 싸우는 경기란 뜻이고, 'patience' 또한 '인내[끈기]'란 말에서 온 것으로 조용하고 침착하게 고통을 이겨가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치루어 나가는 고차원적인 놀이를 뜻한다.

놀이는 신의 세계를 구현한 것이라 하거니와 인간이 현실의 세계를 떠나 신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또한 놀이의 높은 상징성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복싱이나 펜싱의 경우가 지적(知的)일 수는 없다. 질서가 있고 세련의 도가 강하긴 해도 고상한 루두스라고 보기에는 흠이 있다.

11) 정병호, <놀이판의 構造와 機能>, 《놀이문화와 축제》, 李相日 編,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8, p.22.

## 2. 민속축제의 개념과 구조

그렇다면 우리나라 놀이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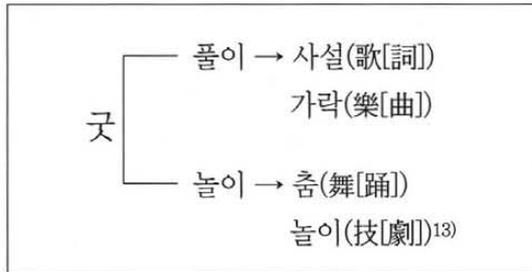
우선 '신바람' 과 '멋' 을 들 수 있다. 흔히 '한(恨)' 을 그 속에서 찾기도 한다.

한스러운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고, 누구도 허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삭이면서 다져온 비애 속에서 우리의 미의식으로 승화된 것이 바로 한<sup>12)</sup>이다.

신바람은 있어도 한바람은 없고, 신풀이나 한풀이로 표현된다. 여기서 우리는 음(-)과 양(+ )의 이분법적 구조를 살피게 된다. 행위대상(行爲對象)만을 놓고 볼 때 풀이는 음의 세계이고 바람은 양의 세계이다.

풀이는 신의 뉘, 사자(死者)의 뉘를 풀어 준다는 말이다. 그들을 풀어 줌으로써 사자의 원한을 달랜다. 최영장군의 한풀이 놀이가 발생하고 단종의 제의놀이가 발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곳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김택규(金宅圭)의 상기 이론은 호이징하의 Legomena와 Dromena 이론을 적용한 것이지만, 이곳에서 신풀이를 할 때 가락과 사설로 우리의 한을 풀어나갔던 것이다. 신풀이는 신의

12) 金宅圭, 前掲書, p.183.

13) 金宅圭, 《韓國民俗藝術論》, 1974, pp.154~155.



위대성에 대한 풀이요, 그의 난데본(본향)에 대한 풀이로 대개 굿판에서는 굿노래 가사와 그 가락의 흐름으로 풀어나간다. 간혹 악신에 대해서는 저주의 사설과 굉음으로 맺힌 고리 또는 매듭을 풀어나가기도 한다.

한편, 놀이의 경우는 굿판에서 춤과 연기로 또는 가면극으로 나타난다. 가면으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 신의 재림을 뜻하기도 하며, 춤의 역동성으로 신을 찬양하기도 한다. 이러한 놀이의 세계는 양의 세계이다. 신과 사자를 형상화시켜 풀어나가는 음의 세계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자신의 회원을 표현한 양의 세계가 어우러진 한바탕의 판이 굿놀이판이다. 그러니 굿판 속의 인간의 놀이는 풀이판이 아닌 바람판에 속하며, 이들 풀이판과 바람판이 어울려 굿판의 분위기는 신바람판으로 무르익어 간다.

풍(風)을 ‘발암’이라 함은 ‘발양(發陽)’의 변음이니 양기(陽氣)를 발동하는 것은 바람(風)이다.<sup>14)</sup> 그야말로 굿판은 신인공연(神人共演)의 장이요 신인공희(神人共戲)의 장이라 할 수 있는 바, 음과 양의 조화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은 “종교를 춤으로 연출한다”<sup>15)</sup>고 했거니와 한국 종교의 현장성 또한 신바람의 놀이문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음을 실감한다. 다시 말해 풍자와 해학 속에서 발생한 한국 고유의 멋 또한 이들 신풀이와 신바람 속에서 찾게 된다.

그러면 굿판·아수라판·놀음판 등에서 나타난 대로 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판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놀이판의 미학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판의 규모는 큰 것로부터 작은 것까지 일정치 않다. 개인적인 껍판·판판이 있는가 하면, 탈판·소리판·난장판·춤판처럼 규모가 큰 것이 있다. 놀이로서의 의미는 큰 규모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본보기로 난장판이 어우러지는 판 구조를 강릉단오제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아래 <도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한 판(單板)인 굿판(제의공간, 연극공간)을 들 수 있다. 연극의 공간 이외에도 싸움의 공간과 놀이의 공간과 경기의 공간이 한 판씩 어울려 있음을 알 수 있다.

14) 鄭喬, 《東言攷略(全)》, 古今書海館, 1908, p.11.

15) 金烈圭, 《韓國民俗과 文學研究》, 일조각, 1974, p.136.

우리는 “대장부가 한 판 승부를 걸어보자.”는 말을 하기도 하며, “그곳에서 대판 싸웠다.”는 표현도 한다. 여기서의 대판이 바로 한 판 한 판이 모인 큰 판[大板·大盤]인 것이다. 대판을 위한 한 판 한 판의 공간적 놀이가 대판(대동판·대동놀이판)을 이룬다. 이들 한 판 한 판의 놀이는 공간과 시간적인 면에서 신의 세계를 현실에 옮겨놓은 자리요, 세계이다. 실제 축제(festival)는 이러한 대판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그 속에는 무당이 있고 보살이 있고 관중이 있어, 새로운 삶의 판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축제와 놀이는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질성이 개재한다. 이들이 모두 일상생활과의 단절을 선언한다거나 환락과 즐거움이 충만되는 수가 많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 순수와 자유와 엄격한 규칙과의 융화 이 모두가 공통된 특징으로 나타난다. 또 봉헌식(奉獻式), 공희식(供犧式), 성희식(聖犧式)의 무용과 경기, 연극, 밀의 등을 모두 축제라는 개념의 범주 속에 넣기도 한다. 왜냐하면 신성행위의 의미는 놀이에 침투되고 제사의식의 놀이 위에 접목<sup>16)</sup>되기 때문이다. 문헌에서도 우리는 노름판, 판노름이라고 흔히 써 왔다.

스당덜이... 판노름 츠린득기 가난길 건너편의 一字로 느러안져 거스덜은 소고치며 스당은 제츠대로 연계 스당 몬져 나셔 발림을 곱게하고...(가루지기 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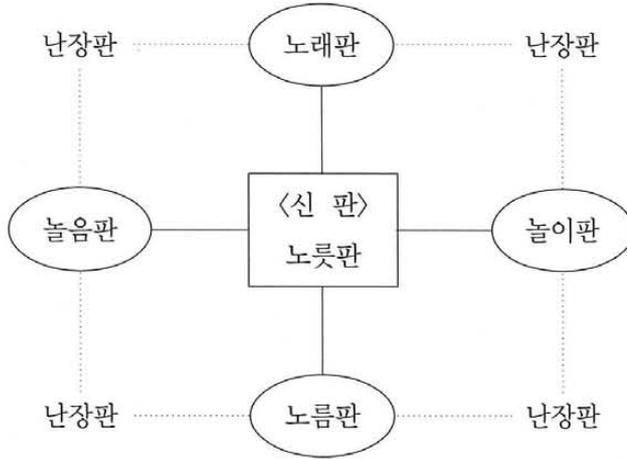
이처럼 판이 접두사로 쓰이는가 하면 접미사로 쓰여서 “네밀할 놈 대방(大方) 노름판에 나와서 무엇 어이 어이 하늬.”라고 쓰이기도 했다.

김동욱(金東旭)은 판노름적인 것에서 판소리가 분화하는 민속적인 배경을 더듬을 수 있고, ‘판노름’의 판(stage·진행적인 면에서는 scene)의 노름(play)이란 말이 민속연희 형태로 정립하여 여기에 따라 노름 가운데 소리만을 추출하여 판의 소리, 판소리란 말이 합리화된다면 판소리는 판노름에서 하는 소리<sup>17)</sup>라고 판의 틀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김열규(金烈圭)는 판을 단순한 사건 만이 아니라 사건이자 공간이라고 보았다. 씨름판, 놀음판, 싸움판이라고 할 때, 그 판들은 예외 없이 사건이자 공간이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16) Huizinga, 권영빈 譯, 前掲書, p.29.

17) 金東旭, 《韓國歌謠의 研究》, 을유문화사, 1961, p.281.



<도표 2> 난장판의 구조

공간이라기보다 사건화되고 있는 공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sup>18)</sup>

필자는 어렸을 때 멋지고 흐드러지게 실컷 놀았을 때 한 번 “신평나계(신나계) 놀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해 왔다. 굿거리의 어원을 ‘굿갯’에서 찾을 수 있듯이, 실컷도 민간어원적인 면으로 살핀다면 ‘신(神)갯’에서 나왔다. 굿갯이 귀신을 의미할 때 굿은 초자연적인 외경을 그 속성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굿갯이란 말은 굿의 주체, 곧 신격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sup>19)</sup> 실컷은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한갯’이란 뜻이다. 그것은 신에게 바쳐지는 것이며 신의 의지에 속한 것(소유·장소)이기도 하다. ‘신+갯’, 곧 신의 존재와 더불어 노는 판놀이야말로 한바탕 마음껏 노는 장(場)인 것이다. 그뿐 아니라 싫도록 놀 수 있는 장소도 이곳 성역뿐이다. 이렇게 볼 때 무법의 성역이었던 솟대의 성역화도 바로 그것인 것이다. 그곳에서는 죄인도 죄인이 아니다. 족장도 족장이 아니다. 다만 신 앞에서 인간 본연의 생리를 표현하고 너와 내가, 신과 내가 타부(taboo)를 풀어 버리는 비신성화의 시간이요, 일종의 신분

18) 金烈圭, <전승 놀이문화의 根源과 心性>, 《놀이문화와 축제》, 李相日 編, p.84.

19) 金烈圭, 前掲書, pp.132~133.

깨기 공간이다. 이것을 백틴(Bakhtin)은 ‘탈구기시간(脫拘忌時間 · desacralized time)<sup>20)</sup>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백틴처럼 금기를 푸는 탈구기시간(脫拘忌時間)으로 보든, 그라이마스(Greimas)처럼 성속이원론(sacred-profane dualism)<sup>21)</sup>으로 보든 한국적 축제의 판은 둥근 원의 철학이었고 그 속에서의 문화였다. 이곳에서 우리 민족문화의 원형을 찾을 수 있고 이곳에서 민족성은 싹트기 시작했다. 여성의 춤뿐만 아니라 달빛 아래서 열렸던 씨름판 또한 원형이었다. 강릉 관노가면희(官奴假面戲)의 장자마리는 희한한 배불뚝이 제스처로 원형무대를 만들기 위해 장내를 정돈하고 있다. 또 농악대의 무대 만드는 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판의 모양은 어떠한가? 한국적 무대(stage)로서의 판, 그것은 둥근 원형이다. 그 형태는 둥근 태양과 달 모습의 재현이다. 비근한 예로 강강술래는 원형의 도무(踏舞) 속에서 달의 상징성을 그리며 예술적 생산성을 창출하고 있는 신성유희라 할 수 있다. 모난 데 없고 둥근 원, 그것은 창조주 곧 신의 얼굴인 것이다. 달이라고 해도 좋고 해라고 해도 좋다. 그것은 둥글어 모난 데가 없고 원만한 인격체를 상징하고 크게는 생생력까지 발동한다.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인격은 원판형의 인격이다. 놀이가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곳에서 찾을 수 있다.

《역어유해 譯語類解》에도 ‘잡희(雜戲) 노릇, 상간(上竿) 솟대 노릇’이라 했거니와 이처럼 ‘놀음’은 ‘놀다’에서 파생되었지만, 단순한 노는 일이 아니라 노는 구실(役 · roles)을 뜻하는 노릇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사람 노릇’, ‘자식 노릇’의 노릇은 행세나 행동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존경해야 할 대상 앞에서의 어떤 구실을 뜻한다.

우리는 흔히 속담으로도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자주 입에 담는다. 신 앞에서 노는 인간의 놀음이 기가 막힐 정도로 매우 기묘하고 신통하다는 뜻이다. 신과 통하는 것이神通(神通)이다. 어떻게 빌고 어떻게 잘 놀았으면 귀신이 곡(탄복)했을까. 어쩌면 그 곡은 귀신만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인간이 깨뜨렸을 때의 분함이었으리라. 아무튼 그것은 귀신이 탄

20) Marianne Mesnil, 《Place and Time in the Carnavalesque Festival》, Alessandro Falassi, ed., ibid., p.189.

21) Marianne Mesnil, 前掲論文, p.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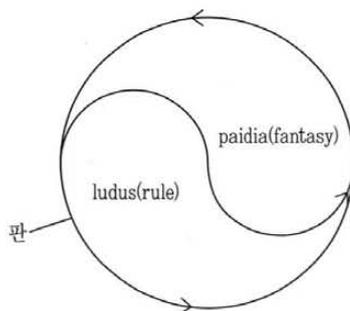


복합 만한 노릇(놀이)을 했을 때만 가능하였던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판은 구조이다. 그 판의 구조는 같지만 담고 있는 내용과 스타일은 시간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신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놀이판은 태극의 판구조를 닮았다.

〈도표 3〉은 태극의 놀이문화에 까이요와의 파이디아와 루두스를 대입시켜 본 것이다. 파이디아와 루두스는 놀이의 방식을 뜻한다. 양대축의 조화 속에서 우리 놀이는 시작되었다. 파이디아가 없는 루두스만의 놀이는 적어도 집단놀이에서는 존재의미를 상실한다. 그것은 적절한 양(+)과 음(-)의 조화이다. 놀이는 음·양의 조합 속에서 생산을 가져온다. 놀이는 음·양의 대립이라기보다는 그 화합이요 결합이다. 그러니 놀이는 생산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놀이는 민중이 창조한 신화의 재현이기도 하다. 태극도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놀이의 가장 기본적인 무도(舞圖)요, 춤사위이다. 남도 집단놀이인 ‘강강술래’나, ‘꽤지나칭칭 나네’, 그리고 강원도 산간지방 초부들의 ‘괴비고사리끼기’ 까지 태극도는 기본적인 무도로 존재한다. 그뿐 아니라 농악대에서 가장 기본적인 진법(陳法)도 태극진법인 것이다. 그러로 볼 수 있다. 곧, 태극신인 것이다. 신과 진리의 형상을 원판형 놀이 속에서 재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저로부터 짝아지는 낮의 길이가 동지에 이르면 극한을 넘고 이로부터 조금씩 길어진다. 이런 현상을 우리 고대 선민들은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음의 세계에서 밝은 양의 세계로의 이행이요 반역이다. 이 때 생명과 광명의 신인 태양이 재탄생하는 날이므로 원단(元旦)이라 했고 축제를 거행하게 된 까닭도 여기 있다 하겠다.



〈도표 3〉

### 3. 축제의 어원과 주기

#### 1) 어원

타일러(Thomas Tylor)는 축제의 특징을 먹기, 마시기, 스포츠 놀이에서 찾고 있고, 콕스(Harvey Cox)는 병치(並置·juxtaposition)에서 찾고 있다. 곧, 축제의 성격은 대조(contrast)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축제의 현실은 일상적인 매일 매일의 일이나 관습, 절제를 바꾸어 나가는 것에 의존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리치(Edmund Leach)에 의해 다시 모든 축제는 존재의 정상적인 세속적 질서(the normal-profane order)에서 비정상적인 신성적 질서(the abnormal-sacred order)로 잠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는 표현을 내놓게 한다. 그것은 인간의 문화현상에 나타난 사건이자 사회현상이다.

주지하는 대로 전 유럽의 축제인 사육제는 예수를 추앙하여 술과 고기를 끊고 수도하는 예수의 황야의 고행을 추모하는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의 3일, 또는 일주일 동안 술과 고기를 질탕히 먹으며, 술과 고기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가면을 쓰고 행렬하거나 극과 놀이를 하면서 노는 축제를 일컫는다. 독일어로는 Fastnacht, 곧 단식의 밤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단식하고 참회한다는 뜻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사육제를 무도회라는 뜻인 Ball로 쓴다.

타일러가 지적한 대로 축제란 feast란 단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금기하기 전의 인간본성의 표출이고 그 본능의 놀이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어원적으로 말할 때 festival은 라틴어의 festum에서 나왔다. 라틴어의 festum은 '일반적인 기쁨(public joy)', '환락(merriment)', '흥청망청 떠들기(revelry)' 라는 뜻을 가진 festum과 '신들을 위한 일[과업]로부터의 완고성(abstinence)' 이라는 뜻을 가진 feria에서 출발하였다.

fiesta는 이탈리아어 festa(pl. feste), 프랑스어 fete(pl. fetes), festival(adj), 스페인어 fiesta(pl. fiestas), 포르투갈어 festa, 중세 영어인 feste, festial, festival로 파생되어 갔



고, festa(pl. feria)는 이탈리아어 feria(성인을 위한 일로부터의 완고성), ferie(일로부터 떨어져 간 시간), giorni feriali(종교의식이 없는 날들), ferie matricularum(대학생들의 축제적 방학)과 스페인어의 ferias(성자를 위한 휴식일)로 파생되었고, 포르투갈어인 feira, 스페인어 feria, 이탈리아어 fiera, 고대 프랑스어의 feire, forie와 고대 영어 faire와 오늘 날의 fair는 농산물 시장이나 진열(exposition)을 뜻하는 것으로 변해 갔다. 또 한 가지 feast(festine)란 말이 있는데 이는 ‘형식적인 풍성한 식사’란 뜻에서 나왔다.<sup>22)</sup>

현대 영어에서의 축제의 뜻은 의식 속의 신성적 또는 세속적인 시간, 유명한 인물과 사건을 기념하는 연례행사나 중요생산물의 수확에 대한 연례행사, 일련의 미술작품의 전시, 농산물 시장, 모든 환락(歡樂)과 주흥(酒興)·연희적 기분이나 기쁨 등을 뜻하고 있다.

서구 사회에 있어서도 놀이(pflegen)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의식(儀式)의 영역과 관련이 있는 문화권도 있다.

이 놀이와 의식의 관계를 특별히 증명하는 말로서 중세 네덜란드어의 결혼(huweleec)이라는 말과 축제(festelic), 싸움(vechtelic·고대 프리시아어로는 fyuchtlec) 등의 말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스칸디나비아어의 일반적인 놀이를 뜻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sup>2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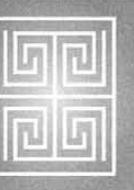
그러면 우리나라의 축제는 어떤 성격을 어원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자기 조상을 경건하게 모시는 관습이 뿌리 깊다. 그들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조석으로 상식(上食)을 올렸다. ‘축’자는 경축의 뜻만이 아니라 기원의 뜻이 더 크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사의 축문이라든가 축복, 축수, 축하, 축도와 같은 말의 ‘축’자는 경하와 경축의 뜻보다는 신에게 빌고 원한다는 의식의 뜻이 더 강하다. 어원적으로 보아도 한국적 축제는 신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축’을 경하의 뜻으로 쓴 것은 일본 문화의 영향도 있다. 서구의 festival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제의의 뜻을 잘못 이해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효행의 몸가짐을 훈계하는 말로 부모가 병환이면 우(憂)하고 상을 당하면 상

22) Alessandro Falassi, <Festival: Definition and Morphology>, 《Time out of Time》, the Univ. of New Mexico Press, 1987, pp.1~2.

23) Huizinga, 권영빈 譯, 前掲書, p.61.



## 중구의 축제

(傷)하고, 제를 행할 때는 엄(嚴)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모름지기 엄숙해야 할 제(祭)가 무슨 제, 무슨 제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이고 있음은 일본식이나 서구 기독교적 가면무도회, 연회, 경기처럼 여흥 위주의 축제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한국 축제의 특징은 휘스트(feast)로서의 특성도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판 중에 먹자판이 있다. 놀자판, 먹자판이 가끔 질서를 잃고 경(敬)을 잃어 개판, 깡판이 되지만 그것은 후대에 생긴 말이다. 한국의 어느 고장에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사상이 없을까마는 보수적 기질 하에서 민속적 축제행사로 구체화시킨 곳이 있으니 강원도 강릉의 청춘경로회(靑春敬老會)가 그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 44권 강릉대도호부에 의하면, 매년 3월이 되면 날씨가 청명한 날을 택하여 70세 이상 되는 연장자들을 명소에 초대하여 위안회를 개최하는데 악공들을 불러 삼현육각을 불고 기생들이 동원되어 술을 따르고 노인들을 청춘의 심경으로 돌아가도록 잘 대접했다<sup>24)</sup>고 하니 이런 놀이형 잔치야말로 한국적인 놀이라 아니할 수 없다.

## 2) 주기

민속문화는 한 나라의 원초적이고 구심점을 이루는 전승문화이다. 그것은 세시풍속으로도 신화로도 표현되고 있으나 민속놀이나 민속연극으로 구현되기도 한다. 이 놀이문화는 축제라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신이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인 시간의 주기성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민속놀이의 의의를 갈등의 원리와 대립의 원리에서 출발한 제의성에서 찾으려는 몇몇 학설이 있다.<sup>25)</sup> 이는 줄다리기를 한다거나 차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율놀이를 한다 해도 그 민속놀이가 최초로 가졌던 신화소가 있으며 향토소가 있다는 말과 일치한다. 반 게네프(Van Gennep)가 말한 통과의례의 이동(movement), 진행(process), 환치

24) 김선풍·김수남, 《강릉단오굿》, 열화당, 1987, p.139.

25) 金烈圭, 前掲書, p.141.



(dislocation)의 개념 대로 우리는 생을 살아가면서 거쳐야 하는 구획된 과정이 있다. 그곳에는 철학적인 상징성이 늘 따라다니는데, 이는 한 역할이 다른 역할로, 한 문법(文法)이 다른 문법으로 이행(移行)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모든 놀이(plays)나 싸움(games)이나 기타 모의행위에는 상징이 따른다.<sup>26)</sup> 우리가 상징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대상이 상징으로 전환되는 조건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요소가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변화(shift)된다든가 통과(passage)할 때 상징은 일어난다.<sup>27)</sup>

우리 생활의 주기는 4계가 있고 12달이 있으며 시절·시간·분·초로 구획시켜 놓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서 불교에서는 10분법으로 숫자를 시간과 연결시켜 한 없는 시공을 계산하려 하고 있으니 찰나·겁·불가사의 등이 그것이다. 한 철에서 다른 철로 전환될 때, 이룰테면 겨울 동장군이 물러가고 새해로 접어들 때라든가 봄이 끝나고 하절기로 접어들 때 축제의 무드 속에서 놀이가 시작된다.

놀이는 보통 일상의 생활[일]과 다르다. 일상을 벗어난 시간이다. 신성(神聖)과 속(俗)의 반전(反轉)이다. 그것은 규칙과 역할의 전도일 수도 있고 가치에 대한 부정 등의 현상일 수도 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시공의 지배를 받는다. 우선 시공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색하기에 이른다. 시공의 지배자는 우리에게 빛과 광명을 주는 해와 달임을 알게 된다. 또, 빛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의 리듬까지 지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실로 존경의 대상임을 알게 되고 신앙심이 우러난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속(俗)이라면 빛의 세계는 신의 세계요, 성의 세계이다.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인간의 꿈은 오랜 것이어서 캘린더 리추얼을 만들기에 이른다. 시공의 발견은 곧 최초의 문화의 발견이다.

26) © Munro S. Edmonson, 《Lore(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Folklore and Literature)》, Holt, Rinehart & Winston, Inc., 1971, p.165. "Symbols also present in rudimentary form in ritual, in games, and in children's play."

⑤ Paredes & Bauman, 《Toward New perspectives in Folklore》, the Univ. of Texas Press, 1975, p.69. "Festival behavior is, of course, meaningful, and it acquires its meaning in the same way as any other normative behavior, through repetition in a certain context, that is, through tradition. Further, the behavior is symbolic."

27) 姜信杓, 《축제에 대한 社會人類學的 小考》(~브라질의 카니발을 중심으로~), 《놀이문화와 축제》, 李相日 編,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8, p.17.

영어로 Sunday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식으로써 기념하는 날이고 다른 어느 날보다 더 경배하는 날인데, 이는 원래 태양숭배사상에서 나온 것이다.<sup>28)</sup> 시간을 토막낸다는 관념은 시간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여기에 엘리아데(M. Eliade)가 말하는 신성이 살아 있었던 시대, 신화적 시간에서의 희귀가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은 신성의 존재를 발견하고 싶다는 희망이며 일찍이 존재했던 신성하고 순수한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동경인 것이다.<sup>29)</sup> 이 신성성의 세계[이상향]로 가고자 하는 제의과정은 곧 생사의 주기성 속에서의 부활인 것이며 그 속에서 놀이문화는 탄생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성의 세계로 잡은 대상은 각 민족의 문화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신인 해나 달은 일력제의(日歷祭儀)와 월력제의(月歷祭儀)를 각기 낳게 한다.

우리의 발음만 신이 아니라 옛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달을 신(sin)이라고 불렀고 ‘지혜의 신(the God of Wisdom · the Illuminator)’이라고 명명하였다. 바빌로니아로 흡수된 칼데아 사람들 역시 달을 숭배하여 달신인 Sin Hur를 믿었다. 시리아어로도 현재 달의 이름이 Sin이며 Sinai(모세가 신에게서 십계명을 받았다는 곳), 곧 아라비아의 산도 달을 봉헌하던 곳이기 때문에 헤브루(유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성스럽게 모셨던 성소이다. 히브리어로 שׁ 또는 שׂ, 신의 뜻이다. 이 상형문자는 산(山)자와 비슷하고 산 위에 신이 좌정(坐定)한 모습을 상징한 것이다.

서구에 있어서는 그리스의 달의 여신, 곧 사랑과 풍요의 여신이라고 일컫는 Artemis(Sellene)를 빼놓을 수 없다. 뒤에 로마 시대에는 태양신인 Apollo(또는 Luna)의 누이인 Diana를 믿었다. 또 티벳의 불교도와 알바니아, 이집트 사람들은 달에게 희생축제를 올린다.

달은 그리스인들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피에 굶주린 잔인한 존재는 아니지만 복수심이 강한 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경건하게 위해야 했다. 히포크라테스도 인간이 밤에 공포와

28) Elfrida Vipnt, (Some Christian Festivals), Roy Publishers, Inc., New York, 1963, p.15. "Sunday was the day when the Early Christians regularly commemorated the Resurrection, and when more than at any other time they came together to worship, and it very soon took the place of the Jewish Sabbath(the seventh day of the week) as a day of rest and refreshment of spirit, the worship of the sun."

29) 李相日, 《民族心像의 藝能學》, 시인사, 1984, p.129.



두려움에 싸이고 광기가 흐르는 것은 달의 여신이 방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중세유럽인들은 달을 지옥의 권좌에서 군림하는 신이라고 상상하게 되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가 전한다.

어떤 사람이 일요일에 교회도 가지 않고 숲 속에 방황했다. 조금 후에 낯선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왜 교회를 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숲을 거닐고 있던 사람은 오늘이 일요일이든 월요일이든 난 상관 없다고 대꾸하였다. 그랬더니 그 이상한 사람[천사]은 그를 Sabbath를 깬 것에 대한 경고[벌]로 달로 추방해 버렸다고 한다.

심지어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 주민들은 달을 지상에서 죽은 그들의 임금이나 추장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믿고 있는데, 천국을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낙원으로의 향수는 원시시대부터 있어 왔고 이곳에서 월력제이나 축제와 놀이가 발생하였다. 그 달 속의 낙원정토에는 모기도 없고 괴롭히는 적도 없는 곳<sup>30)</sup>임을 인디언족 [Saliva]들은 믿고 있다.

그들의 근원에서의 향수병과 희귀성, 그리고 위대한 시간을 통한 세속적 존재와의 단절은 이상의 세계일 뿐 현실에서는 그 대상을 믿음으로써 무엇을 반대급부적으로 얻으려 했을까 하는 점에 이르게 된다. 그들의 현실은 고해의 연속이다. 원시인들은 그들이 활동하는 밤낮의 시간을, 해와 달이 뜨는 시간을 토막쳐서 명명해 놓았고, 한 달[月]이 29와 2분의 1인 것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 month란 단어가 앵글로색슨어인 mona(달)에서 나온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매년 두 주야평분시(晝夜平分時 · equinoxes)와 두 지점(至點 · solstices)이 있어서 3월 21일을 춘분(vernal equinox), 6월 22일을 하지(summer solstice), 9월 23일을 추분(the autumnal equinox), 12월 22일을 동지(the winter solstice)라고 불렀다. 물론 밤낮의 주기가 하루이고, 7일의 주기가 1주이고, 각 주의 주기가 1달이고, 12달의 주기

30) Paul Katzeff, *(Full Moons)*, Cital Press, Secaucus, N. J., 1981, p.38.

가 1년임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원시시대에 해와 달을 관찰하면서 가장 중요한 별들을 발견했으니 그것이 Mercury, Venus, Mars, Jupiter, Saturn이다. 그리하여 해와 달과 이들 다섯 별이 주기성을 가지고 돈다고 믿었다. 우선 해가 첫날을 지배하고 달이 다음날을 지배하고, 그 다음 별들이 각각 한 날씩 지배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Sun-day(sunday), Moon-day(monday), Mars-day (Tuesday), Mercury-day(Wednesday), Jupiter-day(Thursday), Venus-day(Friday), Saturn-day(Saturday)로 된 것이다.<sup>31)</sup> 리듬과 반복, 단락과 분단으로 시공을 이해는 했으나 그 시공을 좁혀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 그들의 과제였으니 이것이 하늘나라를 경배하는 축제의 식과 축제놀이로 빚어진 것이다.

축제는 신화이다. 필자는 “향토축제는 신화적 뿌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적이 있다.<sup>32)</sup> 적어도 신화가 있어야 한다. 또한 놀이 역시 신화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을 때 튼튼한 반석에 서 있는 것이다. 지상에서 그네들은 농경민답게 자연경배사상이 싹틔고 자연경배는 마침내 4계절의 시작을 축하하는 제의로 나타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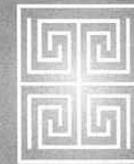
축제는 또한 역사이다. 그들은 기념할 만한 날에 축제를 벌이는데, 이를테면 큰 홍수의 파괴로부터 탈출했다든가, 적을 섬멸한 큰 전과가 있을 때라든가, 노예생활로부터 해방된 날이라든가, 종교적인 위대한 성현을 모실 때라든가, 폭정으로부터 해방된 날이라든가, 이렇게 나라마다 자국 환경에 맞는 축제가 자생소멸하였다.

그러면 한국인이 믿었던 축제놀이의 근본은 어디에 있을까? 태양인가, 달인가?

우선 태양숭배를 인정하면서도 축제의 기본은 달의 축제였음을 주장하고 싶다. 지구상의 어느 국민치고 수확의 기쁨을 구가하고 축하하지 않을 민족이 있겠는가. 한국은 물론이고 대부분 동양권의 축제는 달의 탄생(the birthday of the moon)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국민은 달의 생일을 ‘Succoth’라 했고, 아리아족에 속하는 힌두족은 그것을 ‘Kojagari Purnima’라

31) Joseph Gear, 《Holidays around the World》, Little, Brown & Company, Boston, 1953, pp.7~8.

32) 《郷土祝祭의 方向 모색》, 《郷土祝祭調査報告書》, 郷土祝祭協議會, 1984, p.142.



했다.<sup>33)</sup> 서구 사회에서는 추수제(harvest home)라든가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라고 부르는데, 이는 신과 자연의 법칙과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는 것인 동시에 가정과 마을, 국가의 안녕을 비는 경건한 축제인 것이다.

해와 달과 별의 자연신앙을 통해서 한국인은 양과 음의 상극적이면서 조화적인 철학사상까지 발견하게 된다. 태극을 사랑하는 이원론의 조화가 그것이다. 양의 세계가 적극적이고 남성적인 세계라면 음의 세계는 부정적이고 수동적이며 여성의 세계에 속한다. 한 예를 들어 자연물까지도 음양원리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산이 양이라면 골짜기는 음이다. 또 고정된 별이 양인 데 반해 살별은 음이다. 심지어는 숫자까지도 1·3·5·7·9는 남성 상징의 양인 데 반해 2·4·6·8·10은 여성 상징의 음에 해당된다. 모든 양 속에는 태극 마크처럼 음이 포함되어 있다. 태양은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양의 세계를 표현한 sun의 세계를 뜻하고 태음은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음의 세계를 표현한 moon의 세계를 뜻한다. 그러면 이 두 세계를 조화시켜서 무엇을 얻으려 했던 말인가. 우리 민속놀이는 줄다리기, 고싸움, 농기싸움 등의 표현 상징에서 알 수 있듯이 양(+)과 음(-)의 대결을 설정하여 놀이나 경기를 즐긴다. 이는 다름 아닌 원시 심성을 지극히 잘 나타낸 풍양(豐穰)의 기원, 풍염(豐稔)의 기원, 풍획(豐獲)의 기원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차전놀이, 고싸움 등의 놀이판이 둥근 원을 그리는 것도 그러하거니와 먹고 마시는 음식과 그릇 하나마다 둥근 원, 곧 달과 해에 대한 유사·감염주술에서 출발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달의 모습은 둥그렇다. 그것은 풍만이요 다산이다. 그것은 곡식이나 어획이나 사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다산에도 영향을 준다. 그린랜드 사람은 달이 특정한 간격으로 찾아와 그들의 아내가 임신을 한다고 믿는 속신이 있으며, 몇몇 나라에서는 처녀가 만월을 뚫어지게 보아도 임신한다고 믿고 있다.

프레이저(Frazer)의 보고에 의하면 그린랜드 사람들은 달을 젊은 남자로 보고 있다고 한다. 폴리네시아인과 에스키모인들은 달 속에 있는 남자는 대단한 플레이보이라고 믿고 있다. 폴리네시아 사람들은 지상의 남편과 하늘나라에 있는 배우자 두 사람의 힘에 의해 수태를 한다고 믿고 있다. 자연적으로 인간과 달을 통해서 성적인 관계로 주원(呪願)·주감(呪感)하고

33) Joseph Gear, 前掲書, p.10.



## 중구의 축제

있다. 성적인 성공, 그것은 수확의 풍요를 의미하고 인간의 번영을 뜻한다. 정월 대보름 밤에 온 동네가 밤새워 줄다리기를 하는 것도 이런 사상을 그대로 안고 있다.

서구도 마찬가지이다. 옛 그리스인이나 로마인, 유대인들은 만월(full moon)이 결혼의 가장 적기라고 믿었고 폴리네시아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관행을 실시하고 있다. 달을 여신의 자격으로서 위대한 대자연(대지)의 어머니(The Great Mother)로 여겼던 그리스의 Artemis, 로마의 Diana, 바빌로니아의 Ishter, 폴리네시아의 Asthoreth, 소아시아 프리지아의 Cybele는 모두 만월=여성(어머니)=생산=대지의 유사관념들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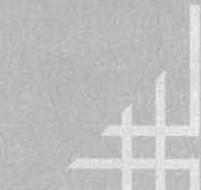
그밖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중국 등에서는 달을 여성으로 보지만, 독일인을 비롯해서 에스키모인, 히말라야 산맥의 Khasias 부족인, 이집트인, 페루인은 달을 남성으로 취급하고 있다. 어쨌든 문화의 강도 면(面)으로 볼 때 우리 문화는 달 문화권임을 부정할 길이 없다.



제 2 장

.....

민속놀이의 역사와 분류





# 1. 한국 민속놀이의 분류

일찍이 송석하(宋錫夏)는 민속놀이를 분류함에 있어 난장놀이와 대동놀이 두 가지로 구별 하였거니와 전자는 다분히 흥행적 색채, 곧 어떤 사람의 직업적 전제 하에서 일정한 예인(藝人)이나 반예인(半藝人)이 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와 반대로 한 부락이나 한 단위가 직업적 의식을 떠나서 경비와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자기들 자신이 스스로 환락을 찾는 것을 말한다 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류표를 제시하였다.<sup>1)</sup>

## 가. 기구상 분류



[비고] '모래찜'이라 함은 熱沙浴을 말하는 것으로 이 표에는 전북 익산과 같은 연중행사적인 오락을 말함. 碁博을 노인의 오락에 편입함은 편의상으로 如此히 취급함.

1) 宋錫夏, 《韓國民俗考》, 일신사, 1960, pp.306~312.



나. 계절적 분류(연중행사)

- 정월  
擲柶, 跳板(널뛰기), 索戰, ※石戰, 紙鳶, 가면극, 지신밟기, 木牛戲, 迎月, 踏橋, 놋다리밟기, 車戲, 野火戲, 炬火戲, 사자무, 從鄉圖
- 2월  
머슴날놀이, 燃燈祭
- 3월  
花煎놀이(꽃다림), 경로회, ※節遊, ※鄉飲酒禮, 궁술희, 극락맞이(개성), 餞春
- 4월  
파일놀이(八日), 倡調劇舞踊影繪(shadow drama)
- 5월  
단오놀이(鞦韆, 脚戲, 가면무용, 사자무, 가면극, 偶人劇), 성황제, 移秧農樂
- 6월  
流頭놀이, 三伏놀이, 川獵, 除草農樂
- 7월  
百中놀이, 머슴草宴, 두레놀이
- 8월  
秋夕놀이(脚戲, 索戰, 가면극, 인형극, 倡調劇, ※백일장), 龜戲, 照里戲, 소먹이, 中路보기, 강강수월래
- 9월  
단풍놀이
- 10월  
農功舞踊
- 11월  
팽이(獨樂)
- 12월  
팽이, 紙鳶, 從鄉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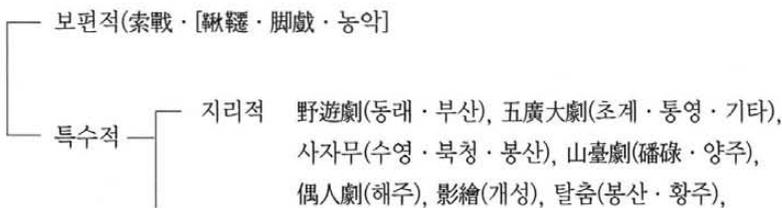
### 다. 관념적 분류

- 情緒感情上  
가면극, 가면무용, 지신밟기무용(일명 꾀지나칭칭 또는 칭칭이), 偶人劇, 사자무, 강강수월래무용, 農旗패무용(移秧, 除草, 農功), 農漁舞踊, 花煎, 草遊, 影繪劇
- 射幸感情上  
擲柶, 索戰, 石戰, 紙鳶, 차전, 궁술, 獨樂, 골패, 투전, 돈치기, 基, 장기, 鬪牛
- 宗教信仰上  
가면무용, 가면극, 지신밟기, 索戰, 石戰, 木牛戰, 迎月, 踏橋, 野火戰, 炬火, 燃燈祭, 극락맞이, 老會, 성황제
- 享樂上  
머슴날놀이, 농악, 祝福놀이, 百中, 단풍놀이, 船遊, 川獵, 三伏놀이, 流頭놀이
- 身體競技上  
索戰, 石戰, 차전, 踏橋, 넛다리밟기, 궁술, 脚戲, 鞦韆, 炬火戲, 跳板, 及 지신밟기 무용

### 라. 지리적 분류

- 南嶺地方  
추석놀이, 가면극, 사자무, 지신밟기, 넛다리밟기, 차전, 머슴놀이, 花煎놀이, 강강수월래, 농악, 모래찜질, 索戰, 脚戲, 鞦韆, 跳板
- 中鮮地方  
四月八日놀이, 단오놀이, 鞦韆, 索戰, 石戰, 脚戲, 극락맞이, 가면극, 跳板
- 北鮮地方  
단오놀이, 가면무용, 사자무, 官員놀이, 鞦韆, 脚戲, 跳板

### 마. 존재상의 분류



官員놀이(북청), 지신밧기(경상도 일대),  
 祝福놀이(정주), 中路보기(전라북도), 극락맞이(개성),  
 別神굿(남해안), 소맥이(황주), 술맥이(김제)  
 거북놀이(利川), 農事狀元(울산), 배뱅이굿(평북),  
 놋다리밧기(안동), 차전(안동), 鬪牛(진주)

계절적 —————  
 ————— 일반적 - 享樂的/宗教的  
 ————— 노동적 - 享樂的/勞作的

附. 신식오락

연극, 歌劇, 음악회 及 은악(器樂·聲樂), 무용, 소시얼 댄스, 野談, 정구, 탁구, 축구,  
 釣魚, 영화, 曲馬, 축음기, 라디오, 당구, 화투, 麻雀, 歌鬪, 등산, 사진, 역기, 골프, 승마

이상과 같은 송석하의 분류는 민속놀이 전반에 관한 분류가 우리 나라에서 처음 시도되었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민속놀이를 흥행적 색채를 띠고 직업적인 난장놀이  
 와, 이와 반대로 한 부락이나 단위가 스스로 즐기는 비직업적인 대동놀이로 크게 그 성격을  
 구분하였고, 5가지의 분류방법을 채택하여 그에 해당하는 놀이들을 다양하게 분류·제시함  
 으로서 민속놀이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그 범주에 있어서 노름과 개인적인 오락, 취미 등까지 포함하고, 여기에 별도로 신식오  
 락까지 첨부하여 폭 넓은 시각을 보인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몇몇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놀이의 범주를 넓게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난장놀이에 해당되는 직업적인 놀이집단의 전문적인 놀이인 줄타기·버나돌리기·죽방  
 울받기·장대타기 등과 같은 곡예 부분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는 난장놀이를 별도로 다루  
 지 않았기 때문인 듯한다. 반면에 단소(短簫)·중로(中路)보기·모래찜 등과 같은 개인적인  
 취미나 행사, 풍습까지 놀이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범주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놀이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감도 없지 않다.

분류방법 중 ㉔의 기구상 분류의 경우 연령에 의한 분류가 단순히 약로(若老), 즉 젊은이와  
 노인으로 되어 있어 '약(若)'에 아이들놀이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점이다. 아이들놀이란 지극



히 단순하고 수시로 하는 놀이라서 의미가 크지 않으므로 성격상 어른놀이[성인놀이]와는 구별하여 다루는 것이 좋을 듯하다. ㉔ 계절적 분류의 5월 향과 ㉕ 관념적 분류의 종교신앙상에 있는 ‘성황제’는 단오제 또는 단오굿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의식에서는 의식적인 면과 놀이적인 면을 구별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㉕의 사행감정상황에서 투전·돈치기·투우(鬪牛)·골패 등과 함께 삭전(索戰)·차전(車戰)·궁술·기(碁)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 데 문제점이 있다. 놀이의 방법상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이들을 함께 취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놀이의 고유한 의미가 손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또한 체육경기상 향에서 답교(踏橋)·거화희(炬火戲)·지신밟기·무용 등을 포함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이밖에도 ㉕ 존재상의 분류에서 특수적, 지리적 놀이로 별신굿을 남해안에 국한시키고 있는데, 이는 충청도, 동해안 등 여러 지역에서 널리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자료의 부족과 불충분한 조사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송석하의 분류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민속놀이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송석하 이후에 몇몇 분류 시도가 발표된 바 있으니 다음과 같다.

1982년 6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펴낸 《한국민속대관》의 〈전승놀이〉편에서는 아이놀이, 어른놀이, 경기, 곡예 등 네 가지로 분류하여 개별 놀이에 관한 유래와 역사, 놀이방법 등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1. 아이놀이(池春相)<sup>2)</sup>

- ① 男兒놀이 : 연날리기, 비석치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돌차기, 고누, 차치기, 땃공치기, 竹馬놀이, 돈치기, 못치기, 낫치기놀이, 갈퀴치, 잔부닥불넘기, 쪽기접시, 쥐불놀이.
- ② 女兒놀이 : 공기놀이, 콩주워먹기, 남생아놀아라, 고사리꺾자놀이, 청어엮자놀이, 기와밟기, 덕석물어놀이, 꼬리따기놀이, 문열어라놀이, 가마타기놀이, 땅뺨기놀이, 숨바꼭질, 수건돌리기, 판수놀이, 다리세기, 풀각시놀이, 풀싸움놀이, 닭살이.

2) 池春相, 〈아이놀이〉, 《韓國民俗大觀》 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2, pp.355~433.

2. 어른놀이(崔常壽)<sup>3)</sup>

韓將軍놀이, 龍虎놀이, 차전놀이, 줄다리기, 놋다리밟기, 사자놀음, 널뛰기, 그네뛰기, 龍馬놀이, 옷놀이, 연[紙鳶]날리기, 강강술래, 지신밟기, 打毬놀이, 石戰놀이, 거북놀이, 햇불싸움, 다리밟기, 씨름.

3. 경기(沈雨晟)<sup>4)</sup>

- ① 정월놀이 : 연날리기, 旗歲排, 편싸움[石戰], 고싸움놀이, 동채싸움, 쇠머리대기.
- ② 단오놀이 : 씨름, 그네뛰기.
- ③ 추석놀이 : 줄다리기, 가마싸움, 장치기.

4. 곡예(崔常壽)<sup>5)</sup>

줄타기[踏索戲], 죽방울받기, 장대타기, 馬上才.

〈한국민속대관〉의 분류는 송석하의 것과 비교해 볼 때, ‘아이놀이’, ‘곡예’ 부분이 1차 분류항으로 설정된 반면 ‘노름’은 그 범주에서 제외하여 ‘취미(趣味)’ 부분에서 다룬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놀이’가 추가됨으로써 여기에 속한 개별 놀이들이 많이 보완되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많은 놀이들을 취급하면서 각각 거기에 대한 유래, 역사, 방법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점이 이 책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분류상의 문제점은 놀이계층의 연령에 의한 분류로써 ‘어른놀이’가 설정된 점이다. 이와 상대적인 아이놀이는 어른놀이와 그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아이놀이를 제외한 모든 놀이는 어른놀이이므로 ‘경기’와 ‘곡예’ 부분은 모두 이에 속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른놀이’는 1차 분류항으로 적절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재분류가 필요하다.

또한 하위분류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예컨대 아이놀이는 남녀로 구분하여 2차 분류가 되어 있는 반면, 어른놀이는 그렇지 못하다. 경기 부분의 하위분류도 명절에 의한 것보다는 놀이의 편성인원[집단·개인]에 의한 구분이 먼저 설정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며, 우리의 전통적 놀이인 격구(擊毬)·수박(手搏) 등도 포함하여 다루어야 할 것이다.

3) 崔常壽, 〈어른놀이〉, 前掲書, pp.434~534.

4) 沈雨晟, 〈競技〉, 前掲書, pp.535~603.

5) 崔常壽, 〈曲藝〉, 前掲書, pp.604~610.



그리고 놀이의 범주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해도 취미 부분의 노름에 있는 쌍륙(雙六)·투호(投壺)·바둑 등은 놀이 부분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들은 놀이분류를 각기 다른 필자가 다른 관점에서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김광언은 <한국의 민속놀이>(1982, 11)에서 기존 문헌과 조사보고서, 그리고 북한의 자료까지 망라한 많은 자료들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민속놀이 전방에 관한 상황을 다루고 있다. 모두 211 가지의 놀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주체자에 따른 분류로, 주체자의 나이가 성별에 따라 소년놀이, 소녀놀이, 어린이놀이, 성인남자놀이, 성인여자놀이, 어른놀이, 재주꾼놀이로 구분하였고, 편성인원에 따라 개인놀이, 상대놀이, 집단놀이로 나누었다. 둘째, 목적이나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는 놀이 자체가 목적인 놀이, 풍농을 기원하는 놀이, 내기를 위한 놀이, 겨루기(체육 또는 상무적인) 놀이, 풍어를 기원하는 놀이, 개인의 복락이나 마을의 태평을 기원하는 놀이, 그밖에 불교와 관련된 것, 서당 학동들의 놀이 등으로 나누었다. 셋째, 시기에 따른 분류로 연중 내내 하는 놀이, 정월에 하는 놀이, 대보름날 하는 놀이, 2월에 하는 놀이(영등놀이), 사월 파일에 하는 놀이, 수릿날에 하는 놀이, 백중날 하는 놀이, 한가윗날 하는 놀이, 봄에 하는 놀이, 여름에 하는 놀이, 겨울에 하는 놀이, 기타(봄·가을놀이, 여름·가을놀이, 가을·겨울놀이, 기타놀이)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2차 분류에 따른 구분을 전체 놀이에서 각각 통계를 내어 그 비중을 따져 보기도 하였다. 또한 일반인의 전형적인 집단놀이(특정 전문인에 의해 베풀어지는 재주꾼 놀이는 제외)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예술성, 지역, 관련 인격, 동물, 기간, 시간, 현재 전승상황 등을 도표화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놀이의 분포에 따라, 전국놀이, 향토놀이, 지역놀이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비교를 하였다. 이어서 같은 책 <민속놀이 해설>편에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sup>6)</sup>

### 1. 어린이놀이

고누, 고을모듬, 꼬리잡기, 남승도놀이, 돌아잡기, 돌치기, 봉사놀이, 사람찾기, 산가지놀이, 승경도놀이, 노랫말, 제기차기, 진놀이, 칠교놀이.

### 2. 가물놀이

6) 金光彦, 《한국의 민속놀이》, 인하대학교 출판부, 1982, pp.73~75.

관원놀이, 길쌈놀이, 뚝다리밟기, 농악놀이, 다리밟기, 마당놀이, 문호장굿, 방천놀이, 봉죽놀이, 시  
절웃놀이.

3. 겨루기놀이

격구, 고싸움놀이, 나무쇠싸움, 동채싸움, 수박, 수투, 쌍륙, 줄다리기, 투전, 편싸움, 활쏘기, 헛불싸움.

4. 기타 놀이

기세배, 닭싸움, 등놀이, 마상재, 불꽃놀이, 성돌기, 소싸움.

이 분류에는 하위분류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은 이미 앞에서 다양한 분류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민속놀이의 개념을 넓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름이 빠진 것은 중요하고 권장할 만한 놀이만을 선별하여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네 가지 분류에 기타 놀이가 들어간 것은 편의상의 분류일지라도 분류체계가 영성한 감이 없지 않다. 여기에 내기놀이나 재주꾼놀이 등의 분류도 첨가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김광언의 분류는 우리나라 민속놀이 전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하여 다각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으나, 개별 분류들이 하나의 체계로 모아지지 못한 점이 결함으로 지적될 수 있다.

임동권은 그의 <한국민속문화론>에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민속놀이 부분 출연작품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sup>7)</sup>

1. 신앙성놀이

다리굿, 연등놀이, 관등놀이, 탑돌이, 지신밟기, 입춘굿놀이, 대감놀이, 단오굿놀이.

2. 명절놀이

강강술래, 헛불놀이, 한 장군놀이, 닭교놀이, 거북놀이, 기세배, 뚝다리밟기, 기와밟기, 등바루놀이.

3. 경기놀이

차전놀이, 고싸움, 농기뻗기, 노름줄다리기, 아산줄다리기.

4. 기타의 놀이

해녀놀이, 어방놀이, 쌍룡놀이, 서당놀이, 세경놀이.

7) 任東權, 《韓國民俗文化論》, 집문당, 1983, p.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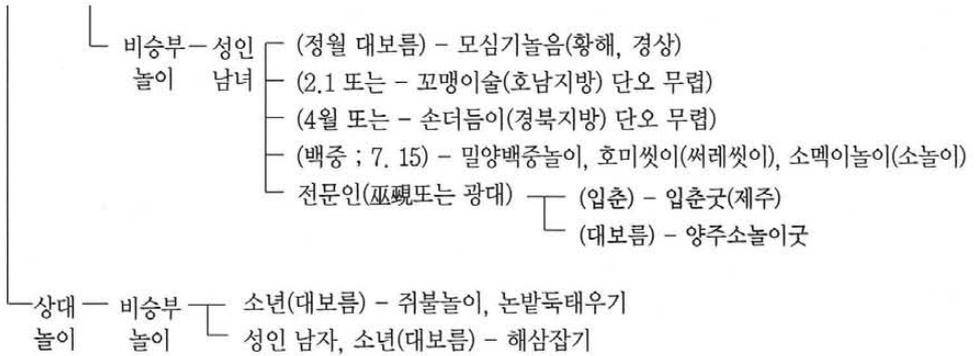
임동권의 분류는 자료면에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한 민속놀이만을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히 아이들놀이가 제외되었다. 그러나 한편 현재 각 지방의 전승상황을 살필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하겠다.

김선풍은 이상과 같은 네 가지 분류체계를 참고로 하고 기존의 역사서(삼국유사, 고려사 등), 세시기, 민속조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모든 자료를 하나의 틀 속에 넣고자 분류체계를 시도해 보았다. 먼저 민속놀이를 명절놀이와 일상적 놀이로 크게 나눈 다음 다시 명절놀이를 그 목적에 따라, 풍농기원(豐農祈願), 풍어기원(豐漁祈願), 벽사진경(辟邪進慶), 제액초복(除厄招福), 놀이 자체가 목적인 비승부놀이, 승부놀이, 내기놀이, 전문인놀이, 기타로 나누고, 그 다음 인원 편성, 승부 여부, 연령 및 성별 등으로 세분하였다. 참고로 명절놀이는 그 시기를 순차적으로 표시하여 시기별 놀이 상황도 알 수 있게 하였다. 일상적 놀이는 놀이 자체가 목적인 비승부놀이, 승부놀이, 내기놀이, 전문인놀이, 기타로 구분하고, 다시 인원 편성, 연령 및 성별, 또는 직업 등으로 세분하였다. 참고로 부기해 둘 것은 하나의 놀이가 다른 분류항에 겹칠 경우 관련 사항을 표시해 놓았다. 또한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놀이라도 지역적 특색이 있는 것은 별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른 경우를 고려하여 이칭(異稱)도 표시해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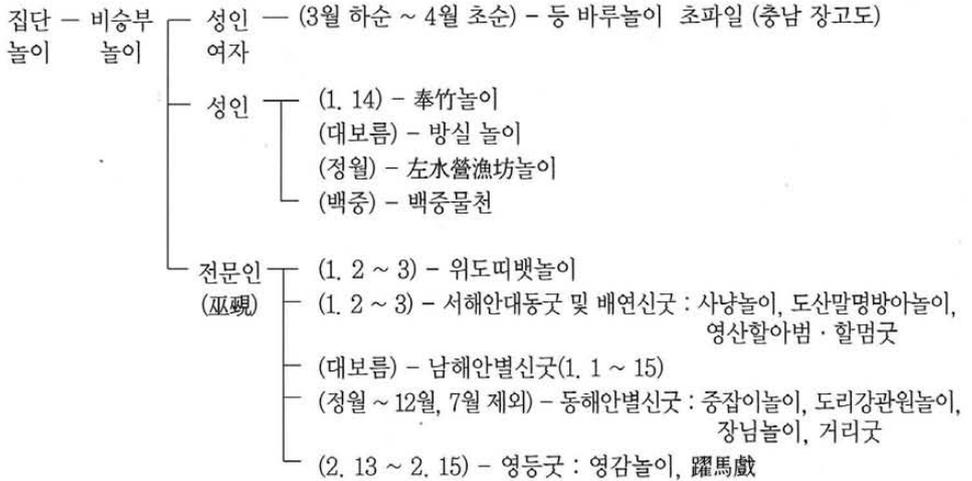
[명절놀이]

(1) 풍농기원놀이

집단 놀이	승부 놀이	성인 남자	石戰[便殿·邊戰], 고싸움, 나무싸움[木牛戰] : 영산쇠머리대기 차전놀이 : 안동차전놀이(동채싸움), 춘천외바퀴수레싸움, 박시싸움(경북군위), 龍虎놀이(또는 辟邪), 龍馬놀이(또는 辟邪), (龍馬놀이(또는 辟邪), 雙龍놀이(김제 碧骨提, 영월), 햇불 싸움, 시절웃놀이(從軍놀이), 웃놀이[擲擲戲, 음력 1.1~1.15] (↔승부놀이)상대놀이)소년·소녀
		대 보 름 ~	
		성인 여자	(대보름) - 강강술래, 놋다리밟기, 기와밟기[의성 꼬깨싸움] (↔비승부놀이), (7.15~8.15) - 길쌈놀이
		성인 남녀	(대보름) - 줄다리기 : 機池市줄다리기, 삼척기줄다리기, 양산줄다리기, 立石줄다리기 (추석) - 照里戲(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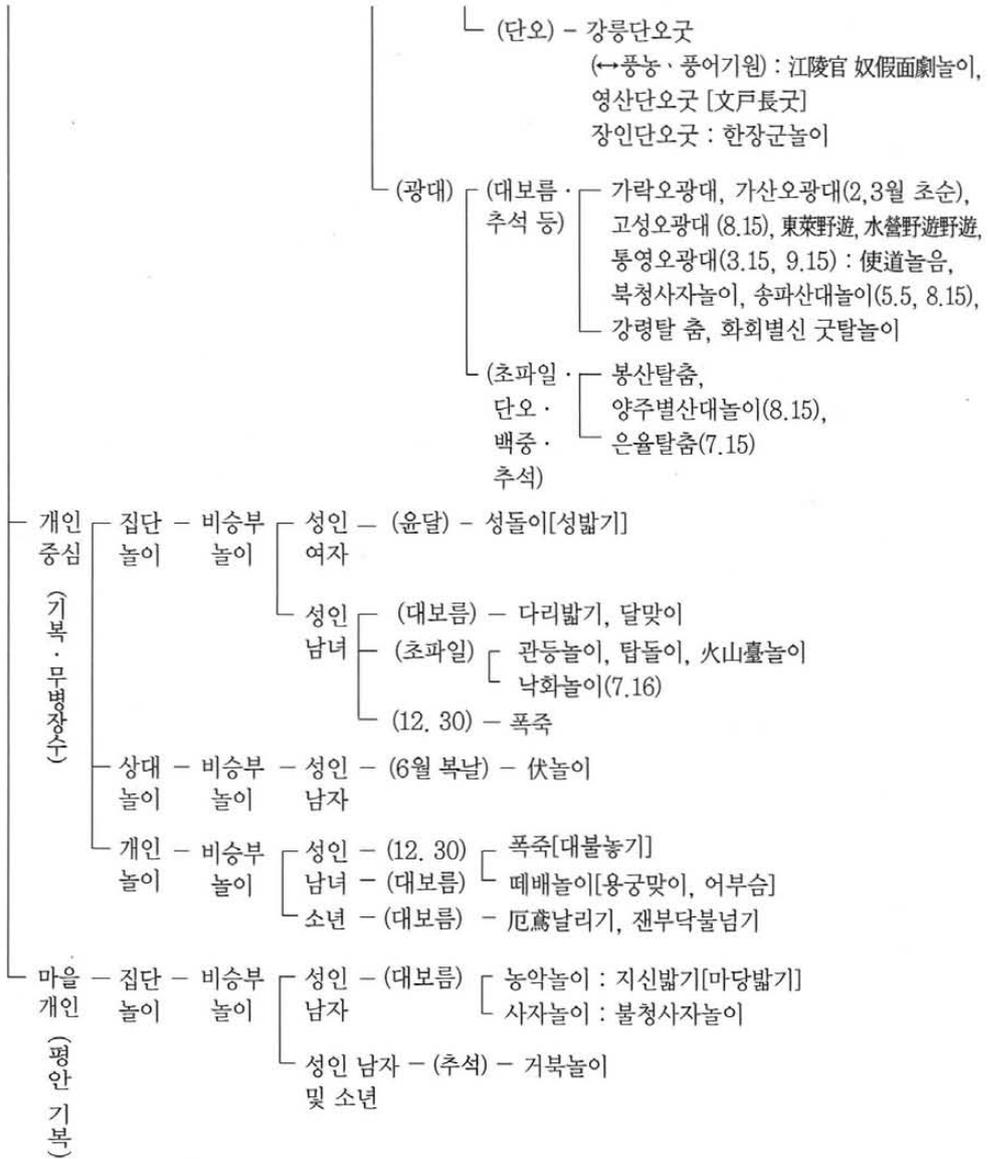


(2) 풍어기원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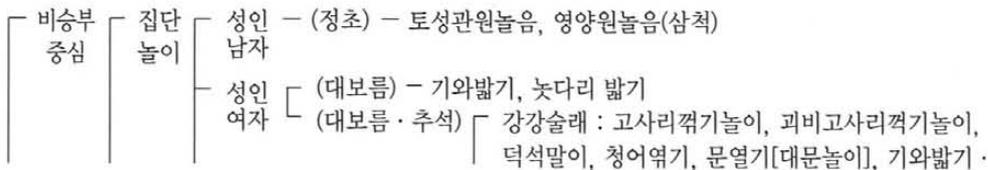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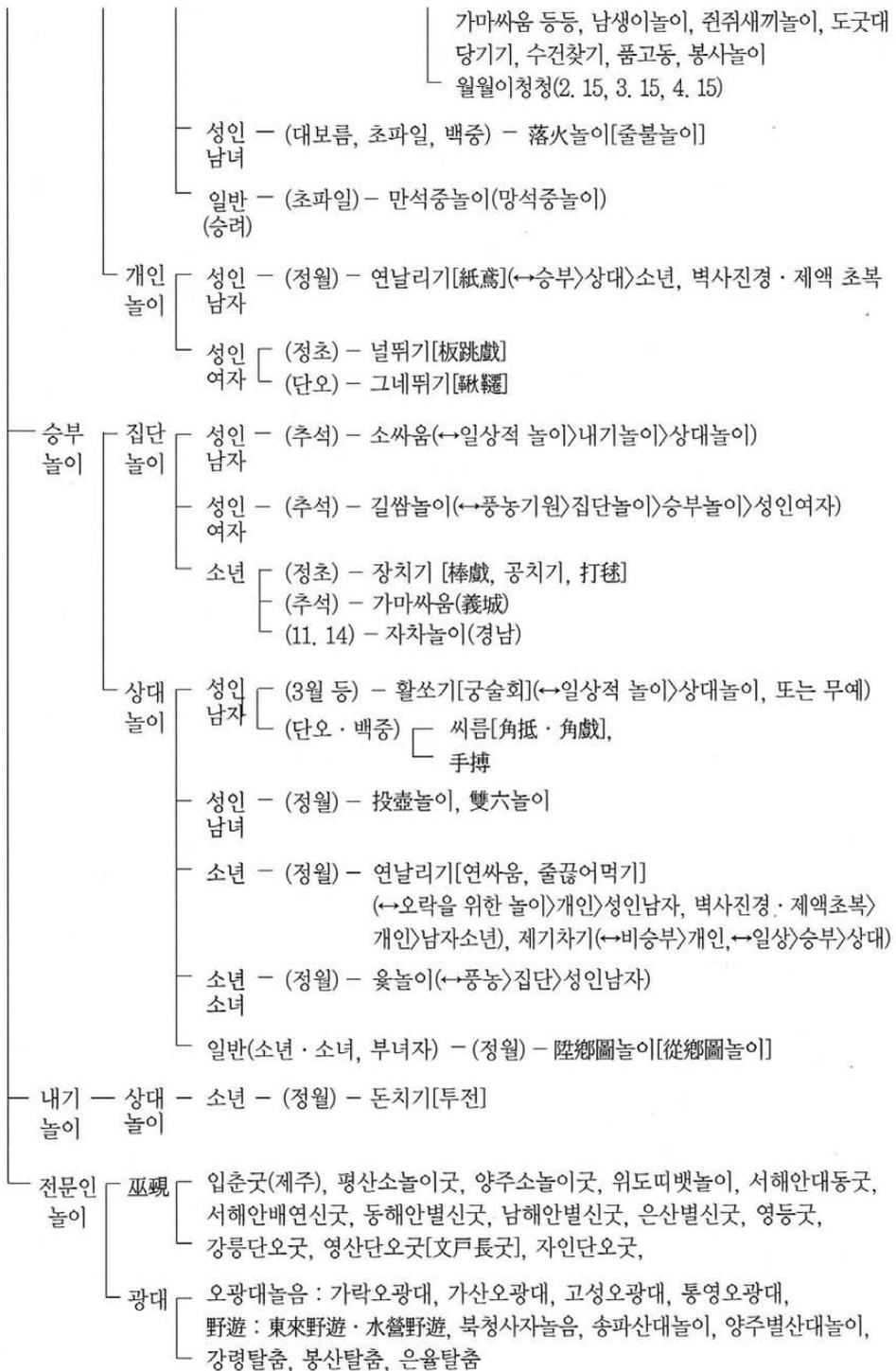
(3) 辟邪進慶 · 除厄招福을 위한 놀이





(4) 오락을 위한 놀이







[일상적 놀이]

(1) 비승부놀이

- 집단 놀이
  - 성인 여자 — 꼬대각시놀이[당골놀이, 춘향각시놀음], 해녀놀이(제주), 방천놀이(함북중성, 초여름)
  - 성인 남녀 — 꽃놀이[꽃다림](봄): 花煎놀이, 花柳놀이, 벚꽃놀이, 단풍놀이(가을), 경로회
  - 소년 (부녀자) — 고사리썰자, 덕석말이(명석말이), 가마타기(↔명절놀이)풍농기원)
  - 소년 소녀 — 꼬리따기[꼬리잡기 · 수박따기 · 호박따기 · 권귀새끼놀이 · 닭살이 · 족제비놀이 · 동아따기], 대문놀이, 보물찾기
- 상대 놀이
  - 성인 남자 — 川獵(봄 · 여름), 떠놀이(영월), 만(萬)동생(강원도), 詩會(시조짓기)
  - 성인 여자 — 시조놀이[歌鬪](↔일상적 놀이)승부놀이)성인여자)
  - 성인 남녀 — 소설읽기(이야기책 읽기)(↔일상적 놀이)비승부)개인)
  - 성인남녀, 어린이 — 풀무놀이[부라부라]
  - 소년 — 서리(여름), 깡통차기, 말타기, 원님놀이[양반놀이], 竹馬놀이[대말타기](↔일상적 놀이)비승부)개인), 지게발걸기, 딱총놀이
  - 소년 (부녀자) — 나물캐기(봄), 풀갈시놀이[각시놀음](봄), 고무줄놀이, 모래주머니돌리기(↔일상적 놀이)승부)상대놀이), 반지숨기기놀이, 실뜨기
  - 소년 소녀 — 두꺼비집짓기(여름), 눈사람만들기(겨울), 눈싸움(겨울), 가마타기[가마놀이], 그림자밝기, 글자알아내기[글자알아맞추기], 기차놀이, 봉사놀이[까막잡기, 판수놀이], 다리세기, 닭잡기, 독장수놀이, 사람찾기, 소꿉장난, 소문놀이, 손뼉치기, 손뽕치기, 수건돌리기, 숨바꼭질[술래잡기], 시소놀이, 얇은뱅이놀이, 어깨동무, 이름대기, 줄넘기
- 개인 놀이
  - 성인 남자 — 낚시, 濯足(여름), 觀魚, 觀潮
  - 성인 남녀 — 소설읽기(↔비승부놀이)상대)(겨울)
  - 소년 — 새잡이(겨울), 썰매타기(겨울), 팽이치기(겨울, ↔일상적 놀이)승부)상대), 제기차기(↔명절놀이)승부)상대), 풍덩이놀리기(여름), 물방울치기 [쫄기접시, 水跳遊], 굴렁쇠놀이, 竹馬놀이(↔일상적 놀이)비승부)상대)
  - 소년 — 파리불기(여름), 봉선화물들이기[指梁](여름)
  - 소년 소녀 — 호드기불기[홀미기불기 · 버들피리불기 · 柳笛 · 柳笙](봄), 풀피리불기[草琴 · 草笛]소녀 (봄), 방아깨비놀이[땅가비놀이](여름), 빨기뽑기(여름), 얼음치치기(겨울), 산가지놀이(↔승부놀이)상대놀이), 미끄럼타기, 바람개비돌리기(팽돌이, 회회아), 술걸이놀이, 줄넘기(↔비승부놀이)상대놀이), 종이접기, 그림자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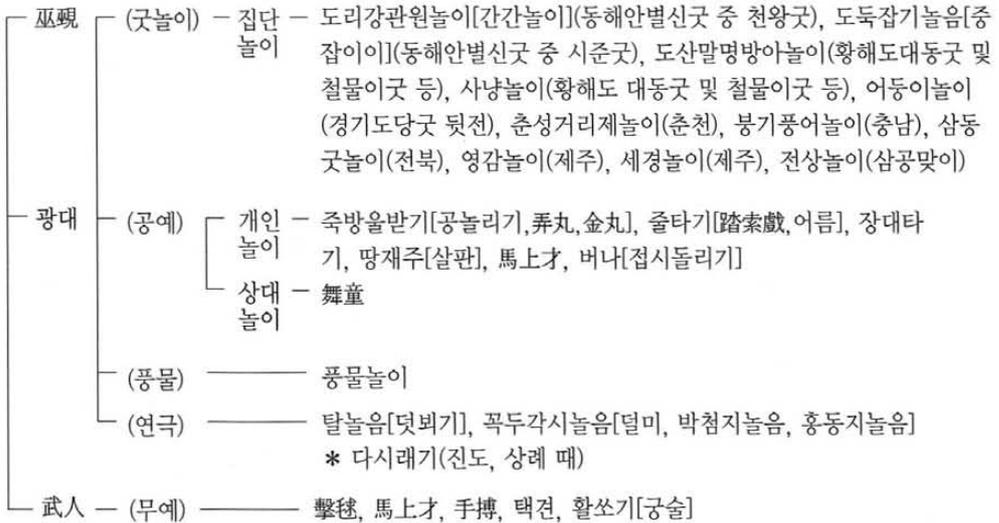
(2) 승부놀이

집단 놀이	성인	— 擊毬[打毬·弄杖戲], 蹴鞠
	남자	
상대 놀이	소녀	— 장치기[棒戲](정초), 자차놀이(↔오락을 위한 놀이)승부)집단)소년)
	성인	— 바둑, 장기, 樗蒲, 팔씨름(↔승부)상대)소년),
	남자	手搏, 택견, 활쏘기[弓射] (↔명절놀이)승부)상대)
	성인	— 시조놀이[歌鬪] (비승부놀이)상대)
	여자	
	성인	— 勵志圖
	남녀	
	성인	— 시조놀이[歌鬪](↔일상적 놀이)승부놀이)성인여자)
	여자	
	소년	— 자치기(겨울), 팽이치기(↔비승부놀이)개인), 제기차기(↔명절놀이)승부)상대, 비승부)개인), 깨끔발싸움, 고누, 고을모듬놀이, 군사놀이, 覽勝圖, 뗏공치기 [막대치기], 복싸움놀이[보무너뜨리기](여름), 비석치기[비사치기] 曹操잡기, 陳놀이[진잡기, 진뻗기], 물방울치기[水跳遊](↔비승부놀이)개인), 찜뽕놀이[뽕을 치기], 팔씨름(↔승부놀이)상대)성인남자)
소녀	— 고무줄놀이(↔비승부놀이)상대), 공기놀이, 모래주머니돌리기(↔비승부놀이)개인)	
소년	— 풀싸움놀이[꽃싸움, 풀씨름](봄), 풀문기놀이(여름), 가위바위보, 산가지 놀이, 七巧놀이,	
소녀	돌차기[오랫말, 사방치기, 깨끔차기, 목자놀이, 밭전놀이], 땅쟁먹기[땅뻗기]	
일반	— 윷놀이	

(3) 내기놀이

집단 놀이	— (X)	
상대 놀이	성인	— 노름[도박] : 골패, 덕대놀이, 투전, 마작, 화투, 살랭이놀이(전남 진도),
	남자	數鬪錢(양반) 동물싸움 : 소싸움(↔명절놀이)승부)집단), 닭싸움[鬪鷄], 개싸움[鬪犬]
소년	— 돈치기(↔명절놀이)내기), 엇치기(겨울), 갈퀴치기(겨울), 구슬치기, 낫치기, 딱지치기, 못치기	

(4) 전문인 놀이



필자는 몇 년 전 논문에서 한국 민속놀이의 장르를 종교의식의 ‘굿놀이계 민속놀이’, 농경의식의 ‘기풍계(祈豊系) 민속놀이’, 유희본능의 ‘오락성과 신체단련민속놀이’로 간단히 분류·구분한 바도 있으나<sup>8)</sup> 여기서는 보다 많은 민속놀이 자료를 종합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았다.

실상 하나의 분류란 하나의 해체이며 종합이다. 여러 속(屬)·항(項)·목(目) 등이 있어 잎·가지·줄기·뿌리로 토막칠 수 있지만 이는 전체 종합이나 지식체계의 파악을 위한 작업의 일단이다. 그러니 우리는 민속놀이를 앞에 든 까이요와의 이론에 따른 파이디아와 루두스로 분류할 수도 있겠고, 사계 단위나 명절단위 등 여러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다만 종래 제반 민속자료를 종합·분류하는 데 그치기로 하고 그 분류의 장단처(長短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급은 후고로 미루기로 한다.

8) 金善豊, 〈原州地方 民俗놀이 研究〉, 《碧棲崔承洵博士華甲紀念論叢》, 1987, pp.263~264.

## 2. 중구 민속놀이의 분류

청계천 민속놀이 내용으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놀이가 발견된다.

꼬리잡기, 그림자놀이, 글자알아내기, 기차놀이, 눈[眼]싸움, 두꺼비집짓기, 사람찾기, 산가지놀이, 손뼉치기, 수건돌리기, 술래잡기(숨바꼭질), 이름대기, 줄넘기, 칠교놀이, 풀싸움, 풀피리불기, 고기잡이, 제웅치기, 각시놀이(풀각시놀이),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파리불기, 다리세기, 소꿉놀이, 실뜨기, 깡통차기, 깨끔발싸움, 고누, 공치기, 구슬치기, 군사놀이(병정놀이), 굴렁쇠놀이, 딱지치기, 땅재먹기, 돈치기, 진치기, 돌치기(비석치기), 말타기(말뚝박기), 썰매타기(얼음지치기), 종경도(승경도)놀이, 연날리기, 엿치기, 팔랑개비돌리기, 자치기, 장치기, 제기차기, 쥐불놀이, 팽이치기, 총싸움, 닭싸움, 그네, 널뛰기, 화전놀이, 씨름, 활쏘기, 장기, 바둑, 윷놀이, 줄다리기, 돌싸움, 연등놀이, 다리밟기, 남사당놀이, 산대놀이, 선소리산타령 등

이들 놀이를 주체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종류	민속놀이
함께하는 아이 놀이	꼬리잡기, 그림자놀이, 글자알아내기, 기차놀이, 눈(眼)싸움, 눈(雪)싸움, 두꺼비집짓기, 사람찾기, 산가지놀이, 손뼉치기, 수건돌리기, 술래잡기(숨바꼭질), 이름대기, 줄넘기, 칠교놀이, 풀싸움, 풀피리불기, 고기잡이, 제웅치기 등
여자아이놀이	각시놀이(풀각시놀이),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파리불기, 다리세기, 소꿉놀이, 실뜨기 등
남자아이놀이	깡통차기, 깨끔발싸움, 고누, 공치기, 구슬치기, 군사놀이(병정놀이), 굴렁쇠놀이, 딱지치기, 땅재먹기, 돈치기, 진치기, 돌치기(비석치기), 말타기(말뚝박기), 썰매타기(얼음지치기), 종경도(승경도)놀이, 연날리기, 엿치기, 팔랑개비돌리기, 자치기, 장치기, 제기차기, 쥐불놀이, 팽이치기, 총싸움, 닭싸움 등
여성놀이	그네뛰기, 널뛰기, 화전놀이 등
남성놀이	씨름, 활쏘기, 장기, 바둑 등
대동놀이	윷놀이, 줄다리기, 돌싸움, 연등놀이, 다리밟기 등
놀이패놀이	남사당놀이, 산대놀이, 선소리산타령 등



또 시기별 민속놀이 분류는 다음과 같다.

월별 (음력)	민속놀이
1월(17개)	연날리기(보름 전), 다리밟기(보름), 돌싸움(보름), 달맞이(보름), 널뛰기(정월초), 나희(선 달~보름), 화반(정월), 옷놀이(정초), 제웅치기(14일밤), 화적(14일, 보름), 종경도놀이, 돈 치기(보름), 숨바꼭질, 널뛰기, 종경도놀이, 나희(설날~보름), 화반 등
2월(1개)	널뛰기
3월(6개)	버들피리불기, 각시놀음, 화전(화류)놀이, 유산노름, 야앵, 활쏘기 등
4월(3개)	다리밟기(초파일), 연등놀이(초파일), 물장구놀이(초파일) 등
5월(3개)	연날리기(단오), 그네뛰기(단오), 씨름(단오) 등
6월(4개)	그네뛰기(15일), 청유, 천렵, 복놀이(삼복) 등
7월(3개)	씨름(보름), 백중절놀이, 뱃놀이 등
8월(2개)	씨름(보름), 추석 등
9월(3개)	시회(중양절), 단풍놀이(중양절), 활쏘기 등
10월(1개)	연날리기
11월(1개)	연날리기
12월 (15개)	연날리기, 널뛰기, 탈춤(산대놀이패), 옷놀이(선달그믐), 공놀이, 제기차기(겨울), 미끄럼 타기(겨울), 썰매타기(겨울), 팽이치기(겨울), 사당패공연(겨울), 팔랑개비돌리기(겨울~늦 봄), 줄넘기(겨울~이른봄), 탈춤공연(겨울), 널뛰기, 소꿉놀이(겨울) 등
기타 (12개)	고누(수시), 진치기(봄, 가을), 숨바꼭질(수시), 택견, 골패노름, 자치기, 오라잡기, 공기놀이, 굴렁쇠굴리기, 소꿉놀이, 팽꺾기, 허방다리 등

중구 남산과 청계천변에서 연희되었던 주요 민속놀이와 문헌적 전개는 다음과 같다.

이름	문헌자료	놀이시기	놀이장소	놀이의 내용
연날리기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 세시풍요 서울풍물지 조선의 향토오락	정월보름 1~2일 전	수표교 청계천변	연놀이, 연싸움, 연날리기 시범, 액막이연, 고고매

## 중구의 축제

다리밟기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 세시풍요 답교곡 만안사 조선의 향토오락 조선상식 등	정월보름	대광통교 소광통교 (수표교)	12개 다리밟기, 보신각 종소리, 난장(피리, 북, 투오, 술병, 노래와 춤), 부녀자 액막이, 가마·말·지팡이· 나막신, 남녀 만남
돌싸움(석전)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 등 세시풍요	정월보름	종로 비광정 만리현 우수현	몽둥이, 물끼얇기, 돌던지기, 곤봉 휘두르기, 편싸움, 소년싸움과 어른 싸움, 겨울숨외투
달맞이	경도잡지 청장관전서 등 세시풍요	정월보름	중가 광통교	햇불 들고 산으로 오름, 중가에 종소 리 들음, 동방의 행 락조
화전	신명균 속가집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 등 세시풍요	봄 3월 3일	필운대 북둔 동대문 밖 세심대 남산 홍인문 밖	꽃놀이, 시를 읊음, 경치를 즐김
연등놀이	동국세시기 성시전도 조선의 향토오락 천변풍경 등	4월 초파일	중가 장안 잠두봉	등달기(자녀수), 다양한 모양의 등, 낙화희, 영등(影燈), 연등시, 사람의 바 다 등불의 성
웃놀이	경도잡지 동국세시기 천변풍경	정초	천변	지혜 겨루는 놀이, 웃점
팽이치기	천변풍경	겨울	개천	팽이싸움, 오래 돌리기
얼음지치기	천변풍경	겨울	개천	얼음판
그네뛰기	임귀동	단오	동묘	남자그네와 여자그 네, 높이 뛰어 술 방 울차기
결련택견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	-	청계천변 아랫 대(동대문, 광희 문, 왕십리, 훈 련원)	힘겨루는 놀이, 체력단련



이름	문헌자료	놀이시기	놀이장소	놀이의 내용
연날리기	삼국사기 동국이상국집 지봉유설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 세시풍요 서울풍물지 조선의 향토오락 등	정월보름 1~2일 전	수표교 청계천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놀이</li> <li>• 연싸움</li> <li>• 연날리기 시범</li> <li>• 액막이연</li> <li>• 고고매</li> </ul>
다리밟기	영이록 북경세화기 지봉유설 경도잡지 동국세시기 세시풍속 만언사 답교곡 조선의 향토오락 조선상식 등	정월보름	대광동교 소광동교 수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신각 종소리</li> <li>• 12 다리밟기</li> <li>• 난장(피리, 북, 통소, 술병, 노래와 춤)</li> <li>• 다리병 액막이</li> <li>• 가막, 말, 지팡이, 나막신</li> <li>• 남녀간의 만남</li> </ul>
돌싸움(석전)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경도잡지 동국세시기 다리밟기 서울풍물지 등	정월보름 1~2일 전	종로 비파정 만리현 우수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몽둥이</li> <li>• 물 끼얹기</li> <li>• 돌 던지기</li> <li>• 곤봉 휘두르기</li> <li>• 편싸움</li> <li>• 소년싸움과어른 싸움</li> </ul>
연등놀이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다리밟기 동국세시기 성시전도 조선의 향토오락 천변풍경 등	4월 초파일	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 전시</li> <li>• 등 달기(자녀수)</li> <li>• 낙화회</li> <li>• 영등(影燈)</li> <li>• 악기놀이</li> <li>• 연등 만들기</li> </ul>

■ 청계천 대표 민속놀이 자료

○ 연날리기

출처	시기	장소	내용
삼국사기	삼국시대	경상도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국시대 신라의 김유신이 반란군을 평정하기 위해 연을 만들어 이용</li> <li>인형을 만들어 불을 붙이고, 이를 연에 실어 띄워 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함</li> </ul>
동국이상국집	고려시대 7월 3일	경상도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규보의 한시에는 7월에 접어들어 연[지연 紙鳶]을 날리기 시작</li> </ul>
지봉유설	정월보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들이 상원날(정월대보름)에 연날리기를 함</li> </ul>
조선왕조실록	정월보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이 추락된 집에는 재앙이 있다고 함</li> <li>여염사람들의 연이 궁중에 추락하지 못하게 차적하라고 함</li> </ul>
경도잡지	정월보름 전	수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염사람들의 연이 궁중에 추락하지 못하게 치죄하 라고 함연에 액(厄)이라 글자를 써 날려 보냄</li> <li>연은 오색연·기반연·묘안연·작령연·어린연·용미연 등 그 종류가 다양함</li> <li>연싸움은 상대방의 줄을 끊는 것으로 승부를 겨룸</li> <li>연줄에 사금파리 가루나 구리가루를 바름</li> <li>연싸움을 잘하기로 이름이 난 사람은 왕왕 부귀한 집에 불려가서 연날리기를 시범해 보이기도 함</li> <li>수표교 인근에 연싸움을 구경하는 이로 인산인 해를 이룸</li> <li>패하여 날아가는 연을 따라 담을 넘고 지봉을 넘기도 함</li> <li>보름이 지나면 연을 날리지 않음</li> <li>어린이들은 한 가닥으로 된 명주실로 거위의 앞가슴 솜털을 붙들어 매어 바람에 따라 날림</li> </ul>
열양세시기	10월 보름 ~ 정월보름	수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내아이들은 10월초부터 연을 날림</li> <li>계집아이들은 나무로 만든 작은 호리병 세 개를 차고 다님</li> <li>정월 보름날이 되면 연은 공중으로 날려 보냄</li> <li>호리병은 길에다 버리되 돈을 한 푼씩 매달</li> <li>이것들을 모두 액막이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에 집안 식구들의 이름과 각자의 생년월일을 쓰고 '신액소멸(身厄消滅)'이라는 글자를 쓴 연을 띄우다가 보름날 해질 무렵에 연줄을 끊어 날려보내는데, 액을 멀리 보내버린다는 뜻임</li> <li>연은 대를 때로 하고 종이에 풀칠한 것이 마치 작은 키의 모양이고 오색으로 단장을 함</li> </ul>



<p>동국세시기</p>	<p>겨울 ~ 늦봄</p>	<p>수표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의 종류는 많고 다양함</li> <li>• 연줄을 감아 연을 공중에 띄워 바람의 방향에 따라 연을 날림</li> <li>• 중국에서는 연을 만드는 모양이 더욱 교묘하고 기이함</li> <li>• 연놀이는 겨울부터 시작하여 늦봄까지 즐기는 놀이</li> <li>• 연을 겨울부터 정월보름까지 시장에서 팔 정도임</li> <li>• 연을 날리다가 다른 사람의 연줄과 서로 맞걸어 남의 연줄을 끊는 연싸움을 함</li> <li>• 연싸움을 하는 연줄에 사금파리 가루나 구리가루를 연줄에다 바르기도 함</li> <li>• 연싸움은 연줄을 거는 방법과 연을 날리는 방법에 따라 승부가 결정됨</li> <li>• 서울 장안의 젊은이로서 연싸움을 잘하여 이름을 떨치는 사람은 가끔 세도가나 부자집에 불려가 연 날리는 묘기를 시범해 보임</li> <li>• 해마다 정월 보름날 하루 이틀 전에 수표교(水標橋) 근처의 청계천을 따라 위 아래로 연싸움 구경꾼이 인산인해를 이룸</li> <li>• 연줄이 끊어진 연을 쫓아 개천 물속을 달리기도 하며 담을 뛰어넘고 남의 집 지붕 위를 넘어가기도 함</li> <li>• 보름이 지나면 연을 날리지 않음</li> <li>• 아이들은 거위의 앞가슴 솜털을 가는 색 명주실로 붙들어 매어 바람을 따라 날림</li> <li>• 아이들이 연을 날려보낸 후에 남은 연줄에 돌맹이를 매어 서로 줄을 얽어 세계 잡아당기는 놀이를 하는 데, 이 때 줄이 끊어진 사람이 지는 것임</li> </ul>
<p>서울풍물지</p>		<p>설날 단오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시적으로 연날리기를 함</li> <li>• 조선 연은 미국의 연보다 숙련된 기술을 요함</li> <li>• 조선 연은 거의 네모나고, 꼬리가 없음</li> <li>• 열레는 서양의 것보다 뛰어남</li> <li>• 미국이나 영국 또는 일본이나 중국의 연을 날리는 것은 조선의 연을 조작하는 것보다 훨씬 쉬움</li> <li>• 모든 세대의 어른과 아이들이 이 놀이에 빠져들</li> <li>• 상대 연에 줄을 걸어 연싸움을 함</li> <li>• 때때로 천명의 사람들이 연싸움을 구경함</li> <li>• 연날리기는 설날이나 단오날 절정을 이룸</li> </ul>
<p>조선의 향토오락</p>	<p>정월보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은 대쪽으로 틀을 짜고 그 위에 종이를 발라 만든 장방형 연의 한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서 만들</li> <li>• 연에 실을 매고, 열레를 조정해서 하늘로 날림</li> <li>• 서로 그 높이를 겨루기도 하고, 서로 실을 엮어서 당겨서 상대방의 연줄을 끊는 연싸움을 하기도 함</li> <li>• 정월 보름날 연에 자기 생년월일, 출생시간 혹은 액막이의</li> </ul>

## 중구의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귀를 써넣었다가, 해질 무렵 실을 끊어 연을 날려버리면 그 해의 액을 막을 수 있다고 함</li> <li>• 고려 최영장군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함</li> </ul>
--	--	--	--

### ○ 다리밟기

출처	시기	장소	내 용
영이록	정월보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월보름을 전후한 3일간 통금을 해제</li> <li>• 밤새도록 놀러 다니는 남녀들이 거마가 길을 메웠다고 함</li> </ul>
북경세화기	정월보름	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녀자들이 모두 집에서 나와 다리를 거님</li> </ul>
제경경물략	정월보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녀자들이 서로 이끌고 나와 다님</li> <li>• 주백병(走百病)이라 함</li> </ul>
완서잡기	정월보름	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녀자들이 떼를 지어 다리 있는 곳에 뉘</li> <li>• 짝을 지어 다리를 건너는 것을 액막이[도액 度厄]이라 함</li> </ul>
지봉유설	정월보름	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름날 밤의 다리밟기는 고려 때부터 시작 됨</li> <li>• 태평시대에는 매우 성행(남녀들이 밤새도록 줄을 이을 정도)</li> <li>• 법관들이 엄금하여 어긴 자는 체포토록 했음</li> <li>• 부녀자들의 다리밟기가 없어졌음</li> </ul>
경도잡지	정월보름	대광통교 소광통교 수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가에서 종소리를 듣고 난 후 다리를 밟음</li> <li>• 다리를 밟으면 다리[각 脚]에 병이 나지 않음</li> <li>• 예에 따라 통행금지를 완화함</li> <li>•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룸</li> <li>• 악기소리로 난장판이 벌어짐</li> </ul>
열양세시기	정월보름	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리 12개를 건너면 12달 동안의 액을 막는다고 함</li> <li>• 위로는 재상과 귀인을 비롯하여 시골의 서민까지 모두 참여</li> <li>• 가마를 탄 사람, 말을 탄 사람, 지팡이를 짚은 사람, 나막신을 신은 이들로 거리를 가득 메움</li> <li>• 악기와 술병이 사람 모이는 곳마다 벌어짐</li> <li>• 1년 중의 놀이가 정월보름과 사월초파일 가장 성함</li> <li>• 해마다 이 두 밤에는 임금이 명령을 내려 야간통행 금지를 해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신각의 종소리를 듣고 각처의 다리를 밟음</li> <li>• 인파의 행렬은 밤이 새도록 끊이지 않음</li> </ul>



동국세시기	정월보름	대광통교 소광통교 수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橋)가 다리[각 脚]와 발음이 같으므로 다리를 밟으면 1년 동안 다리[각 脚]에 병이 나지 않는다 함</li> <li>인산인해를 이루고 북치고 통소를 불기도 하여 매우 소란</li> </ul>
만언사	정월보름	광교 수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리마다 밟음</li> <li>주백병(走百病)이라 함</li> </ul>
답교곡	정월보름	장안의 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랫가락과 짓대소리로 흥겨우며 소란스러움</li> <li>다리 위에서 다리밟기를 하고, 노래와 춤추는 사람들이 있음</li> <li>밝은 달 아래 광대들이 놀고, 생황과 노랫소리 어지럽게 들림</li> <li>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밟음</li> </ul>
조선의 향토오락	정월보름	서울 시내의 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 시내에 놓인 다리를 전부 찾아다니며 밟음</li> <li>다리를 다 밟으면 일년 내내 다리에 병이 나지 않는다고 함</li> </ul>
조선상식	정월보름	종가 근처 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종 이후 다리밟기 성해</li> <li>종가로 모여들어 보신각 종소리를 듣고 각 곳에 있는 다리를 밟새도록 밟음</li> <li>어깨와 허리가 부딪힐 정도로 붐빔</li> <li>달나리와 장고를 울리고 시도 옮기도 함</li> <li>달을 보며 1년 동안 좋은 일이 있기를 빚</li> <li>14일 밤에 상류층 사람들은 '양반답교' 놀이를 함</li> <li>부녀자들은 14, 15일을 피하여 16일날 다리밟음</li> <li>조선 중엽 이후 부녀자의 문밖 출입을 심하게 단속하여 부녀자의 다리밟기는 자취를 감춤</li> </ul>

○ 돌싸움[석전]

출처	시기	장소	내용
수서 고구려조	정초	패수 (대동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년 정초 패수에서 좌우로 두 편을 나누어 수석을 던지며 싸움</li> <li>국왕은 요역을 타고 와서 구경</li> </ul>
고려사	정월 단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왕이 석전을 구경하려고 할 때 이존성이 이를 막아 서자 내시를 시켜 존성을 때림</li> <li>풍속에 좌우로 나누어 승부를 결정하는 것을 석전이라 함</li> <li>왕이 석전회를 관람</li> <li>수인을 불러 술을 주고 매(枚)를 주어 석전을 하게 하고 그 기(技)를 다하게 함</li> <li>고려 우왕이 좋아하던 놀이</li> </ul>

중구의 축제

조선왕조 실록	5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종이 병환 중에도 석전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하여 석전을 함</li> </ul>
경도잡지	정월보름	삼문 밖 아현 만리고개 장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문(三門) 밖과 아현(阿峴) 사람들이 만리고개[萬里峴]에서 돌을 던지며 싸움</li> <li>• 삼문 밖 사람들이 이기면 경기도 안에 풍년이 들고 아현 사람들이 이기면 다른 도에 풍년이 든다고 함</li> <li>• 용산(龍山)과 마포(麻浦)의 소년들이 아현 편을 도움</li> <li>• 돌싸움이 심할 때에는 함성이 천지를 울리고 난투극이 벌어졌는데, 이마가 깨지고 팔이 부러져도 탓하지 않음</li> <li>• 나라에서는 이를 엄하게 금함</li> <li>• 장안의 아이들도 이것을 모방했기 때문에 행인이 돌에 맞을까 두려워 피하기도 함</li> </ul>
동국세시기	정월보름	삼문밖 애오개 만리현 종로 비파정 우수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의 삼문(三門) 밖 사람들과 애오개[아현 阿峴] 사람들이 두 패가 되어 몽둥이와 돌을 들고 맞서 만리현(萬里峴) 위에서 싸움을 함</li> <li>• 패하여 달아나는 편이 지는 것</li> <li>• 속설에 삼문 밖의 편이 이기면 경기지방에 풍년이 들고, 애오개 편이 이기면 다른 지방에 풍년이 든다고 함</li> <li>• 돌싸움에는 마포의 소년들이 애오개 쪽을 도움</li> <li>• 싸움이 극에 달하면 고향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고, 서로 머리를 싸매고 공방전이 벌어지면 이마가 깨지기도 하고 팔이 부러지기도 하여 선혈이 낭자하지만 그래도 그치지 않는다. 심지어 사상자가 생겨도 개의 하는 법이 없고, 만일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도 아무런 보상도 없음</li> <li>• 싸움이 벌어질 때에는 인근 주민들은 돌에 얻어맞을까 두려워 모두 몸을 피함</li> <li>• 감독관청에서도 금령을 내려서 이를 막으려 했지만 고질화된 관습이라서 좀처럼 고쳐지지 않음</li> <li>• 성안의 아이들도 이것을 본떠서 종로와 비파정(琵琶亭) 근처에서 편싸움을 함</li> <li>• 성안에서는 만리현과 우수현(雨水峴)이 편싸움의 심한 접전 장소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늦겨울과 이른 봄에 돌싸움을 함</li> <li>• 조선 사람들이 놀이를 통해 평소의 삶을 분발시키고 대부분의 열정을 불리일으킴</li> <li>• 소년들이 어른들의 놀이에 참가함</li> <li>• 놀이는 대체로 기분 좋게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그렇게 계속되는데 그것은 거의 불화나 격노를 불러 일으키지 않음</li> <li>• 싸움에 참여하는 숫자는 마을의 크기에 비례하는데, 한</li> </ul>



<p>서울풍물지</p>	<p>늦겨울 ~ 이른봄</p>	<p>마을사이</p>	<p>마을에서 대략 800~1,000명이 참여한 돌싸움이 있기도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의 인구가 10여 명을 넘지 않는 곳에서도 돌싸움은 일어남</li> <li>• 소년들이 오후 일찍 싸움을 시작하며 저녁 부럽까지 산만한 싸움이 지속된다. 그리고 나서 어른들이 도착하여 여기에 참가하면 싸움은 격렬해짐</li> <li>• 무기는 손이나 밀짚 줄로 만들어진 줄로 던지는 돌과 곤봉임</li> <li>• 싸움은 두 마을 사이에 있는 땅의 중앙에 모임으로써 시작됨</li> <li>• 안전하게 퇴각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고 야유를 보내면서 상대방에게 돌을 던지며 싸움을 함</li> <li>• 두 편은 거리는 돌멩이의 사정거리 이상이지만 선발대처럼 보이는 전투부대의 선두는 돌을 던지면서 적을 설세 없이 공격하고 밀집한 무리로 돌을 던지는 이도 있음</li> <li>• 곤봉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공격을 주도하면서 돌을 던지는 무리의 엄호를 받으면서 일진일퇴함</li> <li>• 반대편에서는 곤봉을 든 무리들이 공격자들을 대적 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공격하는 편은 명사수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기도 함</li> <li>• 목격했던 가장 큰 싸움 중에는 아마 2천 명의 어른들과 소년들이 참가했는데, 한쪽 편이 돌격해서 상대방의 반을 그 마을로 몰아 넣었음</li> <li>• 때때로 돌싸움은 단순한 놀이 이상으로 발전하여 마을 사이에 생겨난 나쁜 감정을 푸는 기회가 됨</li> <li>• 이 돌싸움은 각 마을이 분견대를 강화하고 이웃마을끼리 힘을 겨룸으로써 주민을 더욱 강건하게 만들던 지난날을 회상하는 행사이기도 함</li> <li>• 매해 정월에 주민들은 이러한 모의전투에 몰두함</li> <li>• 이따금씩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너무 많은 소동이 일어나고 너무 위험하여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이를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려야만 할 때도 있음</li> <li>• 돌싸움에서 예상 외로 부상자가 적음</li> <li>• 숨을 넣어 만든 늘어진 외투를 포함해서 참가자들은 겨울 옷을 입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위험이 훨씬 적음</li> <li>• 조선을 방문하고도 이런 싸움을 전혀 보지 못한 여행자는 낮선 사람들 사이에서 목격되는 가장 특징적인 광경 중의 하나를 놓친 것</li> </ul>
--------------	--------------------------	-------------	---

○ 연등놀이

출처	시기	장소	내용
	신라시대 정월보름	황룡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월보름에 황룡사를 중심으로 연등행사가 크게 벌어짐</li> </ul>
고려사	정월 이월	홍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67년(문종 21년) 1월 18일에 홍왕사의 낙성을 계기로 연등회를 베풀었음</li> <li>1073년(문종 27년) 2월 망일 연등 시에는 등불의 수가 무려 3만 개였음</li> </ul>
조선왕조 실록	정월보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12년(태종 12년) 정월보름 연등 시에 용·봉황·호랑이·표범 등의 등을 만들어 장식함</li> <li>1475년(성종 6년) 사월초파일에는 집집마다 새·물고기·짐승·용 등을 매달아 제각기 절묘한 모양을 자랑함</li> </ul>
경도잡지	사월초파일	종로 네거리 남산 북악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원(長遠)의(오지(隴志))에 보면 서울풍속에 부처 앞에서 염불하는 사람은 모두 콩으로 자기가 외우는 염불의 횟수를 헤아려 두었다가 4월 초파일에 그 콩에다가 소금을 조금 뿌려서 볶아놓고 길에 나가 사람을 맞아다가 함께 먹으므로 그 사람과 함께 먹으므로 그 사람과 인연을 맺음</li> <li>정월 보름날 밤 아이들이 북을 치며 저녁부터 새벽까지 노는 태평고(太平鼓)가 부처의 탄신일인 등석(燈夕)으로 옮겨옴</li> <li>자녀의 수대로 등을 달아서 불을 켜는데, 밝고 많아야 길함</li> <li>등간은 큰 대나무 수십 개를 이어서 만듦</li> <li>사치를 부리는 사람은 오강(五江)에서 돛대를 실어다가 높이 세우고 그 꼭대기에는 꿩털을 꽂고 각색 깃발을 맴</li> <li>일월권(日月圈)을 꽂아서 바람에 따라 눈부시도록 돌게도 함</li> <li>종로 네거리의 여러 가게에서도 높고 큰 것을 서로 경쟁하듯 수십 개의 줄을 펼쳐 놓고 힘을 합해서 끌어 올려 세움</li> <li>이날 밤에는 연례에 따라서 통행금지가 해제됨</li> <li>등을 구경하려는 사람들은 남산·북악산 등의 기슭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통소를 불고 북을 치면서 시가를 휩쓸고 멧대로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기도 함</li> <li>등간에 깃발을 단 것이 고려시대 호기(呼旗; 등간 장대의 끝에 단 종이)의 유습이라고 함</li> <li>등의 종류로는 마늘등·연꽃등·수박등·학등·잉어등·자라등·병등·항아리등·배등·북등·칠성등·수자등(壽字燈)들이 있음</li> <li>영등(影燈)을 함</li> </ul>



<p>열양세시기</p>	<p>사월초파일</p>	<p>여염집 관청 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염집은 물론이고 관청 시전까지 모두 등간을 세움</li> <li>• 등간은 대나무를 묶어 이어서 만드는데, 높이가 열자 남짓 됨</li> <li>• 비단을 잘라서 깃발을 만든 다음 등간 끝에다 맴</li> <li>• 깃발 아래에다 막대기를 가로로 대어 갈고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줄을 끼워서 그 줄의 양끝이 땅에까지 드리워지도록 함</li> <li>• 밤이 되면 등에다 불을 밝히는데, 많이 달 때는 10여등, 적게 달 때는 3, 4등을 맴</li> <li>• 민가에서는 자녀의 수대로 등을 달</li> <li>• 등에는 마늘처럼 생긴 것, 오이처럼 생긴 것, 꽃잎처럼 생긴 것, 새나 짐승처럼 생긴 것, 누대처럼 생긴 것 등 그 종류가 다양함</li> <li>• 아이들은 등간 아래에서 느티나무잎으로 만든 떡과 소금을 뿌려 볶은 콩을 먹으면서, 동이에다 물을 담아 바가지를 엮어놓고 돌려가면서 두드리는데 이것을 물장구놀이 [수악水岳]라 함</li> <li>• 중국의 연등회는 정월 보름날에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월초파일날에 함</li> </ul>
<p>동국세시기</p>	<p>사월초파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속에 이 날 등불을 켜므로 등석(燈夕)이라 함</li> <li>• 초파일 며칠 전부터 민가에서는 등간(燈竿)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꿩깃을 끼워 장식을 한 다음 울긋불긋한 천으로 깃발을 만들어 맴</li> <li>• 작은 집에서는 깃대 꼭대기에 소나무 가지를 붙들어 매기도 함</li> <li>• 집안의 자녀의 수대로 등을 달고 남보다 크고 높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9일에 가서야 그침</li> <li>• 사치를 부리는 사람은 튼 대나무 수십 개를 이어 매고 오강(五江: 한강·용산·마포·현호·서강을 말함)에 가서 돛대를 실어다가 등간을 만들</li> <li>• 등간 꼭대기에 일월(日月圈: 사월초파일에 세우는 등간의 꼭대기에 매다는 장식)을 꽂아 놓아 그것이 바람에 따라 눈이 어지럽도록 돌게 함</li> <li>• 혹은 회전등(回轉燈)을 매기도 하는데 빙빙 도는 것이 연달아 나가는 총알 같음</li> <li>• 혹은 화약을 종이에 싸서 등간에 매달린 등줄 사이 사이에 매달고 불을 붙여 터트리면 활을 따라 화살같이 흩어져 내려오는데, 그 찬란한 불꽃이 마치 비가 오는 것 같음</li> <li>• 혹은 화약을 종이에 싸서 등간에 매달린 등줄 사이에 매달고 불을 붙여 터트리면 활을 떠난 화살 같이 흩어져 내</li> </ul>



중구의 축제

			<p>려오는데, 그 찬란한 불꽃이 마치 비가 오는 것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이쪽을 수십 발이나 되게 이어 붙여 바람에 펄펄 휘날리게 하면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모양과 같음</li> <li>• 혹은 광주리를 매달기도 하고 또는 꼭두각시를 만들어 옷을 입혀 줄에 매달아 놀리기도 함</li> </ul>
<p>동국세시기</p>	<p>사월초파일</p>	<p>종가 서울 장안 잠두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가게에서는 등간을 높이 세우기 위해 받침대를 높이 만들려고 수십 가닥의 줄을 펼쳐 놓고 여럿이 잡아 당겨서 세워 올림</li> <li>• 등간을 세울 때 체구가 작고 약한 이를 사람들이 모두 놀려댐</li> <li>• &lt;고려사&gt;에 보면 왕궁이 있는 국도(國都)로부터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정월보름에 이를 저녁 동안 연등놀이를 하던 것을 최이(崔怡; 고려 고종 때의 세도가로 최충현의 아들)가 4월 8일로 변경했다고 함</li> <li>• 오늘날 등간에다 기를 매다는 것은 고려시대 초기의 유행인 것임</li> <li>• 등의 종류에는 수박등·마늘등·연꽃등·칠성등·오행등·일월등·구등(毬燈)·선등(船燈)·종등(鍾燈)·북등·누각등·난간등·화분등·가마등·머루등·병등·항아리등·방울등·알등·용등·봉등·학등·잉어등·거북등·자라등·수복등(壽福燈)·태평등(太平燈)·만세등(萬歲燈)·남산등(南山燈) 등이 있는 데 모두 그 모양을 상징하고 있음</li> <li>• 등을 만들 때 종이를 바르기도 하고 혹은 붉고 푸른천을 바르기도 함</li> <li>• 운모(雲母)를 상감하여 비선(飛仙)과 화조를 그리기도 하고, 평평한 면마다 또 각진 모서리마다 3색의 돌돌만 종이나 길쭉한 종이쪽지를 붙이기도 하는데, 그 나부끼는 모습이 매우 다채롭고 호화스러움</li> <li>• 고등(鼓燈)에는 장군이 말을 탄 모습이나 중국의 위·촉·오나라의 고사를 기록한 삼국지의 그림을 많이 그림</li> <li>• 영등(影燈)은 등 안에 같이틀[족기 鐵機]을 만들어 놓고 종이를 잘라 말 타고 사냥하는 모습이나 매·개·호랑이·이리·사슴·노루·꿩·토끼 모양을 그려서 그 같이틀이 든 등에다 붙이면 바람에 따라서 빙빙도는데 거기에서 비쳐나오는 그림자를 구경하는 것임</li> <li>• 등집에서 파는 등은 천태만상으로 오색찬란하고 또한 값이 비싸며 그 기이함을 자랑함</li> <li>• 종가(鍾街)에는 이 등불을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울타리처럼 몰려들며, 난조(鸞鳥)·학·사자·호랑이·거북·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슴·잉어·자라 모양의 등과 선관(仙官)·선녀가 말 탄 형상의 등을 만들어 팔면 여러 아이들은 서로 다투어 사 가지고 장난하며 놀</li> <li>• 연등놀이는 하는 날 저녁에는 전례에 따라서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됨</li> <li>• 서울 장안의 남녀들은 초저녁에 남북의 산기슭에 올라가 등을 달아 놓은 광경을 구경함</li> </ul>
성시전도	4월	청계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월 개천에서 연등놀이가 펼쳐짐</li> <li>• 제각기 연등을 만들어 온갖 재주를 자랑함</li> <li>• 바지랑대에 연꽃등을 매달고 바람에 잉어들이 움직이는 것을 시로 씀</li> </ul>
조선의 향토오락	사월초파일	청계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월초파일 밤 자녀의 수만큼 처마 끝에 등을 달면 복을 받는다고 하여 가정마다 등을 달</li> <li>• 등은 대개 둥글게 공 모양으로 만들며 원색의 색지를 바름</li> <li>• 등에 수(壽)·복(福)·다자(多子) 등의 상서로운 뜻의 글자를 써 넣음</li> <li>• 처마 끝마다 등이 달린 아름다운 광경 때문에 거리는 구경꾼으로 붐빔</li> <li>• 고려시대의 유행임</li> </ul>
천변풍경	사월초파일	청계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변에 등장수들이 등을 팔러 다님</li> <li>• 아이들이 등장수의 색스러운 등이 신기하여 쫓아 다님</li> </ul>

### 3. 중구 민속놀이의 종류와 역사

#### 1) 종류

중구의 민속놀이는 그 종류가 풍부하다. 전국적인 세시놀이가 있는가 하면 서울 양반이 사는 장안(長安)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양반자적 민속놀이도 선보이고 있으니 이것이 이곳 중구 민속놀이의 종별 특징이기도 하다. 그런데 양반들의 유유자적한 풍류기가 흐르는 민속놀이는 민속놀이이자 축제적 성격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먹거리와 더불어 할거리

## 중구의 축제

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를 장안풍(長安風) 민속놀이(난로회·풍소·야회 등)라 명명해 두기로 한다.

장안풍 민속놀이의 내용은 주로《세시풍요》에 기재되어 있다.

### ○ 연날리기

#### 《경도잡지》, 원일(元日)조

아이들은 액(厄)이라는 글자를 연에다 써서 해질 무렵 줄을 끊어서 공중으로 날려보낸다. 연만드는 법은 대나무를 삐로 하고 종이를 풀로 발라서 마치 작은 키같이 만든다. 연에는 오색연(五色鳶)·기반연(基盤鳶)·묘안연(猫眼鳶)·작령연(鵠翎鳶)·어린연(魚鱗鳶)·용미연(龍尾鳶)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부터 정월 보름까지 날린다. 연을 날리는 법도 일정하지 않아 종횡(縱橫)으로 자유자재로 휩쓸어 남의 연과 마주쳐 남의 연줄을 많이 끊는 것으로서 즐거움을 삼는다. 연줄은 실을 겹쳐 꼬고 아교를 문질러서 매끈하기가 흰말의 말총과 같다. 혹은 연줄에다 누런 치자로 물을 들이기도 한다. 연줄은 바람을 거슬러 앵앵 울리는 줄이 가장 남의 연줄을 잘 끊는 것이다. 심한 사람은 연줄에다 사금파리 가루나 구리 가루를 바르기도 한다.

그러나 연줄을 잘 교차시키는 재주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서울 장안의 젊은이 중에 연싸움을 잘하기로 이름이 난 사람은 왕왕 부귀한 집에 불려가서 연날리기를 시범해 보이기도 한다. 매해 정월 보름날 전 하루 이들은 수교표 천번 상하를 따라서 연싸움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담을 쌓듯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룬다. 아이들은 기다렸다가 연줄을 끊는다. 혹은 패하여 날아가는 연을 따라 담을 넘고 지붕을 뛰어넘기도 하므로 그 기세에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한다. 그러나 보름날이 지나면 다시는 연을 날리지 않는다.

어린이들은 한 가닥으로 된 명주실로 거위의 앞가슴 솜털을 붙들어 매어 바람에 따라 날린다. 이것을 고고매(苦苦媒)라고 하는데, 몽고어로 봉황(鳳凰)이라는 뜻이라 한다.

#### 《동국세시기》, 정월(正月) 상원(上元)조

아이들은 연에다 집안 식구들의 이름과 각자의 생년월일을 쓰고 '신액소멸(身厄消滅)'이라는 글자를 쓴 연을 띄우다가 보름날 해질 무렵에 연줄을 끊어 날려보내는데, 액을 멀리 보내버린다는 뜻이다. 연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면, 대죽[竹]을 삐로 하고 종이에 풀칠한 것이 마치 작은 키의 모양 같다. 그리고 오색을 단장을 한다. 연의 종류는 많고 다양하다. 바둑판 모양을 그린 기반(基斑), 이마 쪽에 검은 칠을 한 묵액(墨額), 접시처럼 둥근 모양을 한 쟁반(爭盤), 방패 모양을 한 방혁(方革), 고양이 눈처럼 그린 묘안(猫眼), 까치날개 모양을 한 작령(鵠翎), 고기비늘 모양의 어린(魚鱗), 용의 꼬리같이 기다란 용미(龍尾) 등 이름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또 얼레를 만들고 거기에 연줄을 감아 연을 공중에 띄워 바람의 방향에 따라 연을 날린다. 이를 연놀이라 한다. 중국에서는 연을 만드는 모양이 더욱 교묘하고 기이하다. 연놀이는 겨울부터 시작하여 늦봄까지 즐기는 놀이이다. 우리나라 풍속에서도 연을 겨울부터 정월 보름까지 시장에서 판다. 속설에 의하면 고려 때 최영(崔瑩)장군이 탐라(耽羅)를 정벌할 때에 연을 만들어 썼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 연놀이가 성행하고 있다.

연줄을 만들 때에는 실을 여러 번 겹쳐 꼬고 거기에 아교로 문지르는데, 뺏뺏하기가 흰 말총과 같다.



혹은 치자로 노랑계 물을 들여 그 끝에 연을 달아서 이리저리 세차게 날린다. 연을 날리다가 다 른 사람의 연줄과 서로 맞걸어 남의 연줄을 끊고서는 이것다고 좋아한다. 이것을 연싸움이라 한다.

연싸움을 함에 있어서는 연이 바람을 거슬러 뿡뿡 소리를 내는 것이 연줄을 잘 끊는다. 연싸움을 심하게 하는 사람은 사금파리 가루나 구리 가루를 연줄에다 바르기도 하는데, 그러나 연줄을 거는 방법과 연을 날리는 방법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서울 장안의 젊은이로서 연싸움을 잘하며 이름을 떨치는 사람은 가꿈 세도가나 부자집에 불려가 연날리는 모기를 시범해 보인다.

해마다 정월 보름날 하루 이틀 전에 수교표(水標橋) 근처의 청계천을 따라 위 아래로 연싸움 구경꾼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아이들은 기다렸다가 연줄을 끊는다. 혹은 패하여 날아가는 연을 따라 담을 넘고 지붕을 뛰어 넘기도 하므로 그 기세에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한다. 그러나 보름날이 지나면 다시는 연을 날리지 않는다.

## ○ 다리밟기

### 《경도잡지》, 상원(上元)조

황혼에 햇불을 들고 높은 곳에 오른다. 이것을 달맞이 월영(月迎) 또는 망월(望月)이라 한다. 달을 먼저 보는 사람이 길하다. 달이 뜨면 서울 사람들은 모두 중가로 나와서 종소리를 듣고 난 후에 제 각기 흩어져 여러 다리[橋]에 가서 거닌다. 이렇게 하면 다리에 병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대광통교(大廣通橋)·소광통교(小廣通橋) 및 수표교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다.

이날 밤에는 예에 따라서 통행금지를 완화한다. 이곳들은 사람의 바다를 이루고 사람의 성을 쌓는다. 어떤 이는 피리를 불고 또 어떤 이는 북을 치며 떠들어 난장판이 벌어진다. 육계굉(陸啓潁)의 《북경세화기 北京歲華記》에 보면 정월 보름날 밤에 부녀자들이 모두 집에서 나와 다리를 거닐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우혁정(于奕正)의 《제경경물략 帝京景物略》에는, 정월 보름날 밤에 부녀자들이 서로 이끌고 나와 다님으로써 모든 질병을 달아나게 한다는 뜻으로 주백병(朱百病)이라 한다고 했다. 또 심방(沈傍)이 쓴 《완서잡기 宛署雜記》에는, 16일 밤에 부녀자들이 떼를 지어 다리가 있는 곳에서 노는데,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다리를 건너는 것을 액막이[도액 度厄]라 한다고 했다. 이것이 곧 우리 나라 풍속의 다리밟기 근원이다. 지봉유설에는 보름날 밤의 다리밟기는 고려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태평시대에는 매우 성행하여 남녀들이 밤새도록 줄을 이었으므로 법관들이 엄금하여 위법자는 체포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부녀자들의 다리밟기가 없어졌다

### 《열양세시기》, 상원(上元)조

보름날 저녁에 다리 교[橋] 열두 개를 건너면 열두 달 동안의 액을 막는다고 하여, 위로는 재상(宰相)과 귀인(貴人)으로부터 아래로는 시골의 서민에 이르기까지 늙고 병든 사람 이외에는 다리에 나오지 않는 이가 없었다. 가마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지팡이를 짚거나 나막신을 신은 이들이 거리를 메운다. 혹 악기와 술병들이 사람 모이는 곳마다 벌어지곤 하여 1년 중의 놀이가 정월 보름과 4월 초파일에 가장 성하다. 해마다 이 두 밤에는 임금이 명령을 내려 야간통행금지를 해제한다.

### 《동국세시기》, 정월(正月) 상원(上元)조

정월보름날 순라군이 있는 군문(軍門)에서 야금(夜禁)을 완화한다. 당나라 위술(韋述)이 쓴 《서도잡기 西都雜記》에 보면 정월 보름날 밤 황제 칙명으로 금음(金吾; 의금부)에 명령하여 보름날을 전 후로 각각 하루씩 야금을 완화하게 하였는데 이것을 방야(放燬)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본떠서 하는 것이다.

정월 보름날 밤에 서울 장안의 많은 사람들이 열운가(閱雲街; 종로 네거리)의 종각으로 모여들어 보신각의 종소리를 듣는다. 다 들은 다음 각각 흩어져 각처의 다리로 가서 그 다리 위를 거니는데, 이 인파의 행렬은 밤이 새도록 끊이지 않는다. 이것을 다리밧기[답교 踏橋]라 한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교(橋)가 우리 말로 다리 각(脚)과 발음이 같으므로 다리밧기를 하면 1년 동안 다리[脚]에 병이 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다리밧기는 주로 대광통교(大廣通橋)·소광통교(小廣通橋) 및 수표교(水標橋)에서 가장 성행했는데,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북을 치고 통소를 불기도 하여 매우 소란했다.

웅낙(雄洛)의 《영이록 靈異錄》에 보면 당나라에서는 정월 보름을 전후한 3일간 통금을 해제하여 오후 밤새도록 놀러 다니는 남녀들의 거마(車馬)가 길을 메웠다고 했다. 육계평(陸啓滂)의 《북경 세화기 北京歲華記》에서는 정월 보름날 밤에 부녀자들이 모두 집에서 나와 다리를 거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중국 명나라 때 학자인 우혁정(于奕正)의 《제경경물략 帝京景物略》에서 정월 보름날 밤에 부녀자들이 떼를 지어 나와 거닐었는데, 이로써 모든 병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 문이다. 이것을 주백병(朱百病)이라 한다.

심방(沈榜)의 《완서잡기 宛署雜記》에는 16일 밤 부녀자들이 떼를 지어 노는데 대개 다리가 있는 곳에서 놀았으며, 또 그들은 짝을 지어 다리 위를 거닐었는데 이것을 맥막이라 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다리밧기의 기원이 되는 것이다.

선조 때 학자인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 芝峯類說》에서는 보름날 밤의 다리밧기는 고려 때 부터 시작되었으며, 태평시에는 매우 성행하여 남녀들이 밤새도록 줄을 이었던 까닭에 나라에서는 이를 금지하여 체포·구금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오늘날 부녀자들의 다리밧기 풍속이 없어졌다고 했다.

김창업(金倡業), 《답교곡 踏橋曲》

장안이 어찌하여 소란스러운가 했더니	장안하훤훤(長安何喧喧)
오늘밤 답교놀이가 있구나	금야답교유(今夜踏橋游)
큰길 위로 달이 떠오르니	월출대도상(月出大道上)
노랫가락과 부는 짓대가 절로 흥겹구나	가취자상구(歌吹自相求)
밝은 달 그림자는 넓은 시냇가	
푸른 누각에 드리웠는데	명월영하한 청루래광천(明月映何限 靑樓來廣川)
다리 위에는 노래와 춤을 추는 사람들과	상유가무인(上有歌舞人)
답교놀이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유답교인(下有踏橋人)
장안의 냇물은 동서로 흐르는데	장안수동서(長安水東西)
밝은 달 아래 광대들이 놀고	명월광배회(明月光背回)
생황과 노랫소리는 어지럽게 들리는데	생가부상식(笙歌不相識)
모두들 다리 위를 건다가 돌아오네	제향교상래(劑向橋上來)



<p><b>안조환(安肇煥), 《만언사 萬言詞》</b></p>
<p>춘정월(春正月) 십오야(十五夜) 상원(上元)야 밝은 달에          장안시상(長安市上) 열두 다리 다리마다 바람불어          옥호금준(玉壺金樽)은 다리다리 배반(杯盤)이요          적성각곡(積聲歌曲)은 다리다리 풍류(風流)로다          옷다리 아래다리 썩은다리 헛다리 철물(鐵物)다리 판자(板子)다리 두다리 돌아들어          중촌(中村)을 올라 광교(廣橋)다리 굽은다리 수표(水標)다리          동대문 안 첫다리며 서대문 안 학다리요          남대문 안 수각다리 모든 다리 밟는 다리</p>
<p><b>촌산지순, 박전열 역, 《조선의 향토오락》</b></p>
<p>〈놀이법〉 서울 시내에 놓인 다리를 전부 찾아다니며 밟는다. 그렇게 하면 일년 내 다리에 병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p>
<p><b>최남선(崔南善), 《조선상식》 풍속편 답교조</b></p>
<p>정월 대보름날 밤의 놀이 중 성행되었던 것은 연등놀이이다. 그러나 조선왕조, 특히 태종 이후에는 연등 놀이 대신 다리밟기가 이날 밤에 성행하였는데 특히 서울에서 더 했다. 장안의 남녀들이 종가(鍾街)로 모여들어 보신각(普信閣)의 종소리를 듣고 나서 각 곳에 있는 다리로 흩어져 가서 밤새도록 다리 위를 왔다 갔다 하였다. 서로들 어깨와 허리가 부딪힐 정도로 붐비면서 날나리와 장고를 울 리고 시를 읊기도 하며 물에 비친 달을 보며 1년 동안에 좋은 일이 있길 빌었다. 상류층 사람들은 서민들이 붐비는 15일 밤을 피하여 그 전날인 14일 밤에 다리밟기를 하였다. 이를 가리켜 〈양반답교〉라 하였다. 부녀자들은 14,15일을 피하여 16일 밤에 행하였다. 조선 중엽 이후에는 부녀자의 문 밖 출입을 심하게 단속했으므로 부녀자들의 다리밟기는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p>

○ 돌싸움[석전]

<p><b>《조선왕조실록》, 태조(太祖), 정종(定宗), 태종(太宗), 세종(世宗), 대(代)          《경도잡지》, 상원(上元)조</b></p>
<p>삼문(三門) 밖과 아현(阿峴) 사람들이 만리고개[萬里峴]에서 돌을 던지며 서로 싸웠다. 속담에 말하기를, 삼문 밖 사람들이 이기면 경기도 안에 풍년이 들고 아현 사람이 이기면 다른 도에 풍년이 든다고 하는데, 용산(龍山)과 마포(麻布)의 불량소년들이 작당하여 아현 편을 도왔다고 한다. 이 돌 싸움이 심할 때에는 함성이 천지를 울리고 난투극이 벌어졌는데, 이마가 깨지고 팔이 부러져도 탓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이를 엄하게 금했다. 장안의 아이들도 이것을 모방했기 때문에 행 인이 돌에 맞을까 두려워 피하기도 했다.《고려전 高麗傳》에 의하면 매해 초 사람들이 패수(泮水)가에 모여서 물을 끼얹고 돌을 던지며 싸운다. 이렇게 두세 차례 밀었다 밀려갔다 하다가 멈춘 다고 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석전(石戰)의 시초가 된다.</p>

《동국세시기》, 정월(正月) 상원(上元)조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의 삼문(三門) 밖 사람들과 아현(阿峴) 사람들이 두 패가 되어 몽둥이와 돌을 들고 맞서 만리현(萬里峴) 위에서 함성을 지르며 싸움이 벌어지는데, 패하여 달아나는 편이 지는 것이다. 속설에 삼문 밖의 편이 이기면 경기지방에 풍년이 들고, 애오개 편이 이기면 다른 지방에 풍년이 든다고 한다. 이 싸움에는 마포의 불량 청소년들이 작당하여 애오개 쪽을 도왔다.

싸움이 극에 달하면 고함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고, 서로 머리를 싸매고 공방전이 벌어지면 이마가 깨지기도 하고 팔이 부러지기도 하여 선혈이 낭자하지만 그래도 그치지 않는다. 심지어 사상자가 생겨도 개의하는 법이 없고, 만일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도 아무런 보상도 없었다. 이 싸움이 벌어질 때에는 인근 주민들은 돌에 얻어 맞을까 두려워 모두 몸을 피한다. 감독관청에서도 금령을 내려서 이를 막으려 했지만 고질화된 관습이라서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다.

성안의 아이들도 이것을 본떠서 종로와 비파정(琵琶亭) 근처에서 편싸움을 했다. 성안에서는 만리현과 우수현(雨水峴)이 편싸움의 심한 접전 장소였다.

○ 연등놀이

《동국세시기》, 사월(四月) 팔일(八日)조

8일은 석가모니의 탄신일이다. 우리 나라 풍속에 이날 등불을 켜므로 등석(燈夕)이라 한다. 초파 일 며칠 전부터 민가에서는 등간(燈竿)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쟁깃을 끼워 장식을 한 다음 울긋불긋긋한 천으로 깃발을 만들어 매단다. 작은 집에서는 깃대 꼭대기에 고나무 가지를 붙들어 매기도 한다. 그리고 그 집안의 자녀의 수대로 등을 달고 남보다 크고 높은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이렇다 가 9일에 가서야 그친다.

사치를 부리는 사람은 튼 대나무 수십 개를 이어 매고 오강(五江; 한강, 용산, 마포, 현호, 서강을 말한다.)에 가서 돛대를 실어다가 등간을 만들어 놓는다. 그 꼭대기에 일월권(日月圈; 사월초파일에 세우는 등간의 꼭대기에 매는 장식)을 꽂아 놓아 그것이 바람에 따라 눈이 어지럽도록 돌게 한다. 혹은 회전등(回轉燈)을 매달아 빙빙 도는 것이 마치 연달아 나가는 총알 같다. 혹은 화약을 종이에 싸서 등간에 매달린 등줄 사이사이에 매달고 불을 붙여 터트리면 활을 떠난 화살 같이 흩어져 내려오는데, 그 찬란한 불꽃이 마치 비가 오는 것 같다. 혹은 종이쪽을 수십 발이나 되게 이어 붙여 바람에 펄펄 휘날리게 하면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모양 같다. 혹은 광주리를 매달기도 하고 또는 꼭두각시를 만들어 옷을 입혀 줄에 매달아 놀리기도 한다.

시가에 준비하게 늘어서 있는 가게에서는 등간을 높이 세우기 위해 받침대를 높이 만들려고 수십 가닥의 줄을 펼쳐 놓고 여럿이 잡아 당겨서 세워 올린다. 이 때 체구가 작고 약한 이들 사람들이 모두 놀러댄다. 《고려사》에 보면 왕궁이 있는 국도(國都)로부터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정월 보름에 이들 저녁 동안 연등놀이를 하던 것이 최이(崔怡; 고려 고종 때의 세도가로 최충현의 아들)가 4월 8일로 변경했다고 했다. 그러므로 정월 보름의 연등놀이는 원래 중국에서 하던 행사이고 고려 풍속에는 이미 없어져 버렸다.

또 《고려사》에 보면 고려 풍속에 4월 8일이 석가의 탄신일이므로 집집마다 연등을 한다. 이 날이 되기 수 십 일 전부터 아이들은 종이를 잘라 등간에 매달아 깃발을 만들고 성안의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쌀이나 돈을 얻어서 비용으로 쓴다. 이것을 호기(呼旗)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등간에다 기를



매다는 것은 호기의 유풀인 것이다. 연등놀이가 4월 8일에 행해진 것은 고려 때 최이가 시작하면서부터인 것이다. 등의 종류에는 수박등, 마늘등, 연꽃등, 칠성등, 오행등, 일월 등, 구등(球燈), 선등(船燈), 종등(鍾燈), 북등, 누각등, 난간등, 화분등, 가마등, 머루등, 병등, 항아 리등, 방울등, 알등, 봉등, 학등, 잉어등, 거북등, 자라등, 수복등(壽福燈), 태평등(太平燈), 만세등(萬歲燈), 남산등(南山燈) 등이 있는데 모두 그 모양을 상징하고 있다.

**《동국세시기》, 사월(四月) 팔일(八日)조**

등을 만들 때 종이를 바르기도 하고 혹은 붉고 푸른 천을 바르기도 한다. 운모(雲母)를 상감하여 비선(飛仙)과 화조를 그리기도 하고, 평평한 면마다 또 각진 모서리마다 3색의 돌돌 만 종이나 길쭉한 종이 쪽지를 붙이기도 하는데, 그 나무끼는 모습이 매우 다채롭고 호화스럽다. 고등(鼓燈)에는 장군이 말을 탄 모습이나 중국의 위, 촉, 오나라의 고사를 기록한 삼국지의 그림을 많이 그린다.

또 영등(影燈)이라는 것이 있다. 등 안에 같이틀[죽기 鋸機]을 만들어 놓고 종이를 잘라 말 타고 사냥하는 모습이나 매, 개, 호랑이, 이리, 사슴, 노루, 꿩, 토끼 모양을 그려서 그 같이틀이 든 등에 다 붙인다. 그러면 바람에 따라서 빙빙 도는데 거기에서 비쳐나오는 그림자를 구경한다.

소동파의 《여오군채서 與箕君索書》에 “영등(影燈)을 아직껏 보지 못하다가 이제 보니 어떠한가. 한번 보매 삼국지 같은가.” 했으니 여기서도 삼국지의 고사를 그림자로 만들었던 것 같다.

성대(成大) 범석호(范石湖; 중국 송나라 때의 시인)의 《상원기오중절물배해체시 上元紀吳中節物 俳諧體侍》에 “그림자를 돌리니 탄 말이 중횡으로 달리는구나.”라 했고, 그 주(註)에 이것을 마기 등(瑪騎燈)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이미 송나라 때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등집에서 파는 등은 천태만상으로 오색 찬란하고 또한 값이 비싸며 그 기이함을 자랑한다. 종가(鍾街)에는 이 등불을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울타리처럼 물러든다. 또 난조(鸞鳥), 학, 사자, 호랑이, 거북, 사슴, 잉어, 자라 모양 등과, 선관(仙官), 선녀가 말 탄 형상의 등을 만들어 팔면 여러 아이 들은 서로 다투어 사 가지고 장난하며 논다. 연등놀이를 하는 날 저녁에는 전례에 따라서 야간통 행금지 가 해제된다.

서울 장안의 남녀들은 초저녁에 남북의 산기슭에 올라가 등을 달아 놓은 광경을 구경한다. 혹 어 떤 이는 약기를 들고 장안을 쏘다니며 논다. 그리하여 서울 장안은 사람의 바다를 이루고 등불의 성(城)을 이룬다. 그렇게 떠들썩하기를 밤새도록 그치지 않는다.

장안 밖의 시골 노파들은 서로 붙들고 와서 잠두봉(蠶豆峯)에 올라가 이 장관을 구경한다. 아이들 은 석남(石南)나무 잎을 넣어서 만든 증편과 볶은 검은콩과 삶은 미나리 나물을 등간 밑에 벌여 놓는다. 이것은 석가탄신일에 고기 없는 간소한 음식으로 손님을 청해다가 즐기는 풍속이 변한 것이라 한다.

**박주대(朴周大, 1836~1912), 《성시전도 城市全圖》,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 83쪽**

4월이면 개천에서 연등놀이가 펼쳐 지는데  
제각기 만든 연등은 온갖 재주를 자랑하네  
하늘 높이 바지랑대에 연꽃등이 매달리고  
바람 타고 꼬리치며 잉어가 올라가네

## 중구의 축제

박태원, 《천변풍경》, 빛샘, 1999, 96쪽

천변을 등장수가 지나간다. 등은 무던히나 색스럽고, 풍경은 그의 느린 한 걸음마다 고요하고 또 즐거운 음향을 발한다. 날도 좋은 오늘은 바로 사월파일-.

아이들이 서너 명, 끈기 좋게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눈에, 그것들은 탐스럽게 신기하다. 만돌이 는 윗입술에까지 흘러내린 시퍼런 콧물을 들여마실 것도 있고 동무들 틈에 끼여, 바삭 장수의 뒤를 쫓아간다.

### ○ 달맞이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2, 상원곡(上元曲)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 125쪽

십자가 가운데 달이 밝고 밝아/초경 삼점에 종소리를 기다리네  
노래부르던 사람들이 밤중에야 흩어지는데/어디서 촌담이 가끔 우는가  
오늘밤은 눈빛이 유독 밝고 밝아/사람마다 광통교에서 달은 기다린다  
노래하는 아이들 한 떼가 옷깃을 연이어/한께 동방의 행락조(行樂調)를 부르네

### ○ 윗놀이

박태원, 《천변풍경》, 빛샘, 1999, 31~32쪽

그곳에는 스물 안팎으로 대여섯 까지의 젊은이들이 칠팔 명이나 동저고리 바람으로 모여들 앉아. 모래 판에 깔아 놓은 한 장 거적 위에서 윗돌을 놀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 한 달 전 정초의, 그 기분이 아직도 완전히 가시지 않은 그들은, 제각기 가진 약간의 불일은 결코 마음에 키우지 않는다.

진작부터 그곳에 윗판이 벌어져 있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으나, 입때까지 빨래꾼들하고 객담만 하느라 그 속에서 점롱이 찾을 생각은 못하고 있었던 그 수다스러운 마누라쟁이는, 부리나케 노름판 벌어진 바로 위 천변으로 걸음을 옮겨 아래를 굽어보고, 금시에 표정을 험상궂게 꾸미고.

### ○ 썰매타기

박태원, 《천변풍경》, 빛샘, 1999, 366쪽

바라보니, 얼음을 지치고, 팽이를 돌리고 하느라, 십여 여명이나 들어가 있는 개천 속에서 어떤 녀석이 몹시도 때렸는지 웬 아이가 기색을 하여 우는 소리가 들리고, 누가 맞은 아이 편을 들어 대 드는지, 서로 왈차하게 욱지거리들을 하는 품이, 비록 아이들 씹이라도 만만하게는 볼 수 없게끔, 제법 크게 벌어진 모양이다.

### ○ 활쏘기

《열양세시기》, 삼월(三月)조



서울의 꽃과 버들은 3월에 가장 장관을 이룬다. 남산의 잠두(蠶頭)와 북악산의 필운대(弼雲臺)와 세심대(洗心臺)는 유람객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이고 안개 같이 피어서 한 달 동안 좀처럼 줄어들지를 않는다. 세심대는 선희궁(宣禧宮)의 뒷산 기슭에 있다. 신해년(1791년)의 늦봄에 정조 임금께서 옥상궁(毓祥宮)과 선희궁을 배알하시고 보여(步輿)를 타고 기로(耆老)와 조신(朝臣)들을 거느리시고 이 세심대로 올라가시어 시도 지으시고 활도 쏘셨다. 이 해부터 이런 행사가 연례로 되었다.

## ○ 화전

### 신명균, 속가집, 《서울민속대관》 3, 136~136쪽

어화 여중들이 이내말씀 들어보소 이해가 어떤 해노 우리임금 화갑이라  
 화봉의 축원으로 우리임금 축수하고 강구의 격양가로 우리여인 화답하네  
 인정전 높은전에 수연을 배설하니 백관은 현수하고 창생은 고무한다  
 춘당대 너른땅에 경과를 보이시니 목목하신 우리임금 서일같이 임하시고  
 빈빈한 명유들은 화상에 분주하다 이렇듯이 좋은해에 이때가 어느때노  
 불한불열 삼춘이라 심류청사 드린곳에 화영이 편편하고 청봉수장 배푼곳에  
 봉첩이 분분하다 우구황앵 아니로되 꽃을같이 얻었으니 우리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성세 아니놀고 무엇하리 백만사 다버리고 하루놀음 하려하고  
 일자를 정차하니 길일양전 언제런고 이월이라 염오실에 천명시절 제때로다  
 손꼽고 바라더니 어느덧에 다닫고야 아희종 급히불러 앞뒤킵 서로 일어  
 소식하고 가사이다 노소없이 다모도야 차차로 달아나니 웅장성식 찬란하다  
 원산같은 눈썹일랑 아미로 다스리고 횡운같은 귀밑일랑 선빈으로 꾸미도다  
 동해의 고운명주 잔줄넣어 누벼입고 춘양에 바랜베를 연반물 들여입고  
 선명하게 나와서서 좋은풍경 보려하고 가려강산 찾았오되 용산은 가려느냐  
 매봉으로 가려느냐 산명수려 좋은곳은 소학산이 제일이라 어서가자 바빠가자  
 앞에서고 뒤에서고 태산같은 고봉준령 허위허위 올라가서 승지에 다닫거다  
 좌우풍경 둘러보니 수양같은 금오산은 충신이 멀었거늘 어찌저리 푸르렀으며  
 황하같은 낙동강은 성인이 나시려가 어찌저리 노든덴가 구경을 그만하고  
 화전터로 내려와서 빈전이야 정관이야 시냇가에 걸어놓고 청유라 백분이라  
 집에앉아 수록진미 보기는 하려니와 우리일신 동환하기 이에서 더할소냐  
 송하에 늘어앉아 꽃가지로 찍어올려 춘미를 쾌히보고 남은흥 못이기에  
 상상봉 치아달아 한없이 좋은경을 일안에 다드리니 저높은 백운산은  
 적송자의 노든덴가 반석위에 바둑판은 낙서격을 벌여있고 유수한 황학동은  
 서황모 있든덴가 청계변에 복성꽃은 무릉원이 의연하다 이러한 좋은경계  
 험없이 다즐기니 조선의 석벽인들 이에서 더할소냐 이백의 채석인들  
 좋은경을 모를소냐 화간에 벌여앉아 서로보며 이른말이 여자의 소견인들  
 심신이 호탕하여 장장춘일 긴긴날을 긴줄도 잇었더니 서산에 지는해가  
 구곡에 재촉하여 충암 고산에 모연이 일어나고 벽수동저에 속조가 돌아든다  
 흥대로 놀려하면 인간의 자연취객이 아닌고로 마지못해 일어나니 암하여 잘있거라  
 강산아 다시보자 시화연풍 하거들랑 창안백발 흘날리고 고향산천 찾아오마

## 중구의 축제

### 《경도잡지》, 유상(游賞)조

필운대 살구꽃, 북둔(北屯)의 복사꽃, 동대문 밖의 버들, 천연정(天然亭)의 연꽃, 삼청동, 탕춘대(蕩春臺)의 수석(水石) 등에 사람들은 풍월을 읊으며 하루를 즐기기 위해 몰려든다. 서울의 성 주위 40 리를 하루 동안에 두루 돌아다니고 성 안팎의 꽃과 버들을 다 본 사람을 제일로 쳤다. 꼭두새벽에 오르기 시작하면 해질 무렵에는 끝낼 수가 있다. 그러나 살길이 험하여 포기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

### 《열양세시기》, 삼월(三月)조

서울의 꽃과 버들은 3월에 가장 장관을 이룬다. 남산의 잠두(蠶頭)와 북악산은 필운대와 세심대는 유람객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다. 사람들이 구름 같이 모이고 안개같이 피어서 한 달 동안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세심대는 선회궁의 뒷산 기슭에 있다. 신해년(1971년)의 늦봄에 정조 임금께서 육 상궁과 선회궁을 배알하시고 보여를 타시고 기로와 조신들을 거느리시고 이 세심대로 올라가시어 시도 지으시고 활도 쏘셨다. 이 해부터 이런 행사가 연례로 되었다.

### 《동국세시기》, 삼월(三月) 월내(月內)조

서울 풍속에 산언덕이나 굽이쳐 흐르는 물가에 나가서 노는 것을 화류(花柳)라 한다. 이것은 3월 삼진 날 답청(踏靑)하는 데서 생긴 풍속이다. 필운대의 살구꽃, 북둔(北屯; 현재 성북구 성북동)의 복사꽃, 흥인문(興仁門) 밖의 버들이 가장 놀기 좋은 곳이고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 G. W. 길모어, 신복룡 역, 《서울풍물지》

조선사람들은 지나치게 언덕을 좋아한다. 그 결과 남산은 사람들을 위한 가장 훌륭한 휴양지가 되었다. 북한산은 궁터에 속해 있으므로 백성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봄, 여름, 가을 중 거의 화창한 날에는 작은 무리들이 산을 넘어 거닐거나 나무 아래 누워서, 때로는 도시의 벽에 기대앉아 기대앉아 남쪽의 경치를 즐기는 것을 볼 수 있다.

## ○ 야영

### 박태원, 《천변풍경》, 빛샘, 1999, 70쪽

음력 삼월 중순, 내일 모레 창경원의 야영(밤에 벚꽃핀 경치를 구경하며 즐김)이 시작되리라는 하늘은, 매일 같이 알게 흰구름을 띄운 채, 휘연하게 흐리다. 사람들의 마음이 애달게도 들뜨려 할 때, 배다리 골목 안, 최 장님 집에서는, 그 건넌방을 빌려 든 이쁜이네에게, 오늘 크나큰 경사가 있다 해서, 이른 아침부터 좁은 집안에 사람이 들끓었다. 작년 가을부터 말이 있어 오던 이쁜이가, 기어코 이 날을 기약하여 아랫대 강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는 것이다.

## ○ 택견



서울특별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 서울특별시, 85쪽

청계천은 우리 고유의 무예인 택견의 장소이기도 하였다. 택견은 우리 나라 고유의 맨손 무예로 주로 손과 발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낸다. 택견은 우리 민족 기층문화의 하나로 원시시대부터 발달해 온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시대 서울에서는 결련(結連)택견이라고 하여 마을끼리 편을 갈라 승부를 결정하였는데, 청계천 아래, 즉 동대문, 광희문, 왕십리 일대가 택견이 행해지는 주요 장소였다. 아랫대는 훈련원을 비롯한 군영(軍營)들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군총(軍摠)들의 집단지주지였다. 아랫대가 택견이 행해진 주요장소가 된 것은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 제기차기

G. W. 길모어, 신복룡 역, 《서울풍물지》

그(연날리기) 다음으로 인기 있는 경기는 조선에서만 볼 수 있는 제기차기이다. 약간 유연한 풀 타래를 중앙으로 함께 묶어 밤나무 가지나 또는 가지 크기의 소모사로 말아 올려 작은 공과 비슷하게 만든다. 이것을 공중으로 던진 후 손을 대지 않은 채 능숙하게 발로 툭툭 찬다. 그러한 묘기는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지만 열두 살 정도의 소년들은 8분 동안 그것을 공중에 놓고 계속 찰 수 있다. 제기차기는 발가락이나 발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목 바로 밑의 발 옆으로 한다. 이러한 이 상한 물체는 동전에 종이를 묶어 만드는데, 수술은 동전 밑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다. 흐트러진 상태로 되어 있는 수술은 마치 화살 맞은 것처럼 움직이며 무게가 나가는 끝 부분이 먼저 떨어진다. 이러한 노리개를 가지고 둘이나 셋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것을 차며 논다.

이러한 게임의 유형은 남자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데, 그것은 뉴욕시의 월 스트리트(Wall Street)에 해당하는 수도의 지역인 종로에서 가장 눈에 잘 띈다. 그것을 가지고 수도의 중개인들은 월 스트리트의 중매인들이 하는 경매에 해당되는 내기를 한다.

○ 팔랑개비돌리기

《동국세시기》, 정월(正月) 상원(上元)조

얇팍한 댓가지의 양쪽에다 오색종이를 잘라 풀칠하여 붙인다. 그리고 모가 지기도 하고 둥글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여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나무자루 끝에다 그 댓가지의 한 중간을 뚫고 댓가지가 돌아가도록 허술하게 못을 박는다. 이것을 팔랑개비라 한다.

아이들은 이 팔랑개비를 들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향하여 달린다. 그러면 팔랑개비는 뱅글뱅글 돌아간다. 팔랑개비는 시장에서도 많이 팔고 있다.<sup>9)</sup>

9) 《청계천에 얽힌 전통민속놀이 재현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2003. 8. 29, pp.46~60.



## 중구의 축제

### ○ 윷놀이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안방에서 윷을 던지며 길흉을 점치니,  
떠들썩하게 축하(祝辭)를 하며 용모를 단정히 한다.  
신수가 대통한 금년 징후는,  
제 1호(점괘)에서 수룡(水龍)을 얻었다.

### ○ 투전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투전판을 벌여 놓고 던지기를 분분하게 하니,  
어(魚) 조(鳥) 장(臧) 성(星)을 가지고 노소가 편을 나누어 있다.  
자제(子弟)가 삼동(三冬)에 무엇을 읽었는가,  
세시(歲時)에 팔가문(八家文)을 부지런히 공부하였다.  
<지패 곧 투전(鬪錢)을 팔대가(八代家)라고 한다.>

### ○ 널뛰기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뜰에 가득한 판대기로 춤추는 작은 아가씨들이,  
파란 적삼 붉은 치마 한 모양으로 장식을 했다.  
뛰고 뛰며 높은 것을 다루는 빠른 몸은,  
전면(全面)이 앞 담에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판(板)을 뛰넘는 놀이를 판무(板舞)라고 한다.>

### ○ 축국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축국장(蹴鞠場: 격구장)이 시장 길가에 많으니,  
장사치는 손님을 맞으며 짐짓 어정대기만 한다.  
원앙(鴛鴦) 같은 다리 힘으로 걸어 다니는 걸음은,  
시가(市街)의 서리가 버선에 들어와도 겁내지 않는다.



○ 쥐불놀이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쥐날과 토끼날(子卯日)

〈제일 첫 묘일(卯日)을 속칭 토끼날이라 한다.〉

불로 쳐서 주둥이를 태우매 연기가 훈훈하게 창일(漲溢) 되었으니,  
담에서 자취를 감춘 쥐 떼 일러라.

명령 내리기를 내일 아침 토끼 잡는 곳에서,  
문을 닫고 여자들 들어오는 것을 못하게 하라.

〈상자일(上子日)에 콩을 볶으면서 쥐 주둥이 지진다고 이르고 상묘일(上卯日)에는 여자가 먼저 문에 들어오는 것을 꺼린다.〉

○ 제웅치기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정월 대보름날(上元)

문두들기는 여러 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너무 미치광이 같으니,  
허수아비가 붉은 몸을 길게 들어내었다.

궁둥이를 치고 옆구리를 쥐는 것은 무슨 죄에 인연 되었느냐.  
머릿속에 돈을 간직한 것이 이것이 곧 장물(贓物)이니라.

○ 연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종이연을 저녁때 바람결에 띄워 보내면서,  
서운해서 구름 끝을 바라보니 벌써 사라져 버렸다.  
단연코 내일 아침부터는 옛 장난을 멈추게 되니,  
누가 일시에 아이들에게 새 명령을 내릴 것인가.

○ 지연·풍차(風車·回回兒·팔랑개비·바람개비돌리기)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꽃종이 색색으로 풍차(風車)를 굴리니,



## 중구의 축제

연실을 끊어서 보내는 때일러라.  
 면목(面目)은 저 옛 모습과 같기를 바라니,  
 머리를 굽혀 평상에서 책을 읽는 것과 비슷하다.  
 <종이연(紙鳶)을 놓아 보낼 때 눈을 오래 주시하고 있으면 눈이 상하기 때문에 풍차(風車)를 붙여서 알게  
 보고 눈을 정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 ○ 고누 · 돈치기 · 팔매질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아동들이 즐겨 장난하는 것이 너무나 창황(蒼黃)하니,  
 돌을 주워다가 팔매질하는 기술이 많기도 하다.  
 고누를 다 뒤흔도 오히려 멈추지 않고,  
 돈치는 마당에서 땡그렁 소리가 난다.

### ○ 복토흙치기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울퉁불퉁한 흔적이 많은 사방으로 통한 거리에,  
 집집마다 흙덩이를 뭉쳐다가 부엌 때우는 것을 일삼는다.  
 다만 황금이 이 흙과 같다면,  
 백성마다 잘 살아서 가히 우리나라는 당나라에 비길 만하다.  
 <통구(通衢; 여러 군대로 통하여 왕래가 잦은 거리)의 흙을 가져다가 부엌을 바르면서 집이 부자되기를  
 기원한다.>

### ○ 다리밟기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여덟 개의 큰 다리에 한 길이 통했으니,  
 돌 난간을 어루만지며 다리에 무지개를 드린다.  
 오늘 밤에 다리를 절며 기어 다니는 자가,  
 혹 내년에 잘 걷는 늙은이가 될는지.  
 <이 날 밤 돌다리를 밟으면 다리병이 없다고 한다.>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시내의 남쪽, 시내의 북쪽에서 길이 갈려지니,  
 흰 달을 서로 바라보면서 수표다리(水標橋)를 지나간다.  
 바람에 탕건이 벗어지고 꺾어지는 인파 속에서, 광통교(廣通橋)를 뚫고 가기란 가장 어렵다.

남복을 입은 기녀(妓女)들이 남자로 속이니,  
 호방한 남자들이 끌고가서 어울려 한 덩어리가 되었다.  
 달 가운데 소란스레 다니며 노래하는 곳에서,  
 밝은 눈으로서도 누가 능히 남자(男子)인지 여자(女子)인지를 분별할 것인가.

길을 따라서 가볍게 가볍게 창 끄는 소리를 내며,  
 비단 도포에 전립(氈笠)을 쓴 이는 작은 군관(軍官)일러라.  
 호한(豪悍)한 정(情)은 밤중에 다리밟는 것을 일삼지 않고,  
 문득 청루(靑樓)를 향해서 반 밤을 즐긴다.

정월 열엿새날(上元翌日)  
 상원(上元)의 다음날이 어찌하여 무료할까,  
 유녀(遊女)들이 무리를 이루고 가서 다리를 밟는다.  
 비록 노래하고 휘파람 부는 풍류는 적지만,  
 종소리와 달빛은 어제 밤과 같구나.  
 <상원(上元) 다음날에 여염집 여자들이 답교(踏橋)놀이를 한다.>

## ○ 달맞이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상원(上元)이 갑자일(甲子日)이면 규운(奎運)이 열리는 것이니,  
 꿈을 꾸는 아름다운 기회가 이 날 돌아온다.  
 다리에서 노는 소년배들한테 말을 전하노니,  
 오늘 밤 달을 보고는 일찍 돌아오라.

## ○ 풍소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잇달아 뻗친 휘장이 다리의 난간 옆에서,  
 앉아서 풍소(風騷; 시경의 국풍(國風)과 초사의 이소(離騷) 또는 시문(詩文)을 짓는 따위의 멋스러운 놀이)를 읊는 이들이 고관대작이더라.



## 중구의 축제

밝은 촛불 더운 화로 훈훈한 기운이,  
가두(假頭)의 빙설에도 추운 것을 모르겠더라.

### ○ 야회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인파를 뚫고 지나가는 귀한 이의 행차가,  
굴레를 자개로 장식한 말이 기세등등하게 길을 인도하는 소리더라.  
어느 좋은 집에서 야회(夜會; 등잔불을 켜놓고 밤새워 늙)를 약속했는지, 다리 머리에서 달 구경하는 것  
은 관심이 적었다.  
〈야회(夜會)를 야화(夜話)라고도 한다.〉

### ○ 족류·삼현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운종가(雲從街) 북쪽 광통교(廣通橋) 서쪽에,  
부잣집에서 밤놀이에 촛불을 가지런히 잡았더라.  
세세(細細)한 삼현(三絃)으로 곡보(曲譜)를 노래하니,  
방 가운데의 풍류를 달 가운데서 가져왔도다.  
〈중촌(中村)의 야회(夜會)를 족류(燭遊; 촛불놀이)라 하고 세악(細樂)을 삼현(三絃)이라고 한다.〉

### ○ 석전·줄다리기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거리를 막고 석전(石戰)하는 것이 너무나 횡행하니,  
땅이 움직이도록 소리질러 대는 것이 가이 놀랄만 하더라.  
시골 마을 오늘 밤은 무엇 같을까?  
반공에서 멀리 들리는 줄다리기는 소리와 흡사하다.  
〈새끼를 잡아 당기는 놀이를 설하(挈河)라고 한다.〉

### ○ 골패놀이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육시루(六市樓)가 십자가(十字街)에 임해 있으니,  
사랑을 격한 작은 점포가 별달리 안배되어 있다.  
장사하는 아이들이 밤에 혼연(渾然)히 일이 없어서,  
양뿔(羊角) 등잔 앞에서 골패놀이를 한다.

○ 화류총놀이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모든 능에서 제사를 같이 지내니,  
매년 한식(寒食)에는 예(禮)가 더 높아진다.  
향축(香祝; 제사 때 쓰는 향(香)과 축문(祝文)) 전한 것을 모시고 동서(東西)로 가는 길에, 대(隊)를 이루어서 화류총(花柳叢)을 뚫고 지나간다.  
<나라에서는 한식제향(寒食祭享) 때에는 제사를 안 지내던 능(陵)까지도 제사를 지낸다.>

○ 쑥국회 · 봄맞이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쑥바귀와 냉이는 푸르고 푸르러 목숙(首蓿)은 향기로운데,  
이른 봄 새 나뭇잎이 정히 먹을 만하다.  
산가(山家)에 운치 있는 일은 시물(時物)에 따르는 것이니,  
양파(陽坡) 쑥국 끓이는 데서 모여 먹는다.  
<이른 봄에 쑥국회(쑥국 먹는 모임)를 많이 갖는다.>

○ 답청놀이 · 화전놀이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삼월 삼진날(三月三日)  
댓잎술이 끓어올라 무르녹으니, 술지게미를 걸러 내고,  
두견(杜鵑花)로 떡을 구우니 향기가 남아돈다.  
우연히 풀길을 따라 봄을 찾아가니,  
답청(踏青)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연히 답청(踏青)이 되었다.



## 중구의 축제

### ○ 꽃싸움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꽃싸움을 하는 산동(山童)은 나비를 따라가고,  
뽕을 따는 촌녀(村女)는 누에 잘 때를 대간다.  
한가한 늙은이가 풍년 징조를 증험하고자 해서,  
가만히 꽃수염을 세려고 두견화(杜鵑花)를 꺾어 온다.  
〈나비를 따라 청산 간다는 것은 봄날 동요에 있다. 두견화 꽃수염 많은 것으로써 풍년을 점친다.〉

### ○ 풀각시놀이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처음 봄 사일(社日)이 지나니 제비가 돌아오고,  
날이 따뜻하니 유사(遊絲)가 먼 산에 애연(藹然)하다.  
계집애들이 뜰의 풀 잎사귀를 따다가,  
의연(依然)히 꼬아서 푸른 머리를 만든다.  
〈제비가 3월 3일에 온다고 이른다. 원산유사(遠山遊絲)는 〈춘산요 春山謠〉에 있다.〉

### ○ 전춘놀이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봄 이별하는 날(삼월晦日 三月晦日)  
〈전춘일(餞春日)이라고도 한다.〉  
산에 오르고 물가에서 봄을 돌려 보내니,  
나머지의 푸른 것과 쇠잔한 붉은 것이 정히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봄을 더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오직 한 계책이 있으니,  
해마다 윤달 30일 더 얻기를 원한다.  
〈윤삼월 그믐에 봄을 작별하는 놀이를 한다.〉

### ○ 화월음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고사(故事)에 왕희지의 난정(蘭亭)이 또 저문 봄인데,  
진(晉)나라 영화(永和) 3월에 일기가 청신하였다.



북촌(北村)의 도리(桃李)와 남촌의 버들에,  
 꽃철에 술 먹는 사람들이 분망도 하였다.  
 <꽃 필 때 모여 마시는 것은 화월음(花月飲)이라고 한다.>

○ 호기희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곳곳마다 부르는 소리가 강물을 끌어올리는 것 같으니,  
 장대에 기 꽃은 것을 다투어 세우니 삼(麻)보다도 더욱 초밀하다.  
 규모가 큰 사찰에 높은 들마루기둥은,  
 서울안의 4만 집보다 더욱 더 절등하다.

○ 호드기불기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비온 뒤의 봄 수풀 날이 따듯한 때에,  
 농사하는 늙은이가 나무를 접붙이려고 뿌리와 가지를 보호한다.  
 정히 시내 버들이 물이 일찍 오르는 것을 아니,  
 처음으로 아동들이 호드기 부는 것을 듣는다.  
 <나무 접하는 것은 반드시 한식(寒食) 전후에 하는 것이고, 버드나무에다가 살구를 접붙이고 그 진액 많은 것을 취하면서 유행(柳杏)이라고 한다.>

○ 등놀이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시장문 옆에서 새로 만든 등을 팔고 사니,  
 가격이 높은 것은 별다른 모양으로 장식한 것을 보겠도다,  
 황금빛과 푸른빛의 비단 천백 가지는,  
 반은 절로 가고 반은 부잣집으로 간다.

형형색색의 그림으로 채색된 종이에,  
 나는 새와 뛰는 짐승들이 다 의연(依然)하게 있다.  
 나무에 올라서 고기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니,

## 중구의 축제

괴이하게도 긴 장대에 자라와 잉어가 매달려 있다.

인정(人定) 소리가 이미 울린 뒤에도 여항(閭巷)에서는 아직도 떠들썩하니,  
통금을 무서워 안 하는 이 밤을 만났구나.  
노래부르는 것이 흡사 정월 대보름을 즐기는 것과 같으니,  
만 사람이 달 밝은 다리를 밟으며 지나간다.

### ○ 관등놀이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관등(觀燈)하는 시절에 서울과 시골의 움직임이니,  
무수한 시골 안 늙은이들이 한양으로 올라온다.  
불바다를 이룬 산 전폭(全幅)의 승경(勝景)을 보고자 해서,  
잠두산(蠶頭山) 높은 곳에 바삐바삐 올라간다.

### ○ 등놀이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백문(白門) 앞에서 이색적인 불놀이를 하니,  
시장 밖의 변화함이 장안과 같다.  
맞세운 층봉(層棚)이 횡질(橫截)한 곳에,  
태평만세(太平萬歲)란 글자가 높이 매달려 있다.

### ○ 물장구 · 수부(水缶)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누런 느릅나무 싹 잎은 연하여서 느티떡 하기가 좋으니,  
팔도 삶고 고기도 찌서 한 소반에 많이 놓았다.  
새 달이 돋고 등불이 켜진 뜰에서 수부(水缶)를 울리니,  
꽃이 떨어진 마을에서 은은한 것을 깨친다.  
<바가지로 동이의 물을 덮은 것을 수부(水缶)라고 한다.>



○ 산대잡극

<p>《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p>
<p>녹음방초(綠陰芳草) 우거진 동산길에서, 한 봄 내내 굶는 것이 너무나 난잡하다. 의연(依然)히 다시 등장하는 명창들을 따라 노니, 황란(荒亂)한 장대 머리에 허수아비가 매달려 있다.</p>

○ 화붕(華棚)

<p>《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p>
<p>다리 난간을 끼고 가면서 화붕(華棚)을 맺어 놓으니, 물 위의 등잔이 물 속까지 밝게 잠겼다. 홀연히 중간에서 떨기 불이 발동하니, 하늘에 가득하게 일만 개의 주머니 속에서 반딧불 같은 것이 흩어진다.</p>

○ 단오씨름

<p>《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p>
<p>단오(端午) 첩자(帖子)를 대곶에 바치니, 대곶에서 붉은 부적을 내리매 글자 찍힌 것이 새롭다. 백병(百病)을 녹여 오는 것이 율령(律令)과 같으니, 마왕(魔王)도 또한 치우신(蚩尤神)은 무서워한다. &lt;붉은 부적의 글에 치우(蚩尤)의 귀신이 구리로 머리를 하고 쇠로 이마를 해서 4백 4병(四百四病)이 일시에 소멸해서 급급히 율령과 같다는 것이 있다.&gt;</p>

○ 씨름 · 그네뛰기[飛仙戲]

<p>《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p>
<p>신무문(神武門) 곁 씨름하는 마당에는, 건강한 아이들이 서로 쫓으며 노는 것이 마치 미치광이와 같다. 이는 한강의 버드나무와 남산의 나무에서, 나는 신선놀이를 하는 색시들이 다투어 나오는 것만 같지 못하다.</p>



## 중구의 축제

### ○ 법고

####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당돌한 여러 스님들이 성곽(城郭) 아랫길 가에서,  
 사람을 맞아 북을 치면서 곧장 허공에다 소리를 지른다.  
 소리 높여 엮불하며 길 가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문득 노파나 색시들을 향해서 돈을 놓으라고 한다.  
 <그네 펼 때에 여러 중이 성남(城南)의 길에 있다가 노니는 사람들을 맞아서 계(僞)를 말하는 것을 엮불  
 이라고 한다.>

### ○ 복놀이[伏月飲]

####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대추꽃 피는 시절에 급히 모내기를 해야 되니,  
 폭우가 겨우 개었는데 또 폭양이 된다.  
 복달(伏月)에 잘 사는 집은 한갓 술만 먹고 있는데,  
 여름에 발매는 사람만이 몹시 바쁠 뿐이다.  
 <속설에 복달 비가 오면 대추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고, 복달 모여 마시는 것을 복월음(伏月飲)이라  
 고 한다.>

### ○ 탁족놀이

####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새로 개인 날씨가 정히 아름답구나.  
 발 씻으러 가는 행장을 오늘로 재촉해야 한다.  
 음식을 먼저 어느 곳에서 기다리라고 명령하고는,  
 시냇물과 산이 제일 좋은 데는 탕춘대(蕩春臺)더라.

### ○ 백중놀이

####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백중날(七月十五日)  
 <속칭 백중날이라 하고 또한 백중날이라고도 한다.>  
 중원(中元)에 수레바퀴달이 늦게 개인 가을인데,



내일은 남강에서 배를 띄우려고 한다.  
백 명의 중을 밥 먹이지 않고 백 가지를 베풀어 놓지도 않고,  
또 신선 같은 친구를 따라가서 잘 놀기[清遊]를 계획한다.  
<예전 풍속에 이 날에는 백 가지의 찬을 차려 놓고 백 명의 중을 불러 밥을 먹이며 잔치를 한다.>

○ 천렵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시골 가을 풍미는 전혀 허술하지 않으니,  
기른 닭이 처음으로 살찌고 채소도 먹음직하다.  
옥알 같은 중도(中稻)로 쌀을 찌어 오고,  
은비늘 같은 소천어(小川魚)를 그물질하러 간다.  
<이른 벼가 좀 늦은 것을 중도(中稻)라 하고, 무릇 냇물고기를 소천어(小川魚)라 한다.>

○ 사당패놀이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농가에는 추석이 가장 명절인데,  
즐거 웃는 마을마다 사람들이 취하고 배불렀다.  
해변 시장 산간 시장 왔다갔다하는 길에,  
사당패 여자가 북을 치고 춤을 추며 회신곡(回神曲)을 부른다.  
<우파(優婆)란 속칭 사당패라 하며 회신(回神)은 그가 부르는 곡명이다.>

○ 활쏘기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사회(射會)가 처음 이루어지매 계회(契會)를 멈추었으니,  
무리로 나누어 가지고 울울하게 과거 장소로 올라간다.  
호미를 잡고 있는 농부 아들이,  
능히 어린 나이로부터 활 당기는 것을 배울 줄을 어찌 알았으랴.

○ 등고놀이

## 중구의 축제

###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중구날(九月九日)

금꽃을 처음 거두어다가 둥근 떡을 구워 놓고,  
상락주(桑落酒)를 새로 걸러 자그마치 술지게미를 짜냈다.  
붉은 잎 가을 등산에 아담한 모임을 이루었으니,  
이 풍류가 억지로 등고(登高)놀이하는 것보다는 낫다.  
〈중양절(重陽節)의 술을 상락(桑落)이라고 한다.〉

단풍정(丹楓亭) 아래 임금의 수레가 돌아왔으니,  
국제(菊製)에 친히 임하시라고 어좌를 개설해 놓았다.  
시신(侍臣) 중에 칭고하고 절묘한 분을 많이 얻어서,  
등고(登高)하려고 때로는 탕춘대(蕩春臺)에 올라간다.

### ○ 난로회(煖爐會)

####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따뜻하게 모이는 것은 세시 때에 이바지하는 것 다음 가는 것이니,  
화룻가에 둘러 앉아서 어한(禦寒)을 한다.  
소반 가운데 새 맛나는 붉게 다린 약은,  
내의원(內醫院)에서 한 그릇 봉한 것을 날라왔다.  
〈난로회(煖爐會)를 난회(煖會)라고 한다.〉

### ○ 세시유희

####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세시 때 유희하는 것은 여러 아이들에게 맡겨 놓고,  
일과로 읽는 글공부 정지한 것을 특별히 허락한다.  
시골 서당 선생님이 예전 상고하는 힘을 잘 빙자하니, 술·안주·나무·쌀이 즐지에 많아진다.  
〈학동들이 세시 때 선생님께 드리는 것은 나무와 쌀 및 술과 반찬으로 많이 한다.〉

### ○ 폭죽놀이(대불놀이·年終砲)

#### 《세시풍요》, 임기중 역주, 유만공 원저



포 쏘는 소리가 구중대월에 진동하니,  
 사귀(邪鬼)를 쫓고 통금을 풀어 놓으니 선달 그믐밤인 줄을 알겠도다.  
 밝고 휘황찬란하게 함부로 쏘아대서 기(旗) 같은 화살이 올라가니,  
 홀연히 황혼(黃昏)을 깨고 벽공으로 올라간다.  
 <겉내에는 연종(年終)의 방포(放砲)와 및 불화살이 있어서 사귀(邪鬼)를 물리친다.><sup>10)</sup>

## 2) 역사

한반도에는 3세기 경부터 여러 부족이 이미 거주했고 부족단위의 축제 놀이문화가 그 나름대로 발전되어 왔음은 《삼국지 三國志》 위지 동지전과 기타 몇몇 중국의 문헌에 나타나 있다. 오늘날의 지역단위의 부락제처럼 1년에 한두 차례의 국중대회를 열어 하늘에 제사지내는 부족단위의 의식이 늘 있어 왔으니 그것이 무천·영고 등이다. 이들 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늘을 향해 춤을 추고 북을 치고 올리는 제에서 파이다아적인 많은 놀이가 발생했을 것으로 안다. 그러나 고대나 삼국시대 놀이문화에 대해서는 소상한 기록을 남긴 문헌이 별로 없다. 다만 고고학적으로나 아니면 문헌기록의 편린을 통해서 민속학적 유추와 해석이 가능할 뿐이다.

현상적으로 놀이의 종류도 삼국시대보다는 고려시대에 훨씬 더 그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삼국시대의 놀이로는 투호, 저포, 농주, 악삭, 위기, 축국, 지연 등 10여 종 내외의 것들이지만 고려시대는 30종에 가까운 놀이들이 나타나 있다. 물론 삼국시대에도 백희, 잡희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외에 더 많은 놀이가 있었겠지만 자료에 한정시켜 보면 그 정도이다. 이 중 농주나 축국이 고려시대에는 보이지 않는데 농주는 백희, 잡희 등에 포함되어 있으리라 추측되며 축국도 조선시대 《무예도보통지 武藝圖譜通志》나 《동국세시

10) 유만공, 《세시풍요》·《우리 세시풍속의 노래》, 임기중 역주, 집문당, 1993, pp.42~297.

기 東國歲時記》 등에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아 고려시대에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류의 놀이로 변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고려시대의 민속놀이만을 다양한 성격별로 나누어 보면 무예이면서 경기를 하는 것에는 격구희, 석전희, 수박희, 각저희 등이 있다. 세시적 놀이에는 정월에 지연 저포희, 2월과 4월에 관등 호기의, 한식에 투란희, 5월에 추천 격구 석전 각저희, 12월에 나희 등이 있다. 단순히 오락적인 것에는 위기와 장기 투호 저포희 그리고 물놀이로서 수희 선류 관어 관조 등이 있다. 의식적인 놀이에는 나희 처용희 귀희 초인동녀희가 있고 곡예적인 놀이에는 농마희 장대타기 귀희가 있다. 연극적인 놀이에는 화산의 걸호희 그리고 잡희, 백희가 여기에 속한다. 끝으로 동희에는 죽마, 호기희, 정초희, 초인동녀희 등이 있다. 이 중 경기와 세시적 놀이에 격구희, 석전희, 각저희 등이 겹치는 것은 단오와 같은 큰 명절에는 규모가 큰 행사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의식적인 놀이와 연희적인 놀이에서 나희가 중복되는 것은 본래의 의식적인 성격에서 오락적인 성격으로 변모되었기 때문이다. 계층별로 볼 때 상류층의 놀이로는 격구, 투호, 쌍육, 위기, 수희, 화산희, 관어, 관조 등이 행해졌으며 격구와 석전희, 수박희, 각저희 등의 관람을 즐겼다. 이상과 같은 고려시대 민속놀이의 특징은 무예를 연마하는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격구, 석전, 수박, 각저 등을 국가에서 특히 장려하였다는 사실에서 이 시대의 상무정신을 엿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격구는 고려의 국기처럼 숭상한 것으로 국가 시설로서 구정을 의봉루 밖에 만들고 격구를 장려하였다. 이 구정은 일종의 국립운동장으로 그 규모가 상당히 방대하였고 팔관회 연등과 같은 국가적 의식이나 대회 등에 사용하였다. 한편 여자들도 격구와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한 것으로 보아 밀폐된 조선사회와는 다른 고려시대의 진취적인 기상을 엿볼 수 있다.

본 장에서 필자는 주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놀이를 중심으로 그 종류와 내용을 고찰하되 조선시대와의 맥락도 고려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놀이가 가진 내적 의미도 함께 살펴 보하고자 한다.

### ① 격구희(擊球戲)

격구는 구장에서 말을 타고 달리면서 장으로 공을 쳐 구문에 넣는 놀이로 타구 농장희 격



붕이라고도 하였고 우리말로써는 공치기 또는 장치기라고도 한다. 그 유래는 당나라를 거쳐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으로 짐작되나 확실하지는 않다. 우리나라에는 《고려사 高麗史》 태조 원년 9월조에 “상주적사 아자계의 귀순을 맞이하는 의식의 연습을 구정에서 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미 삼국시대에 이것이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추측되며 아울러 격구를 위한 구장이 따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격구는 무예를 숭상하던 고려시대에 와서 크게 성행하였다. 고려시대의 격구는 군사적 목적에서 무관들의 무예훈련으로 이용되었음은 물론 귀족 자제의 놀이로서 가르치기도 하였으며 또한 부녀의 격구도 행하여졌다. 왕과 귀족들은 격구장에서 무예로서의 군사들의 격구를 사열하였고 또한 놀이로서 관람하여 즐겼으며 상으로 비단 포복 등을 내리기도 하였다. 특히 의종은 격구를 몹시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능했으며 격구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 관직을 제수하기도 하였다. 의종 이후 격구는 점차 국가적인 오락 행사가 되어 궁중에서는 단오절의 국속으로 성대하게 벌였다. 이밖에 연회 등이 있을 때라든가 수시로 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격구가 성행하자 본래의 목적인 치마와 습무에서 벗어나 사치에 힘쓰게 되어 많은 폐단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예종은 부녀격구를 금지하였고 충혜왕 원년(1314) 5월에는 전반적으로 격구를 금지되었으며 공민왕 23년(1374) 5월에 다시 금지되었다. 그러한 폐습의 실례로 《고려사》 열전을 보면 “최항은 재추를 그 집에 불러 연하고 격구희마를 관람하였는데 이 때 별초는 황금으로서 장니를 장식하고 금엽나화를 말 수미에 꽃았다.”든가 또 “최이가 이웃집 백여 구를 빼앗아 구장을 만들었는데 동서 수백 보요 지면이 평평하기가 바둑판과 같다. 격구를 할 때마다 반드시 동네 사람으로 하여금 물을 뿌려 먼지를 적시게 하였다.”는 내용에서 그것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또한 《동국이상국집 東國李相國集》 기중 〈최승제대루기〉에서도 수리에 걸쳐 담을 쌓은 격구장의 방대한 규모와 호사스런 연석 등이 나타나 있다. 한편 여기에는 격구를 하는 현장 모습이 생생하

11) 《海東釋史》 권 41 交聘 通日本始末 擊毬條에(日本字多元年 卽唐昭宗龍紀元年(889)) “字多時渤海使王文矩來 倭皇御豐樂殿宴五位以上 觀渤海使擊毬賜綿二百屯”(日本逸史)이라 하고, 《舊唐書》 권 199 열전 渤海 靺鞨條에 “風俗與高麗及契丹同”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격구는 신라와 고구려 등에 주둔하고 있던 당병에 의해 전해졌으며 고구려의 유민에 의해 발해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격구의 종류에는 마상격구와 지상[徒步]격구의 두 종류가 있다. 즉, 기마로써 행하는 군사적 치마훈련의 격구와 도보로써 지상에서 하는 귀족층의 격구로 나뉘는데 모화관 또는 기타의 넓은 광장에서 병사들이 하는 기사와 같이 행한 것은 마상격구이고, 내정이나 그밖의 전전에서 왕과 종친 및 환신 등이 운동이나 오락으로 행한 것은 지상격구이다.

게 그려져 있기도 하다. 조선시대에도 격구<sup>11)</sup>는 중요한 무예의 하나로 여겼으며 정기적으로 진행된 군대열병식에서는 반드시 이를 실시하였고 또 무과시험에 포함시켜 인재선발의 기준으로 삼았다.

### ② 석전희(石戰戲)

석전희는 양편으로 패를 갈라 서로 돌을 던져 싸워서 승부를 겨루는 양파경축희(兩派競逐戲)로 석전, 척석희, 석척, 석투, 변전, 편전 등 그 명칭이 다양하게 불렸다. 고려시대에 상무정신을 기르는 대표적인 경기의 하나였으며 경기 때 부상자는 물론 죽기까지 하는 격렬한 싸움이었다. 석전에 대한 처음 기록은 《수서 隋書》 권81 동이 고구려전에 나타나는데 이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정월 초순에 행하는 국가적 연중행사로서 국왕의 관전 하에 행하였다고 한다. 이때의 석전은 전투훈련의 성격과 함께 의식적(또는 제의적) 성격이 있는 듯하나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신라가 문무왕 때 군제에 사동을 설치하였는데 그 하나가 석투동이었던 기록에서 석전이 전투기능을 담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석전은 이미 삼국시대에 있었고 고려시대에 와서는 여진정벌의 핵심적인 편제이던 별무반에 석투반 석투군이라는 군대조직으로 편성되어 전술적으로 중요성을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오절의 국속으로 오락적인 성격을 띠고 널리 행해졌으며 왕과 귀족들이 직접 관람한 것으로 보아 그 규모 경황 등이 장대하였음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우왕은 석전희를 관람하기를 좋아했으며 공민왕과 충목왕 때에는 한 때 이 놀이를 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풍속은 조선시대에도 계속되어 석전을 실전에 대비하는 무예로서 인정하는 한편 민간에서는 유희적 행사로서 전국적으로 행해졌다. 시기는 고구려시대에는 세초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에는 주로 5월 단오 조선 말기에는 《동국이상국집》에 의하면 정월 대보름에 석전의 승부로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 ③ 수박희(手搏戲)

수박희는 두 사람이 상대하여 맨 주먹으로 힘을 겨루는 놀이로 박희라고도 하였다. 그 유래는 무용총 현실벽화에 있는 그림이 수박의 장면과 흡사하여 이미 삼국시대에도 행해졌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기록상으로는 고려시대에 비로소 나타난다. 고려시대에 수박은 무예를 연마하는 수단으로 국가의 장려 하에 널리 성행되었다. 무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널리 행하였는데 그것은 《고려사》 열전 두경승조에 “수박은 천기이니 장사의 할 바 아니다.”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려사의 기록에서 수박은 왕이나 귀족들의 연희 때 수시로 행해졌으며 승자에게는 상으로 관직을 제수하였다. 같은 책 열전에서 보면 공민왕 때 변안열은 판밀직사사에 제배되었고 의종 때 이의민은 대정에서 장랑장으로 진급되었으며 또 최충헌도 수박을 시켜 이긴 자에게 교위 대정의 벼슬을 제수하였다. 이와 같이 수박은 왕과 귀족이 관람하여 무예로써 무력을 사열하는 의미를 지니는 한편 무희로써 오락의 대상의 되기도 하는 두 가지 기능을 지니고 있었으며 관직과 직결된 만큼 무인들에게는 필수적인 무술이었다. 수박의 명수로는 의종 때 두경승과 이의민이 있었는데 이의민이 주먹으로 기둥을 쳤더니 서까래가 움직였고 두경승이 주먹으로 벽을 치자 주먹이 벽을 뚫고 나갔다고 한다. 수박희의 방법에는 《고려사》 열전 정중부조에 ‘오병수박희(五兵手搏戲)’와 ‘여일인수박(與一人手搏)’이라고 하는 구절로 보아 당시 수박이 1인 대 1인의 자유대련으로부터 복수로 상대하는 복수대련의 형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수박이 크게 성행되었던 것은 당시 고려사회가 무예를 숭상하는 사회였고 또한 특별한 기구나 복장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행할 수 있는 투기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조선시대에 와서도 수박희<sup>12)</sup>는 무사의 기본 무예로서 중요시 되었다.

#### ④ 각저희(角觝戲)

‘시루기 놀이’는 씨름이나 줄다리기 등 쌍방이 겨루는 놀이를 일컫는다.

시루기 놀이는 전통 민속놀이 중 가위 백희의 으뜸이다. 실제 씨름의 어원은 ‘시루기’에서 나왔고, 시루기는 크게 나누어 줄다리기와 씨름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 남성들의 대표적 민속놀이로 전승되어 온 시루기의 역사는 원시부족국가시대로 소급된다.

12) 무예의 일종으로 오늘날의 유도·권투 등과 유사한 것이며, 이것이 발전하여 태권이 되었다고 한다. 《正字通》에 “搏兩人交擊 角勝負也”라 하였고, 《宋史選奉志》에는 “王嗣宗以手搏得壯元”이라 하여 무예로서 진사장원을 취한 바도 있다. 한편 《武藝圖譜通志》에서는 “搏卽券搏也 又作下 漢書哀帝紀贊詩覽 下射武戲 注 手搏爲下角 爲武戲”라 하여 수박의 근본이 무예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시루기 놀이는 시루기이기에 앞서 제의행위였다. 이같은 시루기 의식은 고대문화의 발상지의 하나인 이집트의 회화나, 그리스문화의 여명기인 미케에(Mycenae) 문화를 서술한 《일리아드》, 《오딧세이》에 이미 나타난다. 이들 시루기 놀이는 놀이이기에 앞서 제의 행위였다.

삶을 잇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에게는 지혜뿐만 아니라 힘의 균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같은 역사성 속에서 태동하여 성장해 온 씨름은 과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서는 씨름과 줄다리기의 상관성에 대해 그 어원과 역사 그리고 제의의 잔영을 살펴보기로 한다.

씨름은 한자로 각력(角力), 각저(角抵), 각저(角觝), 각저(角低)라 하여 뿔 각 자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사물원기 事物原紀》에 의하면, “양수거지(兩手據地) 이두상촉(以頭相觸) 작우투상(作牛鬪狀)”이라 하여 그 놀이 모습이 소가 서로 싸우는 모양이라 하였다.

씨름은 한자로 각희(脚戲), 고려기(高麗技), 치우희(蚩尤戲), 수박(手搏), 상박(相搏), 쟁교(爭觥), 솔교(搏跤), 관(攢), 요교(撩跤) 등이 쓰이지만 이는 후대에 생긴 용어가 아닌가 한다.

중국에서는 《예기 禮記》 월령 맹동에 천자가 장수에게 강무(講武)로 습사어(習射御)와 각력(角力)을 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전국시대 한무제는 씨름을 기악에 넣어 산악백희의 하나로 잡았고, 《사원 辭源》에서는 한서 원봉 3년에 각저희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러면 왜 뿔 각(角) 자가 씨름의 관형사로 쓰이게 되었는가?

우선, 각저(角抵)는 ‘뿔로 서로 달려들어 맞대고 힘겨움을 하는 모양’ 이고, 각저(角低)는 말 그대로 ‘뿔로 하는 싸움’ 이란 뜻이고, 각저(角觝)는 ‘달려들어 서로 다투어 힘겨롭한다’ 는 뜻이며, 각력(角力)이란 단어 그대로 ‘뿔 힘쌈’ 이란 뜻이다.

1925년 지은 최영년(崔永年)의 다음 시는 각저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다.

붉은 다리 뿔뿔 피는 가슴에 넘치고  
용기는 구정을 단번에 들기나 할듯  
방초 푸르른 평평한 모래 벌판에  
성난 소뿔로 비비며 쌍쌍이 달려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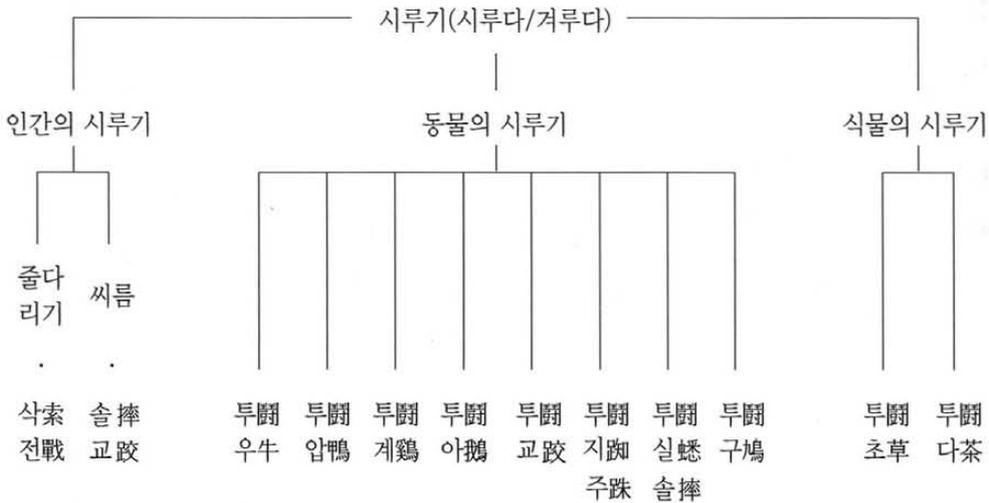


오늘날 뽕삼, 곧 소싸움을 하는 지방은 많다. 소싸움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영산 쇠머리대기라든가, 전라남도 광주 고싸움, 강원도 춘천과 안동의 차전놀이에서처럼 전통 민속놀이 형태로 계승되어 오고 있다.

이 때의 줄다리기는 일종의 풍농을 점치는 의례희(儀禮戲)의 일종이다.

사람이나 동물은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라 투쟁의 연속 속에서 살아 왔다. 이에 따라 놀이 문화는 인간 투쟁의 놀이, 동물 투쟁의 놀이, 식물 투쟁의 놀이로 구분된다.

인간이 직접 놀이에 참여하는 게 원칙이지만 참여하지 못할 때는 대리만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동물이나 식물의 싸움 놀이까지 등장하게 된다. '시루다'를 중심으로 시루기 놀이를 분류하면 이하와 같다.



원래 각(角)은 월(月)과 통하고 월은 또 여인과 환대(環帶)를 그리며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 소싸움의 원형은 바로 이같은 철학 속에서 발견된다.

히랍·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도전자를 격퇴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통치수단으로써 바람과 벼락, 천둥과 그물을 가지고 나타난다. 크로노스의 세 아들인 제우스, 하레스, 포세이돈 등은 바로 천둥과 벼락과 번개, 그리고 비와 바람과 구름의 상징적 신들이었으며 그들은 힘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단군신화에는 이미 무예정신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인천제의 아들 환웅이 천제로부터 풍백, 운사, 우사, 뇌공 등을 거느리고 왔다고 하는데, 이들은 무장 상징신임에 틀림 없다. 그렇다면 이들을 위하는 제의가 있었을 것이니 그것이 제의행사로서의 소도제이다.

단제(丹齋) 신채호(申采浩)는 ‘수두[蘇塗]’는 수림(樹林)을 뜻하며 신단을 뜻하는데, 성역인 소도를 관장하고 있는 단군을 천군[天君 수두하나님]이라 하였다. 또 조선족은 우주의 광명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 태백산의 수림을 ‘광명신’의 누숙소(樓宿所)로 믿었다. 그 뒤에 인구가 번식하여 각지에 분포하며, 각기 거주지 부근에 수림을 길러 태백산의 것을 모상(模像)하고 그 수림을 이름하여 ‘수두’라 하니, ‘수두’는 ‘신단’이란 뜻이 된다.

한편 매년 5월과 10월에 ‘수두’에 나아가 제할 새, 1인을 뽑아 ‘수두’의 중앙에 앉히고, 하느님 천신이라 이름하여 중인들이 제를 올렸다. 이 때 ‘수두’의 주위에 금줄을 매어 한인의 출입을 금하고, 전쟁이나 혹 기타 대사가 있으면, 비록 5월, 10월의 금기가 아니라도 소를 잡아 수두에 제하였다. 소의 굽으로써 그 앞에서 길흉을 점할 새, 굽이 떨어지면 흉하다 하고, 붙어 있으면 길하다 하였으니, 이는 중국의 팔괘 음서양서의 기원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주지하는 바대로 전쟁 때 소를 잡아 점을 쳤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삼국시대의 씨름을 살펴 보기로 한다.

중국 동북지방 통화성 집안현 통구인 옛 고구려 도읍인 환도에 1905년에 발견된 고구려 고분 각저총 주실 석벽화는 당대의 씨름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씨름무덤의 씨름 그림은 기골이 장대한 두 씨름꾼이 승부를 다투는 순간을 그렸다. 장사의 힘을 자랑하고 있는 굽직한 다리와 무쇠팔뚝에는 힘살이 일어서고 얼굴에는 안간힘을 쓰는 표정이 어려 있는데, 오른쪽에 심판원으로 짐작되는 한 늙은이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여 씨름 광경을 주시하고 있다. 화가는 앞 마당가의 나뭇가지 위에서 목을 길게 내뺏고 씨름터에 고개를 돌리고 있는 새의 모습을 재미있게 묘사하였으며, 왼쪽 화면에 식칼질을 하던 여인이 일손을 멈추고 씨름판에 정신을 팔고 있는 모습을 그려 넣음으로써 낙관적인 기백이 넘쳐 흐르는 흥겨운 정경을 강조하고 있다.

화가는 또한 예술적 허구와 과장, 세부묘사를 통하여 씨름꾼의 장대한 몸짓과 팽창된 근육, 어깨 너머에 서로 고이고 있는 턱과 뺨뺨이 세운 콧수염 등으로 씨름꾼이 용쓰는 모습을



강조하였다. 특히 화면에 곰 두 마리를 그려 넣은 화가의 재미나는 구상과 세부묘사는 해학적이면서도 서정성이 넘치는 장쾌한 씨름판의 광경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신라 때 전사자들을 위하여 팔관회를 외사에다 7일 간이나 열고 검무와 씨름판을 벌여 여러가지 행사를 치뤘던 것도 무예정신을 고취·함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최근 감은사 서탑과 미추왕릉 서구에서 찾아 낸 토우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악기를 든 것과 맨몸으로 어떤 동작을 연출하고 있는 것인데, 악기를 들고 있는 것은 악공이 분명하나 맨몸으로 동작하는 것, 곧 물구나무서기, 몸을 앞으로 구부리기, 두 팔을 목뒤로 돌려 몸을 한껏 구부리기, 오른 발을 번쩍 치켜들어 오른손에 대고 왼손을 아래로 내려 왼쪽 다리 대기, 두 다리를 앞으로 뻗기, 두 손을 어깨 위로 돌려 땅을 짚으면서 전신을 길게 뻗기 등은 화랑들의 씨름 내지 무술동작을 재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최남선도 작은 ‘겨눔’, 저는 ‘달려듬’ 환언하면 달려들어 힘겨롭하는 것을 나타내는 놀이라고 해석하고 있거니와, 씨름이란 《시물원기》에 서로 머리를 틀어박고 싸우는 ‘소쌈 모습 [牛鬪狀]’이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농경사회의 제의적 기풍놀이였던 것으로 추단된다. 그러나 이 놀이는 오늘날 주로 단오나 백중에 행해지는 명절놀이로 변했다.

농경사회에 있어서는 제의나 그 제의적 절차가 대부분 놀이로 표출된다. 그러니까 제의는 놀이인 셈이다.

호이징하(Huizinga)는 놀이의 기능을 경쟁과 표상에 두고 있거니와, 집단이건 개인이건 놀이판의 구조는 대립관계에서 시작된다. 인간 대 인간의 대립이 아니라면 인간 대 신 간의 대립이라도 있어야 놀이는 성립된다. 이것이 Agon(경쟁)이다.

씨름판의 상품으로 숫소가 등장하지만, 서민들이 즐겨 쓰는 말의 경쟁(contest)인 ‘수수께끼’에도 숫소가 등장한다.

수수께끼는 어원적으로 볼 때 ‘숫소+꿨기’(싸우기·이기기·내기)의 합성어이다. 질문자의 발설을 해결자가 꿨는 행위요 2 형식인 것이다. 이 모두가 농경사회의 발상이요 표상들이다.

《수서 隋書》 제 81 고구려전<sup>13)</sup>에 나온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왕까지 성의(聖衣)를 입고 입수(入水)하여 의식을 거행하였으니, 이는 용신에 대한

경건한 수중제의(水中祭儀)였을 것으로 본다. 그 제의적 표현이 수석전(水石戰)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물돌(水石)은 자식이나 재생과 풍요의 상징이다.

⑤ 지연(紙鳶)

지연 즉 연날리기는 풍연(風鳶)·풍쟁(風箏)·비연(飛鳶)이라고도 한다. 그 유래는 《동국세시기》 상원조에 의하면 “속설에 최영장군이 탐라를 정벌할 때부터 시작된 것(謠傳昉自崔瑩 伐耽羅之役國)”이라고 하나 이미 삼국시대에 연날리기가 있었다. 《삼국사기》 권 41 열전 제1 김유신조에 그 기록이 처음 보이는데 진덕왕이 즉위한 해 월성에 큰별이 떨어지자 왕을 폐하려는 무리들이 이를 여왕이 패망할 징조라고 하자 김유신이 떨어진 별을 올리기 위한 방책으로 “우인을 받들어서 연에 달고 이를 바람에 따라 띄우니 불덩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았다(乃造偶人抱火載於風鳶而颺之若上天然)”는 기록에서 신라시대에 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충선왕이 세자로 있을 때 2월에 “궁노가 동네아이의 연을 빼앗아 바치자 왕이 궁노를 꾸짖어 도로 돌려보냈다.”는 《고려사》의 기록과, 《동국이상국집》 제 1 고을시 <칠월삼일열풍 七月三日詠風>에 있는 지연 기록에서 연날리기가 민간에서 특히 아이들간에 많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조선시대 세시기 등에서는 주로 설을 전후해서 행해지며 정월 대보름날에는 연에 ‘액(厄)’ 자를 써서 줄을 끊어 날려 보내는 세시풍속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고려시대에는 앞의 음력 2월과 7월의 기록으로 보아 봄, 가을에도 바람이 있는 날에 수시로 행해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지연<sup>14)</sup>은 앞의 기록들에서 오락적인 놀이로서 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성격과 함께 군사적인 목적으로 전쟁수단의 하나로 이용되었음도 추측할 수 있다.

13) “每年初 聚戲於涓水之上 王乘輦列羽儀 以觀之 事華 王以衣服入水 分在右 爲二部 以水石相濺擲 誼呼馳逐 再三而止.”

14) 종이에 가는 대쪽이나 댓가지를 가로 세로 또는 모로 엮 맞추어 붙이고 실로 벌잇줄을 매어서 공중에 띄워 올리는 놀이다. 연의 유래에 대하여 중국 송나라 고승이 편찬한 유서인 《事物紀原》에는 한대에 한신이 만들었다고 전한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俗謂之風 古今相傳是韓信所作 高祖之征陳豨也 信謀征中起 故作紙鳶之 以量未央宮遠近 故以地 隨人宮中也 蓋昔傳如此 理域然矣 梁太清中 侯景攻臺城 內外斷絕 羊侃教小兒 作紙鳶 藏詔於中間 大帝出太丞殿因西北風放之 得遠援軍 賊謂是壓勝 又射下之 見馬摠通曆云 然其初一見於此 證知其審爲韓信造矣(칠월 삼일에 바람을 올다/ 유월의 연천에는 만나기 어렵더니/ 가을에 접어든지 사흘만에 한결 쌀쌀해졌네/ 이웃 아이들 모여서 부산하게 떠들며/ 좋아라 높은 하늘에 지연을 날리네).



## ⑥ 저포희(樗蒲戲)

저포희는 다섯 개의 나무를 옷가락 같이 만들어 던져서 그 사위를 겨루던 놀이로 중국에서는 오목이라고도 하였다. 《주서 周書》 권 49, 《북사 北史》 권 94, 《수서 隋書》 권 81 등에 의하면 저포가 백제의 잡희의 하나로 나타나 있어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도 《목은시교 穆隱詩藁》에 그 기록이 보이는데 내용을 보면 연말 경감 일에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심심풀이로 하거나 또한 해마다 세시에 하는 풍속으로 남녀노소가 모두 즐기는 놀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료가 단편적이라 구체적인 놀이방법은 알 수 없다.

저포희는 옛날에 저포의 열매로 주사위를 만들었으므로 저포라 하는데 이 놀이를 옷놀이와 같은 놀이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다른 놀이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15)</sup> 우리나라 문헌에는 저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전하지 않으나 중국의 《당국사보 唐國史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하고 있다.<sup>16)</sup>

이로 보면 저포의 놀이방법이 옷놀이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고, 최상수 등 몇 학자도 서로 다른 놀이로 보고 있다. 즉, 저포는 360자의 반상에 여섯 말[六馬]을 붙이고 다섯 목판을 던지나, 우리의 옷놀이는 29 동그라미 옷판에 네 말[四馬]을 붙이고 네 목판을 던져 이 놀이 사이에는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는 것만 보더라도 옷놀이와 저포는 각기 다른 놀이라고 하겠다.

## ⑦ 투란희(鬪卵戲)

투란희는 계란을 깨뜨리는 놀이로, 《형초세시기 荊楚歲時記》에 의하면 “한식일을 전후 하여 3일 동안 투란놀이를 벌인다.”고 하였다. 《동국이상국집》에도 한식 무렵에 행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15) 《훈몽자회 訓蒙字會》에는 저를 ‘더’ 포를 ‘포’라 하였고, 《지봉유설 芝峰類說》에서도 “國俗月於歲首 男女相聚 以骨或木 截爲四段 擲之 以決勝負曰擲戲 訓蒙字會云擲 卽樗蒲也”라 하여 옷놀이를 저포라 하였고, 《동국세시기 東國歲時記》도 옷놀이를 저포의 종류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오주연문장전산고 五洲衍文長箋散稿》〈사회변증설〉에서는 “而柶戲殆近於樗蒲之類 不可使爲樗蒲也 以四木爲般 取四木之義 稱柶卽象形會意 而爲我東土字方音也”라 하여 옷놀이에 가까운 것이나 다른 놀이로 보고 있다.

16) 洛陽令 崔師本 又好爲古之樗蒲 其法三分子三百六十限 以二關 人執六馬 其般五枚 分上爲黑下爲白 黑者刻二爲槽 白者刻二爲雉 擲之全黑者爲廬 其采十肉 二雉三黑爲雉 其采十四 二槽三白爲槽 其采十六 二雉 三黑爲雉 其采全白爲白 其采八四者貴采也 開爲十二 寒爲十一 塔爲五 秀爲四 獬爲三 六者雜彩也 貴彩得連擲 得打馬得遇關餘采則否新加 進九退六而采.

⑧ 추천희(鞦韆戲)

추천희는 단오절 여자들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추천희라고도 하며, 우리말로로는 그네뛰기라고 한다. 그 유래를 중국의 《형초세시기》나 《수서 隋書》에서 찾아보면 등에 의하면 '북방 용적[寒外民族] 이 한식 때 추천을 하였는데 이것이 중국에 전해진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놀이가 언제부터 행해졌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송사 宋史》의 기록에, 고려 현종(1009~1030) 때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곽원의 말을 빌려 "고려에서는 단오에 추천놀이를 한다(高麗端午有鞦韆之戲)."는 사실로 미루어 고려 전기에는 단오 때 이 놀이가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문헌으로는 《고려사》 열전 최충현전에 그 기록이 처음 나타나는 바 "고종 3년(1216) 단오날에 충현이 추천희를 백정동궁에 베풀고, 문무 4품 이상을 초청하여 연회하기를 사흘 동안 하였다."고 하였다. 고려시대에 추천희는 궁중과 민간에서 모두 행하였다. 《고려사》에 의하면 궁중에서는 단오날 연회를 할 때 귀족들을 초청하여 호화스런 무대를 꾸미고 추천희를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왕과 귀족들이 즐기는 궁중오락으로서 상당히 성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동국이상국집》의 〈단오견추천여희 端午見鞦韆女戲〉란 시의 한 구절인 "국속에 단오 때면 여자들이 이 놀이를 한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민간에서도 널리 행하였으며 주로 여자들이 즐기는 놀이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종 33년(1246)과 충렬왕 9년(1283)에는 이 놀이를 금한 적도 있었다. 추천희<sup>17)</sup>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민간에서 더욱 성행하였으며 남자들의 씨름과 함께 단오절 여자들의 대표적인 놀이가 되었다.

唐唐唐 唐楸子 皂莢木 云云(俚語)削玉纖纖 云云(俚語) 偉道携手同遊景何如.

이 노래는 고려 고종 때 지은 경기체가 의 하나로 〈한림별곡 翰林別曲〉 제8장으로 그네를

17) 그네의 어원은, 《樂章歌詞》에 수록된 〈翰林別曲〉과 《杜詩諺解》에는 '글위', 《訓蒙字會》에도 鞦를 '글위 추', 韆을 '글위 천'이라 하였고, 《同文類解》에는 '그리', 《才物譜》에는 '근의', 《譯語類解》에는 '그리', 《춘향전》에는 '근리'라 하였다. 이에 최남선은 그네의 어원을 '근', 곧 끈의 회로 해석하고 있으며 최상수도 이 설을 긍정하여 그네뛰기를 '끈의 놀이'로 보고 있다. 그 유래에 대하여 《隋書》 藝文志, 古今藝術圖에 "地方戎狄 至寒食節 爲鞦韆以習輕 後中國女子學之 乃以綵繩懸木立架 士女坐立其上 推引之謂之鞦韆"이라 하였고, 또 같은 책에 "鞦韆 本山戎之戲 自齊桓公北伐山戎 此戲始傳中國"이라 하였다.



주제로 삼고 있다. 《악장가사 樂章歌詞》에는 다음과 같이 국한문으로 실려있다.

“당당당(唐唐唐) 당추자(唐楸子) 흙협(皂莢) 남기 홍(紅)실로 홍(紅)글위 미요이다 허고시라 밀오  
시라

정소년(鄭少年)하 위 내 가논디 늬 갈세라 엽(葉) 삭옥섬섬(削玉纖纖) 쌍수(雙手) 길혜 위 휴  
수동유(携手同遊)스경(景) 그 엇더흐니잇고”

여기에서 ‘글위’ 는 그네를 뜻한다.

《동국이상국집》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단오에 그네 뛰는 여자놀이를 보다  
나라 풍속에 단오 때면 여자가 이 놀이를 한다  
밀 때는 선녀가 달나라로 가는 듯, 돌아올 땐 선녀가 하늘에서 오는 듯  
쳐다보니 뛰어오를 땐 땀방울 흘리더니 금방 펄렁이며 되돌아오는구나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말을 마소  
베 짜는 북처럼 왔다갔다 하네  
아마도 피꼬리가 좋은 나무 가리려고 날아왔다 날아갔다 하는 것인가

### ⑨ 위기(圍碁 · 圍棋)

위기는 두 사람이 바둑판에 흑백의 바둑돌을 번갈아 벌여가며 집을 많이 짓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실내 오락의 하나이다. 혁기(奕棋) · 박혁(博奕) · 수담(手談)이라고도 하고, 또한 단순히 기(碁) · 기(碁)로 표기하기도 하였으며, 우리말로는 바둑이라고 한다. 그 유래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 중국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바둑에 관한 기록은 《논어 論語》 · 《구당서 舊唐書》 · 《주서 周書》 · 《북사 北史》 · 《수서 隋書》 등에 나타나는데 고구려와 백제에서 특히 위기 · 혁기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또한 《삼국사기》 권 제25 백제본기 개로왕조와 《삼국유사》 권 제5 신충괘관조(信忠掛冠條)에도 박혁 · 위기에 관한 기록이 있어 삼국시대에 이미 바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도 바둑은 매우 성행하였다. 삼국시대와 마찬가지로 왕을 비롯한 상류층의 오락으로서 개인적인 친선이나 교제에 이용되



## 중구의 축제

었다. 특히 공민왕이 바둑을 좋아하였으며 그 승패로 주연이나 서사와 같은 내기를 하기도 하였다. 명수로는 충렬왕 때 조운통이 있었으며, 원의 세조가 이를 시험하여 조운통이 이기자 역마를 타고 마음대로 원을 왕래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였다. 한편 《고려사》 열전에 보면 최승로·최충헌·곽공의 등도 바둑을 좋아하였는데 그 중 최승로와 정세신은 바둑과 함께 주석에 빠져 그 폐해도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바둑에는 가벼운 내기가 뒤따르기도 했으나 도가 지나치면 도박으로도 이용되어 이것이 잡기로 전락해 버린 경우도 없지 않았다. 《고려사》 지에 있는 〈예성강〉은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를 걸고 중국 상인과 내기바둑을 두어 결국은 아내를 빼앗기고 후회하여 지은 노래로, 백제 개로왕설화가 말해 주듯이 바둑의 폐해가 경국지희라고 할 만한 경우도 있었거니와 이 경우는 바둑에 빠져 패가망신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노래는 바둑이 일반 서민층에서도 행해진 것을 알려 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그러나 바둑이 상류층에서 널리 행하여진 것은 그 술수가 현묘하고 또한 바둑이 도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한 예는 《동국이상국집》의 시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목은시고 穆隱詩藁》에서는 바둑알의 재료로 회고 조개껍질과 옥같이 부드러운 검은 돌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바둑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것을 준 사람과 각각 한 통씩 나누어 간직함으로써 바둑을 소중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바둑은 계속 성행하였으며, 평민의 자제들은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였으나 후에 일반화되었다.

한편 장기도 ‘박혁’이라는 말이 장기와 바둑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삼국시대부터 바둑과 함께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는 서민층의 오락이라고 하나 고려시대의 문헌기록으로 보면 바둑과 함께 상류층에서도 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래 바둑의 유래는 걸왕이 사주에게 명하여 만들었다고도 하고, 또 요왕의 아들 상군이 너무 어리석어서 그의 두뇌를 훈련시켜 주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위기에 대한 기록으로 《구당서 舊唐書》 권 199 열전 동이 고려조, 《주서 周書》 권 49 열전 백제조, 《북사 北史》 권 94 열전 백제조, 《수서》 권 81 열전 백제조에 나타난다.<sup>18)</sup> 우리나라 문헌으로 바둑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 권 제25 백제본기 제3 개로왕 21년 추 9월조에 나타나며<sup>19)</sup>, 《삼국유사》 권 제5 신증괘관조에도 기록이 있다.<sup>20)</sup> 조선시



대에도 바둑은 계속 성행하여 세조는 오행위기법을 친히 만들었고,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 五洲衍文長箋散稿》에 〈위기변증설 圍碁辨證說〉을 발표하였다.

특히 조선사회에서 바둑이 성행한 것은 《논어》에서 공자가 아무일 없이 지내기보다는 바둑을 두는 게 낫다고 했기 때문이다.

### ⑩ 투호(投壺)

투호는 일정한 거리를 놓은 항아리(壺) 속에 화살을 던져 넣어 승부를 겨루는 오락의 하나이다. 중국의 《구당서 舊唐書》·《주서 周書》·《북사 北史》·《수서 隋書》 등에 투호가 고구려와 백제에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미 삼국시대에 이 놀이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사》 예종 11년 12월조의 기록에 “임오에 청연각에 거동하여 내시 랑운령 지창흡에게 명하여 중용, 투호 2편을 강론하게 하고, 보문객학사 등에게 이르기를, 투호는 고려풀에 폐한 지 이미 오래도다. 송제가 사한 바 그 기구가 극히 정비하매 장차 이를 시험하려고 하니 경등은 투호의 의식과 그림을 산정하여 올리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보아, 고려 초 정국이 불안정한 시기에 일시 중단되었다가 예종 때에 송제가 보내온 것을 본떠 새로 만들어 쓰기 시작하였던 것 같다. 이 놀이는 주로 왕실과 귀족사회에서 즐기던 궁중오락이었으며 조선시대에도 주로 왕실과 조정 고관들의 여흥 및 경로연, 손님접대 등의 사교 때 행해졌다.

어원을 추적하면 투호란 《예기 禮記》의 편명인 바, 이것은 여흥의 일종으로 연음 때에 시를 잡아 한 후에 던져 승부를 가리는 것으로서 재예를 강론하고 객을 즐겁게 하는 아취있는 놀이였다.

18) 우리나라의 위기에 대한 기록으로 《구당서 舊唐書》 권 199 열전 등이 고려조에 “好圍棋投壺之戲”라 하였고, 《주서 周書》 권 49 열전 백제조에는 “有投壺擲蒲等雜戲 然尤尚奕棋”, 《북사 北史》 권 94 열전 백제조에는 “有鼓角箏箏箏竿處箏之樂投壺擲蒲弄珠握槊等雜戲尤尚奕棋”, 《수서 隋書》 권 81 열전 백제조에는 “有鼓角箏箏箏竿處箏之樂投壺圍碁擲蒲握槊弄珠之戲”라 하였다. 우리나라 문헌으로는 바둑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 三國史記》 권 제25 백제본기 제 3 개로왕 21년 추 9월조에 나타나는데 “先是高句麗長壽王 陰謀百濟 求可以間諜於彼者…時 百濟王近蓋婁奴博奕…王召入對碁 果國手也 遂尊之爲上客 親昵之 恨相見之晚”이라 하였고, 《삼국유사 三國遺事》 권 제5 신증개관조에는 “李成王讚邸詩 與賢士信忠 圍碁於宮庭栢樹下 謂曰 他日若忘卿 有如栢樹信忠興拜”라는 기록이 있다.

19) “先是高句麗長壽王 陰謀百濟 求可以間諜於彼者…時 百濟王近蓋婁奴博奕…王召入對碁 果國手也 遂尊之爲上客 親昵之 恨相見之晚.”

20) “孝成王讚邸詩 與賢士信忠 圍碁於宮庭栢樹下 謂曰 他日若忘卿 有如栢樹信忠興拜.”

⑪ 쌍륙(雙六·象陸)

쌍륙은 주사위를 써서 말(馬)이 먼저 궁[陳]에 들어가기로 다투는 놀이로 약삭이라고도 하였다. 이 놀이는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며, 《북사 北史》·《주서 周書》·《수서 隋書》 등에 의하면 고구려·백제에서 즐기던 대표적인 놀이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고려시대에도 이 놀이는 계속 되었는데 전하는 자료는 아주 단편적이다. 주로 양반 귀족층에서 여가에 즐기던 놀이었다고 짐작된다. 조선시대에도 이 놀이는 계속되었다.

쌍륙의 기원에 대해서는 《오잡 五雜》·《삼재도회 三才圖會》 등 중국 문헌에 나타난다. 이는 본래 호국의 놀이로서 호왕의 동생이 죄를 지어 옥에 들어갔는데, 참형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쌍륙[약삭]놀이로써 홀로 여러 무리를 치는 것을 보여 왕에게 풍간한 것이 그 시원이라고 전한다.

⑫ 나희(儼戲)

나희는 선달 그림날 궁중에서 악귀를 몰아내기 위한 의식인 나희에 수반된 여러 가지 놀이를 일컫는다. 고려 정종 때 중국에서 전래된 나례의식 자체도 가면을 쓰고 붉은 옷을 입은 진자, 붉은 모자와 옷의 집사자, 공인, 황금사목의 방상씨, 가면을 쓰고 가죽옷을 입은 창사, 고각군 등이 동원되어 연희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넓은 의미로는 나례와 나희가 같은 용어로 쓰이기도 하나 좁은 의미로는 나례 때 행해지는 연희성이 짙은 잡희를 가리킨다. 구체적인 놀이로는 《목은시고 穆隱詩藁》의 〈구나행 驅儼行〉에 나타나는 바, 오방귀무·처용희(처용무)·태평무·백수무·사역호인희·불토하기·칼삼키기 등이 있었으며, 그밖에 장태타기·폭죽터뜨리기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나희에는 주로 가면을 썼으며 음악이 배풀어졌다. 예종 때 연극의 전문적인 놀이집단에 의해 행해졌다. 그런데 이러한 나희는 처음의 벽사의식에서 벗어나 점차 궁중의 연희나 왕의 행차, 칙사의 위로연 등에서 수시로 행해짐으로써 오락적인 연희로 그 성격이 변모되었다.

⑬ 처용희(處容戲)

처용희는 궁중의 나희·연례 때 주로 추던 탈춤으로 처용무를 가리킨다. 그 유래는 신라



현강왕 때의 처용에게서 비롯된 것인데 고려시대에는 선달 그믐날 밤, 즉 세석에 궁중의 잡귀를 몰아내기 위한 구나의식에 수반된 나희의 하나로서 행해졌다. 그러다가 나희가 점차 오락적으로 연희화됨에 따라 처용무도 나례 때뿐만 아니라 연희 때 베푸는 잡희의 하나로서 행해지게 되었다. 《고려사》에 의하면 고종 23년 2월 궁중의 소연 때 송경인이 처용무를 하였고, 충혜왕 4년 8월에 왕과 원의 사신 감승 오라고가 묘연사 북봉에서 음악을 베풀고 춤을 추었는데 이 때 처용무를 하기도 하였으며, 행우 12년 정월 원단에 우왕이 처용가면을 쓰고 춤을 추었다는 기록 등이 있어 처용무가 오락적인 성격으로 변모되어 궁중 연희에서 수시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처용무를 할 때에는 처용가면을 썼으며, 허리에는 칠보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꽃가지를 덮어 쓰고 연출하였다.

#### ⑭ 귀희(鬼戲)

귀희는 전하는 기록이 별로 없어 그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고려사》의 기록에 수희를 할 때 배에서 유희를 벌였는데 “어떤 사람이 귀희를 하는데 불을 머금고 토하다가 잘못하여 한 배를 태우므로 왕이 크게 웃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입으로 불을 삼켰다 토하는 곡예의 일종이며 잡희의 하나로 행해졌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목은집》의 <구나행>이란 시에서 구나가 끝나고 행해지는 가무백희를 언급하는 가운데 “불을 토하고 칼을 삼킨다.”는 두 가지 놀이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놀이는 칼삼키기와 함께 본래 역귀를 쫓는 의식인 나례에서 행해지던 나희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것이 점차 의식적인 성격은 사라지고 단순히 오락적인 잡희로 변모되어 갔던 것이다. 그리고 이 놀이에서 탈을 썼다는 기록은 없으나 본래의 의식적인 성격과 놀이 명칭으로 보아 귀신탈을 썼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한편 귀희는 《목은집》의 그 명칭이나 <구나행>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나희와 같은 개념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 ⑮ 백희(百戲·雜戲)

백희와 잡희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 용어이다. 백희의 백은 여럿이란 뜻이고, 잡희의 잡은 잡다한, 여러가지란 뜻에서 동질성이 개재한다.

《고려사》에 나타난 바로는 백희는 왕이 환궁할 때 관현방 또는 대악서가 채봉을 마련하여 백희를 베풀었다거나, 왕이 조하를 받고 스스로 악장을 지어 악공에게 가창케 하고 채봉을 맺고 백희를 벌였다고 되어 있다. 또 왕과 공주가 원나라에 갔다가 돌아올 때 환영의 뜻으로 잡희를 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로 보아 이들 두 용어는 통용되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전·격구·수박희 같은 큰 규모의 놀이를 백희나 잡희라고는 하지 않았다.

백희를 한 사람은 우인, 창녀, 악공, 창우남녀로, 잡희의 행위자는 잡희인, 악공, 가면인 등으로 묘사되어 있다.

용어 면에서도 ‘백희가무’, ‘기악백희’가 팔관회, 연등회 때 시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 때 연주된 현가, 고취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고 했다. 역시 잡희도 ‘기악잡희’, ‘기악잡기’가 연출되어 관람자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원래 《주서 周書》 권 49 열전 백제에 보면 “유투호(有投壺) 저포등(樗蒲等) 잡희(雜戲) 연우상혁기(然尤尙奕碁)”라고 되어 있고, 《북사 北史》 권 94 열전 백제에 보면 “저포(樗蒲) 농주(弄珠) 악삭등(握槊等) 잡희(雜戲) 우상혁기(尤尙奕碁)”라고 되어 있어 이들 소규모 놀이가 전문인들에 의해 공연된 것이 아닐까 한다.

#### ⑯ 화산희(火山戲)

원래 화산은 인공으로 산형을 만들어 불을 켜는 것을 말한다. 충혜왕이 연경궁에 행차하여 화산을 관람하였다든가, 공민왕이 신돈의 집에 행차하여 연등화산을 관람하였다든가 화산대를 세우고 연 3일간 현관을 갖추어 오락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화산회는 화산대 위에서 연출된 모든 잡희를 이름이 아닌가 한다. 이 놀이는 개인 대갓집이나 궁궐에서만 행해졌고, 불꽃놀이 축제마당인 연등제 때 많이 행해졌다.

#### ⑰ 걸호희(乞胡戲)

호(胡)란 중국에서 용적을 일컫는 말이고, 당나라 때는 널리 서역의 여러 민족을 일컫던 말이다. 걸호희는 호희·호인희라고도 하며, 고려시대 잡희의 하나로 궁중에서 행해진 놀이이



다. 기록이 거의 없어 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본래는 나례 때의 의식적인 놀이, 곧 나희의 하나였는데, 나례가 점차 종교적인 의식성이 사라지고 단순한 오락으로 변모됨에 따라 곁호희도 여기에 포함되어 오락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본다. 또한 《고려사》 세가 권 제36 충혜왕 4년 5월조에 이 놀이를 하는 사람에게 왕이 은 50냥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곁호희는 전문적인 예능인의 놀이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 ⑧ 수희(水戲)

수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실하지 않으나 《고려사》에 나타난 기록들은 종합해 볼 때, 궁중오락으로써 행해지는 일종의 선유인 듯하다. 호화롭게 장식한 배들을 수십 척 강에 띄우고 그 안에서 연희를 베풀어 여러가지 놀이를 벌이고, 고기 잡는 것을 행하여 즐기는 놀이이며, 또한 이러한 광경을 누정에서 바라보고 즐기는 것이기도 하다. 놀이의 시기는 주로 4월이며 이밖에 3~9월 사이에도 행해졌다. 장소는 다경루·부벽루·팔경루·안국사·대동강·만어루·연복사·광덕사 등이었다.

### ⑨ 관어(觀魚)

관어<sup>21)</sup>는 고기 잡는 것을 구경하거나 물고기를 보고 즐기는 오락의 일종으로 관어를 위한 관어대가 있었다. 관어의 유래는 중국의 《춘추좌씨전 春秋左氏傳》에 나오거니와 우리나라에서도 그 역사는 오래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기록은 고려시대에 나타난다. 《고려사》 세가 권 제14 예종 15년 8월에 대동강에서 배에 올라 관어한 것, 열전 권 제48, 49 행우10년, 12년 7월과 4월에 '동강·호관·귀법사·남천·해풍군·중방지·등에서 관어한 기록이 보이며, 이 때 우왕이 직접 옷을 벗고 들어가 고기를 잡기도 하여 특히 우왕이 관어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21) 원래 관어란 말은 《좌전 左傳》 隱公 5년조 “公將如棠觀魚者”의 공소에 “說文云 漁 捕魚也 然則捕魚謂之魚”라 하였으며, 동조 “遂住陳魚而觀之”의 두주에 “陳 說張也 公大說捕魚之備而觀之.”라 하였다. 또 《봉양부지 鳳陽府志》봉양현조에 “觀魚臺在縣西南七里 莊字惠子觀魚于濠梁之上 見鱗魚出遊從容 莊子曰 是語樂乎 惠子曰 子非魚 安知魚之樂 莊子曰 子非我 安知我不知魚之樂耶.”라 하였다.

현재 영해면 괴시 2동에 관어대란 지명이 있으며 이것은 목은 선생이 명명한 것이라고 한다.

㉔ 관조(觀潮)

관조는 조수를 보는 것인 바, 곧 강에 거슬러 올라오는 만조를 구경하는 것으로, 일종의 오락이라 할 수 있다. 관조에 관한 기록은 《고려사》에 단편적으로 나타나 있다.

예종 15년 8, 9월에 승명사에서 관조한 기록이 있는데, 이는 대동강에 거슬러 올라오는 만조의 경관을 구경한 것을 말한다. 시기적으로는 보름 무렵(15일~18일), 특히 중추절 보름 무렵이 가장 성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중국에서는 중추절 무렵 전당강에 거슬러 올라오는 만조를 봄이 장관이었는데 《무림구사 武林舊事》 관조에 “절강지조(絕江之潮) 천하지위관야(天下之偉觀也) 자즉망이지십팔일최성(自卽望以至十八日最盛).”이라 하였다.

㉕ 선유(船遊)

선유는 못이나 강에 배를 띄우고 풍류를 즐기는 뱃놀이이다. 《고려사》에 나타난 선유는 왕실과 귀족층의 놀이로, 수십 척의 배를 띄우고 매우 화려하게 행해졌다. 못이나 강 주위에는 여러 정자를 짓고 송죽화초를 심었으며, 또한 토석을 쌓아 저수하여 강호의 모양과 같게 하였다. 어선은 금수로써 장식하고 가금으로 돛을 만들었으며, 또한 배안에는 채붕(綵棚)를 매고 여락·잡희 놀음을 갖추는 등 사치와 아름다움이 극에 달하였다. 종류에 배를 띄우고 물결을 따라 오르내리며 밤이 되도록 배 안에서 향연을 베풀고 수회를 관람하였다. 선유는 주로 3·4·5월, 즉 여름에 많이 하였다.

㉖ 농마희(弄馬戲)

농마희는 기록이 워낙 단편적이라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단마 혹은 쌍마를 가지고 달리는 말 위에서 여러 가지 재주를 피우는 조선시대의 마상재, 또는 마희와 같은 말놀음으로 짐작된다. 말놀음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격구가 고려시대에 크게 성행했던 것으로 보아, 특히 기마군사들간에 여러 가지 말놀음이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 ㉓ 장대타기

장대타기는 구체적인 놀이 명칭이 언급되고 있지 않으나 《목은시고 穆隱詩藁》 중 〈산대잡희 山臺雜戲〉란 시에 “장간의한호평지(長竿倚漢如平地 긴 장대로 공중에 오르기를 평지 같이 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이것이 곡예의 일종인 장대타기놀이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 시의 제목에서 시사하듯이 이 놀이가 산대잡희에 포함되어 연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산대잡희가 나레 때 의식적이 놀이인 나희로써 행해진 점에서 이 놀이 때 탈을 썼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보면 장대타기는 그뒤 조선시대 이후에 대광대 또는 솟대장이라는 놀이패의 전문적인 놀이로 독립되어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 ㉔ 죽마(竹馬)

죽마란 대말타기라고도 불리는 아이들놀이로 《목은시고 穆隱詩藁》 권 25, 〈아희 兒戲〉란 시에 그 명칭이 나타나 있다. 문헌기록은 극히 단편적이나, ‘죽마지우(죽마고우)’란 말이 있듯이 어렸을 때 누구나 즐기던 놀이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 ㉕ 호기희(呼旗戲)

호기희는 4월 8일에 하는 아이들의 놀이로 ‘호기동희’라고도 한다.

4월 8일은 석가탄일이라 하여 집집마다 연등을 하는데,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이들이 수순 동안을 앞질러 종이를 오려 기를 만들어 가지고 노래 부르며 또 성 중의 거리에 두루 돌아 다니면서 쌀과 베[布]를 구하는 풍습이다. 이 놀이는 공민왕이 전원에서 호기동희를 관람하고 포 백 필을 사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민가와 궁중에서 모두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료가 별로 없어 그 이상의 놀이 내용은 알 수 없다.

## ㉖ 척초희(擲草戲)

척초희는 5월 5일에 아이들이 하는 풀놀이[草戲]의 일종으로 투초희라고도 하였다. 호기희와 더불어 고려시대 제의적 동희 내지 단순동희의 하나이다. 《고려사》나 《동국이상국집》에 전하는 이 놀이에 대한 기록은 워낙 단편적이어서 놀이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 아무것도

없다. 다만 명칭과 현재까지 전승되는 놀이 형태, 그리고 중국의 기록 등으로 보아, 여러 가지 풀을 모아서 서로 풀을 걸어 잡아당겨 상대방의 풀을 끊음으로써, 그 풀의 질감을 다투던 ‘풀싸움놀이’로 짐작된다. 이밖에 풀놀이를 초인동녀희 또는 풀각시놀음이 있으나 척초희와의 관련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장득상 章得象》에 “금조투초득의남(今朝鬪草得宜男)”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 ㉞ 초인동녀희(草人童女戲)

초인동녀희는 아이들이 두 패로 나뉘어 풀을 엮어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노는 집단놀이이다. 풀놀이[풀각시놀이]의 일종이나, 단순동희가 아닌 제의적 성격을 지닌 동희로 추측된다.

《고려사》의 기록이 단편적이긴 하나 내용으로 짐작컨대, 풀을 엮어 3세 정도의 동녀의 초우 들고 거기에 비자를 따르게 한 뒤 그 앞에 궤안 놓고 찬식을 진설한 듯한다. 다시 말하면, 동녀나 그 비자 앞에 찬식궤안을 진설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제의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 곧 여기서 초인동녀는 어느 여신격의 신상이며, 그 비자는 주신에 따라다니는 종자신인 수비[수부]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찬식궤안은 제상으로 보인다. 이로 보아 이 놀이의 내용은 초인동녀로서 의인화된 신격을 소아들이 봉영하여 유가하는 장면으로서 민간제의의 한 장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패가 교태와 기교를 다투어 호오작란하는 장면은 신격의 새로운 재림을 치하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재림을 추구하고 기원하는 양파경축희인 것이다. 이러한 한자는 후대로 《동국세시기》에 보이는 바와 같이, “아가씨들이 푸른 풀을 한 줌 따다가 머리채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 그것을 붙인 다음 붉은 치마를 입힌 것을 각시라 한다. 이부자리와 머리병풍을 쳐 놓고 그것을 희롱하는 것을 각시 놀음이라 한다.” 하여 제의성은 사라지고 유희적인 놀이로 변모되었다.

이상 열거한 놀이 중에는 물론 집단적인 민속놀이인 줄다리기라든가 차전 등의 전투놀이가 《고려사》에는 빠져 있다. 이는 당대에 이러한 놀이들이 없었다기보다는 《고려사》가 왕조사 중심의 역사서였기 때문일 것이다. 실로 민중의 의지가 빠져 있는 역사 기술은 당시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정통성을 상실한 사관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려의 국기인 격구, 석전, 수박, 각저 등을 찾을 수 있고 전통적 불꽃놀이 행사를 찾을



수 있다. 격구는 부인들도 참여했다 하니 얼마나 개방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또 석전은 임진왜란 때에도 큰 공적을 올린 바 있는 놀이로써 점풍속까지 지니고 있으며, 연날리기 또한 군사적인 목적뿐 아니라 액을 날려 보내는 액막이[액땀] 구실, 곧 신앙적인 기능까지 지니고 있었다. 투란희는 《형초세시기》와 《동국이상국집》에 다만 한식 무렵에 행해지는 놀이로만 되어 있는데, 이는 러시아나 북방민족에 두루 있는 의식이요 놀이이다. 블라디미르 프로프(Vladimir Propp)는 러시아에는 사육제날 여인들이 사자(死者)의 영을 위해 흐느끼며 사자의 덕을 칭송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무덤 위에 버터를 바른 빵조각, 파이, 달걀, 술, 맥주 등을 올려놓고 빌고 나서는 음식물을 무덤 위에 부스러뜨려 사자가 음식을 같이 먹도록 해 준다. 더욱이 무덤 위에 미끄러운 버터와 술, 맥주 등을 붓고 나서 마지막에는 무덤 위에서 달걀을 굴린다. 이와 같은 달걀굴리기놀이가 끝나고 나면 분위기는 일신되어 슬픔이 사라지고 축제 분위기로 돌아가 춤과 노래를 즐긴다. 러시아 사람들은 삶-죽음-삶이라는 주기성을 강하게 믿어 왔다. 그들은 죽음에 있어서도 재생을 믿었고, 그것을 그들 교회가 더 구체화시켰다. 농민들의 정신적 세계에서는 적어도 곡식이라든가 씨는 동물세계의 알에 해당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불멸의 상징(a sign of immortality)으로 여겨 재생생력과 재생산력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모두 믿었다.

프로프(Propp)의 설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민족 또한 북방민족의 후예답게 그와 같은 전통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로 볼 때 산소를 알 모양으로 둥글게 쓰는 한국인의 장례법에는 이와 같은 죽음의 문맥이 살아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생사의 순환법칙(birth-death-recurrence)을 믿고 있는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을 읽을 수 있다. 새삼 필자는 미국 인디애나(Indiana) 대학교에서 있던 당시 세미나에서 무덤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핸드(Hand) 교수에게, “한국의 무덤은 그 모양부터 이와 같은 순환의 철학이 있는데, 미국의 무덤은 모두 평평하니 그것은 어떤 철학이 있는가?”를 질문했던 일이 회상된다. 그는 구체적으로 semi-Roman 형의 비는 어느 민족의 묘이고, Roman 형은 어느 민족의 묘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물론 핸드 교수는 평평한 모형의 그들 무덤에 대한 철학을 설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필자의 한국적 ‘알’ 문화 설명을 놀라와 했다. 우리는 왜 박혁거세 등 신화의 인물들이 알에서 나왔다고 했겠는가. 알은 다름 아닌 재생의식(또는 재생의지)의 핵심상징물이기 때문이다. 알

의 사상은 이처럼 뿌리가 깊다. 달걀을 깨는 놀이란 다름 아닌 생명탄생의 축구이며 부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잡히는 선달 그믐날 역귀를 쫓는 의식인 한자에서 행해지던 놀이로 탈을 쓰고 하였다. 나희나 연등과 같은 큰 행사에서 행해지던 잡희 중 귀희, 화산희 또는 화희 등과 같은 불 놀이에는 일종의 정확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속의례인 굿에서도 맨 처음에 제장의 부정성을 가시기 위한 의례로 부정굿을 행하는데, 이 때 종이에 불을 붙여 휘두르거나 물을 뿌려 제장을 깨끗이 정확시킨다. 이와 같이 불로써 축제장을 정확시켰던 것은 동서가 같았다.<sup>22)</sup>

관어도 매우 철학적인 놀이의 하나이다. 고기 잡는 것을 즐긴다거나 물고기의 노는 모양을 보고 즐긴다는 것은 경쟁, 운[운수], 현기 등의 존재하지 않는 명상의 놀이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종의 수양법이 되기도 한다. 관어보다도 관조는 더 깊은 뜻이 있다. 강에 올라오는 만조를 구경하는 것으로, 시기는 대개 보름 무렵이 된다. 특히 중추절 보름 무렵에 가장 성행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떠났다가 다시 찾아오는 삶의 순환이요, 충만의 즐거움이다.

심지어 아이들놀이인 초인동녀희마저도 우리는 제의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만나게 된다. 초인동녀란 풀각시나 풀각시를 신격으로 해서 민간의제를 치루는 놀이다. 두 패가 교태와 기교를 다투어 호오작란(呼誤作亂)하는 장면은 신격의 새로운 재림을 치하할 뿐 아니라 그에 앞서 재림을 축구하고 기원하는 양파경축희(兩派競逐戲)인 것이다.<sup>23)</sup>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자료편과 유만공의 《세시풍요》에 나타난 중구의 민속놀이들을 살필 때 청계천과 남산에서 주로 대형 집단놀이가 성행했음을 파악할 수 있으며, 소형의 세시놀이판도 이곳이 주무대가 되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중구의 축제 행사가 벌어질 때 이들 놀이를 축제판에 원용한다면 훌륭한 놀이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장안풍의 민속놀이 개발이야말로 판 지역과는 사뭇 다른 문화의 특소(特素)라고 할 수 있다.

22) Alexander H. Krappe, 《The Science of Folklore》, Methuen & Co LTD, 1962, P.271. "Over large areas of Europe and Asia these two days were fire festivals, either because the fires were supposed to have some magic influence on the sun or merely because of the general purificatory ascribed to fire."

23) 金烈圭, 前掲書, pp.159~160.



제 3 장

---

중구 축제의 현황







중구의 축제는 도심 상가를 중심으로 축제의 핵이 형성 되었다. 이는 중구의 현대적 가치 중심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의 축제의 많은 문제점을 전통이라는 가치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벤트적 일회성 또는 일시적 효과를 노린 축제로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여타의 지역에서 노출되는 축제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장충 단대제의 경우는 전통이라는 제의적 면모가 엿보이는 축제적 성격이 상존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축제로 변화하여 중구의 중심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을 간과하여 중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염려된다. 이러한 사정은 뒤에 다시 논의하겠지만 전통과 지역의 역사를 묶어 도출하는 축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산이라는 자연 지리적 환경과 남산 국사당이라는 제의적 전통과 역사, 그리고 남대문, 명동, 장충동, 충무로, 신당동 등 지역의 현대적 축제가 만나야 살아 숨쉬는 축제가 될 수 있다.

## 1. 무교다동축제

무교 다동 상가변영회와 중구청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화합의 장을 위해 마련한 축제가 바로 무교다동축제이다. 지난 1995년에 시작해 2003년 제5회를 치렀다. 무교다동축제는 한국관광공사 뒤편 한외빌딩 앞 광장에서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고적대의 퍼레이드로 화려하게 시작하여 축하 박터트리기, 가수, 각설이 공연이 관객들의 흥을 돋궜으며 국악인 및 국악단과 함께 흥겨운 우리 가락공연으로 구성된다. 개막식 끝에는 풍물패 동아리의 풍물길놀이가 장식했고, 특히 무교·다동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노인 100여 명을 모시고 음식을 접대하는 행사도 열려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변영회 회원들과 중구청, 지역내 협력업체들과 함께 옛 명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외국인들이 와도 부끄럽지 않은 거리, 음식의 현대화 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금년은 주민과 각 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들의 참여가 기대되는 낙지 빨리 먹기와 맥주 시음 및 빨리 마시기 대회와 짜장면 빨리 먹기 대회 등이 준비되어 한바탕 흥겨운 축제 한마당

을 형성하였다.

## 2. 명동축제

명동거리축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신도시, 강남개발 등으로 인하여 상권이 이동됨에 따라 명동의 상권이 위축되자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축제를 통해 패션문화의 창출지로서 낭만과 멋, 유행의 대명사로 불리던 명동의 이미지를 되살림으로써 명동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1982년 “명동의 낭만을 되찾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시 ‘명동보존위원회’를 결성하면서 명동을 다시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즉, 1983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명동상가를 국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명동지역 시범상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당시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도 및 차도 개설, 가로등 설치, 상하수도, 조경사업 등 공공시설물을 정비·정돈하였다. 1984년에는 ‘명동지역 시범상가 조성계획’ 진행을 기념하기 위해 12월 5일을 ‘명동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제 1회 명동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1987년 3월에는 88올림픽과 더불어 외국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을 국제적인 쇼핑도시로 부각하고, 지속적인 명동의 이미지 쇄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 명동의 날을 명동축제로 확대시켜 매년 봄, 가을로 2회씩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1987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열린 축제의 주제를 ‘상권신용지대본야, 패션문화명동대본야’ 등의 구절을 내세웠으므로 상권 재탈환을 다짐하는 명동상인들의 자세를 알 수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유행의 발상지로 사시사철 흥청대던 명동거리는 1980년대 들어 서울 곳곳에 대형 백화점과 쇼핑센터가 문을 열면서 명동의 상권을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상인들은 이 같은 침체에서 벗어나 명동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이목을 명동으로 끌어들이는 데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명동상가 변영회(김



장환 회장)는 1987년부터 매년 11월 10일에서 30일까지 명동축제를 열기로 결의하였다. 따라서 상인뿐만 아니라 명동에 근거지를 둔 단체들도 명동 재탄생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나섰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측은 정기 명동축제 때마다 문화행사를 맡겠다고 제의했고, 이 기관의 주관으로 낭송대회, 예술인경연대회, 명동을 주제로 한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하였다. 1989년 4월 명동축제 기간에는 고적 퍼레이드, 야외패션쇼, 민속놀이, 노래자랑, 연예인 쇼 등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졌다. 같은 해 가을 9월 9일부터 25일까지는 대체적으로 유네스코 회관 앞에서 가수들의 공연, 꽃마차행진, 미인선발대회 등을 벌였다. 이상과 같이 매년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보통 열흘 이상 열림으로써 타 지역 축제보다 그 기간이 길다.

명동축제 기간 내내 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주로 격일 행사 또는 며칠에 한 번씩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고, 경연대회나 선발대회 등은 축제기간 동안 수시로 예선전을 열어 축제의 마지막날 본선과 시상식을 거행한다. 하루 중 축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은 주로 오후 시간대(정오에서 밤 10시 사이)에 편성되어 있다.

축제 프로그램은 거리퍼레이드, 상품세일쇼, 맥주 빨리 마시기대회, 맥주 및 음료 무료 시음대회, 헤어쇼, 피자먹기대회, 미스명동선발대회, 패션쇼 및 메이크업쇼, OX퀴즈대회, 시민노래자랑, 풍선 터뜨리기대회, 오리리 예술단축하공연, 영상음악 쇼, 바다 페인팅쇼, 삼익 악기 특별연주회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연대회 및 게임이 있고, 인기가수공연, 전통국악공연, 공개방송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한편 규칙적인 것은 아니지만 명동 최고 사원 선발대회나 명동 지역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전달식 등 명동을 지켜온 사람들의 위로나 친목도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도 하여 명동축제의 상업적인 면을 보완하고 있다. 또 시대에 발맞추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하여 국제금융위기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을 때에는 국산농산물 애용차원에서 쌀국수 빨리 먹기대회, 국산 농수산물 먹기대회 등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축제 공간의 주무대는 한빛은행 명동지점의 바로 앞에 설치되었다. 대형아치와 플랭카드, 청사초롱, 만국기, 주무대, 에드벌룬, 벤처 등이 축제의 거리를 온통 덮고, 거리 곳곳에서는 기업의 판촉전이 진행된다. 평화의 거리로 선포된 명동 1. 2가를 위시하여 충무로 1. 2가, 저동, 남대문로, 을지로 일부가 축제가 열리는 공간이 된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본 무대에서 진



## 중구의 축제

행이 되고 기업체들의 치열한 홍보전(맥주 및 음료 시음 등)이 명동길과 중앙로 곳곳에서 벌어진다. 명동의 거리 전역은 청사초롱과 만국기, 벤허 등으로 장식이 되고 거리 퍼레이드로 축제가 시작됨을 알린다.

1987년부터 현재까지 ‘명동상가 번영회’라는 이름 아래 명동 지역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축제를 주최하고 있다. 이들은 명동축제의 개최에 있어 핵심적이다. 우선 축제를 개최하는 데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한다. 또 축제 기간 동안 각 업소 및 매장은 자체행사 및 판촉계획을 수립하여 별도의 쇼를 전개하거나 행사를 실시하여 축제 분위기를 고취한다.

현재 명동상가 번영회는 명동 지역 점포주들로서 회장 1명, 부회장 6명,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축제기간에는 행사를 주관, 기획, 진행을 하고 평상시에는 명동 거리의 문제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동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1년에 한 번 정도 모든 회원들과 총회를 열고 임원들끼리는 수시로 모임을 갖는다. 그 외에 정부기관 및 지역단체에서 흔히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참여를 하는데 중구청은 후원금 보조와 축제 당시 교통통제 및 거리청소 등의 역할을 하고, 명동뉴스신문사는 미스명동 선발대회를 주관한다.

명동축제는 2002년(제29회) 5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38일간 ‘월드컵 코리아 명동’이라는 주제로 명동 전역에서 개최되었다.

### 3. 정동축제

1999년부터 해마다 가을에 열리는 정동문화축제는 전통을 중심으로 열린다.

축제의 주제는 서울의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지구촌 한 마당이다. 국내외 관광객이 참여하는 정동문화축제는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정동에서 세계 유명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축제는 정동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4. 남대문축제

남대문 시장의 명성을 회복하고 관광 명소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며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주관하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이다. 남대문시장은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사초롱 등 다양한 장식물을 설치하는 등 각종 이벤트가 중심이 된다.

행사기간 동안 캐릭터 쇼, 돌발 콘서트, 치어리더들의 응원전, 운세보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켜 남대문을 찾는 고객들에게 쇼핑 외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또 남대문 시장은 축제기간 동안 자동차,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 푸짐한 경품도 내걸고 외국인들에게는 한복을 입은 직원들이 꽃고무신 매듭, 북 매듭 등의 기념품을 증정하며 한국의 전통미를 알리고 관광명소로서의 이미지를 심고 있다.

남대문시장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가 축제의 핵심이다. 남대문 상가들은 자체로 엄선한 우수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는 '우수상품 거리장터'를 선보이기도 한다.

## 5. 신당동떡볶이축제

중구 신당동의 떡볶이축제는 매년 10월 중구청과 신당동 떡볶이 상가 상우회가 주최하는 것이다.

서울 중구 신당 1동에 위치한 이 골목은 길 양쪽으로 떡볶이 전문점이 길게 늘어서 있어 떡볶이 골목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꽤 오랜 역사를 가진 이곳의 주 고객은 10대나 20대의 젊은 이들이었으나, 이제는 그 유명세를 타고 다양한 층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이곳 주 메뉴는 즉석 떡볶이로 프라이팬 위에 쫄면, 계란, 만두, 오뎅과 떡볶이를 함께 넣어 식탁 위에서 끓여 먹도록 푸짐하게 얹어준다. 사람들은 왜 떡볶이를 좋아할까? 떡볶이의 미학(味學)은 무엇보다 맵고 개운한 맛에 있다.

대부분의 간식거리가 달거나 느끼한 반면 떡볶이는 매콤한 자극으로 미각을 만족시킨다. 떡, 어묵 등 기본재료 외에 라면·쫄면·달걀·만두·튀김 등을 추가함으로써 어우러지는 맛의 변주 폭도 넓다. 만들기 쉬운 데다 ‘오징어’, ‘카레’, ‘치즈’, ‘떡볶이’ 등 창의력을 무한히 발휘할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도 한 몫 한다. 그리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한끼 식사로도 충분해 더 인기가 있다. 다양한 떡볶이 요리, 외국인 초청떡볶이 만들기, 거리 포퍼먼스, 가족노래자랑, 댄스 페스티벌 등이 중요한 축제의 내용이다.

## 6. 충무로애견축제

충무로 애견거리 축제는 행사기간 동안 애완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애견인 노래자랑 훈련견 시범 애완견 콘테스트 및 무료 애견미용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중심내용이다. 또 애완견 쇼킹 경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일반인이 건강한 애완견을 길러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축제는 애견센터 밀집지역을 활성화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구청에서 특화거리로 조성한 뒤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주관한다.

지하철 3, 4호선 충무로역에서 훈련원로(路)에 이르는 서울 중구 퇴계로 4, 5가는 애완견 판매점과 동물병원, 애견용품 전문점 50여 곳이 밀집한 국내 최대의 애견거리이다. 4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충무로 애견거리는 애완견을 사고파는 애견센터 40여 곳을 비롯해 동물병원 6곳, 전국의 애완견 거래가 집중되는 경매시장 3곳 등 애완견을 기르는 데 필요한 모든 시설이 집중돼 있다. 1960, 70년대 영화의 메카였던 충무로와 인접해 당시 애완견의 주고객이던 영화배우나 젊은층들의 왕래가 잦았던 것이 이곳이 애견거리로 발전한 요인이 되었다.

충무로에서는 시추·몰티즈·푸들 등 소형 견에서부터 도베르만, 시베리안허스키 등 대형견까지 국내에서 인기 있는 수십여 종의 개를 만날 수 있다. 50개가 넘는 충무로 애견센터 가운데 진돗개나 풍산개 등 위풍당당한 국산개의 모습을 별로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7. 장충단제

장충단제는 1895년 10월 8일 명성왕후가 왜적에게 시해된 을미사변 당시 순국한 충신 열사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남산 아래 남소영이 주둔하던 자리에 1900년 9월에 장충단을 꾸며 봄, 가을로 제사를 지냈다.

처음에는 을미사변 때 순국한 시위대장 홍계훈장군과 영관 염도희, 영관 이경호를 주신으로 제향하고, 대관 김홍제, 이학승, 이종구 등 장병들을 배향하여 제사를 지냈다. 그 후 육군법원장 백성기의 제청에 의해 을마사변시 같이 순국한 현 행정자치부장관 직위인 궁내부 대신 이경직, 시종 임최수, 참령 이도철을 비롯한 문무열사들을 추가로 장충단제 제향신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장충단이 설치된 지 불과 5년 뒤 1905년 11월 18일에 일본 제국주의가 강요한 이른바 을사조약이 맺어진 후 망국의 슬픔이 한 맺힌 가운데 1908년 8월 일제에 의해 장충단은 폐사되고 1919년 이곳에 일본군의 동상과 이등박문의 사당이 세워졌으나 광복 후 철거되었다.

이후 맥이 끊어진 장충단 제향을 1988년부터 중구청에서 매년 추모제향을 올리고 있다. 참고로 장충단비는 신라호텔 영빈관 내에 있던 것을 1969년 현재의 자리로 이전한 것이다.

## 8. 장충동족발축제

국내 유일의 족발거리인 장충동에서 개최되는 '장충동족발축제'에는 '똥똥이할머니 족발집'을 비롯한 12개 전 업소가 참여, 맛있고 영양가 있는 족발을 알리고 세계화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축제기간 동안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족발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족발촌 지역을



## 중구의 축제

도는 지신밟기, 풍물패 길놀이, 제기차기, 화살통넣기, 훌라후프 등 민속놀이와 함께 자신만의 인상을 다양하게 표현한 즉석 캐리커처와 포터목걸이 열쇠고리 등 경품도 증정된다.

장충동 족발촌은 6·25 전쟁 직후 생겨나 5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대부분 30대를 전후하여 영업을 시작한 주인들이 이제는 6~70대를 넘어가는 할머니이거나 대를 이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예전에 마땅한 먹거리가 없던 사람들이 장충체육관에서 경기를 구경하고 나오던 많은 사람들이 값도 싸고 맛도 좋은 장충동 족발집으로 몰리는 등 국내 유일의 족발촌 밀집지역으로 자리 잡았다.

중구에서는 이 지역의 고유한 음식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신·구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관광지와 연계코스 개발 등을 유도,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0년도 초에 특화거리로 지정되었다.

'전통음식 유산 장충족발을 세계로'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장충동 족발축제 추진위를 구성하고 족발거리 주변의 불법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업소 앞 물청소를 하는 등 축제분위기를 북돋우기 위해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 9. 신당5동 가구상가거리축제

신당5동 가구상가거리축제는 신당 5동 대한생명 옆 도로변에서 열리고 있다.

신당5동 농악회 사물놀이패가 가구거리 1백 미터 구간을 순회하면서 시작되는 이 축제는 장기자랑 경연대회 농악대 풍물공연 판소리 공연 등 신명나는 한마당 행사로 펼쳐진다.

특히 상가대표들이 '고객맛이 친절다짐 결의문'을 낭독하여 고객들을 내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친절하게 모시고 다양하고 품질 좋은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퀴즈게임을 해 우승자에게는 혼수용 가구 1점을 증정했으며 업소별로 명품가구 3~5점을 전시하기도 한다.



축제에 앞서 회원들은 업소별로 간판을 도색하고 점포 앞을 깨끗이 하고 주민 및 고객을 대상으로 친절봉사운동을 전개하는 등 부대행사를 갖기도 한다. 신당5동가구거리축제는 중구가 특화거리로 지정, 상권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또 특화된 거리로 정례적인 지역축제 기반을 조성하고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활기찬 거리를 조성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신당 5동 가구거리축제는 구한말부터 문짝 장롱 등 자개가구를 만들어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서민들이 즐겨 이용한 곳으로 한때는 3~40개소가 있을 정도로 번성했으나 80년대 들어 현대 가구를 취급하는 가구거리로 변신해 지금은 16개소가 영업 중이다.

상기 9가지 축제 외에 남산골 전통축제나 백학로에서의 백학축제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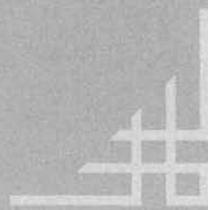




제 4 장

---

현대 민속축제의 현황







## 1. 세계 각국의 축제 현황

축제는 다양한 문화가 어울려 형성된 결정체이다. 따라서 축제 속에는 역사적 시간, 사건, 인물, 예술, 심리, 사상 등의 다양한 문화소를 만날 수 있다. 축제가 국가나 민족 또는 지역의 대표성을 나타내며 정체성의 파악을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문화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펼쳐지는 축제 또한 이와 같은 특질을 지니며 현대까지 다양한 가치로 전승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외국 축제 가운데 몇몇 사례를 인터넷 등을 통해 살펴보고 그 축제가 성공한 요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 보기로 한다.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의 경우 스코틀랜드의 문화유적과 함께 세계각국의 전통 무용 및 가무단을 초청하며 펼쳐지는 이 축제의 성공요인은 다양한 세계적 전통 무용과 가무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과 축제 위원회에서는 축제를 위하여 여러 행사계획을 확정하여 일년 내내 홍보를 하여 축제의 지명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여 영국의 대표적 축제가 된 것이다.

이탈리아의 베로나 야외 오페라 축제의 경우도 에딘버러처럼 고대 문화유적과 함께 이탈리아의 성악이 나타나는 장점을 살려 성공하였던 것이다.

일본의 유후인 축제는 지역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하며 지역의 특산품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환경이라는 컨셉의 설정 등을 적절히 조화롭게 운영하여 연 400만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일본의 대표적 축제가 되었다. 특히 순수 민간차원의 유후인 관광협회의 활동이 주목할 만 것이다. 또한 삿포르의 눈축제 역시 전폭적인 주민들의 지지와 축제 참여로 세계적인 축제로 각광받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1) 영국 에딘버러의 축제

인구 43만 명의 소도시인 영국의 에딘버러 시는 성공적인 축제와 관광지원화 전략으로 연간 1천 2백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유럽의 꽃'이라는 지역적 명성의 획득



## 중구의 축제

득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다.

에딘버러 축제는 현재 영국에서 가장 성공한 축제 중의 하나로 1950년대부터 영국·스코틀랜드의 대표적 문화유적지인 에딘버러성에서 개최되고 있다. 에딘버러성의 야경을 배경으로 약 30여 개국 행사단의 밴드 전통무용단, 가무단 등이 참가하고 있으며, 에딘버러 전 지역에 걸쳐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여 종에 가까운 축제가 1년 연중 개최되며, 특히 8개 축제가 몰려 있는 8월에는 에딘버러 축제가 절정에 달하게 된다. 매년 초 행사계획이 미리 확정되어 홍보, 팸플릿과 언론기관을 통해 국내외에 축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여행사를 통해 유럽·미국에 축제티켓을 판매함으로써 관광객 유치효과를 높이고 있다.

### 2) 이탈리아 베로나 야외 오페라 축제

베로나는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동쪽으로는 베니스가 가깝고 서쪽으로는 밀라노와 연결되고 있어서 하나의 관광벨트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베로나가 가장 자랑하는 유적이자 축제의 공간은 도시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아레나'라고 하는 거대한 야외 무대이다. 이 곳은 원래 고대 콜로세움 경기장으로 건축된 곳인데, 오늘날은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이곳에서 야외 오페라 축제가 열림으로써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베로나 오페라 축제는 1923년에 시작되어 70여회의 연륜을 쌓으면서 야외무대인 아레나의 독창성과 성악의 나라 이탈리아의 강점을 잘 살려온 축제이다. 2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야외 공간 객석의 1/4은 무대로 활용되고 나머지 3/4과 바닥평면은 관중석으로 활용된다.

아레나 오페라 축제는 한 여름에만 매년 5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베로나로 불러들이고 있으며, 매일 밤 세계 각지에서 온 1만 5천 명의 관객이 이 대형 공연장에 쏟아져 들어온다.

아레나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세계 오페라의 중심이었으며, 예술적 수준과 대중적 공연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오페라 작품은 매년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하나 <아이다> <카르멘> <나부코> 등 인기 있는 작품들은 거의 매년 공연된다. 베로나 오페



라 축제에는 마리아 칼라스, 레나타 테발다, 마리오 델 모나코,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루치아노 파파로티, 리카르도 무티 등 유명한 세계적 성악가들이 출연해 왔으며, 또 이 축제를 통해서 세계적인 성악가로 발돋움한 사례도 적지 않다.

베로나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도시로 더욱 유명한 도시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가 실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로나에는 로미오의 집, 줄리엣의 무덤 등이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베로나 오페라 축제는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언급하기 이전에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관광 상품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베로나 축제와 더불어 여름철 유럽축제를 참관하는 여행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베로나의 아레나 오페라 축제는 콜로세움이라는 유적을 단순한 문화유산으로서가 아니라 오페라라고 하는 이탈리아가 사랑하는 최고의 음악예술과 긴밀히 결합시켜 이루어낸 경이로운 성공사례이다. 이 오페라 축제 하나로 매년 여름 엄청난 입장수입과 관광수입을 올려 도시 전체가 1년을 먹고 산다고 한다. 이러한 까닭에 행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갖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 3) 일본 유후인 축제

1970년대 중반까지 일본 규수 지방의 유후인은 인구 1만 2천여 명의 작은 온천마을에 불과하였다. 특히 인근에 위치한 벳부시가 국제관광온천도시로 각광받게 됨에 따라 온천으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여기에 위협을 느낀 유후인 주민들은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시도했으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한 해에 약 4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유후인 영화축제, 유후인 음악제 등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유후인 영화에는 1976년 마을 공회당에서 처음 영화를 상영한 후 영화 출연진들과 옛 영화 스타들이 함께 참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영화제작에서 발생했던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본인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일본 전역에 유후인을 영화

의 마을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영화제가 성공리에 개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후인 마을은 ‘유후인 음악축제’, ‘온천제’, ‘유후인 원류 타이고’ 등의 축제들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였다. 이러한 축제들이 성공하게 된 것은 바로 지역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갖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다. 즉, 전통문화의 복원활동을 수행하고, 무공해 작물을 이용한 음식과 특산물을 판매하고 그리고 전원적인 유후인의 자연경관을 소재로 환경운동과 결부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등은 유후인 마을축제의 매력도를 한층 높여주는 작용을 한 것이다.

유후인 마을의 축제들이 성공적으로 관광자원화 된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의 발굴·기획과 그 아이디어를 실제적인 관광 상품으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보여준 협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공관광과를 설치하고 산업육성차원에서 유후인의 문화예술관광을 적극 육성·지원하고 있다. 또한 5인으로 구성된 기초 지역의회 소속의 ‘총무관광 상임위원회’가 각종 관광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순수 민간차원인 유후인 관광협회가 마을 전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아래의 작은 지역단위 차원에서도 관광협회를 구성하여 유후인 지역 전체의 관광발전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민관협력의 네트워크 구성과 조직적 활동,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유후인 축제의 관광자원화를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그 화려한 성공을 뒷받침해 준 것이다.

#### 4) 일본 삿포로 눈축제

1950년, 일본의 삿포로 시에서는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한 시민들의 사기진작과 지역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삿포로 눈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는 현재까지도 삿포로시 관광협회, 교육위원회, 상공회의소 등의 주최 하에 계속 개최되고 있다.

삿포로 눈축제는 매년 200개 이상의 단체, 약 3천 명 정도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약 2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 축제를 찾아 삿포로를 방문하고 있다. 삿포로 눈축제에는 전야제 이벤트 행사를 비롯하여 시민참여 눈조각 경연대회, 국제 눈조각 경연대회 등이



개최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상설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또한 여러 나라의 민속 공연단을 초청하여 각국의 전통문화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행사들도 개최하고 있다. 축제 일정은 개최 1년 전에 매년 비슷한 시기로 결정되어 공고되므로 관광객들의 방문 또는 재 방문 계획 시 의사결정이 용이하다.

삿포로 눈축제가 세계적인 눈 축제로서 널리 알려진 것은 1972년 개최된 삿포로 동계올림픽을 통해서이며, 이후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축제로서 그 명성이 유지되고 있다. 현재 축제의 홍보는 축제주체와 로고를 이용한 행사홍보, 다양한 포스터, 판매 홍보물, 그리고 특색 있는 디자인의 배지, 장식물 등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높이고 있다.

## 5)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축제

리오데자네이로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카니발이다. 브라질 전역에서 사순절 직전의 마지막 향연으로 거행되는 카니발은 춤과 음악의 휘황한 퍼레이드이다. 매년 2월쯤이면 전 세계인들은 리오데자네이로의 광란에 가까운 카니발을 보러 온다. 편한 여행을 하고 싶다면 카니발을 보지 않는 것이 나을 정도이다. 본래 카톨릭 국가들이 많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 행해졌고 우리 나라에서는 사육제라고 번역되는 이 행사는 19세기 중반 포르투갈을 통해 브라질로 상륙해 오늘날과 같은 대축제로 발전했다. 리오 축제는 삿포로의 유키 마쓰리(눈 축제)와 뮌헨의 파싱과 함께 세계 3대 축제의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그 규모나 열정, 화려함과 광기는 다른 어느 축제에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려하다. 토요일에 시작되어 꼬박 4일간의 밤낮동안 펼쳐지는 춤과 음악의 광란은 전시가지를 뒤덮어 버린다.

리오 카니발의 중요한 요소는 그 유명한 삼바. 삼바 학교라고 불리는 카니발 단체들이 거액의 상금이 걸려있는 '거리의 챔피언'이 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의 행진열차를 제작하여 가장 멋진 무도행렬을 기획해 내기 위해 1년 내내 경쟁하는 것이다. 이 거리 축제 퍼레이드는 거의 9시간이나 계속된다. 눈 부신 의상, 화려한 꽃차의 행진, 새로 발표되는 삼바의 리듬 등 20만 명 정도의 엄청난 인원이 참가하는 거대한 퍼레이드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호화로운 팀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다. 각 단체에서는 대원의 의상비 등 자금 조달을 위해 평소

는 쇼를 공연하기도 하고 레코드나 잡지를 발행하는 등, 수익사업을 벌이거나 스폰서를 구하는 등 연습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카니발 기간에 대비한다.

브라질을 방문하는 2백만 가까운 관광객 중에서 3분의 1이 리오의 카니발을 보러 온다.

그러나 관광객들로서는 그 시기에 맞추어 리오를 방문할 수 만은 없다. 웬만한 준비성이 아니고서는 호텔이나 관람석 예약도 힘들다. 이 시기에는 대중교통도 거의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며 볼 각오가 아니라면 편한 여행은 포기하는 것이다 나을 정도이다. 결국 아무 때나 편한 시기에 여행을 와서 리오의 나이트 투어를 통해 쇼를 관람하면서 삼바의 리듬과 춤, 그리고 무희들의 의상을 눈여겨 봐둘 수밖에 없다. 야간의 시티 투어 코스에 가장 많이 소개되는 쇼무대는 스칼라, 오바-오바, 플라타포르마 I 등의 세 곳이다.

## 6) 베트남 축제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남북으로 좁게 길게 위치한 베트남은 33만 1,041km<sup>2</sup>의 면적과 7,800만의 인구를 가진 그다지 크지 않은 나라이다. 총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킨(Kinh)족을 포함하여 54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의 축제가 몇 개나 되는지는 알기 어렵다. 북부의 호몽족, 커무족, 농족, 산지우족 등 일부 소수민족 및 띠이 응우엔 지역의 바나족, 남부의 크메르족, 그리고 킨족의 비교적 큰 축제만을 살펴봐도 100개가 넘을 정도로 베트남의 축제는 전국의 마을에서 다양하게 발달해 있다.

베트남인에게 있어서 축제란 전통 문화의 한 양식으로서, 모든 사회 계층을 포함한 전 베트남인의 일상 생활 속에서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매김 해왔고, 현재에도 그 전통적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축제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각 지역마다 고유의 축제를 가지는 형태로서, 절기 행사인 명절이 시간에 따라 구분되는 것과는 틀리다.

베트남어로 축제를 레 호이(Le hoi)라고 하는데, 이 중 '레(Le)'는 조상과 신에 대한 감사와 기복(祈福)의 의미를 가지고, '호이(hoi)'는 다양한 놀이문화를 뜻한다. 즉, 베트남에서의 축제란 조상과 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라는 상징적 의미가 민간의 고유한 놀이 문화와 결합되



어 표현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농업 국가인 베트남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축제가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첫째는 자연환경과의 관계에 의거한 축제, 둘째는 사회환경과의 관계에 의거한 축제 그리고 나머지는 공동체 삶과 연관된 축제 등이 그것이다.

자연환경과의 관계에 의거한 축제는 직업을 기리는 축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 축제들이다. 여기에는 기우의 목적을 가지는 저우사(寺)축제(Hoi chua Dau: 하 박의 투언 타인 지역: 4월 8일)나 뜨 팜 옌 미와 뜨 팜 반 림 축제(Hoi Tu Phap Yen My va Tu Phap Van Lam: 흥 옌의 미 반 지역: 1월 17일) 등 외에도 농사일에 사용하는 비료의 중요성의 일깨우는 꼬 뉴에 축제(hoi Co Nhue: 하노이 뜨 리엠 지역)나, 곡식의 수확철을 맞이하는 폼 축제(hoi Com: 사 목 지역: 10월), 일부 소수민족의 봄 축제인 쉐웅 동 축제(hoi xuong dong: 떠이 박 지역의 타이족, 농족, 타이족) 등이 있다. 베트남인의 주 직업이었던 농업 이외에도 주조업, 직물업, 폭죽 제조업, 대장간 직과 관련된 축제들과 강가 지역 사람들의 생활과 관계된 축제로서 배젓기 시험 축제(hoi dua thuyen: 꾸앙 빈의 동 허이 지역, hoi dua ghe Ngo: 허우 장의 속 짱 지역)가 특이하다.

사회환경과의 관계에 의거한 축제는 건국, 보국 영웅들을 기념하는 축제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베트남 최초의 왕인 흥(熊)왕의 제사를 지내는 축제인 덴 흥 축제(hoi Den Hung: 푸 토, 풍 썬우 지역의 히 끄엥 마을: 3월 10일)와 1789년 꾸앙 쯡 왕의 동 다 전승을 기념하는 동 다 축제(hoi Dong Da: 하노이 동 다 군: 1월 5일)를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종 축제(hoi Giong: 하노이 자림 지역 푸 동 마을: 4월 9일), 안양왕 사당 축제(hoi den An Duong Vuong: 하노이 꼬 로아 지역: 1월 6일), 쯡 자매 축제(hoi Hai Ba Trung: 하노이, 하이 바 쯡 군의 동 년 마을: 2월 3일), 썬 흥 다오 장군의 기일을 기념하는 끼엣 박 사당 축제(hoi den Kiep Bac: 하이 즈엥의 썬 림 지역: 8월 20일) 등이 있다.

세 번째 공동체 삶과 연관된 축제란 종교적, 문화적 축제를 말한다. 종교적 축제에는 향사(寺)축제(hoi chua Huong: 하 떠이의 미 덕 지역: 봄)나 서방사(寺)축제(hoi Tay Phuong: 하 떠이의 타익 텃 지역: 3월 7일) 등과 같은 불교 축제와 그 외 다양한 민간 신앙 축제가 있다. 민간 신앙 축제에는 바 사당 축제(hoi den Va: 하 떠이의 벓 밧 지역: 1월 15일), 박 레 사당 축제(hoi den Bac Le: 랑 선의 흐우 룡 지역: 1월 초), 바 덴 산 축제(hoi noi Ba Den:

떠이 닌 지역: 1월 10일부터 봄철 내내), 푸 자이 축제(hoi Phu Giay: 남 딘, 부 반의 번 깃 지역: 3월 초순) 등 신을 기리는 축제가 있고, 그 외에 쯔 동 뜨 축제(hoi Chu Dong Tu: 하 떠이, 트엉 띨의 뜨 니엔 마을: 2월 중순), 다 호아 마을 축제(hoi lang Da Hoa: 흥 옌, 쯔 우 장의 빈 민 마을: 1월 말), 호아 자 짜익 사당 축제(hoi den Hoa Da Trach: 흥 옌, 쯔 우 장의 자 짜익 마을: 2월 중순) 등은 베트남 설화 주인공 쯔 동 뜨와 띨옌 중 공주에 얽힌 축제들이다.

축제의 형식이랄 수 있는 놀이문화는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의 신성스러운 갈망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우의 갈망은 천둥소리를 모방한 형태로 드러나 봄의 기우 축제 때 주로 폭죽 터뜨리기, 폭죽 던지기 시합 등이 많이 시행되었고, 여름에는 홍수가 빨리 물러가기 바라는 바람이 바람과 햇빛을 염원하는 형태로 연날리기 시합을 통해서 나타났다. 또한 민첩성과 고도의 숙련된 솜씨를 갈망하는 마음은 밥짓기, 어깨에 물건 짊어지고 밥짓기, 아이 안고 밥짓기, 노 저으며 밥짓기 시합이나 닭 삶기, 돼지 잡기, 오리 잡기, 직물 짜기, 다리 타기, 눈 가리고 염소 잡기, 장대 짚고 걷기 시합들의 형태로 드러났다. 그리고 건강과 전투 능력에 대한 갈망이 씨름, 줄다리기, 닭 싸움, 물소 싸움, 귀뚜라미 싸움 등을 통해 표현된다.

## 2. 한국 민속축제의 현황

현재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축제란 이름이 붙은 모든 행사를 모두 헤아리면 대략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에서 98종 내외에 이르고 있다.)<sup>1)</sup> 그 중 각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만 선정한다 하더라도 232개 이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80년대 이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각 시군구의 대표적인 축제 중에서 시도별로 안배를 하여 20개를 선정하였다. 현대적 성격을 반영한 축제는

1) 김이숙, <강원지역의 축제>, 《한국축제의 이론과 현장》, 월인, 2000, pp.577~ 595.



10년 이상 지속된 경우 대상에 포함시켰다. 1980년대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정착화된 축제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무렵 정부의 ‘전통문화창달’의 시책화로 각 지방 고유의 전통문화제 만들기를 권장하면서 향토축제가 활발히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축제의 유형은 크게 전통축제와 현대축제로 구분하였다. 전통축제는 문자 그대로 전통성을 지니고 전승되는 축제로 제의를 주축으로 하는 형태와 민속놀이를 주축으로 하는 형태가 있다. 그런데 전통축제라 하더라도 과거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다. 우선 시·군 중심의 지역 확대와 더불어 행사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행사 종목이 증가되고 다양화되었다. 또한 행사 목적도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원래의 행사 시기가 변화되기도 하였다. 전통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소규모의 마을굿으로만 조촐하게 치뤄지고 있으며 부대적인 행사가 거의 없다.

현대축제는 현대에 발생한 축제로서 현행 축제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행사의 성격으로 볼 때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형태와 관광·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하는 형태가 있다. 전통문화 중심의 현대축제는 축제의 구성에 있어 전통축제를 모형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의 역사성이나 상징적인 인물을 축제의 주축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들 축제는 시·군민의 날과 통합된 경우가 많다. 후자의 경우는 주로 상업적 성향이 짙으며, 현대 문화적 행사가 중심을 이루나 민속행사를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실상 지역 경제의 활성화 측면은 축제 기능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전통축제와 현대 축제의 행사 내용은 유사한 경우가 많다.

### ○ 전통축제

- 제의 중심 축제 : 남이장군대제(서울), 동해안별신굿(부산~거진), 강릉단오제(강원 강릉), 은산별신제(충남 부여)
- 민속놀이 중심 축제 : 죽서문화제(강원 삼척), 기지시줄다리기(충남 당진), 3·1민속문화제(경남 창녕)

### ○ 현대축제

## 중구의 축제

- 전통문화행사 중심 축제 : 단종문화제(강원 영월), 화성문화제(경기 수원), 백제문화제(충남 부여·공주), 속리축전(충북 보은), 춘향제(전북 남원), 진남제(전남 여수), 영등축제(전남 진도), 신라문화제(경북 경주), 밀양문화제(경남 밀양), 한라문화제(제주)
- 관광·산업 중심 축제 : 명동축제(서울 중구), 신촌문화축제(서울 서대문구), 이천도자기 축제(경기 이천)

현행 축제의 개최 시기는 10월이 전체의 29.1%로 가장 많고 그 다음 4월(12.9%), 5월(11.2%)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5천만원 미만이 전체의 38.9%로 가장 많고, 3억원 이상은 11.8%로 나타나고 있다.<sup>2)</sup>

개최시기별 축제 분포 및 예산규모에 따른 축제 분포(문화관광부와 별첨 1)와 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별첨 1]

개최시기별 축제 분포

시기	빈도	백분율	시기	빈도	백분율
1월	31	5.2	8월	51	8.6
2월	38	6.4	9월	53	9
3월	24	4.1	10월	172	29.1
4월	76	12.9	11월	11	1.9
5월	66	11.2	12월	20	3.3
6월	25	4.2			
7월	24	4.1	합계	591	100.0

[자료 : 문화관광부]

2) 정동채, 2001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5, 《지역축제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2001, 9, 3.



예산규모에 따른 축제 분포

예산규모	빈도	백분율	비고
5천만원미만	230	38.9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128	21.6	
1억원이상~3억원미만	154	26.1	
3억원이상	70	11.8	
기타	9	1.5	
합계	591	100.0	

[자료 : 문화관광부]

■ 전국 민속축제 및 민속놀이 현황

전통축제 : 제의 중심 축제

행사명	행사연혁 (유래 및 목적)	행사 시기	행사 주관	행사지역 (장소)	행사종목 및 내용	참여 인원	행사 홍보
남이장군사당제	<p>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에서 행해지는 전통 민속축제. 억울하게 죽은 남이 장군의 영혼을 위로함과 동시에 그 위업을 기리며, 이를 주민화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축제이다.</p> <p>남이장군이 참수된 한강의 새남터가 용문동과 가깝기 때문에 이 제의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p> <p>매년 음력 10월 초하룻날 대제를 올린다. 원래는 4월 1일에 대제를 올리고 10월 1일에 소제를 올리던 것이었으나 1980년부터 바뀌어 현재는 4월 1일에 소제를 올린다.</p> <p>축제 명칭은 원래 '남이장군대제' 였으나 1997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 20호로 지정되면서 '남이장군사당제' 로 바뀌었다.</p>	10월 (음력)	용산구	용산구 용문동 남이장군사당 외 구내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걸립 : 걸립패(농악대)와 무녀가 집집마다 방문, 당제에 소요되는 경비 마련.</li> <li>◦꽃등행렬(꽃받기) : 산천동 부군당에 가서 꽃을 받아오는 행사로, 무당과 제관, 걸립패가 함께 행진.</li> <li>◦당제, 장군출진,</li> <li>◦당굿 : 부정거리, 내림대 내려 장군의 혼령 모셔오기, 거성거리, 대신거리, 장군거리, 별상거리, 신장거리, 대감거리, 조상거리, 불사 제석거리, 성주거리, 창부거리, 뒷전.</li> <li>◦사례제 및 대동잔치 : 사례제는 굿 때문에 잡인이 당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을 사죄하고 무사히 의례를 치루었음을 알리는 것임.</li> <li>◦남이장군 묘소 참배 : 대제를 마친 후 주민들은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 남이 장군 묘소에 참배를 함.</li> </ul>	농악대, 무당, 마을주민 등	주요 일간지, 인터넷용산구홈페이지, 팜플렛

## 중구의 축제

행사명	행사연혁 (유래 및 목적)	행사 시기	행사 주관	행사지역 (장소)	행사종목 및 내용	참여 인원	행사 홍보
동해안 별신굿	부산지역에서 강원도 거진에 이르는 남부동해안 지역에서 행해지는 전통 민속축제. 마을 수호신에게 마을의 풍요와 다산, 안녕과 번창을 기원하기 위하여 1년 혹은 2, 3년마다 한 차례씩 3일 내외로 행해진다. 확실한 역사는 알 수 없으나, 여러 문헌 기록을 통해 볼 때 조선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해안 일대 어촌에서 마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동제이므로 오늘날 시·군·구 단위로 행해지는 지역축제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다.	음력 정월, 3~5월 9~10월	각 지역 어촌계 / 동해안 별신굿 보존회	동해안 일대 (부산 ~거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교식 당제.</li> <li>마을굿: 부정굿, 골매기 청좌굿, 화해굿, 세존굿, 조상굿, 성주굿, 천왕굿, 심청굿, 늦동이굿, 손님굿, 계면굿, 용왕굿, 거리굿.</li> </ul>	무당, 선원, 마을주민	일간지, 인터넷

행사명	행사연혁 (유래 및 목적)	행사 시기	행사 주관	행사지역 (장소)	행사종목 및 내용	참여 인원	행사 홍보
강릉단오제	강원도 강릉시에서 단오에 행해지는 전통 민속축제. 강릉 및 영동 일대의 지역 수호신인 대관령산신(김유신)과 국사성황신(범일국사) 내외를 모시고 지역주민들의 안녕과 풍작·풍어, 산로안전, 질병 예방 등을 기원하는 단오축제이다. 축제의 기원은 음력 5월 곡물의 파종·성장의례의 성격 띤 고대의 축제로 소급될 수 있다.	음력 5월 단오 (전후)	강릉 단오제 보존위원회	강릉시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의: 신주근양, 대관령산신제 (음력 4월 15일), 대관령국사서낭제, 구산서낭제, 여서낭봉안제, 영신제, 국사서낭행차, 조전제, 단오굿, 관노가면극, 송신제.</li> <li>지역 무형문화재 행사: 강릉농악시연, 농악경연대회, 어린이 농악경연대회, 학산오독떼기 공연.</li> <li>민속행사: 씨름대회, 그네대회, 투호대회, 궁도대회, 줄다리기</li> </ul>	학생, 무당, 풍물패, 강릉시민, 타지역 예술단, 국내외 관광객 (연인원 100만명)	일간지, 방송, 인터넷 강릉단오제 홈페이지, 홍보 팸플릿, 현수막 등



<p>으나 정확하지는 않다. 이후 강릉단오제를 추정케 하는 기록이 단편적으로 보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록은 1611년 허균이 강릉의 단오제를 보고 썼다는 《성소부부고》에 나타남으로써 적어도 조선시대 이전부터 강릉단오제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p> <p>음력 4월 15일 계례를 올리는 데서부터 음력 5월 7일 송산제에 이르기까지 유교식 제의와 무속의례, 민속연희와 난장이 어우러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축제이다.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었다.</p>		<p>대회, 한시백일장, 전국시조경창대회, 민요경창대회, 강릉사투리경연대회, 국악공연, 주부사물놀이공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외 민속단 초청공연, 중요무형문화재 초청공연·예술행사.</li> <li>◦체육행사(축구대회)</li> <li>◦경축행사: 불꽃놀이, 단오등피우기 등.</li> <li>◦단오민속체험 참가행사: 단오제 헌미봉양, 창포 머리감기 시연, 단오 수리치떡 시연, 창포 뿌리 비녀만들기 시연.</li> <li>◦학술행사: 민속학술세미나, 문화관광학술세미나.</li> <li>◦난장: 전국 최대 규모의 난장.</li> </ul>	
---	--	--	--

행사명	행사연혁 (유래 및 목적)	행사시기	행사주관	행사지역 (장소)	행사종목 및 내용	참여인원	행사홍보
은산별신제	<p>부여군 은산면에서 마을의 수호신인 산신, 복신장군, 토진대사를 모시고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비는 전통축제. 그 연원은 분명하지 않고, 다 음과 같은 기원설화가 전한다. 옛날 은산지역에 괴질이 유행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한 노인의 꿈에 백마를 탄 장군이 현몽하여 “나는 백계를 지키던 장군인데, 많은 부하들과 함께 억울하게 죽어 백골이 산야에 흩어져 있어 영혼이 안정을 못하고 있다. 어지럽게 묻혀있는 유</p>	윤년 음력 정월 또는 2월 (양력 3월)	은산 별신 제보 존희	부여 군 은 산면 은산 리 일 원 및 부여 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라술 담그기 : 별신제에 쓸 술을 담그며 제사를 지냄.</li> <li>◦ 진대베기 : 산에 가서 동서남북에 있는 장승 옆에 세워둔 나무를 베는 의식. 임원 일동이 말을 타고 농악대·악공·기·무당·마을 유지 등이 행군해서 산으로 감.</li> <li>◦ 꽃받기 : 별신제에 올릴 꽃을 부여의 삼층사에서 받아들음. 임원 일동이 말을 타고 삼현육각을 갖추고 행군을 해서 감.</li> <li>◦ 상당제 : 별신 올리기. 상당굿과 유교식 제의, 강신굿.</li> <li>◦ 하당굿 : 별신 내리기. 무당굿으</li> </ul>	무당, 은 산주민, 관광객	일간지, 방송, 인터넷, 부여군 홈페이지, 팸플렛 등

## 중구의 축제

<p>해를 수습해 주면 괴질을 물리쳐 주겠다.” 하여 청을 들어주자 깨끗이 괴질이 물리갔다고 한다.</p> <p>1930년대까지도 별신제 때 서커스단이 들어오고 난장판이 벌어지고 구경거리가 많았으나, 자연적인 난장이 사라지면서 별신제의 축제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쇠퇴하였다. 196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9호로 지정되었다.</p>				<p>로 진행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산제 : 화주가 제사를 거의 마쳤다는 것을 별신에게 알리는 것.</li> <li>◦ 장승제 : 독산제를 지낸 다음날 장승을 세우고 제사를 올림.</li> <li>◦ 예술공연 : 전통무용.</li> </ul>		
---	--	--	--	---	--	--

### ◎ 전통축제 : 민속놀이 중심 축제

행사명	행사연혁 (유래 및 목적)	행사시기	행사주관	행사지역 (장소)	행사종목 및 내용	참여인원	행사홍보
죽서문화제	<p>강원도 삼척시에서 열리는 전통 민속축제. 삼척지방에서 전통적으로 정월 대보름에 거행되던 기(계)줄다리를 중심으로 천신·농신·해신에게 풍농과 풍어를 비는 삼원제와 함께 1973년 제 1회 '정월대보름제'를 삼척번영회 주최로 개최하였다. 제 2회~제 5회는 삼척민속놀이위원회 주최로 거행되었다. 1976년 삼척기줄다리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 2호로 지정되었고, 제 6회인 1978년부터는 행사 이름을 '죽서문화제'로 바꾸고 죽서문화제위원회 주최로 개최되어 오고 있다. 특히 삼척기줄다리는 아이들의 속닥기줄로 시작, 청소</p>	음력 정월 대보름 전후	죽서문화제위원회	오십천둔치 및 신남해서낭당, 삼척시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야제 : 제등행렬, 불꽃놀이, 전야제 경축식.</li> <li>◦ 제례행사 : 삼원제(천신제, 지신제, 해신제), 산신제, 신남해신제, 별신굿.</li> <li>◦ 민속경기 : 윷놀이, 연날리기</li> <li>◦ 민속놀이 및 민속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태리 살대세우기 : 마을의 액살 방지와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정월 대보름에 세우는 입간(立竿) 민속.</li> <li>- 풍물놀이</li> <li>- 술비놀이 : 삼척 줄다리에 필요한 기줄(계줄)을 만드는 과정을 재현한 것</li> <li>- 기줄다리기 : 속닥기줄다리기(초등부 및 학부모), 중기줄다리기(중등부), 대기줄다리기(일반부)</li> </ul> </li> </ul>	초중고 학생 · 주부 · 삼척시민 · 관광객	일간지, 방송, 인터넷, 삼척시 홈페이지, 팸플릿, 현수막, 에드블룬, 초청장 등



<p>년들의 중기줄, 어른들의 큰 기줄로 절정을 이루는 것이 특징적이다.</p> <p>음력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5일간 행해지며, 2003년 현재 제31회 행사를 치렀다</p>				<p>- 망월놀이, 달집태우기.</p> <p>◦경연대회: 남근깎기대회, 삼척 사투리구연대회.</p> <p>◦경축행사: 경로잔치, 죽서주부 가요제, 전통풍물한마당 큰잔치.</p>	
---	--	--	--	--	--

행사명	행사연혁 (유래 및 목적)	행사시기	행사주관	행사지역 (장소)	행사종목 및 내용	참여인원	행사홍보
기지시줄다리기	<p>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에서 행해지는 전통축제. 줄다리기를 통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또한 민속문화의 전승과 주민 화합도모하기 위해, 윤년이 드는 음력 3월 초 대제 때 줄다리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민속행사가 거행된다.</p> <p>역사는 확실하지 않고, 전설에 의하면 약 450여 년 전 마을에 재앙이 빈번하자 이를 막기 위해 줄다리기가 생겼다고 한다. 곧, 틀모시(기지시)의 지형이 풍수상 옥녀가 베짜는 형국이어서 베를 마전(피륙을 바래)하는 시늉으로 줄다리기가 생겼다고 한다. 줄다리기는 남녀노소 온 주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물위(수상) 물아래(수하) 동네로 나누어 승부를 가리는데 수하가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하여 매년 북쪽 수하편이 승리한다. 1982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75호로 지정되었다.</p>	윤년 음력 3월	기지시줄다리기집행위원회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 일대	<p>◦국수당제: 국수봉 국수정에서 마을의 풍연과 평안을 기원하는 당제를 지냄.</p> <p>◦농악경연대회: 100~120개의 농악대 참가.</p> <p>◦줄다리기: 원줄 길이 총200m, 몸줄 직경 1m, 줄 머리 지름 1.8m, 무게가 40여 톤에 이르는 대규모의 암·수줄을 만들어, 32호선 국도를 중심으로 물위[수상], 물아래[수하] 동네로 나누어 줄을 다린다.</p> <p>◦민속행사: 줄다리기, 삼베짜기대회, 전국풍물경연대회, 전국궁도대회, 장사씨름대회, 그네뛰기대회, 새끼줄포기대회, 시조경창대회, 민요경창대회</p>	당진군, 송악면, 우강면, 용대면, 석문면, 신평면, 순성면, 면천면, 합덕읍, 당진읍 등 주민, 국내외 관광객	일간지, 방송, 인터넷, 당진군 및 송악면 홈페이지, 팸플릿, 현수막 등

## 중구의 축제

행사명	행사연혁 (유래 및 목적)	행사시기	행사주관	행사지역 (장소)	행사종목 및 내용	참여인원	행사홍보
3·1민속문화제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에서 행해지는 전통 민속축제. 3.1운동의 단결력을 계승하고 고유한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군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축제로 매년 3.1절을 전후하여 4일간 행해진다. 이 축제의 모체는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던 영산지방의 전통민속놀이인 '쇠머리대기'와 '줄다리기'이다. 그 전통을 계승하고 또 일제시대 때 이 마을주민들이 적극 가담한 3·1운동을 기리기 위하여 그 희생자에 대한 제사와 문화예술행사 및 체육행사를 함께 치뤄 종합향토축제로 발전시켜 왔다. 2003년 현재 제 42회 행사를 가졌다	3월 1일 (전후)	3·1민속문화향사회	창녕군 영산면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야제 : 제등 축하행사, 쥐불놀이, 불꽃놀이.</li> <li>◦식전행사 : 어린이쇠머리대기, 축하비행.</li> <li>◦서막식 행사 : 성화봉송, 서제고천.</li> <li>◦민속놀이 : 서낭대대기, 영산쇠머리대기, 골목줄다리기, 영산줄다리기, 읍면대항 그네뛰기와 널뛰기, 연날리기, 농악경연대회, 전국장사씨름대회, 민속팔씨름대회, 궁도대회, 투견대회, 투계대회, 민속짚공차기, 구계목도놀이 등.</li> <li>◦문화예술행사.</li> <li>◦체육행사.</li> </ul>	학생, 농악대, 현지주민 외 관광객	일간지, 인터넷, 창녕군 홈페이지, 팸플릿, 현수막 등

### ◎ 현대축제 : 전통문화행사 중심 축제

행사명	행사연혁 (유래 및 목적)	행사시기	행사주관	행사지역 (장소)	행사종목 및 내용	참여인원	행사홍보
단종문화제	강원도 영월군에서 열리는 전통문화축제. 단종과 충신들의 고혼을 위로하고 충의 정신 선양,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1967년에 처음 개최되었다. 단종과 충신들, 왕을 따르던 궁인들에 관련된 고사를 중	4월	단종문화제위원회/영월군	영월 장릉과 둔치 및 영월읍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례 : 장릉에서 단종의 고혼과 충절을 기리는 단종대왕 제향과 충신 제향에 이어 제례악·제례무·대왕 신령굿이 펼쳐짐.</li> <li>◦가장행렬.</li> <li>◦민속놀이 : 칩줄다리기.</li> <li>◦문화예술행사.</li> <li>◦영산대제 : 단종 수호사찰인 보덕사에서 단종대왕을 위무하고</li> </ul>	청소년, 예술인, 무당, 영월군민, 관광객	일간지, 방송, 인터넷, 영월군 홈페이지,



<p>심으로 조선 중종11년(1516년)부터 전통궁중제례형식으로 단종충신제향을 지내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각종 문화행사를 4월 5일부터 3일 간 개최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제 37회 행사를 치렀다.</p>			<p>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불교의식.          ◦학술세미나.</p>	
--	--	--	--	--

행사명	행사연혁 (유래 및 목적)	행사시기	행사주관	행사지역 (장소)	행사종목 및 내용	참여인원	행사홍보
<p>화성문화제</p>	<p>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리는 지역축제. 수원시민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정조대왕의 효심과 화성 축성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개최되는 종합축제로 문화관광축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이 축제는 수원에서 경기도청 기공식이 있던 10월 15일을 기념하고, '수원시 시민의 날'을 경축하기 위하여 '화성문화제'라는 이름으로 1964년에 시작, 매년 10월 중순경에 개최되어 왔다. 2000년(제 37회)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화성'의 이름을 살려 '화성문화제'로 축제명을 바꾼 이후 연중 내내 행사를 나누어 거행하고 있는데, 10월 축제가 중심을 이룬다. 행사 가운데 정조가 사도세자의 묘소참배를 위하여 행차하던 행렬인 '정조대왕 능행차 시연'에는 수천 명이 참</p>	<p>10월 (연중)</p>	<p>수원 화성 문화 제집 행위 원회</p>	<p>수원시, 화성군 일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야제: 화령전 고유제, 제등도 열, 전통민속공연(풍물, 탈춤), 타종, 불꽃축제.</li> <li>◦정조대왕 능행차 연시 재연 (5700명, 시민자율퍼레이드).</li> <li>◦개막행사: 거리행렬 여흥행사, 개막식, 경축문화행사, 불꽃 및 레이저쇼, 피날레 한마당.</li> <li>◦용릉(사도세자의 능침) 제향 재연.</li> <li>◦민속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등.</li> <li>◦문화예술축전 국악, 무용, 가요, 음악.</li> <li>◦한시백일장(유림), 글짓기대회(중고생), 그림그리기대회(초중고생), 휘호대회(초중고생), 화성깃발전.</li> <li>◦효행대상 시상식.</li> <li>◦주부풍물축제: 풍물, 전통무용 등.</li> <li>◦수문장교대식: 궁성문 수위의식, 행렬 및 교대의식.</li> <li>◦수원갈비축제: 수원갈비 맛자랑.</li> <li>◦전통체험축제: 전통무예, 전통예절 및 다례, 전통혼례, 전통먹</li> </ul>	<p>학생, 주부, 유림, 상인, 예술인, 수원시 민, 관 광객 등</p>	<p>일간지, 인터넷, 수원시 홈페이지, 팸플렛, 현수막 등</p>

## 중구의 축제

가하여 재현하는 바 장관을 이룬다. 이 행사에는 정조대왕의 효심을 기리는 뜻이 담겨 있다.			거리장, 가훈씨주기, 포토이벤트 등. ◦상설떡거리.	
--	--	--	---------------------------------	--

행사명	행사연혁 (유래 및 목적)	행사시기	행사주관	행사지역 (장소)	행사종목 및 내용	참여인원	행사홍보
백제문화제	<p>충남 부여군과 공주시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역축제. 백제인의 얼과 슬기를 드높여 부여와 공주인의 긍지를 높이고 격조 높은 백제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여와 공주에서 1년씩 교차 개최되는 향토축제이다.</p> <p>이 축제는 1955년 부여군민이 부여산성에 제단을 설치하고 백제의 삼충신에게 제사를 올린 데서 유래한다. 1965년까지는 백제의 도읍지였던 부여에서 열리다가, 1966년 주최자가 군에서 도로 바뀌면서 공주에서도 동시에 열리게 되었다. 1974년 제 20회 때부터 대전·공주·부여에서 동시에 개최되었고, 1979년 백제문화재개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후 짝수년도에는 부여, 홀수년도에는 공주에서 1년씩 교차로 거행되어 온다. 2002년 제 48회 행사를 가졌다. 특히 문주왕 응진성 천도 의식 및 행차와 백제문화 가장대행렬은 이 축제의 중심행사이다.</p>	10월	부여군 또는 공주시 주최/백제문화선양위원회 주관	부여군 일원 또는 공주시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전행사: 삼산제.</li> <li>◦백제왕 천도, 백제대왕제, 수륙제.</li> <li>◦전야제: 가장행렬, 불꽃축전놀이.</li> <li>◦민속경연대회: 전국시조경창대회, 궁도대회.</li> <li>◦전통민속공연: 판소리.</li> <li>◦체험행사: 백제역사 문화체험.</li> <li>◦백제왕·왕비·왕자 선발.</li> <li>◦학술세미나.</li> </ul>	부여군민, 공주시민, 관광객 등(10만명)	



행사명	행사연혁 (유래 및 목적)	행사 시기	행사 주관	행사지역 (장소)	행사종목 및 내용	참여 인원	행사 홍보
속리축전	충북 보은군에서 열리는 전통문화축제. 주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지역문화를 창조해 나아가며, 공동체 의식의 함양 및 군민 화합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또한 보은을 문화관광의 고장으로 확립하기 위한 취지도 담고 있다. 1977년부터 4월 초파일을 전후하여 3일간 거행되어 왔는데, 2003년 제 26회 행사 때는 5월 단오를 전후로 하여 3일간 개최되었다.	음력 4월 8일 전 후(3일간)	보은 문화원	보은군 보은읍 뱃들공원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막식 : 고적대 축하공연</li> <li>◦속리산 산신제</li> <li>◦민속경연대회 : 풍물경연대회, 씨름경기, 장기, 줄다리기, 팔씨름, 투호던지기,</li> <li>◦문화예술행사 : 음악회, 국악공연, 인형극 공연, 야외영화상영</li> <li>◦불교문화행사 : 법주사 탐돌이</li> <li>◦체험행사 : 사생대회 및 물놀이 체험, 도자기·목판체험, 가훈 써주기</li> <li>◦청소년 어울마당</li> <li>◦출향인사 간담회</li> <li>◦축하공연 및 읍·면 장기자랑</li> <li>◦전시회 : 서예전시회, 우표전시회</li> </ul>	청소년, 예술인, 보은군민 등	일간지, 인터넷, 보은군 홈페이지, 팸플릿, 현수막 등

행사명	행사연혁 (유래 및 목적)	행사 시기	행사 주관	행사지역 (장소)	행사종목 및 내용	참여 인원	행사 홍보
춘향제	전북 남원시에서 행해지는 전통문화축제. 춘향의 높은 정절을 기리고 그 얼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열리는 축제이다. 1931년 춘향과 이도령이 만났다는 5월 단오를 기하여 춘향의 사당인 춘향사를 준공하고, 최초로 권번 주관으로 춘향제사를 지냈다. 그 후 단오날 열리던 행사는 농번기를 피하여 1934년부터 춘향의 생일인 음력 4월 8일로 바뀌었다가, 1999년(제 69회)부터 축제일을 5월 5일로	5월	춘향문화선양위원회/춘향제전위원회	남원 광한루 일대 및 남원시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춘향묘참배</li> <li>◦전야제와 기념식 : 등불행렬, 식전공연, 기념식, 불꽃놀이, 축하공연</li> <li>◦춘향 제향</li> <li>◦춘향국악대전,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li> <li>◦전통길놀이, 용마놀이, 민속씨름대회, 춘향그네뛰기</li> <li>◦춘향골어린이민속큰잔치, 유아풍물놀이마당</li> <li>◦전국농악한마당, 창극춘향전, 명인·명창전, 남원시립국악단 국악향연, 예술단공연, 청소년문화</li> </ul>	학생, 농악대, 예술인, 남원시민, 관광객 (20여만 명) 등	일간지, 방송, 인터넷, 남원시 홈페이지, 철도, 버스 (축제 기간 임시 운행)

## 증구의 축제

<p>양력화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춘향제의 세계적인 축제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 13개국 외교사절 및 외신기자단이 춘향제에 참가하였다.</p> <p>또한 관 주도로 개최되어 오던 행사를 1986년부터 민간 주도의 행사로 치뤄지고 있으며, 2003년 현재 73회 행사를 치렀다. 행사 기간은 5월 5일을 전후로 3~4일 간이다. 2001년 3년 연속 문화관광집중육성축제로 선정되었다.</p>			<p>한마당, 전통혼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궁도대회, 학생글짓기 백일장, 전국시조경장대회, 전국사진촬영대회</li> <li>◦춘향선발대회, 춘향골시민노래자랑, 댄스스포츠 시범</li> <li>◦전시회 및 기타: 향토야시장, 춘향캐릭터상품전, 남원도예전, 국악기 체험장, 춘향골의 옛추억사진전, 무형문화재 백동연죽 · 낙죽금장도 전시회, 국악향연 및 영상레이저쇼</li> </ul>		
--	--	--	--	--	--

행사명	행사연혁 (유래 및 목적)	행사시기	행사주관	행사지역 (장소)	행사종목 및 내용	참여인원	행사홍보
진남제	<p>전남 여수시에서 열리는 전통문화축제. 이순신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전통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해 개최된다.</p> <p>이순신 장군이 경상도지역으로 출전하여 왜군을 섬멸한 날인 5월 4일을 기념하여 축제일로 정하고, 남쪽을 진압한다는 뜻인 '진남(鎭南)'을 축제명으로 채택, 1967년에 처음 개최되었다.</p> <p>이 때 거북선 모형이 처음 공개되었다. 1975년 제9회 때부터는 관 주도로에서 민간 주도의 행사로 바뀌어 거행되다가 1977년 진남제보전위원회가 설립되어 행사를 주관해 오고 있다.</p> <p>임란 때 전라좌수영의 본진이 있던 여수는 이순신과 조선 수</p>	5월	(사)진남제보전위원회	여수시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야제 : 고유제, 불꽃놀이.</li> <li>◦충무공 동상과 수군 위령탑 참배.</li> <li>◦시가행진 :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 여거, 조선수군행렬, 가장행렬 등.</li> <li>◦해상퍼레이드.</li> <li>◦무속의례 : 용왕맞이, 풍어굿,</li> <li>◦민속놀이 : 용줄다리기, 소동패놀이, 강강술래, 씨름, 그네, 널뛰기, 율놀이, 농악.</li> <li>◦소년 이순신장군 선발대회.</li> <li>◦전국학생회화대회, 한시백일장.</li> <li>◦이충무공 유적지 순례.</li> </ul>		일간지, 진남제 홈페이지, 여수시 홈페이지, 팜플렛,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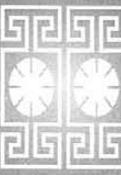
<p>군의 위업과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축제는 호국정신을 향토문화제로 발전시켜 호국의 얼을 되새기고 민족정기를 드높이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2003년 제 37회 행사를 치렀다</p>						
--	--	--	--	--	--	--

행사명	행사연혁 (유래 및 목적)	행사시기	행사주관	행사지역 (장소)	행사종목 및 내용	참여인원	행사홍보
영등축제	<p>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열리는 지역축제. 매년 음력 3월 초 영등살이라고 하여 바닷길이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신비의 바닷길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1977년부터 진도군의 지역축제로 발전하게 되었다.</p> <p>영등축제는, 옛날에 호환으로 혼자 회동(호동)에 남게된 뽕할머니가 헤어진 가족을 만나기 위해 매일 용왕님께 기원하자 호동과 모도 사이에 바닷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 후 뽕할머니를 위한 제사를 매년 지내게 되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p> <p>이 축제에서는 진도 고유의 민속행사와 함께 체험행사 등 진도의 관광진흥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문화관광축제로서 매년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제 26회 행사를 치렀다.</p>	4월 (음력 3월 초)	영등축제추진위원회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진도군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등살놀이 : 뽕할머니 제사, 신명의 소리, 강강술래, 소포결군농악, 진도만가.</li> <li>◦민속공연 : 사물놀이, 진도북놀이, 진도농악, 강강술래, 남도들노래, 진도씻김굿, 진도다시래기 등.</li> <li>◦진도바닷길대영합회 : 뽕할머니의 기적을 재연하는 행사로,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 용왕제를 모시고, 바닷길을 따라 행진.</li> <li>◦뗏목경연대회 : 각 읍면 1개팀씩 출연, 회동에서 모도까지 뗏목경연.</li> <li>◦축하행사 : 해상 선박퍼레이드, 페러글라이딩, 모형비행선 연출.</li> <li>◦부대행사 : 진돗개 모기자랑 등.</li> <li>◦관광객 참여 프로그램 : 진도민요교실, 바닷길체험, 만민화합의장 등.</li> <li>◦진도 특산 명물장 : 구기자, 검정약쌀, 홍주, 돌미역, 돌김 등</li> </ul>	예술단 및 기예능 보유자, 진도군민, 국내외 관광객 (40만 이상)	일간지, 인터넷, 진도군 홈페이지, 팸플릿, 현수막 등

## 중구의 축제

행사명	행사연혁 (유래 및 목적)	행사 시기	행사 주관	행사지역 (장소)	행사종목 및 내용	참여 인원	행사 홍보
신라문화제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전통문화축제. 찬란했던 신라 문화와 화랑정신, 그리고 호국불교사상을 계승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열리는 종합축제이다. 1962년에 시작되어 매년 10월 초에 3일간 펼쳐지며, 2002년 제 30회 행사를 치렀다. 신라문화를 주제로 한 행사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10월	경상북도 주최/경주시·경주문화원·예천경주지부·신라문화선양회 공동주관	경주시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놀이.</li> <li>◦ 민속놀이경연.</li> <li>◦ 문화예술행사 : 음악제, 신라미술대전, 백일장, 연극공연, 전시회.</li> <li>◦ 불교행사 : 팔관대제, 바라춤, 탑돌이.</li> <li>◦ 가배놀이, 신라대취타, 신라난장, 화랑 및 원화(源花) 선발대회, 화랑씨름대회.</li> <li>◦ 경축행사.</li> </ul>	학생, 농악대, 예술인, 남원시민, 관광객	일간지, 인터넷, 경주시 홈페이지, 팸플렛, 현수막 등

행사명	행사연혁 (유래 및 목적)	행사 시기	행사 주관	행사지역 (장소)	행사종목 및 내용	참여 인원	행사 홍보
밀양문화제	경남 밀양시에서 열리는 전통문화축제. 사명대사의 충의 정신과 성리학의 태두인 김종직 선생의 지덕정신, 지조와 정절의 표상인 아랑나자의 정순정신을 기리며, 향토문화예술의 창달과 그 저변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밀양의 대표적 설화인 아랑전설에서 축제명을 채택하여 1957년부터 매년 음력 4월 16일 이전의 길일을 택해 개최되었는데, 2000년에 축제명칭을 밀양문화제로 바꾸었다. 이 축제를 통하여 밀양백중놀이, 감내계줄당기기, 무안용호놀이 등의 많은 무형문화재	4월	밀양문화제집전위원회	밀양시 남천강변 야외공연장 등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유제 : 사명당의 충의(忠義), 김종직선생의 지덕(智德), 아랑의 정순(貞純)의 불씨를 각각 채화해 고유제를 올림.</li> <li>◦ 가장행렬과 사물놀이, 부채춤, 사명대사 평양성 탈환 승전보고, 밀양아리랑의 밤, 등불행렬</li> <li>◦ 아랑구수 선발대회</li> <li>◦ 민속놀이 공연 : 밀양백중놀이, 범홍상원놀이, 무안용호놀이, 감내계줄당기기, 공상타작놀이, '밀양 12차 농악' 시연</li> <li>◦ 민속경연대회 : 씨름대회, 그네뛰기대회, 농악경연대회, 투견대회 등</li> <li>◦ 청소년어울마당, 열린음악회, 주부가요열전</li> <li>◦ 전국 백일장, 학생 음악·미술</li> </ul>	학생, 주부, 예술인, 밀양시민, 관광객	일간지, 방송, 인터넷, 밀양시 홈페이지, 팸플렛, 현수막 등



를 발굴하였다. 2003년 제 46회 행사를 가졌다				경연대회, 무선조종모형자동차 한국선수권대회 등.	
------------------------------	--	--	--	----------------------------	--

행사명	행사연혁 (유래 및 목적)	행사시기	행사주관	행사지역 (장소)	행사종목 및 내용	참여인원	행사홍보
한라문화제	<p>제주도에서 행해지는 종합축제 성격의 지역축제. 매년 10월 중 7일 내외에 걸쳐 펼쳐진다. 이 축제는 1962년 원래 '제주예술제'로 시작하였다가 1965년에 '한라문화제'로 개칭하여 1966년부터 제주도관광협회와 제주MBC방송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제주도관광협회가 주관하여 순수한 민간주도로 운영되면서 '축제의 특장화', '문화의 명절화', '문화관광의 자원화'를 지향하는 관광축제로 발전해 오고 있다. 2002년 제 41회 행사를 치렀다.</p> <p>제주의 독특한 민속놀이가 재현되고, 들판·거리·바다를 모두 축제마당으로 만들며, 제주의 자연 및 역사의 특성을 보여주는 각종 행사가 배풀어지는 것이 특징적이다.</p>	10월	제주도관광협회와 제주MBC방송국 공동주최/ 제주도관광협회주관	제주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라산신제·만덕제.</li> <li>◦ 바다축제·섬민속축제·제주마(馬)축제.</li> <li>◦ 민속놀이 : 들돌들기·등짐지기·명석말아풀기.</li> <li>◦ 사투리대회·무형문화재축제·민요경창대회.</li> <li>◦ 학생민속예술 한마당.</li> </ul>	제주도민, 해외예술단, 관광객	일간지, 방송, 인터넷, 제주도 홈페이지, 팸플릿, 현수막 등

## 중구의 축제

### ◎ 현대축제 : 문화관광·산업 중심 축제

행사명	행사연혁 (유래 및 목적)	행사시기	행사주관	행사지역 (장소)	행사종목 및 내용	참여인원	행사홍보
명동축제	<p>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에서 열리는 상업축제 성격의 지역축제. 예로부터 패션의 중심지이자 젊은이들의 거리로 쇼핑 천국이라 불리며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명소로 알려진 명동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해 명동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세계적 쇼핑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창출하려는 목적에서 1985년 처음 개최되었다. 당시에는 1970년대 후반 신도시, 강남개발 등으로 상권이 이동되자 위축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구책으로 마련되었지만 현재는 보다 나은 쇼핑문화를 제공하고 문화예술공연과 기업의 마케팅 장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p> <p>명동축제는 매년 봄, 가을에 2회 열리며 4월(또는 3월 말부터) 한 달 동안 매주 주말에 진행된다. 2003년 4월 4일 제 31회 행사를 개최하였다.</p>	봄(4), 가을(9월)	명동상가변영회	중구 명동 전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막행사 : 고적대 퍼레이드, 테잎컷팅 등.</li> <li>락 페스티벌, 치어리더 경연대회(대학생).</li> <li>사물놀이, 전통무용, 국악공연, 판소리, 전통혼례식 등 : 젊은이와 외국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함께 즐기도록 하기 위한 행사.</li> <li>힙합페스티벌(청소년).</li> <li>헤어쇼, 메이크업쇼, 거리 패션쇼, 미스명동 선발대회 : 패션 이미지 제고.</li> <li>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명동 명물 찾기, 퀴즈쇼, 매직쇼, 시민노래자랑 :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li> <li>세일행사 : 축제 기간 중 관람객들에게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세일행사를 벌임.</li> <li>상설행사 : 옛장수 공연과 옛나뉘주기, 초상화 그려주기, 페이스페인팅, 막대풍선 불어주기 등.</li> </ul>	청소년, 대학생, 상가주민, 시민, 외국인 관광객 등 (150~200만의 유동인구)	일간지, 인터넷, 서울중구청 홈페이지, 현수막 등

행사명	행사연혁 (유래 및 목적)	행사시기	행사주관	행사지역 (장소)	행사종목 및 내용	참여인원	행사홍보
	<p>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열리는 현대축제. 신촌 대학가를 중심으로 그동안 술한 데모 등으로 응어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촌거리축제 : 거리퍼레이드, 거리미술제.</li> <li>열린음악축제 : 클럽밴드콘서트, 힙합라이브콘서트, 새티가요</li> </ul>		



<p>신촌 문화 축제</p>	<p>졌던 학생과 주민들간의 불신을 씻음으로써 화합을 도모하고 많은 대학이 소재한 지역 특성에 걸맞는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발전, 건전한 놀이문화의 보급을 위하여 1992년부터 개최되었다. 각종 행사를 통하여 학생과 주민, 지역 상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종합축제로 5월경에 3일간 열린다.</p>	<p>5월</p>	<p>신촌 문화 축제 위원회</p>	<p>서대문구 신촌 일대</p>	<p>제, 영페스티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퍼포먼스 : 난타퍼포먼스.</li> <li>◦ 야외영화제 : 단편영화제.</li> <li>◦ 자유발언대, 화합의 달리기.</li> <li>◦ 안산봉수제.</li> <li>◦ 민속행사 : 필봉풍물굿, 차전놀이, 영산재, 전통 줄타기, 전통혼례식 행렬, 금혼식 등.</li> </ul> </p>	<p>청소년, 대학생, 예술인, 상인, 지역주민 등</p>	<p>일간지, 방송, 인터넷, 팸플릿, 각대학계시판 등</p>
-----------------	---	-----------	---------------------	-------------------	---	----------------------------------	------------------------------------

행사명	행사연혁 (유래 및 목적)	행사시기	행사주관	행사지역 (장소)	행사종목 및 내용	참여인원	행사홍보
<p>이천도자기 축제</p>	<p>경기도 이천시에서 열리는 지역축제. 흙·불과 장인이 어우러져 한국전통 도예의 맥을 이어온 이천도자기의 명성을 살리고 이천지역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1987년부터 개최되었다. 매년 9월 또는 10월에 약 2주간 개최된다. 한국도자기유물전, 도자기판매, 도예교실 등의 도자기 관련행사와 아울러 행사장과 이천온천이 인접해 있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p>	<p>9월 또는 10월 (약 15일간)</p>	<p>이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주최, 이천문화원, 이천민속도자기사업협동조합</p>	<p>이천 설봉산 및 도예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빗살무늬토기제막식.</li> <li>◦ 청소년도예캠프, 도자기벽화제작.</li> <li>◦ 한국도자기유물전, 설봉산발굴유물특별전, 대한민국도자전, 국제조각전, 학생도예작품전</li> <li>◦ 도예교실, 도자기제작 시연, 전통가마 불지피기, 도자기벽화제작.</li> <li>◦ 도자기 경매, 이천도자기쇼핑</li> <li>◦ 도자기심포지움, 세계도예작가 워크숍.</li> <li>◦ 국제조각심포지엄 조각전.</li> <li>◦ 국제다도회.</li> <li>◦ 전통문화공연 : 경기도도당굿, 안동하회탈춤공연, 농악놀이.</li> <li>◦ 예술행사 : 시립국악단공연, 두드락공연, 이천문화예술단체공연, 노래자랑.</li> <li>◦ 화훼·분재전</li> </ul>	<p>이천시민, 예술인, 국내외 관광객 등</p>	<p>일간지, 방송, 인터넷, 이천시홈페이지, 팸플릿, 현수막 등</p>

### 3. 강릉단오축제와 금산인삼축제

#### 1) 강릉단오축제

강릉단오제는 강릉지역 전통문화의 상징이며 이 지역 주민들의 역사와 삶의 향기이다. 강원도 영동과 영서를 잇는 중요한 관문인 대관령은 강릉단오제가 시작된 곳이다. 대관령의 산신께 치제(致祭)하고 국사서낭신과 국사여서낭신을 모시고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전통의 축제가 바로 강릉단오제이며, 그 규모와 역사 또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것이다.

음력4월 5일 신주(神酒) 빗기를 시작으로 음력 5월 7일 신을 돌려보내는 의식인 송신제(送神祭)까지 강릉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주민들까지 한마당에 모여 장관의 축제를 엮어내는 것이 강릉단오제이다. 이러한 강릉단오제는 전통축제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1967년 1월에 중요 무형문화재 제 13호로 지정되었다.

강릉단오제는 ‘단오절’, ‘단양일’, ‘단양놀이’, ‘단양굿’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고대 부족 국가의 제천의식(祭天儀式)에서 비롯된 대부락제(大部落祭)로서 농경 의례를 중심으로 한 민속축제이며, 전래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중요한 민속문화재이다.

단오의 세시명절은 한반도의 북쪽과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성황을 이루었고 중남부 지역에서는 추석을 으뜸으로 여겼다. 이러한 북동지역의 단오절은 그 원래의 전통적 관습이 강릉에 서만 현재까지 보존, 계승되고 있어 더욱 귀중한 것이다.

또한 강릉단오제는 예로부터 민(民)과 관(官)이 하나 되어 부락신께 치제(致祭)하며 지역 주민의 안녕과 풍년, 풍어, 질병예방, 안전행로 등을 기원하고 이를 계기로 농약, 그네, 씨름, 관노가면희와 같은 전통의 민속놀이를 펼치며 애향심, 주민협동 등의 지역민의 혼을 다져온 대축제라 할 것이다. 제사의식 속에서 민과 관의 일체감은 잘 나타나고 있다. 과거 양반사회의 유교식 제의와 고유 민간신앙에서 출발한 무속제의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관의 동참을 상징하는 관노가면희에서는 지위와 귀천을 초월하여 한데 어울리고 남여 서낭신이 일년에 한번 상징적 결합을 하게 함으로써 성(性)을 신성시하고 이를 숭배했던 우리나라 원시신앙의



의미도 담겨있어 주목할만하다. 이러한 전통은 현대에도 보존, 계승되고 있으니 오늘날에도 남녀노소 모든 시민들이 단오기간에는 다양하게 참여하여 지역민의 일체감을 형성하여 왔다. 이것이 바로 강릉지역 주민들이 강릉단오제라는 전통의 민속축제를 오늘날까지 계승시킨 하나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97년도 강릉단오제 행사내용〉

행 사 내 용		장 소	주 관 단 체	비 고
종 목	행 사 명			
지 문 화 재 행 사	신 주 근 양	칠 사 당	단 오 제 보 존 회 제 전 부	제 전 부
	대관령산신제	대관령산신당	"	
	국사성황제	국사성황사	"	
	구산성황제	구산성황사	"	구산리주민
	여성황봉안제	국사여성황사	"	
	강 문 진 토 배 기 제	강 문 동	"	강 문 동 주 민
	영 신 제	국사여성황사	"	
	국사성황행차	홍 제 동 ~ 단 오 장	" 불 교 청 년 회	
	조 전 제	단 오 장 제 단	단 오 제 보 존 회 제 전 부	
	단 오 굿	"	"	
	송 신 제	"	"	
	관 노 가 면 극	단 오 장 소 공 연 장	강릉관노가면극 보 존 회	유천동·관동대 강릉대·임영회 경포초교·울곡중
	농 악 경 연 대 회	단 오 장 날 이 마 당	농 악 보 존 회 K B S	일 반 농 악
	학 산 오 독 떼 기	단 오 장 날 이 마 당	학 산 농 요 보 존 회	강 원 도 무 형 문 화 재 제 5 호

중구의 축제

민속사행	한시백일장	강릉문화원		전국규모
	향토민요경창대회	대동마당	국악협회 강릉지부	

행사내용		장소	주관단체	비고
종목	행사명			
민속사행	전국시조경창대회	월화예식장	강릉시우회	전국규모
	줄다리기대회	공설운동장	강릉영동동 라이온스클럽	읍·면·동 기관·단체
	씨름대회	씨름장	강릉청년회의소	읍·면·동 기관·단체
	그네대회	그네장	강릉로타리클럽	일반, 개인단체
	강릉사투리경연대회	대동마당	강원도민일보사	개인
	궁도대회	남대궁도장 (소학정)	강릉시궁도협회	도내 개인·단체
	투호대회	민속놀이마당 (소공연장)	숙박업협회 임영회	개인및단체
	단오장기대회	단오장내 장기대회장	강원도민일보사	개인
초행청사	이리농악	놀이마당	강릉시	
	북청사자놀이	놀이마당		
	중국형주시 기예단	놀이마당		
	태국민속춤	놀이마당		
예행술사	단오제풍물 전국 사진공모전	단오장일원	강릉사진협회	
	단오풍물 사진전시회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강릉사진협회	
	학생사생대회	강릉대학교 교정	미협강릉지부	초·중·고생
	미술전시회	이화미술관	미협강릉지부	



	교산백일장	문예회관 소공연장	문인협회강릉지부	초·중·고·일반
	동화구연대회	문화예술회관	사립유치원연합회	
	한전합창단 초청공연	문화예술회관	한전강릉지사	
	국악공연	대종마당	국악협회강릉지부	
야간 행사	연극공연	.	연극협회강릉지부	홍길동전 외 2편
	사물놀이	공연장	대관령푸너리	
	강릉매화전	놀이마당	강릉문화방송(주)	

행사내용		장소	주관단체	비고
종목	행사명			
체 육 사	테니스대회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강릉시 테니스협회	도내개인 및단체
	상농축구 정기전	종합운동장	강상·강농 동문회	
	탁구대회	강릉초등학교 체육관	강릉시탁구협회	초·일반단체
	태권도대회	강릉실내체육관	강릉시태권도협회	도내초중고
	게이트볼대회	성덕초등학교 앞고수부지	강릉시	관내 읍·면·동대향
	역전마라톤 대회	주문진 ~ 성내동광장	육상연맹 강릉시지부	영동지역 초·중·고
경 축 사	서낭신기 모시기	대관령반정 ~ 어흘리	한국산악회 강원도지부	
	불꽃놀이	강릉의료원앞	경축분과	
	단오등 띄우기	남대천	강릉불교청년회	
	고공낙하시범	공설운동장	특전등지회 강릉지회	
	수석전	문화예술관 전시실	강일수석회	
	백합축제	공설운동장	강릉시	
	학술세미나	강릉대학교	한국관광개발학회	

공군예예쇼	강릉상공	강릉시	
육군군악대 시범	놀이마당	강릉시	
공군의장대 시범	강릉 종합경기장		

강릉단오제는 전통예술이 보존, 계승된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이다. 관노가면희의 경우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회가 유천동 주민들에 의해 결성되어 있는데, 경포초등학교, 울곡중학교, 문성고등학교, 관동대학교, 강릉대학교 그리고 강릉문화원부설 임영향토문화학교 등의 보존회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판놀이 구조와 가락으로 정평이 있는 강릉농악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각 마을마다 강릉단오제를 통한 공연과 발표를 함으로써 인정을 받았으며, 조선시대에 세조대왕이 그 소리의 멋과 맛을 아꼈다는 기록이 전하는 강릉민요도 꾸준히 강릉단오제 행사 기간에 공연과 대회를 거치면서 전통예술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받고 있다. 위의 세 가지 즉, 관노가면극, 강릉농악, 강릉민요 모두는 전통예술의 귀중함이 인정되어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다. 이는 강릉단오제를 통한 애향심의 발로와 전통문화 예술에 대한 자긍심 등이 자발적인 보존회 결성, 공연하게 되었던 계기가 된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강릉단오제가 현대까지 계승에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또한 강릉단오제는 강릉의 상징처럼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단오제라는 전통축제를 통하여 살아있는 축제의 도시(city of festival)로 지역의 문화, 경제, 관광활성화의 기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금산인삼축제

우리나라에서 인삼축제를 개최한것은 일제시 인삼재배지로 유명하였던 개성시에서 서부공원에 인삼신사를 건립하고 매년 10월 상달 길일을 택하여 삼엽계 원로가 제주가 되어 제사를



올리고 제등시가행렬과 밤중의 폭죽행사들 거시적인 인삼제전을 거행한 바 있었다.

그리고 이곳 금산지방에서도 개성과 같은 공개적인 행사는 아니지만 인삼경작인 개인별로 삼장 제라하여 인삼포를 완성하고 인삼의 새싹이 돌아오를 때면 인삼을 이 고장에 재배토록 하여준 산신령에게 감사드리고 인삼밭의 피해를 막아 인삼농사가 풍성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제사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왔다.

따라서 금산군에서는 이와 같은 삼장제를 현대적인 조화로 전승 군민 축제로 발전시키며 인삼 주산지로서 인삼의 본질과 효능을 규명하여 널리 선양하고 인삼 활용 방안의 적극적인 모색으로 소비를 창출, 군민 소득증대를 기함은 물론 이 고장 전통문화 행사를 정립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관내 유관기관 및 각계인사를 망라한 금산군 인삼선양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1981년 10월 1일~2일까지(2일간) 제 1회 금산인삼축제를 개최하여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 4. 한국 민속축제의 문제점

축제는 특별한 경축행사로 표현되는 신을 경배하거나 신성을 더럽히는 시간, 중요한 생산품의 경작이나 주목할 만한 사람 또는 사건의 1년 간의 행사, 한 사람의 작가나 하나의 유형으로 만들어지는 공연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문화적 행사, 아름다움, 유쾌함, 술잔치, 기분 좋은 것 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축제는 하나의 행사이며 사회현상인 동시에 인간들의 문화이다. 아울러 축제는 일반적으로 형식의 다양성과 성립된 일련의 사건, 지위, 신분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회의 구성원, 지역, 종교, 나이, 성별, 역사적 연고 등을 초월한 연합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축제의 유형을 신을 신성시하는 의미에서 더 많은 비중을 두며 축제를 정의한다. 그러므로 한국 축제의 기본 골격을 제의, 놀이라든가 아니면 제의, 놀이, 난장 등으로 축제의 큰 흐름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전통, 역사라는 축제의 큰 공감대가 있어야 한

다는 이론이다. 나아가 새로운 가치의 신흥축제 또한 이러한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토대 위에 기초를 둔 축제가 탄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산업화 시대의 사정으로는 이러한 이론에 의하여 새로운 축제가 탄생하거나 재창조되기란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 다만, 축제의 환경에 따라 농촌형과 도시형의 축제로 나누어 본다면 농촌 지역에서의 전통과 역사라는 공감대 형성은 도시지역에서 보다는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민속문화소가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을 것이다. 농촌 지역은 그들의 생업환경에 의한 다양한 민속문화소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그들을 위하는 다산의식과 그들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신화나 전설들을 모태로 하여 전설과 역사적 사건과 공감 등을 결합하면 융성한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이러한 전통과 역사의식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과감히 그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의 힘과 사람들에 의해서 경제적 이데올로기에 맞추어진 축제를 창조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농촌형, 도시형 축제의 습성이 완전한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여 쌓은 이론들을 제시하지만 귀결에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커다란 경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은 아직까지 축제 연구 깊이가 통시적으로나 공시적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반면에 긍정적인 일면 또한 없지 않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는 것처럼 축제는 관광진흥 또는 관광개발 정책과 함께 중요한 지역문화의 구심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축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된 계기가 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집권적 획일성, 일회성 등으로 끝나기 쉬운 축제가 지방분권적 다양성, 지속성적인 새로운 지역문화부흥과 가치를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지역 특색의 다양한 문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련되어 새로운 가치창조의 지역축제로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축제의 바람직한 정립을 그 사회의 역량적 기반과 함께 창조적인 노력을 결실로 의미있고 가치있는 축제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는 축제가 곧 그 사회문화의 조화로운 꽃이라는 말이다. 또한 축제는 어느 한 개인창작 또는 특정 조직의 창작과 같은 문화의 모습이 아니다. 사회공동체적이며 문화공동체적 역량의 결집이며 동시에 그 상징이 되는 셈이다.

전통축제의 경우 일제시대와 70년대 개발독재시대의 시대적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탄생한 군민축제, 시민의날 등으로 훼손된 부분이 적지 않으며 오늘날 지방화 시대에서는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전통의 현대화라는 것을 사실화하여 이벤트 중심의 축제를 만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축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완해 가며 시간을 두고 고쳐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아직 축제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며 동시에 아직까지도 미성숙의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축제의 몇 가지 과오를 지적하고자 한다.

#### 첫째, 축제의 주제성 약화

현재 우리나라 축제의 성격을 크게 3가지로 나눈다면 전통축제, 문화예술축제, 지역특산물 축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축제의 내용 가운데에는 주제의 선명도가 떨어지는 느낌이다. 마치 백화점식 운영의 내용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문제이다.

#### 둘째, 주민참여의식 결여

이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70년대 이후 관주도형의 축제 마인드가 현재까지 계소해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관행이다. 이를 극복하고 자발적 주민주도형의 축제는 강릉단오제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주민참여는 지역의 자긍심, 향토애 등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지역 개발에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식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셋째, 세시성 약화

많은 축제가 뚜렷한 주제의식을 부각시키지 못하는 동시에 세시성 또한 염두에 두지 않아 계절적 편중이 심하게 두드러져 보인다. 대개 4월이나 5월 그리고 10월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시풍속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연구가 절실하다.

#### 넷째, 전통성 및 향토성 미흡

축제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지역고유문화나 가치를 올바르게 살려내는 전통성과 향토성의 미흡이 축제의 질이나 내용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 다섯째, 난장운영의 미흡

축제의 요소 가운데 난장의 경우는 축제의 성패와 크게 관련되어 있다. 전통축제이든, 문화축제이든, 그리고 지역특산물축제가든간에 난장 운영은 필수인데 난장운영과 관련하여 주최측과 상인, 지역민과 외지인 등의 갈등은 축제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 여섯째, 축제전문가 부족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축제전문가가 아직 많지 않다는 것은 축제문화의 활성화 또는 축제개발의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차츰 전국의 축제가 고만고만한 모양새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축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축제의 양적 성장이 비대한 시점에서 자본주의 논리에만 의거하여 축제를 양산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가치 그리고 그 지역민들의 정체성 나아가 그 지역 공동체문화의 의미를 전제하지 아니하고 다만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관광상품화를 주장하는 것은 축제에 투입되는 예산의 낭비라는 지적이다.

분명 한국의 많은 축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올바른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기획, 운영, 홍보, 예산, 내용, 평가 등을 지역민, 지자체, 정부, 축제전문가 등 모두가 축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가지기 위한 부단한 연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바라는 축제의 가치가 가시적 성과 속에 그 의미와 기능이 축제의 생명력과 함께 올바르게 정립될 것이다.



제 5 장

---

목멱산축제 개발과 그 방안







## 1. 목멩산축제

무릇 한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민족이 갖고 있는 설화를 살필 필요가 있다. 그것도 건국이념이 깃든 개국신화를 살펴봄으로써 그 민족의 심성을 엿볼 수 있다. 알렉산더 알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신화는 은유적 서사시(mataphoric narrative)이요 정제된 인간 경험의 정수(essence)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불행하게도 그리 풍부한 신화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내용도 소략하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내용처럼 느끼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렌의 말처럼 그 단순한 이야기 형식에서 은유법적 표현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구조이고, 그 구조의 공통분모는 무엇인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곳에서는 목멩산 신화의 구조와 특징을 조명하기 위해서 단군신화와 가락국신화·고구려신화·태백산신화·삼각산신화 등의 구조와 그 신화의 문맥 속에 숨어있는 상징성과 사상을 찾아보고, 제반 신화소(神話素)를 통하여 신화시대의 민속상황을 추찰(推察)하고자 한다.

### 1) 단군신화와 주몽·수로·태백신화의 구조

한국신화, 그것은 한국인 태초의 시요, 역사요, 한국인의 원초적 심상이다.

단군신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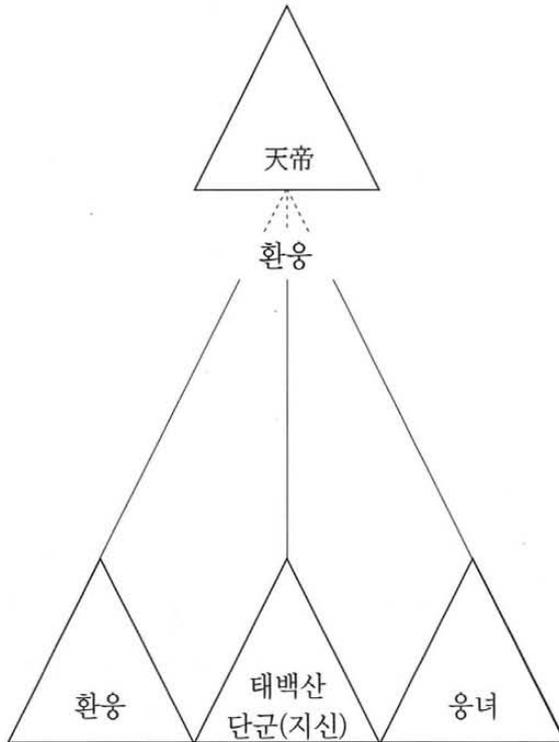
하늘에 천신(天神)인 환인이란 분이 있었다. 그에게는 서자인 환웅이 있었는데 그는 늘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여 내려가 널리 그의 뜻을 펴고자 했다. 드디어 그는 천신(天帝), 곧 하늘님의 허락을 받고 이 세상에 하강한다. 그가 내려온 곳은 산의 정상 신단수 밑이다. 3천 무리를 거느리고 내려와 신시(神市)를 건설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내가 없었다. 때마침 인간이 되고자 하는 호랑이와 곰이 시련대에 오르고, 드디어 시련을 극복한 웅녀(熊女)를 맞이하여 혼인을 한다. 거기서 낳은 사람이 단군이 다. 이것이 대강의 내용이다.

우리는 우선 천상의 신이 하강했다는 것부터 유추해 보기로 하자. 천상의 신은 환인(桓因)과 그의 서자 환웅(桓雄)이다. 이 때 환인과 환웅은 둘 다 남성이므로 ++의 결합으로 양의 세계이다. 한국인의 천상계는 ++ = +의 양의 세계이다. 신화의 세계는 암유적(暗喻的) 표현을 이용한다. 그것은 인간의 경험을 문학적으로 잘 정리시킨 것이다.

다음 단계로, 환웅이 이 지상에 내려와 자식을 갖고자 원하는 웅녀의 청을 들어주는 그 은유는 평범할 수도 있으나 이보다 더 지고(至高)한 상징성이 그 안에는 응축되어 있다.

실상, 신화가 서사성(narrative)을 안고 있는 이상, 거기에는 어차피 갈등과 해소가 있기



<도표 1>



마련이다. 환인과 환웅 사이도 부자간이지만 갈등은 있어 왔다. 하필 지상을 탐내는 아들이 서자인 점도 그를 방증한다. 여러 아들 중 서자로 태어난 신분으로서의 갈등으로 하여 그는 다른 세상을 개척해야만 했다. 이 경우는 고구려 '주몽설화'도 흡사하다.

좀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 한국 신화의 구조를 도식으로 표시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설화에 서의 대립관계의 연구는 설화에서 그 구성과 형성과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신화는 흔히 남과 여의 접합에서 곧, 양과 음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환웅이 산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환웅은 응녀와 호녀 중 한 여인을 택해야만 했다. 곰[곰부족]과 범[호족]을 다 거느릴 수가 없는 부족적 상황이 있었으리라 믿는다. 결국 곰네[熊女]가 승리를 거둔다. 곰네의 승리를 이니시에이션(initiation)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특히 시베리아 일부 종족은 실제로 곰을 숲속에 사는 저희들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다. 그 가운데 켓족은 곰을 지상동물의 왕이라 믿을 뿐만 아니라 지신(地神) 자체라고도 생각하고 있다. 곰은 다만 사람과 다른 모피를 뒤집어 쓰고 있을 뿐, 그 껍질 아래는 사람과 똑같은 형체와 심혼(心魂)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곰을 원시적 감각 그 자체가 아닌 의인법적 발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곰은 다름 아닌 무왕(巫王)인 단군을 낳은 한 부족장의 딸인 '곰네[熊女]'라는 것이다.

신웅은 그렇다면 환웅을 뜻할까? 우리는 여기서 '웅(雄)'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웅은 수컷 웅 자이다. 굳이 웅이란 단어를 쓴 까닭은 남성의 상징, 다시 말해 부족장(男巫)을 상징한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 때는 그 표현도 단웅(壇雄)이라 하지 않고 신웅(神雄)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그 뜻이 '신(神)인 환웅'의 뜻이 됨직하다. 단군을 탄생시킨 부족장(男巫)이라는 뜻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다.

상기 <도표 1>을 다시 설명해 보자.

천제인 환인은 태백산에 자기의 서자 환웅을 내려 보낸다. 환웅은 천제의 아들로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인 산의 정상에 자리잡고 지상 최고의 신이 되어 신시를 건설한다. 결국 단군은 당시의 사제자이자 왕이었던 '박달나무 임금'이 된 것이다.

여기서도 '박달나무 단(檀)'자와 '제터 단(壇)'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檀)은 신성수(神聖樹)인 당목(堂木)을 뜻하고 있다. 당목이 있는 곳은 서낭당[城隍堂]이다. 우리 민족의

서낭당은 당(堂)이 먼저가 아니다. 당 이전에 생수(生樹)인 큰 나무를 당목으로 삼아 제를 지냈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현존 영묘전(永墓殿)은 단종 임금을 모시는 서낭당이다. 그러나 원래는 서낭당 하나만 있었던 곳이다.(아직도 당목은 당(堂) 뒤에 서 있다.) 그러니 신체(神體)는 당목이 되는 셈이다. 최남선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단(壇)자를 쓴 것은 틀린 것이라고 믿고 있으나, 그것 또한 번역을 한 선인들의 심중을 그릇 이해한 결과이다. 이 때의 단(壇)은 서낭당의 돌무더기를 뜻한다. 그러니, 단(壇)이 옳다, 단(壇)이 옳다고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 어차피 돌무더기 단(壇) 위나 뒤에는 서낭나무인 박달나무 신목(神木)이 있을 테니 말이다.

단군은 그렇다면 지상의 신, 또는 땅의 신(君主·巫王)으로 해석함이 옳다. 도표 속의 지신의 뜻은 이와 같이 포괄적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서낭당을 살피면 성황지신·토지지신·여역지신을 모신 곳도 있고, 토지지신만 모신 곳도 있으며, 성황지신만 모신 곳도 있다. 성황지신은 그 지방 개척신을 말하고, 토지지신은 그 마을 토지를 관장하는 신이요, 여역지신은 병을 관장하는 신이다. 천제의 명을 받고 하강한 환웅은 산에다 신시를 건설하였고 지상신은 단군 무왕(巫王)에게 맡긴다. 단군은 사후에 다시 천신의 지위로 상승·회귀한다. 죽어서 까지도 천신이 되어 하늘나라에서 후손들을 음조(陰助)하겠다는 흥익인간 정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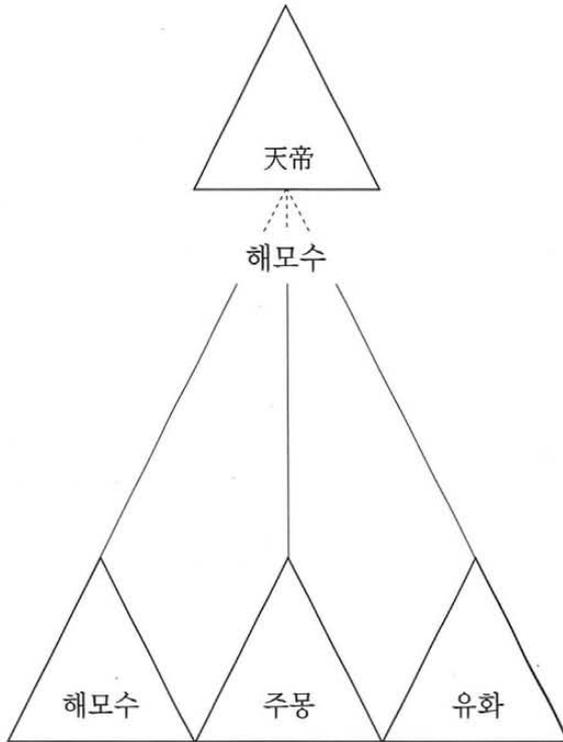
다음은 주몽설화를 단군신화와 대비해 보기로 하자.

이들도 3대기(三代記)라는 점에서 동일한 도식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몽신화도 단군신화와 궤(軌)를 같이 하고 있다.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환웅처럼 해모수도 하늘나라 천왕의 아들 자격으로 역사적 시간 속으로 들어온다.

천왕랑(天王郎)은 ‘버들꽃네[柳花]’를 얻기 위해 적지 않은 시련을 겪게 된다.

환웅이 남성(+)의 기능을 하고 사라졌던 것처럼 천왕랑 역시 버들꽃네와의 사이에서 동명(東明)을 낳고 이내 초월적 시간으로 다시 사라진다. 역사적 시간 속에서 신화는 시작되고, 주몽 역시 많은 시련을 겪고 나서 사후에 신격화된다. 물론 주몽과 버들꽃네는 산신이 되어 갔을 것이다. 역사적 시간 속에서의 주몽은 동명의 뜻 그대로 ‘세상을 밝히는 임금’의 구실



〈도표 2〉

을 하여, 그야말로 ‘홍익인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군주로 거듭나게 된다.

유화는 하신(河神)의 딸이다. 신화에는 지상의 신인 반신반인간(半神半人間)인 주몽이 무왕(巫王)의 자격으로 있다가 사후에 홀연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그 사당만 용산(龍山)이란 데 있다고 하였다. 그러니, 분명 당 이름은 용산당 아니면 용신당일 것인즉 이는 용신사상과 지신사상의 접합관계(接合關係)를 의미하고 있다.

산악이 많은 한국 땅에서 나고 죽어야 하는 민족에게 산악숭배사상이 지배적인 점은 당연한 귀결이거니와, 우리 선조들은 산악을 모신(母神)으로 숭배했던 것이니 오늘날 어미산·할미산·모악산(母岳山)·자모신(慈母神)과 같은 이름도 기실 그런 역사적 배경에서 생긴 것이다.

모신숭배는 도표에서처럼 상승관계에 놓인다. 그러나 유화는 주몽을 낳아주는 역할뿐 아니

라 사후에는 ‘유화성모(柳花聖母)’가 되었고 고구려 민중의 신앙의 대상으로 상승한다. 그뿐 아니라 신라의 민중은 ‘알영성모(閼英聖母)’를, 가야의 민중은 ‘정견성모(正見聖母 一名 正見母主)’를, 고려의 민중은 ‘위용성모(威庸聖母)’를 각기 숭배해 왔던 것이다. 개국왕모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신라에는 호국의 삼녀신(三女神)인 내림(奈林)·혈례(穴禮)·골화(骨火)와 박제상의 부인인 치술령성모까지 섬기고 있다.

단군신화에 웅녀가 ‘웅녀성모(熊女聖母)’가 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의 도표에서처럼 ‘웅녀[곰네]’도 호국신이 되어 웅녀성모로 숭앙을 받았을 것이다. 추측컨대, 단군신화의 웅녀도 여성이긴 하지만 부족의 호국신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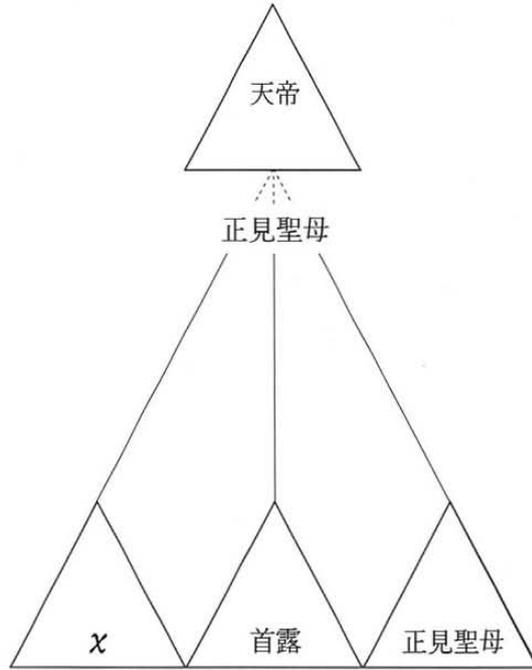
한국의 신화는 현재, 개념(synopsis)만 남아 있고 본체인 살이 없다. 인체(人體)로 치면 해골(skeleton)만 남아 있는 셈이다. 민속학도는 이들 신화를 면밀히 비교하면서 신화에 다시 원래의 살을 붙이고 재구(再構)하는 작업을 부단히 해야 한다.

그간 많은 학자들이 단군신화를 연구해 왔으나 웅녀를 성녀(聖女)로 본 이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승천에 관해서도 언급한 이가 없었다. 그러나 역으로 주몽설화와 수로신화의 구조를 통해 본 단군신화의 웅녀는 추단컨대, 분명 한국 여무왕(女巫王)의 시조, 다시 말해, 한국 최초의 무조신(巫祖神)이 되는 셈이다.

다음은 김수로대왕(金首露大王)의 신화적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도표 3>에서도 천제 → 산신 → 지신이라는 3분법적 논리는 일치한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남(男)성이 없고, 산 정상에 구지봉(龜旨峯)에 내려온다. 여기 줄과 금보자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줄은 통과외레 중 텃줄을 상징하고 있다. 금보자기에 싸여 내려오는 알은 그만큼 지존지중(至尊至重)한 분이라는 뜻을 함유하고 있으며 금씨(金氏)라는 뜻도 된다. 어쨌든 이 신화도 구지봉 정상에 내려 온 천손 자손임에는 변함 없다.

알 중 가장 큰 알이 변해 수로가 된다. 천상(天上)에서 내려와 인간계에 머문다. 알의 신화는 남(男) 대(對) 여(女)라는 대칭관계, 곧 신화를 만드는 대립과 갈등·시련이라는 관계가 거세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상의 신인 수로는 남 대 여라는 신화로서의 탄생의 갈등이 없다. 그저 수로는 허황옥을 맞아 아내를 삼게 되고, 다시 사후에 산신이 되는 변격 신화소(神話素)를 지니고 있다. 허황옥은 바다 건너 먼 나라에서 온 외래자로 허황옥 역시 국모였기에 사후



〈도표 3〉

에 나라를 수호하는 정견성모(正見聖母)가 되었다.

수평선 너머에서 몰고 온 문화, 이는 해신사상(海神思想)의 유혼이다. 보고자 한다. 일연 선사는 고려 11대 문종(1046-1083) 때 김해 땅의 지주사(知州事)였던 한 학자가 쓴 《가락국기》란 책을 보고 옮겨 썼던 것이다. 마을 지도자 이름도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다.

산기슭 마을에 살고, 그곳을 지키는 이는 유천간(留天干)이요, 그 마을 이름은 유천(留天)이다. 산꼭대기 부근에 살고 있고, 산신을 보살피는 사람은 신천간(神天干)이요, 그곳에 이룩한 마을 이름은 신천(神天)이다.

그들에게 산신을 모시는 무녀도 있어야 했다. 신귀(神鬼) 마을은 산신을 모시는 무당이 집결해 있는 마을 이름이고, 그들 중 우두머리가 신귀간(神鬼干)이다. “이제 대략 소략하게나마 신는다(今略而載之)”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신화도 대강의 윤곽만이 《삼국유사》에 소개되어 있는 형편이다.

수로탄생은 성격상 천자손계(天子孫系) 신화와 남방계 신화가 혼합돼 있는 구조물이다. 수로신화는 탄생이 천손계 하강임에는 틀림 없으나 탄생시에 대립적 구조가 없다.

## 2) 태백산신화의 구조

앞에서 언급한대로 신화의 구연현장성(口演現場性)이 다음과 같이 시대를 격하면서 사라져 갔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

현장의 구연(performance) → 전사(轉寫: transcription) → 번역(trans-lation) → 개요(synopsis)

그리하여 서구의 이론가들은 오늘날 남아 있는 텍스트(text)는 개요 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는 이론을 내세운다. 구연 당시의 현장 상황은 물론 모두 없어졌거니와 번안과 번역 단계를 거치면서 긴 역사 속에서 양상한 해골만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스 뮐러의 신화설대로 ‘신화시(神話詩) 시대(mythopoetic age)의 산물’ 이요, 그것은 보아스(Boas)의 말대로 ‘당대 문화의 거울(mirror of culture)’ 이고 그 문화의 구조물인 것이다.

단군신화에 나타난 태백산(太伯山)은 이미 부족국가(部族國家) 시대부터 ‘흥왕지지(興王之地)’이며 왕조(王朝)의 ‘흥망성쇠(興亡盛衰)’ 와도 깊은 함수관계에 놓여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강원도 태백시의 태백산은 신라문화의 젖줄이다. 산의 정기(精氣)뿐 아니라 천지(天池)의 젖줄이 있어야 ‘흥왕지지(興王之地)’ 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신라인에게도 태백산의 정기와 황지(黃池)의 젖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박혁거세(朴赫居世)의 혁은 (赫赫·光明)한 빛을 발산하는 하느님의 아들이란 뜻이요, 알영정(闕英井)에서 태어난 알영(闕英)은 지모신(地母神), 곧 농신적(農神的) 존재란 뜻이 된다. 여기에서 천상(天上)의 융합(融合)이 이루어졌고 한국적 음양사고(陰陽思考)가 싹트게 되었던 것이다.

태백산정에 올라가면 넓은 마당이 있는데 이곳을 일러 ‘백석단(白石壇)’ 이라 한다. 즉, 이곳이야말로 제장과 무대 구실을 했던 성소 였던 것이다. 그러면 ‘백석평’ 이나 ‘태백’ 에 나타



난 ‘붉( 밝 )’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미 최남선은 상세하게 ‘밝사상’에 대해 논급한 바 있다. 태백의 백(伯)은 백(白)으로도 박(朴)으로도 쓴다. 이 때의 ‘붉’이란 광명을 뜻하고 광명은 다시 ‘거룩한 존재’의 상징으로 발전한다. 태백산의 상대자로 함백산이 있다. 그 여신 산마저도 ‘한(大 또는 太)+붉산’, 곧 ‘크게 밝은 광명의 산’이란 뜻이 된다.

다음은 ‘바디당골’이란 지명을 살펴보자. 이곳 ‘바디당골’에서 태백산신제를 지낸다. ‘바디’란 ‘붉은(光)+디(테·곳·所)’가 합성된 단어이다. 이것도 밝은 광명의 처소[장소]를 뜻한다. 바디당골을 일러 ‘소도(蘇塗)당골’이라고도 하나 ‘바디당골’이 제일 오래된 말이라고도 한다. 어쨌든 이 당골이야말로 광명신을 모시는 당골이란 뜻으로 소도의 본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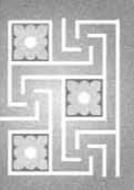
또 부정거리라는 곳이 있다. 무속제의 중에는 ‘부정거리[부정풀이]’가 제일 먼저 시작된다. 이곳 태백산에서는 향시 쑥 연기를 피워서 부정을 가셔내고 제를 시작한다. 부정풀이를 했던 곳도 따로 있었던 것이니 그곳이 ‘부정거리’이다. 바디당골은 신성소이기에 솟대가 있다. 이곳에서는 ‘집대’라고 한다.

그러면 단군을 모실 때 어떤 제물을 썼을까? 또 그 제의방식은 어떠했을까? 필자는 ‘퇴우(退牛)’를 제의 행위의 일부분으로 보고 싶다.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산신을 일러 ‘백두옹(白頭翁·백발의 노인·할미꽃을 백두옹이라고도 한다.)’이라고 한다. 백두옹이야말로 ‘천신’, ‘백두’, ‘백두태백신’인 것이다.

허목(許穆)의 《미수기언 眉叟記言》 괴조(怪條)에도 다음과 같은 제의가 소개되어 있다.

백성들이 백두옹을 가리켜 태백산신령이라 하는데 태백산의 기도로 길흉을 점친다고 한다. 전에 태수(太守)로 죽은 몇 사람이 모두 백두옹인데 혹은 꿈에 백두옹만 보이면 모두 죽었다 하여 세속에서 귀신으로 신봉하게 되었다.

또 퇴우조에 의하면 원근에서 서로 다투어 가면서 재액을 기도했다고 한다. 또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소를 신사 밑에 매어 놓고 축언을 마치면 소를 그냥 두고 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만약 돌아보면 신에게 바치는 소를 아낀다 하여 신이 흠향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당 아래 있는 소를 산 밑의 사람들이 잡아 먹어도 아무런 재액이 없었다. 이것을 퇴우라 했는데 관부에서 이 말을 듣고 감고를 정하여



## 중구의 축제

날마다 관청에 드리게 했다… 그러나 중학(仲學)이란 산승(山僧)이 그 사를 불질러버리자 음사가 없어졌고 감고도 폐지하게 되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 牧民心書》에 의하면 김치(金緻)가 영동에 관제사로 와서 태백신사를 헐었다고 한다.

상기 문헌에서 산승 중학과 유학자 김치에 의해서 미신이란 이름 아래 여지 없이 훼손된 무교의 현장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삼척의 태백산왕신인 오금잠신(烏金簪神)을 부사 김효원(金孝元)이 불 속에 던졌던 사건이나 정언황(丁彦璜)이 오금잠신을 음사라 하여 폐장시켰던 망동 등도 같은 사례들로 이해할 수 있다.

지난 적 고독한 관변학자들이나 요승들의 행적은 접어두고 우리는 이곳에서 단군신화 시절의 두 가지 제의풍속을 발견할 수 있다. 그 한 가지는 단오절의 유풍이고 또 하나는 백제(白祭)·홍제(紅祭)의 의식이다. 성현의 《허백당집 虛白堂集》 신당퇴우설에는 퇴우 풍속과 단오절의 기간이 명기되어 있다.

3도의 사람들이 산정에 당을 지어 신상을 만들어 모셔 놓고 제사를 올렸다. 세시에는 왕래하는 사람들로 줄을 이었고 제사를 마치게 되면 각각 신좌 전에 매어 놓고 돌아갔다가 3일후에 돌아와 소를 몰고 가는데 이를 퇴우(退牛)라 했다. 소를 신좌 전에 매어놓고 돌아갈 때는 조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만약 뒤를 돌아보면 신이 벌을 준다는 것이다. 해마다 사월 초파일이면 그 신이 읍의 성황에 내려온다고 하여 읍인들은 깃대를 만들고 북과 피리를 성대히 갖추어 읍리의 집에 둔다. 그리고 읍인들은 이곳에 몰려들어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계속하여 허일이 없을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5월 5일이 되면 환산(還山)시킨다.

4월 초파일에서 시작해서 5월 5일 산에서 내려오는 풍속은 현 강릉단오제의 기간과 유사한데 강릉단오제 의식도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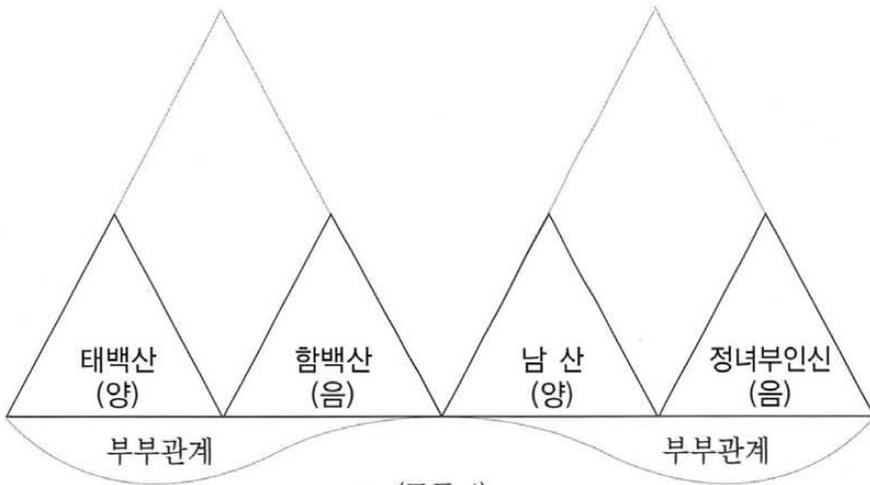
한편 기록에는 백제(白祭)에 해당되는 부분만 기록되어 있을 뿐 홍제(紅祭) 기록은 전무하다. 필자가 고로(古老)들에게 현장에서 조사한 바로는 태백산 정상에서의 홍제 의식도 찾을 수 있었다.



산 소 한 마리를 제관이 태백산 정상의 백두옹에게 끌고 가 그 자리에서 소의 머리를 친다는 것이다. 소를 쳐서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신이 제사를 잘 받은 걸로 생각 했고, 소가 왼쪽으로 넘어지면 신이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 다시 내려가 일주일간 목욕재계하고 근신하고 나서 다시 소를 끌고 가 바쳤다는 것이다.

여기서 과거 단군 신전에 소를 산채로 바쳤던 것이 아닐까 하는 점과 그 정성이 지극했으리라는 점을 미루어 알 수 있다.<sup>1)</sup>

태백산신화와 목역산 신화의 신화체계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이 부부신 관계로 나타난다. 부부신 관계지만 천상의 천제와 연계되어 삼각 구도를 이루고 있음도 주목된다.



〈도표 4〉

1) 강원도 태백산에는 천대 왕당(天王堂)이 있다. 다른도에서 보기드문 천왕으로 표시되어있다. 원래 태백산은 신라 오악(五嶽) 중 북악으로 봉정제의(封定祭儀)의 등계(等第)는 중사(中祀)로 되어 있다. 도내 다른 산제(山祭)가 산신제인데 반해 이곳은천왕제라 하여 천신을 강조하고 있음도 특이하다.

문헌비고(文獻備考) 예고(禮考) 약해독산천조(岳海瀆山川條)에 '망제태백산(望祭太白山)'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신라 일성왕(逸聖王)은 북순(北巡) 태백산제를 지냈다. 거니와 기임왕(基臨王)은 춘천(春川)에서 태백산을 바라보면서 망제(望祭)를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신을 흠모하는 정은 크나 그곳에 갈 수 없기에 신이 계신 쪽을 향해 제물을 차리고 참배했다는 뜻이다. 다른 신을 제쳐놓고 신라의 임금들이 태백산을 중히 여긴 이유는 '백신(白神)'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다.

백산(白山)도 장백, 소백 백악 등 다양하다. 백산 중에서도 태백이란 뜻은 가장 지존지중(至尊至重)한 신이 좌정하고 계신 산이라는 말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3) 목멱산 · 삼각산 · 백악산신화의 구조

마지막으로 삼각산 신화의 구조를 살펴보자. 삼각산은 옛날 부아산(負兒山)이라 호칭하였고 남북의 구별을 두기 위해 북한산(北漢山)이라고도 하였다. 이 때의 한(漢)은 대(大)와 천(天)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 삼각산 정상에는 백운대(白雲臺)가 있고 다음 인수봉(仁壽峰, 一名 獨峰, 萬丈峰), 만경대(萬景臺)가 있다. 봉이 3이 있어 삼각산이라 불렀다고 하나 3이 신성수(神聖數 · secret number)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라고 본다.

이밖에 장군(將軍), 시자(侍者), 영취(靈鷲), 노적(露積), 원효(元曉), 의상(義湘), 문수(文殊), 보현(普賢)봉 등이 있는데 대개 불교적 영향으로 생긴 봉명이다. 그런데 보현봉의 남쪽 자락에는 백악(白岳)이 자리하고 있는데 현 서울의 진산(鎭山)에 해당한다.

삼각산의 삼성암(三聖庵)은 1872년(고종 9년)에 신도 고상진(高尚鎭) 선사가 수행처로 찾던 중 이곳이 '적정처(寂靜處)'라는 독성님의 현몽을 받고 창건하여 '소란야(小蘭若)'라고 하였다.<sup>2)</sup>고 하나 필자는 삼성의 3이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를 관장하는 신이 아닌가 추단한다. 더욱이 칠성각에는 성모각(聖母閣)이라는 현판도 함께 걸려 있어 삼각산에도 가야국의 정견성모에 비견되는 성모가 있다고 확신한다.

서울에는 목멱산신사와 더불어 백악산신사(白岳山神祠)가 있다. 백악산은 북악산(北岳山)을 말하는데 당내에는 정녀부인이라는 여신상을 모시고 있다.

한국의 신은 음양을 갖추고 있다. 남쪽 목멱산에 국토신인 남신을 모셨고, 북쪽 백악산에는 여신은 정녀부인을 모셨으니, 이는 태백산이 남신인데 비해 태백산 옆에 있는 함백산(咸白山)이 여신인 것과 궤(軌)를 같이 한다. 이같은 깊은 사연으로 보면 태조 때의 주신은 백두옹(白頭翁)인 단군신이 주신이었을 가능성이 짙다. 역시 뿌리를 아는 왕 답다.

민족의 뿌리도 모르고 유학에 찌들어 있던 권필(權韜 1569~1612)은 다음 신화의 내용과 같이 죽음을 자초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2) 《강북문화》 제5호, 1921, pp.37~40.



### 〈정녀부인신과 국토신 신화〉

석주(石洲) 권필은 어렸을 때 북악 꼭대기에 올라 놀다가, “도데체 조그마한 산신이 무엇이기에 이 대명천지에 못사람들이 우러러 믿는단 말인가.”라 뇌이며 객기가 들었는지 신사 안의 정녀부인 신위 화상족자를 발기발기 찢어 버리고 만다. 못사람들이 줄지어 찾아와 굽실거리는 모양이 기이하기도 하고 아니꼽기도 해서 그렇게 한 짓인데 그날 밤 꿈에 흰 저고리에 청색 치마를 두른 나이 어린 예쁜 처녀가 나타나서 화를 잔뜩낸 채 나무라는 것이었다.

“나는 하느님의 따님으로 하느님 지시에 따라 일하는 국토란 남자신에게 시집온 정녀부인이다. 하느님께서 고려의 운세가 다 되어 이씨를 도와서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국토신으로 하여금 남산에 날아와서 조선을 튼튼히 지키게 하고 나를 각별히 여기 백악으로 내려 보내셔서 남편과 함께 나라를 지키게 하셨다. 이제 2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어린 아이에게 모욕을 당하였으니 원수를 갚겠노라.”하고 사라진다.

꿈결이지만 정녀부인 화상 그대로라 불안한 느낌이 평생 구석에 남아 자리하였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권필을 유희분(柳希奮)을 풍자한 궁류시(宮柳詩)를 썼는데, 그 시화를 입고 함경도로 귀양 가게 된다. 그날 저녁 동대문 밖 여관방에서 술 한 잔하고 깜빡 잠이 든 사이에 정녀부인이 나타나서, “이제 나의 원한을 풀게 되었노라.”하며 등을 돌려 사라지니 석주는 그날 밤 숨을 거두고 생을 마감하였다.

《국조오례의》 길례에 목멱산 제사에 관한 의식과 삼각산과 백악산 제사에 관한 의식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삼각산 신화와 백악산 신화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삼각산 신은 다름 아닌 환인(만경봉), 환웅(인수봉), 단군(만경봉)을 뜻한다. 원래 흥왕지지(興王之地)가 되려면 흰 돌로 된 산이어야 한다. 백두산이 있고 백운산이 있고 백운대가 있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원래 서울이란 단어는 삼각산에서 왔다는 설이 있다. 이들 세 산은 쇠뿔처럼 생겼거니와 《좌전 左傳》에 나와 있듯이 쇠뿔[牛角]을 잡는다는 것은 천하를 얻는다는 뜻이다. 서불(三角·세 뿔) → 세불 → 서울로의 음운이행 변화도 이로 말미암는다.

나라지킴이로서의 3신의 직계신이 남산신이요 정녀부인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므로 서울신화의 원형은 목멱산 신화와 삼각산, 백악산신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북악산 산신과 숙종 임금〉

이 조의 십구대 숙종임금은 여러 가지로 선정을 베풀고자 힘을 기울였다. 그래서 때때로 평복을 한 채 아무도 모르게 대궐을 나와서는 민가로 돌아다니며 민정을 살피 보는 일이 많았다. 그러한 숙종임금이 젊었을 때의 일이었다.

궁궐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 한양 거리는 웬만큼 다녀서 거의 다 알겠으므로 이제는 멀리 평양을 가보고 싶어졌다. 그리하여 해가 저서 어둑해졌을 때 변장을 한 임금은 엽전을 두둑히 챙겨 놓고 말에 올라 평양으로 길을 떠났다. 이렇게 달 밝은 밤에 혼자서 밤길을 달려가니 전에 모르던 운치를 맛 보는 것 같았다.

한참을 흥에 겨워 가고 있는데 뒤에서 또 하나의 말굽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서 돌아보니 임금의 뒤에는 청색나귀를 타고 청색 옷을 입은 젊은이 하나가 뒤따르고 있었다. 숙종이 모른 채하고 그냥 달리려니까 그 젊은이는 나귀를 부지런히 몰아 임금 곁에 바싹 붙어서 말을 걸어 오는 것이었다.

“귀공은 어디까지 가시오?”

“나는 평양까지 가요.”

“아, 그럼 잘 되었습니다. 나도 평양까지 가는데 심심하니 서로 이야기 동무나 합시다.”

“그렇시다그러. 그런데 댁은 평양을 잘 아시오?”

숙종임금이 물었다.

“귀공은 평양이 초행길이시구면. 뭐든지 물어보시오? 대답해 드리리다.”

“평양에 있는 월선이라는 기생이 천하의 명기라는데 그 집을 아시오?”

“아다 마다 여부가 있소.”

“그럼 미안한 일이나, 나를 좀 그 집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겠소?”

“그야 뭐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말을 나누며 그들은 어느덧 평양에 도착하여 월선이라는 기생의 집을 찾아갔다. 그 기생은 원래 인물이 빼어난 데다가 서예에 능하고 가무음곡을 따를 자가 없었으며 더욱이 지조와 기품을 간직하고 있어 여간한 풍류 남아가 아니고서는 상대를 해 주지 않았다.

월선의 집에 도착한 임금과 젊은이는 하녀의 안내로 우선 문간방으로 들어가서 있자니깐 월선이가 하녀를 시켜서 명월산하두견(明月山下杜鵑)이라는 글귀를 내 보내서 두 사람이 각각 이 글 안에 글자 하나를 넣어서 들여보내라고 하였다.



월선이 두 사람의 실력을 가늠해 보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임금은 그 글에 이(二)자를 넣어서 <명월명월산하양두견>이라고 써 보내고 젊은이는 양(兩)자를 넣어서 <명월산하양두견>이라고 써서 들여보냈다.

두 사람의 글을 받아 본 월선이는 그 젊은이만 안으로 들어오라는 기별을 하였다.

그러자 숙종 임금은 화가 치밀었다.

생각 같아서는 월선이와 그 젊은이를 당장에 주리를 틀고 싶었지만 그리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이리났다.

“아니 왜 그러시오?”

“나는 그냥 갈 테니 자네나 잘 놀다 오게!”

숙종은 이같이 불멘 소리에 젊은이는 소매를 잡아당기며 만류를 했다.

“귀공이 오자고 해서 온 집인데 그냥 가는 법이 어디 있소? 기왕에 왔으니 같이 놀도록 합시다.”

젊은이의 이런 말에 숙종은 못이기는 체하고 눌러 앉았는데 월선의 방에 들어가서는 월선이는 젊은이가 더 흥취가 있다 하여 젊은이 하고만 상대를 하는 것을 보고만 있으려니까 심사가 더욱 뒤틀려서 속으로 버르고 있었다.

다음 날이 되어 그들은 대동강으로 뱃놀이를 가게 되었다. 능라도 수양버들을 바라보며 대동강 물위에 떠있는 꽃배 속에서 풍악을 울리며 월선이의 노래와 춤을 보고 있으려니 숙종 임금의 마음은 붉은 녹듯 풀어지고 황홀한 흥취에 젖어 들게 되었다.

이윽고 월선의 노래와 춤이 끝나고 자리에 앉아 술잔을 따르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젊은이는 월선이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천하의 명기라는 년이 겨우 그 따위 솜씨 밖에 없단 말이나? 너는 얕은 수작으로 사람 속이는 재주 밖에 없는 년이니 강물 속이나 들어가라!”

하고, 일어나서 사정 없이 월선을 강물 속으로 던져 버리고 말았다.

“엇! 이런 미친 놈이 있나!”

“아닙니다. 그런 년은 죽어서 마땅합니다.”

젊은이의 너무도 태연한 말이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숙종임금은 아연 실색하여 입만 벌리고 있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서,

“네 이 놈! 어서 월선이를 구해내지 못하겠느냐?”

“벌써 물 귀신이 물속으로 끌어갔는데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 중구의 축제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이기에 천하의 명기를 아깝게도 죽였는가?”

그러자 그 젊은이는 이내 정색을 하며 숙종의 발 밑에 부복하고는,

“상감마마께 아뢰오.”

이제까지 자기의 본색을 한번도 내색하지 않았는데 이 젊은이는 자기가 임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니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황공 무지로소이다. 저는 북악산 산신의 명을 받고 온 자이옵니다. 상감께서 평양에 가시면 월선의 교태에 홀리셔서 음락에 빠져들면 지금까지 베푸신 선정이 수포로 돌아가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들이 도탄에서 헤매이게 될 것을 염려하여 월선이를 없애고 오라는 산신의 명을 받고 그리 하였사오니 부디 명심하셔서 속히 환궁을 하시와 선정을 베푸시옵소서.”

하고는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숙종 임금은 크게 깨달은 다음에 대궐로 돌아온 뒤 더 한층 선정을 베푸는 데 골몰하게 되었다고 한다.<sup>3)</sup>

이처럼 조선왕조는 산신의 음조하에 국가를 지탱할 수 있었고 산신을 제일신으로 하는 축제가 이어졌던 것이다.

다음은 아암산(兒岩山) 신화를 들어보자

옛날 오랜 옛날의 일이었다. 무엇을 생각했는지 하늘 위에 있는 천녀(天女)는 어느 날 멀리 하계(下界)로 내려선 그 곳은 바로 바위가 많은 산 꼭대기였다. 그 때 천녀는 갑자기 산기(産氣)가 있어 그 바위 위에 아름다운 어린 아이를 낳아 떨어뜨렸다. 그러나 그 어린 아이는 그만 죽고 말았다. 하는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그 산에 묻고서 천녀는 다시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데 이리하여 이 산을 아암산이라 하였다고 한다.<sup>4)</sup>

3) 박영준, 《한국의 전설》 제 10권, 한국문화도서출판사, 1973, pp.386~388.

4) 최상수, 《조선지명전설집》, 연학사, 1947, pp.79~80.

박영준의 《한국의 전설》 제 8권, pp.364~365<삼각산 귀신풀의 유래>

“삼각산 꼭대기에 가면 500년 묵은 소나무가 있는 곳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면 커다란 바위가 있고 그 밑에 늑대의 굴이 조그맣게 뚫려 있을 것이다. 그 속에 풀이 널려 있을 것이니 그 중에서 생혈초라는 제비풀과 비슷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캐어다가 3일 저녁을 묵욕제계하고 환자에게 먹이면 즉시 살아 날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삼각산 신화에는 신선사상이 들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서울에는 목멱산신사와 더불어 백악산신사(白岳山神祠)가 있다. 백악산은 북악산(北岳山)을 말하는데 당내에는 정녀부인이라는 여신상을 모시고 있다.

삼각산은 사악신 중의 하나이다.

남쪽의 지이산(智異山·南原) ····· 후백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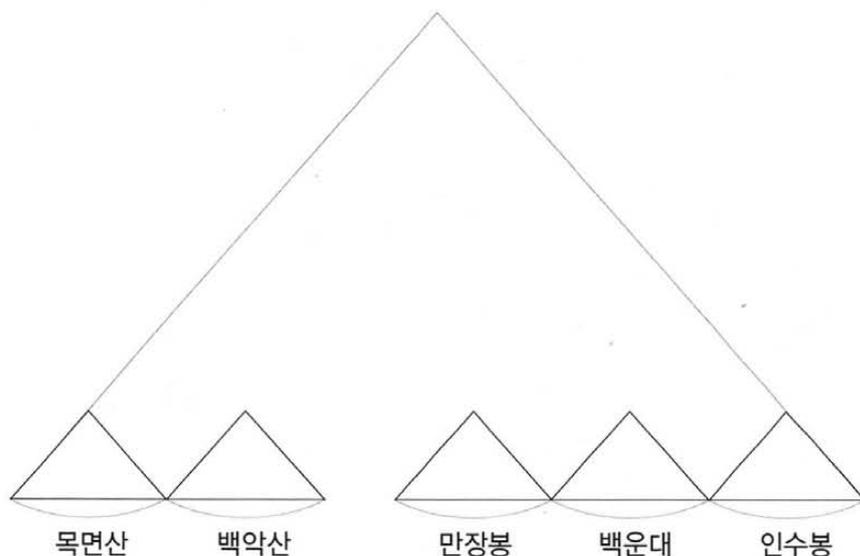
서쪽의 송악산(松嶽山·開成) ····· 고려

중앙의 삼각산(三角山·서울) ····· 조선

북쪽의 비백산(鼻白山·定平)

이미 이들 셋 중 서울과 개성은 조선조와 고려조의 수도(首都) 역을 담당하였고, 남원의 지이산은 후백제의 수도 역을 담당하였으니 이는 산세의 기(氣)와 신들의 의지에서 말미암음이다.

그렇다면 신화상에 나타난 성모는 과연 어느 신일까? 필자는 다음 도표로 그 해답의 일단을 추단해 보기로 한다.



<도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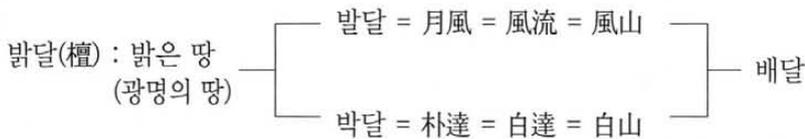
## 중구의 축제

이상의 신화도에서 우리는 종래에 볼 수 없었던 복합신화의 모습, 곧 인간세상에 환인 천제로부터 그의 자손까지 모두가 하강하여 좌정하고 있는 특이한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들 신화의 사상성을 더듬어 보자. 단군신화를 비롯한 목멱산. 삼각산. 태백산 신화에 나타난 밀뿌리 사상은 삼원사상(三元思想)에서 찾을 수 있다.

단군은 한얼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홍익인간(弘益人間 : 크게 사람을 유익하게 함)’의 정신을 가지고 배달나라를 건국한 뒤 세 가지 뿌리사상을 가르쳐 주었는데 한얼승배, 조상공경, 사람사랑이 그것이다.

단군은 배달얼과 배달의 길(道)을 열었는데 이를 신라인들은 풍류도(風流道) 또는 풍류교(風流敎)라 하였다. 풍류도 역시 따지고 보면 발달길, 배달도라고 해석되어 다음과 같은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밤(흔뵈~흔뵈~한발~한알~하날 = 天明~神明~大明)은 하날(天, 天明)인데, 그것은 한얼(檀=天神~天~神)님이 만들어 계시는 나라로서 하날나라(한밤나라 = 天明國) 곧 ‘한벌’이며, 아시뵈(아시뵈 = 阿斯鮮 = 初鮮 = 早鮮)은 아침뵈(아직뵈 = 朝鮮 = 早鮮 = 조선)인데, 그 곳에는 한배검(檀君王儉)이 처음 만들어 계시던 나라로서 아시뵈나라(阿斯達國 = 早鮮國)요 아침뵈나라(朝鮮國 = 早鮮國), 곧 ‘아시뵈’이요 ‘아침뵈’인 배달나라(발달나라 = 檀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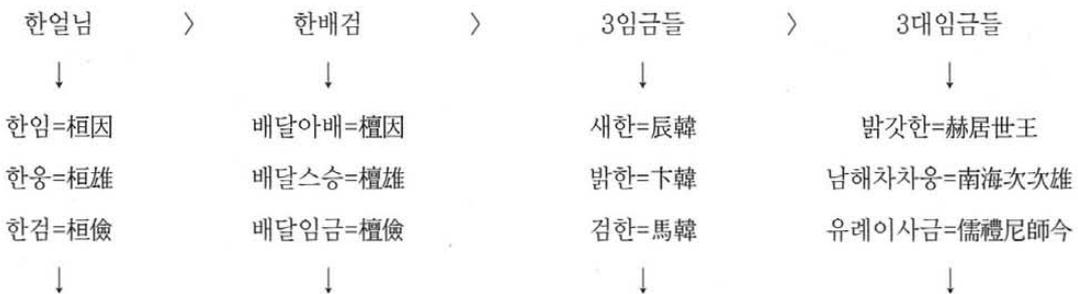
하날나라인 한벌의 임자는 한얼님인데, 그분은 한임(桓因 = 天父 = 한얼아버지 = 한울의 아버지)과 한웅(桓雄 = 天師 = 한얼스승 = 한울의 스승)과 한검(桓儉 = 天君 = 한얼임금 = 한울의 임금)의 세 · 한얼 혹은 세검 · 한얼(三神 · 檀)로서 ‘한울에의 3검’(天之三神)이요, 또 아시뵈 혹은 아침뵈(朝鮮國)인 배달나라의 임자는 한배검(王儉)인데, 그분은 배달 아버지(檀因 = 檀父 = 光明地父)와 배달스승(檀雄 = 檀師)과 배달임금(檀儉 = 檀君)으로서 ‘사람에의 3마루’(人之三宗)다.



이 한얼의 3신사상(三神思想)으로부터 단군 한배검의 '3마루 사상(三宗思想)'이 되었고, 또 이 '3마루 사상'으로부터 '세 임금사상(三王思想)' 곧 '세한사상(三韓思想)'이 되었는데, 이것은 곧 옛 아침벌(古朝鮮國)에 있어서 하나의 가장 크고 높은 새한(辰韓=辰王)말에 두 돕는 걸 임금들(副王)인 밝한(卞韓=卞王)과 검한(馬韓=馬王)이 있었던 것이다.

세대 임금·한몸(三代王一體), 곧 '세대·한몸(三代一體)'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새벌의 임금은 한 분이거나, 혹은 같은 때의 3 임금이 아니라, 도리어 첫째대 임금(第一代王), 둘째대 임금 및 셋째대 임금이 저마다 1자리씩을 차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곧 첫째대 임금인 밝갓한(赫居世)은 아버지 자리(因位=父位)요, 둘째대 임금인 남해 차차웅(南海次次雄)은 스승 자리(雄位=師位)요, 셋째대 임금인 유례 이사금(儒禮尼師今=努禮尼叱今)은 임금 자리(儉位=君位)인 것이다.

한웅 및 한검의 세검·한얼(三神·一檀)로서 한벌(하늘나라=天國)의 임자요, 한얼사람 한배검(檀君王儉)은 배달아배, 배달스승 및 배달임금의 3마루·한배검(三宗·神人君)으로서 배달겨레의 환(한=韓)한 아시땅 조선(阿斯達·朝鮮國)의 임자요, 3임금들(三王=三韓)은 신 임금(辰王=辰韓=새한), 번 임금(卞王=卞韓=밝한) 및 마 임금(馬王=馬韓=검한)의 3임금들로서 옛 조선(古朝鮮)의 임자요, 3대 임금들(三代王)은 밝갓한(赫居世), 남해 스승 및 유례 임금의 3대 임금들로서 새벌(新羅國)의 임자다. 그런데 한배검 때로부터 새벌 때까지만이 아니라, 고려(高麗), 이조(李朝), 대한민국 등을 지나 다시 몇 천 년 몇 만 년을 가더라도, 단군 한배검을 3마루(三宗)로 한 배달겨레의 땅은 영원히 아침밝(朝鮮)인 환(桓~한=韓)한 배달인 까닭에, 그 나라의 이름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아침밝나라(朝鮮國)요, 한나라(韓國)요 또 배달나라(檀國)이다. 그림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중구의 축제

한울나라 → 아시 — 아침벌 → 새·밤·검 — 아침벌 → 새·벌  
 (天國) (阿斯達 朝鮮國) (辰·卜·馬 朝鮮國) (新羅國)

한얼나라 → 한배검조선 → 검아들조선 → 고구려  
 (天神國) (王儉朝鮮) (儉字朝鮮=箕子朝鮮) 백제  
 새벌<sup>5)</sup>

이와 같은 복잡한 신화의 수는 민속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

원래 3이란 둘의 화합으로서 이루어지는 성수이기도 하다. 둘이 한울과 땅을 뜻한다면 셋은 사람을 의미하며, 또한 이 ‘셋’은 돌고 돌아 다함이 없는 수이기도 하다.

대체로 수에 있어서 ‘하나’와 ‘다섯’과 ‘일곱’은 형상으로 원이 되고, 그 쓰임에는 고르게 변화함을 나타내며 뜻으론 중심이 된다. 그리고 ‘셋’과 ‘여섯’과 ‘아홉’은 운동과 성립을 뜻한다. 또 ‘둘’과 ‘넷’과 ‘여덟’은 나눔과 형상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일·삼·오·칠·구’의 양수는 시간적인 것을 의미하여 움직임을 상징하고, ‘이·사·육·팔·십’의 음수는 공간적인 것을 뜻하여 고요함을 표상하는 수이다. 또한 一은 출수(出數)이고, 二는 화수(和數)이며, 三은 생수(生數)이고, 四는 통수(通數)이며, 五는 중심수이고, 六은 합수(合數)이고, 七은 기수(起數)이며, 八은 궁수(宮數)이고 九는 성수(成數)이며, 十은 만수(萬數)로서 나눌 수 있다.

단군신화에는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한다. 삼위태백, 천부인 세 개, 3천명, 37일 등이 그것이다. 삼위태백이란 천지인 모두가 통합된 존재를 말한다. 왕도에서 왕, 즉 다스리는 자는 하늘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만민을 합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삼위태백은 천지인이 합치된 크신 존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천부인 세 개를 주었다는 것은 하늘에서 천자(天子)임을 인정하는 도장 3개를 주었다는 뜻으로, 풍백·운사·우사를 거느린다는 것으로 미루어 3자를 장령(將領)하는 3개의 인증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환웅이 3천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에 내리셨다는 대목의 3천은 많다는 뜻이다.

3천만 민족, 3천리 강산, 3천 궁녀, 3천 세계 등 많다는 것을 뜻할 때에 3천이란 말을 쓰고

5) 안호상, 《국학의 기본학》, 학문사, 1977, PP.428~430.



있다. 궁녀수(宮女數)가 꼭 3천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많았다는 뜻이며 백제의 시조 온조 팔년이월(始祖溫祚八年二月)에 말갈족(靺鞨族) 천이 침입(侵入)했다는 것도 꼭 3천이 아니라 많은 군병(軍兵)이 침입(侵入)했다는 뜻이다.

인간의 삼백육십여사(三百六十餘事)란 1년의 3백 60여일 즉 연중 모든 날의 인간사를 주재(主宰)한다는 것으로 모든 것, 전부(全部)란 뜻으로 해석된다.

3·7일은 7을 3번 한다는 것이니 즉 21일을 뜻한다. 한국인이 3을 좋아했으나 또한 7도 좋아하는 한자이다. 서양인들은 7을 크게 좋아해서 민속에 흔히 사용하고 있다. 한민족도 서양인 못지 않게 7을 좋아했으니 특히 산육속(產育俗)에 있어서 관용(慣用)했다. 산후(産後)에 산모(産母)의 회복(恢復)과 영아(嬰兒)의 발육은 7일을 기준으로 해서 첫 7일, 두 7일, 3·7일을 기해서 행사를 하기 마련이다.

산육속(產育俗)에서 부정(不淨)을 가지거나 행사를 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 7일마다 산신(産神)을 위한다.
- 산전(産前) 삼칠일 전(三七日前)에 원행(遠行)했던 가족은 3·7일이 지나도록 산실출입(産室出入)을 해서는 안된다.
- 산후(産後) 3·7일 안에 닭알을 깨트리면 불길하다.
- 3·7일 안에 산실에는 부정을 쫓기 위해서 아이머리맡에 목탄(木炭)을 놓는다.
- 금(禁)줄은 3·7일 동안 달아매 둔다.
- 3·7일에 수수경단을 만들어 먹으면 아이 병(病)에 예방(豫防)이 된다.

마고성 설화에서도 삼원철학(三元哲學)은 이어진다.

하늘의 공경하는 경천사상(敬天思想)은 어느 민족에게나 있다. 그러면 한국인의 경천사상, 곧 천신사상의 근본 뜻은 무엇이며 대상신(對象神)은 무엇으로 잡았을까?

중국 문헌 《위지》 동이전 부여전에 보면 “은나라 역법(曆法)으로 정월에 하늘에 제사지내고 나라 사람들이 크게 모여 술을 마시고 먹고 노래하며 춤을 추었고, 형벌과 옥사(獄事)를 중단하고 죄수 무리를 풀어주었는데 이를 ‘영고(迎鼓)’라 한다.”고 했다. 이때 북을 치면서 새해 맞이를 했다 했는데 맞이한 신은 바로 태양(太陽)이 된다. 해를 맞이했다는 기록은 7세

기 문헌인 《수서》 동이전 신라조에 뚜렷이 나와 있다. “매년 정월초 아침에는 서로 경하(敬賀)하고, 왕이 연회를 베풀어 손님과 관원들이 모인다. 이 날 일월신(日月神)을 배례한다.”

이같은 기록으로 감안하여 고대 한국신의 대상은 하늘의 해신과 달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설은 해(年)에서 왔고, 염(稔)의 뜻이 있다. 요순시대에는 ‘재(載)’를 썼고, 하(夏)나라 때는 ‘세(歲)’를 썼으며, 은(殷)나라 때는 ‘사(祀)’로 썼고, 주(周)나라 때부터 ‘연(年)’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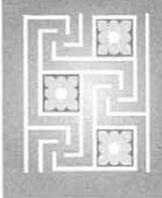
설은 삼원(三元)의 첫 머리에 해당하는 연신(年神)인 세덕신(歲德神)을 맞이하는 날이다. 그러므로 12월 그믐날 밤의 수세(守勢)와 영고(迎鼓)는 결국 연신(年神)맞이 축제(새해맞이 영신굿·迎神굿)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인의 3대 명절은 설, 단오, 추석이다. 이들 신성공간에서는 신성의상을 착용해야 했으니 그것이 빬(歲粧)이다. 한국인은 명절마저 3분법적 해석을 해나간다. 명절 중 설은 아침에, 단오는 점심에, 추석은 저녁에 해당한다고 믿고 있는데, 단오는 점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를 수 있으나 설과 추석에는 조상이 잠수시고 즐길 수 있도록 차례를 꼭 지내 주어야 한다는 속신(俗信)이 있다. 그야말로 풍류도의 정신인 한얼송배, 조상공경, 사랑사랑이 아닐 수 없다.

이밖에도 신화에서 세 번의 고비를 넘어야 비범한 인물이 되고, 세 번을 큰 곳을 해야 큰 무당이 되고, 칙간귀신을 달랠 때도 세 번 기침을 해야하고, 약수를 마셔도 세 번 오른쪽으로 돌리고 마시고, 행인이 길을 잃었다가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릴 때도 세 번 되풀이하는 등 3이란 숫자는 우리민족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민족 성수(聖數)이자 신격(神格)의 위상(位相)까지 부여할 수 있는 수임을 이해할 수 있다.

《부도지 符都誌》라는 책에 의하면 모든 이들이 깨달음에 이르러 완전한 평화와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이상적인 공동체가 나오는데, 그 공동체의 이름이 바로 마고성이다.

마고성에서 거주했던 이들은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신과 합일을 이루어 신성(神性)이 살아있었던 신인(神人)들이다. 그들은 품성이 조화롭고 따뜻했으며 순수하고 맑았다. 그들의 에너지는 하늘과 땅과 하나였기 때문에 유한한 육체의 한계를 넘어 무한한 생명을 누리며 살았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면서 신성이 사라지고 신과 분리되어 불완전한 인간이 되어 갔다. 원래 하나였던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서로 분리시켜 생각하기 시작했고, 다른 존재



와의 일체감도 놓치게 되었으며, 마고성의 존립마저 위협에 처했다.

마고성의 지도자들은 이 사건에 연대책임을 지고 자신의 후손들을 데리고 마고성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로는 마고성에서 계속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떠나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의 신성을 회복해서 다시 신인이 되어 마고성으로 돌아오리라 맹세했다.

마고성의 이야기가 원래부터 신과 합일된 신인이 존재했던 신인합일(神人合一)의 이야기라면 에덴의 이야기는 신이 인간을 창조함으로써 신과 인간이 분리된 이야기이다.

에덴의 이야기에서 인간은 하느님의 축복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하느님은 선악과라는 금기를 만들어 인간의 순종을 시험한다. 에덴의 이야기는 축복과 저주라는 양날의 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면 축복해주고, 하느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저주를 내리는 이분법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이 에덴의 역사이다.

마고성의 이야기에는 축복도 저주도 없다. 천사도 악마도 없다. 에덴동산의 이야기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꼭 천사와 악마가 나와야 재미있다고 말한다. 축복과 저주가 나와야만 긴장하고 귀를 기울인다. 세상에는 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형적인 이원론적 사고다. 이러한 세계관이 지난 2천년 동안 인류 역사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마고성의 이야기는 이원론이 아닌 삼원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원론은 음과 양, 밝음과 어둠, 선과 악으로 세상을 나누지만 삼원론은 그 무엇보다 '조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천지인(天地人),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로 만나는 것이 삼원론의 핵심이다. 삼원론은 성공과 승리보다는 완성을 이야기한다. 신은 축복과 저주로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고 인간은 신의 축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인간이 합일을 이룬다.

에덴의 역사는 진리를 잃어버린 후의 이야기다. 마고성 이야기의 근원으로 올라가면 하늘·땅·사람의 3원이 있다.<sup>32)</sup>

이승헌은 그의 저서 《힐링 소사이어티를 위한 12가지 통찰》에서 존재의 근본이 되는 삼원(三元)을 시간의 개념을 벗어나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굳이 순서를 말하자면, 제일 먼저 하늘이라 불리는 허공[性]이 있고 그 반대편에 땅이라 표현되는 질료[精]가 있고 그 사이에서

32) 이승헌, 《아름다운 지구와 인간을 위하여》, 한문화, 2001, PP.201~203.

사람이라 표현되는 생명전자[命]가 움직이며 온갖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 정보가 질료를 통해 형상으로 표현된다고 논급하고 이들 세 가지가 어울려 온갖 형상과 조화를 빚어내는데 이들이 성(性)·명(命)·정(精)이라고도 하고, 이(理)·기(氣)·상(像)이라고도 하고, 심(心)·기(氣)·신(身)이라고도 하고, 영(靈)·혼(魂)·백(魄)이라고도 하고, 천(天)·인(人)·지(地)라고도 한다<sup>7)</sup>고 정의 내리고 있다.

앞의 예화(例話)인 마고성 이야기는 특히 이같은 대립과 독선이 없으며 신인합일과 조화화합의 정신이 깃들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이론 중 다음 부분은 필자의 종래 이론과 일치하고 있다.

잃어버린 신성을 회복하는 복본의 과정이 상징화된 것이 바로 웅녀의 이야기이다. 하느님의 아들 한웅과 지손족(地孫族)이었으나 신성을 밝혀 천손족(天孫族)이 된 웅녀의 결혼에 의해 태어난 단군은, 신인합일이 다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책 뮤지컬 ‘웅녀를 만들라’에서는 웅녀가 필부필부(匹夫匹婦)에 지나지 않는 여인이 아닌 신격을 지닌 여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웅녀의 이야기에서 자기극복과 인간완성을 향한 강렬한 의지를 느낀다. 웅녀가 킁킁한 동굴 속에서 쭉과 마늘로 상징된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도달한 사람은, 자신의 육체만을 나라고 생각하는 좁은 세계관과 이기적인 욕망을 뛰어넘어 홍익인간의 큰마음을 지닌 한웅과 같은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의미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던 사람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뜻을 품음으로써 자신의 삶의 지평을 넓히는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는 의미이다.”<sup>8)</sup>

마고이야기의 삼원사상이나 웅녀이야기의 설화구조는 본질적인 맥락으로 감안할 때 동질성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조오례의 國朝五禮儀》에 의하면 서울지역에서 지낸 산신제는 오직 목맥산산신제와 삼각산산신제, 백악산산신제뿐이다. 그런데 ‘삼각산의 제사에 관한 의식’ 속에 ‘백악산의 제

7) 이승현, 《힐링소사이터러를 위한 12가지 통찰》, 한문화, 2001, PP.120~121.

8) 이승현, 같은 책, 2001, p.94.



사를 부기함' 이라고 기록된 점으로 감안할 때 서울 지역의 대표적 축제[제사]는 목멱산축제와 삼각산축제가 아닌가 추단해 본다.

《국조오례의》 길례 목멱산(木覓山)제사에 관한 의식에서 우리는 당시의 축제와 제의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그림보듯 알 수 있다.

시일(時日)[서례를 참조할 것]

○ 재계(齋戒)[서례를 참조할 것]

○ 진설(陳設)

제사 1일 전에, 전사관(典祀官)은 그 소속인원을 거느리고 묘(廟)의 안팎을 소제한다.

전설사(典設司)는 모든 제관(祭官)의 막차(幕次)를 설치하고 또 찬만(撰幔)을 설치하되, 모두 동문 밖에 지세(地勢)에 따라 편리한 대로 한다.

집례(執禮)는 헌관의 위(位)를 동쪽뜰 동남쪽에 서향으로, 음복위(飲福位)는 당(堂)의 앞 기둥 밖에 설치한다.

찬자(贊者)와 알자(謁者)의 위는 당 아래 모두 동쪽 가까이 서향으로 하여 설치한다. 모든 제관의 문외위(門外位)는 동문 밖 길 남쪽에 겹줄로 하여 북향으로 하고, 서쪽을 상위로 한다.

망예위(望瘞位)는 예감(瘞坎)의 남쪽에 설치하되, 헌관은 남쪽에서 북향으로 하고, 집례, 찬자, 대축(大祝)은 동쪽에서 서향으로 하되 북쪽을 상위로 한다.[찬자와 대축은 약간 물러서게 한다.]

제삿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관은 그 소속인원을 거느리고 축판(祝板)을 신위의 바른쪽에 들여 놓고 [받침대가 있어야 한다.] 진폐비(塵肺緋)는 존소(尊疏)에 두어야 한다.

향로(香爐)와 향합(香盒)은 촛대와 같이 신위(神位)앞에 설치한다.

다음 제기(祭器)의 진설은 규정대로 하여야 한다.[서례를 참고할 것]

복주작(福酒爵)[받침대가 있어야 한다.]과 조육조(胙肉俎) 1개씩을 존소에 두어야 한다.

세위(洗位)는 동쪽뜰 동남쪽에 두어 작(勺)을 엮어 비는 세위의 서쪽에 두되 수건을 담아 놓는다.

여러 집사(執事)의 관세위(盥洗位)는 헌관 세위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한다.

집존(執尊)·집뢰(執搯)·집비(執篋)·집먹자(執罍者)의 위는 그 존(尊)·뇌(罍)·비(篋)·먹(罍)뒤에 한다.

○ 성생기(省牲器)[서례를 참고할 것]

○ 행례(行禮)



## 중구의 축제

제삿날 축시(丑時) 5각 전에[축시 5각 전은 곧 3경 3점이며 행사는 즉시 1각에 한다.]

전사관은 찬구(饌具)를 들여놓고 마치면 물러나서 막차로 나아가 그 제복을 입는다.

3각 전에 모든 제관은 각자 그 제복을 입는다.

집례는 찬자와 알자를 거느리고 먼저 계간의 배위로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으로 하고, 서쪽을 상위로 하여 4배를 한다.

마치면 본 위치로 나아간다.

알자는 모든 제관은 인도하여 함께 문외위(門外位)로 나아간다.

1각 전에, 알자는 전사관, 대축, 축사, 제랑을 인도하여 계간의 배위로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을 하고 서쪽을 상위로 하여 선다.

집례(執禮)가 말하기를,

“4배를 한다.”라고 한다.

찬자는 이를 전창(傳唱)이라 한다.[집례의 말이 있으면 찬자는 모두 전창을 한다.]

전사관 이하 모두 4배를 한다.

마치면 관세위(盥洗位)로 나아가서 손을 씻고 닦는다.

마치면, 각자 본 위치로 나아간다.[모든 집사의 오르고 내림은 모두 동쪽 계단으로 한다.]

제랑(齋郎)은 작세위로 나아가서 술잔을 씻는다.

마치면 광우리에 담아 가지고 준소로 가서 받침대 위에 둔다. 알자(講者)는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서 유사(有司)들이 삼가 갖추었음을 사뢰고 행사하기를 청하고, 물러 나서 본 위치로 돌아 온다.

집례가 말하기를.

“4배를 한다.”

헌관이 4배를 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전폐례(奠幣禮)를 행한다.”라고 한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로 나아가서 북향으로 하여 서게하고 홀(笏) 제복의 띠에 꽂게 한다.

헌관은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다.

마치면 홀을 잡게하고, 헌관을 인도하여 동쪽계단으로 올라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으로 하여 서게하고, 홀을 제복의 띠에 꽂게 한다.

집사자 1인은 향합을 받들고, 1인은 향로를 받들여 꿇여서 올린다.



일자는 세 번의 상향(上香)을 하도록 한다.

집사자는 향로를 신위 앞에 들여 놓는다.

대축(大祝)은 폐백 광우리를 헌관에게 준다.

헌관은 폐백을 잡아 헌폐를 하는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도록 한다[봉향(捧香)과 수폐(授幣)는 모두 헌관의 바른쪽에서, 전로와 전폐는 모두 헌관의 왼쪽에서 하고, 수작(授爵)과 전작(奠爵)도 이에 준하여 한다].

알자는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하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서 본 위치로 돌아 온다.

집례가 말하기를, “초헌례(初獻禮)를 행한다.”라고 한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준소로 나아가서 서향으로 하여 선다. 집존자는 청백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른다.

집사자는 작(爵)에 술을 받는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으로 하여 서계하고, 꿇어앉아 홀을 제복의 띠에 꽂게 한다.

집사자는 술잔을 헌관에게 준다.

헌관은 술잔을 잡아 헌작(獻爵)을 하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도록 한다.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으로 하여 꿇게 한다.

대축은 신위의 바른쪽으로 나아가서 동향으로 꿇어앉아 축문(祝文)을 낭독한다.

마치면 알자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하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서 본 위치로 돌아온다.

집례가 말하기를, “아헌례(亞獻禮)를 행한다.”라고 한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준소로 나아가서 서향으로 하여 선다.

집존자는 청백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른다.

집사자는 작에 술을 받는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으로 하여 서계하고, 홀을 재복의 띠에 꽂게 한다.

집사자는 술잔을 헌관에게 준다.

헌관은 술잔을 잡아 헌작(獻爵)을 하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도록 한다.

알자는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하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서 본 위치로 돌아온다.



## 중구의 축제

집례가 말하기를, “중헌례(終獻禮)를 행한다.”라고 한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모두 아헌(亞獻)의 의식과 같이 한다. 마치 면 인도하여 내려서 본 위치로 돌아온다.

집례가 말하기를,

“음복·수조(飲福受胙)를 한다.”라고 한다.

집사자는 준소로 나아가서 술잔에 복주(福酒)를 따르고, 또 집사자는 조(俎)를 가지고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조육(俎肉)을 떨어온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음복위(飲福位)로 나아가서 서향으로 선다. 꿇어앉게 하고 홀을 제복의 띠에 꽂게 한다.

집사자는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서 북향으로 하여 술잔을 헌관에게 준다.

헌관은 술잔을 받아 마시고 술잔을 비운다.

집사자는 빈 잔을 받아 받침대에 둔다.

집사자는 북향으로 하여 조를 헌관에게 준다.

헌관은 조를 받아 집사자에게 주고, 집사자는 조를 받아 동쪽계단으로 내려서 문으로 나아간다.

알자는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하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서 본 위치로 돌아 온다.

집례가 말하기를,

“4배를 한다.”라고 한다.

각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4배를 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변두(邊豆)를 철수한다.”라고 한다.

대축은 변두를 철수한다[철수한다는 것은 변·두 각 1개를 조금씩 옮겨 놓는 것이다].

집례가 말하기를,

“4배를 한다.”라고 한다.

헌관이 4배를 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망예(望瘞)를 한다.”라고 한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망예위(望瘞位)로 나아가서 북향으로 하여 선다.

집례는 찬자를 인도하여 망예위로 나아가서 서향으로 하여 선다.



대축은 광우리에 축판 및 폐백을 담아 서쪽계단으로 내려와서 구덩이에 넣는다.

집례가 말하기를.

“묻는다.”라고 한다.

구덩이에 흙을 절반쯤 덮는다.

알자는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서 예필(禮畢)하였음을 사퇴고,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집례는 찬자를 거느리고 본 위치로 돌아온다.

알자는 전사관 및 제집사를 인도하여 함께 계간의 배위(拜位)로 돌아와 선다.

집례가 말하기를.

“4배를 한다.”라고 한다.

전사관 이하 모두 4배를 한다.

마치면, 알자는 인도하여 나간다.

집례는 찬자, 알자를 거느리고 계간의 배위로 나아가서 4배를 하고 나간다.

전사관은 그 소속인원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철수하고 문을 닫고 물러간다.

《국조오례의》 길례에 소상히 기록된 삼각산(三角山)의 제사에 관한 의식[백악산의 제사를 부기함]을 참고한다면 중구의 목멱산축제는 기록이 보존된 축제로 잘 개발·육성만 한다면 무형문화재감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삼각산과 백악산 제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

시일(時日)[서례를 참조할 것]

○ 재계(齋戒)[서례를 참조할 것]

○ 진설(陳設)

제사 2일 전에, 전사관(典祀官)은 그 소속인원을 거느리고 묘(廟)의 안팎을 소제한다.

전설사(典設司)는 모든 제관(祭官)의 위치(位次)를 설치하고 또 찬만(撰幔)을 설치하되, 모두 동문 밖에 지형(地形)에 따라 편리한 대로 따라 한다.

1일 전에, 집례(執禮)는 헌관(獻官)의 위치를 동쪽뜰 동남쪽에 서향으로 하여 설치한다.

음복위(飲福位)는 당(堂) 위 앞기둥 밖 동쪽 가까이 서향으로 하여 설치하고 서리(書吏)는 그 뒤에 모시도록 한다.

## 중구의 축제

집례(執禮)의 위치는 당 위 앞기둥 밖에, 찬자(贊者)와 알자(謁者)의 위치는 당 아래 모두 동쪽 가까이 서향으로 하고 북쪽을 상위로 한다.

모든 제관의 문외위(門外位)는 동문 밖 길 남쪽에 행렬을 거듭하여 북향으로 하고 서쪽을 상위로 한다. 망에위(望瘞位)는 예감(瘞坎)의 남쪽에 설치하는데, 헌관은 남쪽에서 북향으로 하고, 집례(執禮)·찬자(贊者)·대축(大祝)은 동쪽에서 서향으로 하고, 북쪽을 상위로 한다[찬자와 대축은 약간 뒤로 물린다]. 제삿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관(典祀官)은 그 소속인원을 거느리고 축판(祝板) 각 1개를 삼각산(三角山)·백악산(白岳山) 신위의 바른쪽에 드러놓는다[각각 받침대가 있어야 한다].

진폐비(陳幣篚)는 각 1개를 존소(尊所)에 두어야 한다.

향로(香爐)와 향함(香奩)은 촛대와 아울러 신위(神位) 앞에 설치하고, 다음은 제기(祭器)의 진설을 규정대로 하여야 한다[서례를 참고할 것].

복주작(福酒爵)과[받침대가 있어야 한다] 조육조(胙肉俎) 각 1개를 존소(尊所)에 설치하여야 한다.

세위(洗位)는 동쪽틀 동남쪽에 북향으로 하여 설치하되[관세위(盥洗位)는 동쪽에, 작세위(爵洗位)는 서쪽에 둔다]. 뇌(鬯)는 세위의 동쪽에 두어 작(勺)을 첨가하고, 비(篚)는 서쪽에 두어 수건을 담는다[술잔을 씻어 담는 광주리이면 또 술잔의 받침대를 담아야 한다].

모든 집사(執事)의 관세위(盥洗位)는 헌관세위(獻官洗位)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하여 설치한다.

집존(執尊)·집뢰(執搗)·집비(執篚)·집역자(執羈者)의 위치는 그 존(尊)·뇌(鬯)·비(篚)·역(羈)의 뒤로 한다.

○ 생기(牲器)를 살핀다[서례를 참고할 것].

○ 행례(行禮)

제삿날 축시(丑時) 5각 전에[축시 5각 전은 곧 3경 3점이며, 행사는 축시 1각에 한다] 전사관(典祀官)은 찬구(饌具)를 드러서 차린다.

마치면 찬인(贊引)은 감찰(監察)을 인도하여 동쪽계단으로 올라[모든 제관의 오르고 내림은 모두 동쪽계단으로 한다] 당(堂)의 위·아래를 살펴보고, 의식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가를 규찰(糾察)하고 돌아서 나온다.

3각 전에 모든 제관은 각자 그 제복을 입는다.

집례(執禮)는 찬자(贊者)·알자(謁者)와 찬인(贊引)을 인도하여 동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계간(階間)의 배위(拜位)로 나아가 행렬을 거듭하여 북향으로 하고 서쪽을 상위로 하여 4배를 한다.

마치면, 각자 본 위치로 나아간다.



알자는 모든 제관을 인도하여 함께 문외위(門外位)로 나아간다.

1각 전에, 찬인(贊引)은 감찰·전사관·대축·축사(祝史)·재랑(齋郎)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계간(階間)의 배위(拜位)로 나아가 행렬을 거듭하여 북향으로 하고 서쪽을 상위로 하여 선다.

집례(執禮)가 말하기를,

“4배를 한다.”

라고 한다.

찬자(贊者)는 이를 전창(傳唱)한다[집례의 말이 있으면 찬자는 이를 모두 전창한다].

감찰(監察) 이하 모두 4배를 한다.

마치면 찬인(贊引)은 감찰을 인도하여 본 위치로 나아간다.

모든 집사(執事)는 관세위(盥洗位)로 나아가서 손을 씻어 수건으로 닦고, 마치면 각자 취위(就位)한다.

재랑(齋郎)을 인도하여 작세위(爵洗位)로 나아가서 술잔을 씻어 닦는다.

마치면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존소(尊所)로 가지고 가서 받침대 위에 둔다.

알자(謁者)는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취위(就位)한다.

알자는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서 유사(有司)들이 삼가 갖추었음을 사뢰고 행사하기를 청한다.

물러나서 본 위치로 돌아온다.

집례(執禮)가 말하기를,

“4배를 한다.”

헌관이 4배를 한다.

집례(執禮)가 말하기를,

“전폐례(奠幣禮)를 행한다.”

라고 한다.

알자(謁者)는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로 나아가서 북향으로 하여 서게 하고, 홀(笏)을 제복의 띠에 꽂아준다.

헌관은 손을 씻어 수건으로 닦는다.

마치면 홀을 잡게 하고, 헌관을 인도하여 삼각산(三角山)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으로 하여 선다.

꿇어앉게 하고 홀을 제복의 띠에 꽂아준다.

집사자 1인은 향합(香盒)을 받들고, 1인은 향로(香爐)를 받들어 꿇어 앉아서 올린다.

## 중구의 축제

알자는 세 번 상향(上香)함을 돕는다.

집사자는 향로를 신위 앞에 드리놓는다.

대축(大祝)은 폐백 광주리를 헌관에게 준다.

헌관은 폐백을 잡아 헌폐(獻幣)를 하는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도록 한다[봉향(捧香)과 수폐(授幣)는 모두 헌관의 바른쪽에서, 전로(奠爐)와 전폐(奠幣)는 모두 헌관의 왼쪽에서 한다. 수작(授爵)과 전작(奠爵)도 모두 이에 준하여 한다].

알자는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남을 도와 몸을 바로하게 한다.

다음은 백악산(白嶽山)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동향으로 하고, 상향(上香)과 전폐(奠幣)함을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마치면, 인도하여 본 위치로 돌아온다.

집례가 말하기를,

“초헌례(初獻禮)를 행한다.”

라고 한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존소(尊所) 앞으로 나아가 서향으로 하여 서게 한다.

집준자(執樽者)는 청백 보자기를 들고 예제(醴齊)를 따른다.

집사자 2인이 작(爵)으로써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삼각산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으로 하여 선다.

꿇어앉게 하고 홀(忽)을 제복의 띠에 꽂아준다.

집사자는 술잔을 헌관에게 준다.

헌관은 술잔을 잡아 헌작(獻爵)을 하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도록 한다.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남을 도와 조금 물러나서 북향으로 하여 꿇어앉게 한다.

대축(大祝)은 신위의 바른쪽으로 나아가서 동향으로 꿇어앉아 축문(祝文)을 낭독한다.

마치면, 알자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남을 도와 몸을 바로하게 한다.

다음은 백악산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동향으로 하고 행례(行禮)함을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한다[오직 대축은 남향으로 하여 축문을 낭독한다].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서 본 위치로 돌아온다.

집례(執禮)가 말하기를,

“아헌례(亞獻禮)를 행한다.”



라고 한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존소(尊所)로 나아가 서향으로 하여 선다.

집존자(執尊者)가 청백 보자기를 들고 양제(盎齊)를 따른다.

집사자(執事者) 2인이 작(爵)으로서 술을 받는다.

알자(謁者)는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삼각산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으로 하여 선다.

끓어얹게 하고 홀을 제복의 띠에 꽂아준다.

집사자는 술잔을 헌관에게 준다.

헌관은 술잔을 잡아 헌작(獻爵)을 하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도록 한다.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남을 도와 몸을 바로하게 한다.

다음은 백악산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동향으로 하고 행례(行禮)함을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하고,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서 본 위치로 돌아온다.

집례가 말하기를,

“중헌례(終獻禮)를 행한다.”

라고 한다.

알자(謁者)는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함을 모두 아헌(亞獻)의 의식과 같이한다.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서 본 위치로 돌아온다.

집례(執禮)가 말하기를,

“음복·수조(飲福受胙)를 한다.”

라고 한다.

집사자(執事者)는 존소(尊所)로 나아가서 작(爵)에 복주(福酒)를 따르고, 또 집사자는 조(俎)를 가지고, 삼각산 신위 앞의 조육(胙肉)을 떨어온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음복위(飲福位)로 올라가서 서향으로 하여 선다.

끓어얹게 하고 홀을 제복의 띠에 꽂아준다.

집사자는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서 북향으로 하여 술잔을 헌관에게 준다.

헌관은 술잔을 받아 마시고 술잔을 비운다.

집사자는 빈 술잔을 받아 받침대 위에 놓아둔다.

집사자는 북향으로 하여 조(俎)를 헌관에게 준다.

헌관은 조(俎)를 받아, 집사자에게 준다.

## 중구의 축제

집사자는 조를 받아 동쪽 계단으로 내려서 문으로 나간다.

알자(謁者)는 흠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남을 도와 몸을 바로하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서 본 위치로 돌아온다.

집례(執禮)가 말하기를,

“4배를 한다.”

라고 한다.

각자 위치에 있는 사람은 모두 4배를 한다.

집례(執禮)가 말하기를,

“변·두(邊豆)를 철수한다.”

라고 한다.

대축(大祝)은 들어가서 변·두를 철수한다[철수한다는 것은 변·두 각 1개를 조금씩 옮겨 놓는다].

집례(執禮)가 말하기를,

“4배를 한다.”

라고 한다.

헌관이 4배를 한다.

집례(執禮)가 말하기를,

“망예(望瘞)를 한다.”

라고 한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망예위(望瘞位)로 나아가서 북향으로 하여 선다.

집례는 찬자를 거느리고 망예위(望瘞位)로 나아가서 서향으로 하여 선다.

대축은 광주리로써 축판 및 폐백과 서·직반(黍稷飯)을 담아가지고 서쪽계단으로 내려서 구덩이에 넣는다.

집례(執禮)가 말하기를,

“묻는다.”

라고 한다.

구덩이에 절반쯤 흠을 덮는다.

전사관(典祀官)은 이를 감시한다.

알자(謁者)는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서 예필(禮畢)하였음을 사된다.



드디어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나간다.  
 집례는 찬자를 거느리고 본 위치로 돌아온다.  
 찬인은 감찰 및 제집사를 인도하여 계간(階間)의 배위로 돌아와서 선다.  
 집례(執禮)가 말하기를,  
 “4배를 한다.”  
 라고 한다.  
 감찰 이하 모두 4배를 한다.  
 마치면, 찬인이 인도하여 나간다.  
 집례는 찬자·알자·찬인을 인도하여 계간(階間)의 배위로 나아가서 4배를 하고 나간다.  
 전사관(典祀官)은 그 소속인원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철수하고, 문을 닫고 내려서 물러간다.

강희맹(姜希孟)은 《국조오례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오례(五禮)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제사(祭祀)로 말미암아 길례(吉禮)가 생기고, 사상(死喪)으로 말미암아 흉례(凶禮)가 있다. 외적의 대비와 방어로 말미암아 군례(軍禮)가 있고, 국가간의 교제(交際)가 있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의 예를 갖추므로 하여 사람의 도리가 구체화하는 것이니 천하 국가를 위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버리면 다른 할 일이 없는 것이다. 아, 예악(禮樂)은 반드시 백년을 기다린 뒤여야 흥(興)하는 것이다. 우리 조상은 태조(太祖)께서 국가를 창설하신 이후 열성(列聖)이 서로 이어 깊은 은혜와 두터운 덕택을 쌓아온 지 이미 오래이니, 어찌 형통하고 아름다운 운회(運會)가 바로 오늘에 있지 아니 하겠으며, 세상을 다스리는 제작(制作)이 성사(盛事)를 성상(聖上)에만 기대하겠는가. 그런즉, 이 글의 시행은 마땅히 주(周) 나라의 의례일서(儀禮一書)와 더불어 영원히 전하여 썩지 아니할 것을 의심치 아니하노라.

상기 문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사 하루 전에 소재를 해야 하고, 향로·향합·촛대를 어디에다 놓고, 초·아·종헌관은 몇 배(拜)를 올리고, 집례의 말하는 법식까지 소상히 기록되어 있어 축제를 복원할 때 원형대로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신화와 축제는 랑그와 빠를의 함수관계와 유사하다. 신화가 잔잔한 호수라면 축제란 문화

라고 하는 기름이 활활타고 있는 현장이다. 부족국가 시절에는 부족국가단위별로 무천(舞天)·영고(迎鼓)·동맹(東盟) 등의 신화와 축제가 있었고,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변이된 양상을 띄면서 그 맥을 유지되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조선왕조의 터전인 서울에도 신화와 축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모습이었고 어느 산 어느 신을 주인공으로 했는지를 밝혀 보았다.

적어도 고려시대의 팔관회까지 민족신을 중심으로 한 신화적 축제판이 벌어졌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이태조도 민족신화의 뿌리는 잃지 않고, 서울의 안산(案山)이요 주작(朱雀)에 해당하는 남산(南山)의 정상에 국조(國祖) 단군을 위시로 한 여러 신을 모신 목멱신사(木覓神祠)를 지어 국태민안을 빌고 산 이름까지 목멱산[목멱대왕신]이라 명명하였다. 조선조 중기까지 국가에서 봄·가을로 초제(醮祭)를 지냈고 큰 신을 모셨기에 국사당제(國師堂祭)라 일러 왔다.

서울은 남쪽에는 목멱신사가 있고, 북쪽에 백악산신사(白岳山神祠)가 있어 좌우대칭(左右對稱)의 신화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남쪽의 남산은 남신(男神)이요 북쪽의 백악산[북악산]은 여신(女神)으로 부부의 관계이니, 태백산이 남신이고 함백산(咸白山)이 여신인 강원도 태백시의 신화적 구조와 일치한다.

조선조 초기와는 달리 중기로 접어들면서 유학에 젖은 이들은 민족신의 위상마저 부정하고 있었으니, <백악산 정녀부인신과 남산 국토신신화>를 통해 이를 논증하였고, <국조오례의> 목멱산 제사조가 가지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 보았다.

제사(祭祀)의 뜻은 '제세(祭歲)'의 뜻으로도 풀이가 된다. 아무튼 주기적으로 내방하는 세신(歲神)을 경건하게 맞이하는 의식과 축제가 제사이다. 이같은 축제 형식개발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원형축제(proto-festival)의 모형이 아닐까 한다.



## 2. 장충단축제

### 1) 명성황후해원군의 축제적 의미

명성황후는 고종의 비로 근대화 시기를 고민하던 마지막 왕비이다. 흔히 일제에 의해 민비(閔妃)로 불렸으나 명성황후로 부르는 것이 옳다. 명성황후는 여성부원군(驪城府院君) 민치록(閔致祿)의 딸로 1851년(철종 2) 여주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여덟 살의 어린 나이에 양친을 잃고 고향을 떠나 서울에 있는 일가에 몸을 의탁하는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 불운한 소녀는 1866년 3월에 왕비로 책봉받아 궁중에 들게 되는데, 고종보다 한 살 위인 16세 때였다. 고아나 다름 없는 명성황후가 국모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데는 고종의 아버지인 대원군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은 계산대로 되지는 않는 법. 대원군은 나름대로의 치밀한 계산으로 간택한 명성황후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받는 아이러니를 겪게 된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 조선의 정국이 엷혔을 때 조선에 적극적인 침략공세를 펴게 된 일본은 갑오경장에 간여하면서 흥선대원군을 내세워 명성황후 세력을 거세하려고 공작했다. 특히 일찍이 산업혁명에 성공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명성황후는 세력 균형정책을 통해 열강들을 견제하고 있었다. 즉, 갑신정변이후 청국의 내정간섭이 강화되자 비록 무산되기는 했으나, 한·러 밀약을 체결하여 러시아 세력으로 하여금 청국을 견제하도록 계획했고, 청·일 전쟁 이후 일본의 내정간섭이 심해지자 삼국간섭 이후 러시아의 세력을 끌어들이어 친러배일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갑신정변의 주모자로 일본에 망명하고 있다가 사면으로 복귀하여 내무대신에 올랐던 박영효와 손을 잡고 정부 내의 친일적인 반대세력을 견제하고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일본은 조선병합의 최대의 장애물로 명성황후를 지목하게 되었고, 미우라 고모를 공사로 임명하고 그의 주도아래 명성황후 살해계획을 세워 '여우 사냥'이라는 암호명으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의 속셈은 합방의 걸림돌인 명성황후를 제거하는 것과 함께 대원군을 다시 추대하여 황후의 척족세력 및 이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친러파를 제거하자는 것이었다.

명성황후가 45세가 되던 1895년 10월, 일본군대와 낭인들이 대원군을 내세워 왕궁을 습격하고 그녀를 시해(弑害)하니 이것이 바로 을미사변이다.

이 사건이 있는 3일 후 고종은 칙령을 공포하여 명성황후가 친당을 조정에서 포열하고 감히 정치에 관여하여 국가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여 왕실을 위협에 빠뜨렸다고 단죄하고, 그 죄가 막중함에 실종된 명성황후를 폐하고 서인으로 강등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최익현을 대표로 하는 전국의 유생들은 명성황후 시해의 범죄자를 색출할 것과 명성황후의 장례를 엄수할 것을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격동의 세월 속에서 한 나라의 국모가 되어 심지가 강하지 못한 남편 고종의 바람막이가 되어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비운의 여인, 명성황후의 비극적 삶은 조선시대 여자로 태어난 억울함은 지존의 신분인 국모라 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느끼게 해준다.

자신의 참뜻을 펴지 못하고 이방(異邦)의 낭인에게 목숨을 잃은 비운의 황후이지만 세인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 당당하게 살아온 그의 일생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된 값진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9)</sup>

분명 그는 역사적 희생물로 타계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닌 재생의 죽음을 맞은 것이었다. 그는 국사당에 '민중전신'으로 거듭났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같은 역사적 비운을 맞은 명성황후가 사후에 어떤 신으로 부활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명성황후 축제는 과연 어떻게 어디서 벌여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명성황후의 해원굿 판은 다분히 경건한 Legomena적인 풀이판이 위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비애[죽음]를 비애로 끝내지 않고 아름다운 한국의 노래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원래 해원굿이란 '원한을 푸는 굿'을 의미한다. 그러나 굿이 아곤적인 성향만

9)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 <명성황후>, 《그대의 맑은 향기 사라지지 않으리》, 2001, pp.161~167.



을 강조한다면 큰 뜻이 사라지고 만다. 해원곳은 원망을 위한, 원망을 다스리기 위한 곳이 아니다. 오히려 해원곳을 통해 인물의 시대적 배경과 인격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명성황후 해원곳의 제 1차적 주제는 '부활'에 있으며, 제 2차적 부주제는 '신격탄생'에 있음을 역설하고 싶다. 임진왜란을 겪은 후 민중은 《사명대사전》을 통해 일본인, 아니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독자적이고 교훈적인 Legomena를 통해 촌철살인(寸鐵殺人)의 일침(一針)을 던졌다. 급기야 민중의 중지에 따라 사명대사는 신격의 대열에 부상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명성황후의 신격화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목멱산신사(木覓山神祠)에서 찾을 수 있다.

남산의 신을 국토신(國土神) 또는 목멱대왕신(木覓大王神)이라 부른다. 성으로 보아 남신이 기 때문에 여인들이 그네를 뛰어 신을 즐겁게 해주었던 것이다.

단오날 젊은 여인네들이 단오빔을 입고 한강변의 버드나무와 남산의 소나무에 그네를 매고 그네를 뛰었는데, 마치 신선이 날아오르는 것 같이 시인의 눈에는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빔'이란 신성공간에서 입는 옷이다. 빔은 비음이라고도 하는데 '빌다'에서 나온 전성명사로 해석된다. 곧, 신에게 빌 때 입는 예복이 빔인 것이다. 고려시대 이규보(李奎報)는 그네를 일러 '반선희(半仙戲)'라 하였다. 단오빔을 입은 여인은 이미 신성공간의 선녀요, 제의공간의 사제자의 대열에 서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목멱산의 남신인 국토신과 백악산의 여신인 정녀부인신은 호국신이요, 국토신의 위상으로 우뚝 서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명성황후가 왜 목멱산을 자주 오르내렸는가. 이는 국토를 지켜주는 '국토신'이 목멱산에 좌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또한 종당은 목멱산 국사당의 신격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명성황후의 위대성은 이에 머물지 않는다. 충청도 계룡산에 가보면 신원사란 절이 있다. 그곳은 호국의 여산신이 계신 곳이다. 그러기에 예로부터 중악제를 지내고 있는 곳이다. 절의 본전 옆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성황사가 좌정하고 있다. 사찰 내에 이처럼 거대한 성황사를 세운 곳은 전국 어느 곳에도 없다.

그야말로 민족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 했던 명성황후의 애국애족의 호국관(護國觀)을

알게하는 곳임에 틀림 없다.

남산 기슭 장충단은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항거하다 숨진 영령들을 모신 성소(聖所)이다. 바로 그곳이 명성황후 해원곳을 벌여야할 곳이다. 나라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다 간 명성황후의 한풀이곳, 다시 말해 Legomena적 축제를 벌여 민족의 자긍심을 오늘에 계승하고 후세의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목멱산신화의 주인공

남산(南山)은 중구와 용산구에 경계하고 있는 높이 262m 정도 밖에 안되는 산으로 인경산(引慶山) 또는 열경산(列慶山), 목멱산(木覓山) 등의 이칭(異稱)을 가지고 있다.

경주의 남산, 강릉의 남산 등 대개 각 지역에 산재한 남산은 풍수지리학상으로 안산(案山)에 해당하는데 서울의 남산은 안산 겸 주작(朱雀)의 기능까지 하고 있는 중요한 곳이다.

이태조가 한양에 터를 잡고 이곳 남산의 정상에 목멱산신사(木覓山神祠)를 지어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빌면서 산이름까지 목멱산이라 명명했다. 조선조 중기까지 국가에서 봄·가을로 초제(醮祭)를 지냈고 큰 신을 모셨기에 국사당제(國師堂祭)라 일러 왔다. 특히 조선조 말기 명성황후가 국가 안위를 걱정하여 자주 드나들었다고 하니 얼마나 격조가 높은 신당이었는지 알만하다.

그러나, 이 땅을 강점했던 일제는 1925년 그들의 신당인 신사(神社)를 짓기 위해 국사당을 헐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민족혼이 서려 있는 소나무를 거세하고 망국수(亡國樹)인 아카시아까지 잔뜩 심어 놓았으니 저들의 문화정책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국사당 당내(堂內)에는 한국의 역사를 창조한 단군으로부터 최근세사의 주인공 명성황후까지 등장한다. 그뿐 아니라 왕조를 초월한 많은 민족신이 모여 있다는 점에서 이들 신격위상을 호국신에서 찾게 된다. 조선조 서울에는 사직단(社稷壇)이 있었다. 사(社)는 지신을 의미하고 직(稷)은 곡신을 의미한다. 이미 세조 3년에 설치되었으며, 종묘대제와 함께 왕이 친히 대사(大祀)의 예를 갖추어 몸소 친제(親祭)하였으니 그 목적은 신의 도움으로 오곡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였다.

사직단에서 임금ì 무릎 꿇고 친히 제를 올렸고, 흥년이 들 때는 하늘의 뜻ì 왕조에 미치지 않는다 하여 민심까지 흥흥했다.

‘군군신신민민(君君臣臣民民)’이라는 신라 적 향가(鄕歌) 가사대로 임금은 임금의 노릇을 제대로 해야 하고, 신하는 신하의 임무를 제대로 해야 하며, 백성은 백성의 도리를 다해 왔던 우리네 선조였던 것이다.

《동국세시기 東國歲時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5월 초열흘날은 태종의 제삿날이다. 이 날이면 매년 비가 오는데 이 비를 태종우(太宗雨)라 한다. 태종이 돌아 갈 때 세종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뭄이 바야흐로 심하니 죽어도 앓ì 있다면 반드시 이 날 비가 오게 하리라.” 하였다. 후에 과연 이 날이면 비가 온다.

농사가 천하의大本(大本)이었던 우리 민중들에게 비는 바로 신의 눈물이요 오줌에 해당 하였던 것이다.大本이 무너지는 것 그 자체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년 왕들은 사직단에서 토지지신(土地之神)과 곡신(穀神)에게 풍농을 기원하였고, 국사당 호국신을 찾아가 국토의 안위를 빌었던 것이다.

경기도 가평에 가보면 ‘줄바위’가 있다.

이성계가 줄을 타고 강원도 금강산에서 경기도 용문산으로 해서 관악산 북한산으로 내려왔다. 한국의 산 기운은 금강산에서 시작되어 서울 남산 끝자락에서 끝나는데 산 기운이 모두 남산에 가 뭉쳐 있다는 것이다. 줄은 산의 맥을 뜻한다. 이성계는 함경도에서 정감과 같이 산의 맥을 따라 내려왔는데 정감은 북악산에 자리잡고, 이성계는 남산에 자리 잡았다. 이성계가 정감에게, “이 자리는 5대를 해 먹을 자리이고 북악산은 10대를 해 먹을 자리이니 내가 5대를 해 먹을 테니 양보해라.” 해서 정감이 양보를 해주었다. 그리하여 이씨 왕조가 남산을 중심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sup>10)</sup>

10) 경기도가평구 화악2리 김호열 담(談), 2000. 8. 4, 김선풍. 서영숙 조사

한국인은 풍수지리학적 맥락에서 왕도를 잡는다. 신라 경주, 백제 부여, 고려 송도의 기(氣)가 끝나고 나서 이어진 왕조의 기가 조선조의 기인 것이다.

기만 좋다고 왕조가 순탄대로를 걷는 법은 없다. 그 왕조에는 그 왕조에 걸맞는 제신(諸神)이 자리하기 마련이다. 이태조 또한 고려의 왕건과 같이 산천신을 제 1신으로 잡았으니 목멱산신의 위상은 이 때부터 시작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인왕산 국사당에 있는 무신도는 중요민속자료 제 17호로 지정되어 있다. 무신도에 대해 이능화(李能和)는 그의 《조선무속고 朝鮮巫俗考》(1927)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왕조실록에 의하면 태조 4년(1404) 이조(吏曹)에게 명령하여 남산을 봉(封)하여 목멱대왕으로 삼은 뒤 향대부(卿大夫)와 사서(士庶)는 제사하지 못하게 했다. 여지승람에 의하면 목멱신사는 목멱산마루에 있어 항상 춘추로 제를 행하였다고 한다.

《오주연문 五洲衍文》에 의하면 경성 목멱산 잠두봉 국사당 음사(京城 木覓山 蠶頭峯 國師堂 淫祀)라 하였고 목멱산신 정사시(亭祀時)에는 전사청(典祀廳)을 속칭 국사당이라 했다. 거기에는 고려 공민왕, 본조(本朝) 승(僧) 무학(無學), 고려 승(僧) 나옹(懶翁), 서역(西域) 승(僧) 지공상(指空像) 및 기타 제신상(諸神像)을 걸어 놓았으며, 또 맹자상(盲者像)과 소녀상(少女像)이 있는데 소녀상은 두신(痘神)이라 하여 신전에 지분(脂粉) 등을 베풀어 지나치게 설혹(藝惑)하였고, 기도 또한 성대히 베풀어 나라에서도 금하지 못했다.<sup>11)</sup>

이상 내용에서 살핀 대로 이태조는 서울을 도읍지로 정한 뒤 남산을 목멱대왕(木覓大王)으로 봉하고 신성시하여 일반인들이 제사할 수 없도록 금하였으니 가히 국제적(國祭的) 성격의 제의에 해당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태종 때는 3신과 이태조, 무학대사 등을 모시고 국사당이라 하였으니 당의 유래가 550 ~ 560년 전으로 소급된다.

11) 李能和, 《朝鮮巫俗考》, (李在崑 譯註), 白鹿出版社, 1983, p.175.



인왕산 국사당 신위(神位)의 배열은 다음과 같다.

나옹 화상신	삼불제석신	무학대사신			강씨 부인신	호구아씨	최영 장군신	별상신	나옹 화상신
철성신									이성계신
									단군신
용궁신									용궁신
									곽곽선 생신
민중전신									창부씨신

↑  
<입 구>

무신도 가운데 12점은 조선시대 말기에 같은 인물에 의하여 제작되었으리라고 추정되며, 모두 비단 바탕에 채색한 것인데 나머지는 후대의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사당 무신도는 9매가 정면 벽에, 그리고 좌우 벽면에 각각 3매씩 모두 15매가 표면에 걸려 있다. 그림은 아태조(我太祖) 3점을 비롯하여 아태조비라고 하는 강씨부인(姜氏婦人)·호구(戶口)아씨·용왕대신(龍王大神)·산신(山神)·창부씨(倡夫氏)·별상·무학대사(無學大師)·곽곽선생·단군·삼불제석(三佛帝釋)·나옹화상(懶翁和尚)·철성신·군웅대신(軍雄大神)·민중전(閔中殿)·최영장군 각 1점 등이다.

중요한 신들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아태조신

조선조 제 1대 왕인 이태조의 영정을 말한다. 물론 목멱신사를 짓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태조 당시에는 신위가 없었고, 태종 때 무학대사와 같이 신격의 자리에 올랐다.

② 아태조비

아태조신과 더불어 ‘아태조내외분’ 이라고 한다. 이 왕비는 후궁인 계비 신덕왕후 강씨(神德王后 姜氏)로 보거나, 공민왕의 왕후인 원나라의 노국공주(魯國公主)로 보는 이도 있으나 각 지방에 산재한 강태공부인지신(姜太公夫人之神)이 아닌가 한다. 이유인즉, 삼국시대 이래 태



## 중구의 축제

조의 비를 신격화해 왔으나 후궁을 신격화시킨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 ③ 무학대사신(無學大師神)

조선왕조의 개국공신인 승 무학대사를 말한다. 왕도의 위치를 정했을 뿐 아니라 상도동에 사자암을 세워 호랑이 형국인 서울의 지세를 누르기도 하였다. 일등공신의 지위에 있었고 세인의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신격화 된 것이다.

### ④ 나옹화상신

《오주연문장전산고 五洲衍文長箋散稿》에 국사당 무신도에 나옹화상신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고려 적 인물로는 불가의 대표로 나옹화상 한 분만이 신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전국 사찰의 독성당에는 나옹화상이 많이 모셔져 있다. 무불습합(巫佛習合) 과정에서 들어간 신으로 본다.

### ⑤ 최영장군신

곳에 따라 최일장군이라고도 부른다. 거의 전국적으로 모시는 신이지만 서울과 경기권에서 주로 모시는 신으로 특히 서해안풍어제에도 주신역을 담당하고 있다.

### ⑥ 공민왕신

고려왕조를 계승한 왕조가 조선왕조이다. 왕조의 한을 달래기 위해 공민왕신과 최영장군신, 나옹화상신이 인격신의 위상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 ⑦ 괘괘선생신

괘괘선생은《산해경 山海經》과《수경 水經》 등의 저자이며 또한 경학(經學)과 역서(易書) 등에 능하였다고 하는 중국 동진(東晉)의 학자 괘박(郭璞)이 점복업자들 사이에서 조상신처럼 모셔지면서 와음(訛音)되어 그렇게 불린 것으로 보인다. 무인(巫人)들은 무조(巫祖)로 여기기도 한다. 괘괘선생신과 그의 며느리가 그려져 있는데 앞을 못 보는 당달봉사님신을 의미한다.

괘괘선생은 맹인풀이의 대상신으로 주로 안질환자들이 신봉하였으며, 점괘를 내리는 데에도 정확한 신통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믿어졌다고 하는데, 이는 동해안 무가 속에 나오는 심봉사신과 그 기능 면에서 유사하다.

### ⑧ 민중전신



민중전신은 후기에 민중의 사고와 의지에 의해 승격 신격화된 신으로 볼 수 있다. 원래 호 구아씨라고 보는 이도 있으나 명성황후를 지칭한다.

《세종실록》의 기록에 보면 명나라 사신들이 오면 남산에 올라가서 목멱신사에서 기도를 올렸다고 하니 가히 국토신(國土神)으로 섬겨 왔음을 알 수 있다.

또, 《세종실록》 지리지 경도한성부조에는, “목멱산신사가 도성의 남산 꼭대기에 있어 소사(小祀)로 제를 지낸다.”는 기록도 보인다.

목멱산 산신당은 국제(國祭)를 지낸 당이기 때문에 국사당이라 명명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근신하며 부정을 가시는 행사가 그 어느 당곳보다 엄했을 것으로 보며 큰 정성을 기울였던 제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서울에는 목멱산신사와 더불어 백악산신사(白岳山神祠)가 있다. 백악산은 북악산(北岳山)을 말하는데 당내에는 정녀부인이라는 여신상을 모시고 있다.

한국의 신은 음양을 갖추고 있다. 남쪽 목멱산에 국토신인 남신을 모셨고, 북쪽 백악산에 정녀부인이라는 여신을 모셨으니, 이는 태백산이 남신인데 비해 태백산 옆에 있는 함백산이 여신인 것과 궤(軌)를 같이 한다.

이 같은 깊은 사연으로 보면 태조 때의 주신은 백두옹(白頭翁)인 단군신이 주신이었을 가능성이 짙다. 역시 뿌리를 아는 왕답다 하겠다.<sup>12)</sup>

이상에서 필자는 명성황후 해원굿을 살펴보기 위해서 목멱산신화를 분석해 보았다. 주로 명성황후축제를 위해 축제의 판은 어떻게 짜야 할 것이며, 목멱산신화의 주인공으로서의 명성황후는 어떤 인물인가를 언급하였다.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민족문화뿐이다. 그리고 민족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축제이다. 그렇게 볼 때 서울의 축제는 목멱산신제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음을 논증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서울축제는 목멱산신과 백악산신, 그리고 산각산신을 모신 원형축제(proto-festival)가

12) 김선풍, '목멱산신의 位相과 축제 개발', 《中國文化》 제 4호, 중구문화원, 2000, pp.37~44.

된다.

- 자연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청계천 축제’에는 목멱산과 백악산, 삼각산의 제신(諸神)을 모신 ‘신맛이곳’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 축제에는 양(+의 축제와 음(-)의 축제가 있다. 목멱산신제, 백악산신제, 삼각산신제가 양의 축제라면, 장충단대제와 같은 축제는 음의 축제에 속한다.

- 서울의 축제에는 역동성을 살린 양의 축제(Dromena festival)와 경건성과 비극성을 승화시킨 음의 축제(Legomena festival)가 공존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 목멱산신사에 있는 ‘민중전신’은 아직도 민중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고 있다. 마땅히 신과 인간이 만나고, 이웃과 이웃이 주기적으로 만나는 우리 고유의 축제적 모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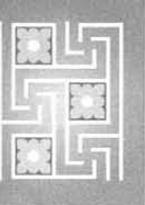
- 따라서 명성황후해원곳은 이러한 전통과 가치를 지닌 그야말로 역사성, 전통성, 민중성, 예술성, 축제성을 지닌 축제로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전통문화 가치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다음의 도표 1, 2, 3은 모 기획사에서 맡아 작위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도표 3>만을 지적한다면 출발점을 구청에 둔 점이 어색하다. 한국의 유가(遊街), 곧 길 놀이는 신당(神堂)이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멱산신이 좌정한 남산 팔각정[봉수대]이나 옛 목멱산신사가 있었던 곳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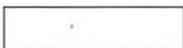
팔도에 축제를 알리는 봉수제를 지내고 유가행렬이 시작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남산 그 자체가 축제장이 되겠지만 장충단으로 유가행렬이 내려와 중구 일대를 돈다면 장관을 이룰 것이다.

장충단의 제반 의식과 더불어 전통적 축제가 한옥마을과 장충단공원, 명동, 퇴계로 일대에서 벌어지고 각종 먹거리축제와 볼거리축제를 연계시킨다면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도 표 2>

길		넓이	행렬도
	( 1 M )		프레카드(2명)
	10 M		
	( 1 M )		중구기(1명)
	10 M		
	( 10 M )		대형개막고(12명)
	10 M		
	( 10 M )		취타대(30명)
	10 M		
	( 12 M )		기수단(10명)
	10 M		
	( 6 M )		호위군 · 장수(9명)
	10 M		
	( 5 M )		명성황후 및 어차(11명)
	10 M		
	( 8 M )		궁녀(6명)
	10 M		
	( 6 M )		후미 호위병(9명)
	10 M		
	( 10 M )		백성(40명)
	10 M		
	( 10 M )		풍물팀(10명)

※ 일본자객은 퇴계로5가 로타리에서 명성황후 시해장면 연출

동선길이 : 184M

총출연인원 : 14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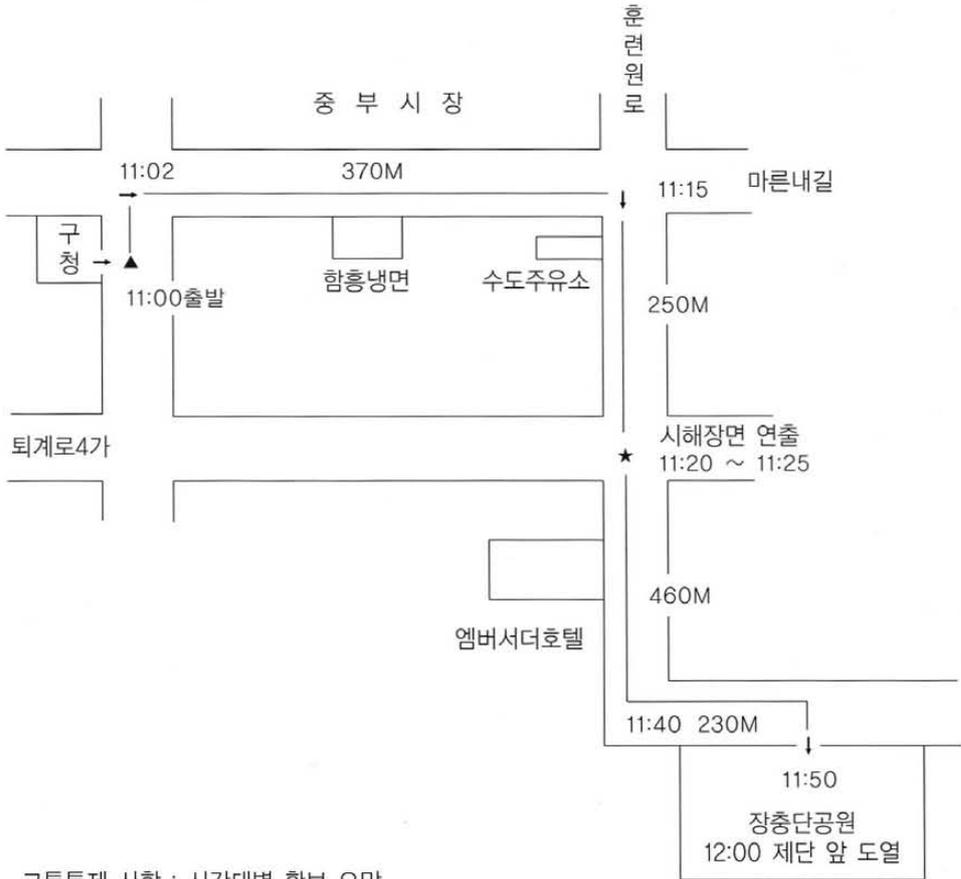
이동속도 : 30M/분

행렬통과시간 : 50분



<도 표 3>

장 충 단 제 길 놀 이 코 스



교통통제 사항 : 시간대별 확보 요망

- 마른내길 전차선 확보
- 훈원로 2차선 확보

이동코스

중구청 → 마른내길(함흥냉면, 수도주유소) →  
훈원로(충무로5가로타리, 엠버서더호텔) → 장충단

차량통제시간

중구청 → 마른내길 → 주유소 → 충무로5가로타리 → 장충단공원  
(11:00)    (11:02)    (11:15)    (11:20~11:25)    (11:50)

### 3. 먹거리축제

중구 지역은 서울의 상권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러한 상권과 함께 발달한 것이 음식관련 상권의 그것이다. 이 가운데 신당동 떡볶이와 장충동 족발은 가장 한국적인 음식으로 대중적인 인지도가 잘 알려져 있다. 앞에서 살핀 바 대로 이 두 음식은 중구의 이미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체성의 확립에 무엇보다 시급하다. 아울러 세계적인 브랜드의 가치 창조 또한 그러하다. 현재 각 지역마다 외식사업과 이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그 관심과 계획 그리고 실행 단계에 있음을 목도한다.

그러므로 이 두 음식 축제를 중구의 축제문화를 선도하는 가치로 만들어 가야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지역의 상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축제를 여러 분야에서 행정기관에서는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 계획, 예산, 홍보, 축제관련 시설물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상가지역 주민들은 자발적인 참여와 계획 수립을 철저하게 하고 실행하는 노력이 뒤따라야만 두 축제는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한 의미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러한 장충동 족발, 신당동 떡볶이의 먹거리 축제를 중심으로 다른 먹거리를 함께 기획하는 열린 마음의 축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무엇보다도 현재하고 있는 행사 내용을 검증하고 새로운 내용의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위해서는 학술적 고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 1) 학술대회 개최
- 2) 학술용역 실시
- 3) 축제 자문단 구성
- 4) 먹거리축제발전기획단 구성

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것은 축제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중구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본 강릉단오제의 경우 꾸준한 학술대회를 통하여



그 업적을 쌓고 모든 행사를 점검한 결과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거울 삼아 중구 먹거리축제의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검증을 통하여 먹거리의 다양한 가치를 개발하고 응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전남 광주의 김치축제나 경주의 전통음식문화축제는 새로운 먹거리축제의 발전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중구에는 퇴계로, 오장동, 북창동, 무교동, 신당동, 을지로, 등지에 대물림해 오는 명성이 높은 음식업소가 즐비하다. 이들 업소가 중심이 된 연계축제, 곧 중구 먹거리축제가 새로 태어난다면 소담스러운 축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제 6 장

---

중구축제의 발전방안







## 1. 축제와 관중

우리는 많은 민속전승 놀이와 지방 축제를 치루고 있다. 그러면 보통 축제 놀이마당에는 어떤 관중이 모였고 어떤 행동과 유행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왜냐하면 관중 없는 축제놀이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관중들은 과연 어떤 동기와 매너리즘을 가지고 축제에 참여하는가? 민속축제에는 누가 오는가? 습관적으로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또 무엇을 원하고 보고자 하는가? 왜,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계속 오게 하는가? 그들이 축제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가? 등을 미국의 축제와 대비시켜 보기로 한다.

미국의 윌슨(Joe Wilson)은 3,000여 개나 되는 그들의 축제를 분석하여 다섯 가지 범주로 축제를 나누고 있다.

① 토착화된 향토축제(indigenous festivals) ; 곧, 축제가 독특한 문화로부터 자생된 축제, 또는 고유한 문화의 일부가 만든 축제를 말한다.

② 진화된 향토축제(evolved indigenous festivals) ; 이는 앞의 축제와 유사하나 집단의 성원이 아닌 사람도 가능한 점이 다르다.

③ 상업성 향토축제(commercialized indigenous festivals) ; 이는 관광단체라든가 개인 프로모터가 광범위한 관중을 동원하기 위해 만든 상업성 향토축제를 말한다. 이들은 이동하면서 축제를 벌이기 때문에 축제문화의 전파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④ 비공동체 단일문화축제(non-community mono-cultural festivals) ; 몇몇 단일문화 축제는 문화 구성원들의 지원도 없이 개인적으로 축제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축제를 만드는 사람은 선택이나 표현면에서 출처가 확실하고 믿을 만한 형(authentic format)을 찾아 실시해야 한다.

⑤ 다문화 민속예술축제(multi-cultural folk arts festivals) ; 이들 문화축제는 비교적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많은 문화의 문화소를 가미한 축제를 말한다.<sup>1)</sup>

월슨의 분류는 다민족 사회현상에 나타난 축제의 분류로, 우리 고유의 축제에서 ①, ②는 있어도 ③ ④ ⑤는 거의 없다. 우리는 농경시대로부터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다. 농촌의 구수한 흥내음을 즐겨 찾던 1930~1940년대의 청년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흥에서 나온 토속놀이의 집단행사가 사멸할 위기에 처해 있고 그나마도 정부보조라는 미명 하에 조립식 축제마당이 매년 벌어지고 있는 정도이다. 축제의 위기, 놀이의 위기는 이곳에 있다. 흥을 떠난 사람들은 자연과의 결별을 뜻한다. 자연의 순리와 자연의 진리에 밀바탕을 두었던 농경민의 축제마당은 점점 그 설 자리를 잃어만 가고 있다. 일제 당시 일본인들은 우리 민족이 놀이문화를 통해 대동단결하는 응집력에 놀라 강제 탄압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동제와 그들의 신도(神道)가 동계의 신앙으로 파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동제를 미신이라고 한 것은 강대국의 민속신앙은 정교이고, 약소국의 그것은 미신이라는 제국주의적 발상을 드러내는 것일 뿐 아니라, 미신이라는 말이 문화적 침투를 위한 용어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sup>2)</sup> 그들은 집단적인 놀이문화를 통해서 민족혼의 구심점을 찾아나가는 우리 민족의 무서운 저력의 응집력을 간파했던 것이다. 그들이 1934년 11월 1일에 발표한 의례준칙은 우리 전통의례를 말살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으며, 그보다도 의례 다음에 치루는 놀이마당을 더욱 경계한 것이었다.

문화적, 사회적인 동질성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놀이이다. 집단놀이를 통해 전승된 모든 민속에는 우선 목적하는 큰 뜻이 있다. 다름 아닌 풍농과 풍어가 그것인데, 농경사회의 경제적 풍요란 바로 그것이 위주였기 때문이다. 민속의 협동적 유형, 즉 집단행동적 민속은 그것이 종교적이든 유희적인 것이든 공동체적 유대의식이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sup>3)</sup> 고 보거니와, 모든 축제행사는 인식론적(cognitive)이면서도 정서적인 반응을 동시에 보인다. 곧, 대부분의 축제는 엄밀하게 인식적이거나 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 두 가지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1) Angus K. Gillespie, *ibid.*, pp.153~154.

2) 林在海, 《민속문화론》, 문학과 지성사, 1986, p.78.

3) 김한초, 《집단행동적 민속과 문화전승》, 《정신문화》, 1982 가을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p.55.



한 노인이 자기 아들에게 김유신 장군이 이 마을을 지켜 주었고, 그래서 그분을 모시는 수호성인제(守護聖人祭 · patronal festival)가 생겼노라고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것은 그 모티브야 어떻든간에 인식의 세계(cognitive significance)를 옮겨 준 셈이 된다. 그것은 기왕에 알아 왔던 지식의 전달이요, 세계관의 전승이다.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 의식의 흐름이다. 그러나 축제는 정서적 상태인 상징성이 있다. 정서란 그렇게 만만하게 해석을 내릴 수 없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이다. 축제는 대개 기쁨이라는 최면의 상태를 불러일으키고 유지해낼 수 있는 도구로 이용되는데, 정적인 세계(affective significance)도 인식의 세계와 더불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인식의 세계에서 세계관이 나온다면 정서적인 세계에서 가치관이 나온다.<sup>4)</sup> 물론 세계관과 가치관은 같을 수도 있으나 감정의 강도가 다르다. 이처럼 축제놀이의 이중구조를 통해서 축제는 미학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충해야 할 상황이 있다. 축제의 정신과 축제의 인식론적 세계는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관념의 세계만을 정의내린 것에 불과하다. 관념세계는 대개 우리나라의 축제에서는 통과 의례(通過儀禮)라고 하는 의식과 무속신앙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축제는 위의 두 세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놀이의 세계이다.

우리가 축제에 참여하는 것과 외국인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우선 인식론적으로 다르다. 우리 놀이판의 구조는 신성공간적(神聖空間的) 장소요, 그 속에서의 행위라고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 미국인의 축제 참여는 어떠한가?

앞에 언급한 길레피(Gillespie)는 축제에 참여하는 대중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가족(the family)'이다. 이들은 가족단위로 그 민속축제에 참여한다. 그리고 주로 소비자적 위치에서 여흥과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목적으로 참여한다. 가족단위로 참여할 때 노소의 연령차로 각기 참여하는 의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들은 주로 차를 이용하여 축제에

4) Robert Jerome Smith, 《The Structure of Esthetic Response》, Américo Paredes & Richard Bauman, ed., 《Toward New Perspectives in Folklore》, 1972, p.79.



참여하는데, 입장료를 내고 주차료를 물어야 한다. 많은 선물도 사고 음악회도 즐기다가 그들은 집으로 떠난다.

둘째는 ‘the folknik’ · 관객이다. 이들은 주차료를 물지 않으려고 하이웨이 옆에 주차를 하고 리바이스(Levis)를 입고 카우보이 모자나 가죽잠바를 주로 입고 나타난다. 그들은 프로그램을 살 필요도 없다. 그들은 이미 모든 스케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 년 전에 다른 축제에서 사서 입은 T셔츠를 입고 있다. 그들은 특히 음악에 관심이 많지만 음악회에 관심을 갖지는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테이프나 레코드를 수집하기를 좋아하고, 다음날 저녁에 만날 사람들과 그 장소를 더 좋아한다. 그들은 축제에서 자기 생활 스타일과 가치관, 사회적 기회(social chance)를 실현할 수 있는 장소라고 믿고 있다. 그리하여 축제의 마당이 도회보다도 시골이면 더욱 좋고,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것이 더욱 좋고, 앰프를 틀어서 확성기로 듣는 것보다는 자연상태로 정취하는 것을 더 즐기고, 새로운 것보다 전통적인 옛것을 더 즐기는 무리이다. 그들은 취미를 즐기는 무리라 할 수 있다.

셋째는 ‘the outlaw’ 들이다. 이들은 ‘the folknik’와는 달리 악기도 없이 와서 마치 록 콘서트(rock concert)에 온 것처럼 행동하는 무뢰한들이다. 그들은 Dodge차나 Chevy차를 몰고 트렁크에 맥주를 가득 싣고 다닌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축제를 들으려고 온 무리가 아니다. 남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만드는 무뢰한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말로 자기들의 감정을 폭발시킬 뿐 폭력은 별로 쓰지 않는다. 그들에게 축제란 다만 자신들의 연희장으로 인식되어 있어 떠들어대고, 불쾌하게 행동하고, 무례하게 굴면, 눈치 없이 행동한다.

위에 언급한 바를 요약하면 민속축제의 관중들은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가족 관객’은 흥행과 구매에, ‘the folknik · 관객’은 자기 자신의 취미와 생의 멋을 반영하는 분위기를 찾기에, 그리고 ‘the out-law 관객’은 자기 자신에게로 주위를 집중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sup>5)</sup>

이들은 우리나라 축제의 관중과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 우리나라 축제에 노는 사람은 누

5) Angus K. Gillespie, <Folk Festival and Festival Folk in Twentieth-Century America>, Alessandro Falassi, ed., *ibid.*, pp. 156~160.



구일까? 상호 대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우선 이곳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축제에 몰려오는 세 부류, 가족, the folknik, the outlaw 중 실상 우리 축제에서는 ② ③에 해당하는 대중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일견하여 'the folknik' 처럼 축제의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즐기는 대중이라는 면에서 'the folknik' 가 — 우리 문화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 우리 전통축제에는 서커스단이나 약장사, 야바우꾼 등의 재인들과 상인이 이에 해당한다 하겠다. 그러나 이들은 개인소득도 있지만 그 지방의 경기부양에도 한몫을 해왔던 순회관중이었다. 미국식 무뢰한들(the outlaw)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축제에서도 무뢰한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미국형 무뢰한들과 사뭇 다른 바 있다. 우리의 무뢰한들은 제의적인 혼돈(orgy)상태에서 저지르는 과오라든가, 양파경축희(兩派競逐戲)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승자와 패자 간의 무례함이 있을 뿐이다. 가령 줄다리기를 마을과 마을 간의 경합으로 한다 해도 남과 여가 있어서 서로 음란한 외설적 표현으로 실랑이를 하고 무례한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의 무뢰한처럼 개인주의적 무례한 표현을 하는 발광이 아니라 자기 부락을 위한 공동체의식 하에서의 언행임을 알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식은 곧바로 자아의식이라는 관념이 강했고 또 이를 통해서 자아성취도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중이었다.

길레피(Gillespie)의 이론 중에 나타난 가족(the family)은 어떠한가. 강릉단오제나 은산별신제의 경우를 보면, 관중은 중년 이상의 아저씨, 아주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부분이다. 물론 가족들이 모두 참여하는 수도 있으나 지방에 따라 또는 제의의 성격상 여인들이 오지 못하는 남근숭배(男根崇拜) 제의도 있다. 우리의 관중에는 물론 중? 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지만, 산업화시대의 개인주의적인 사상 때문에 공동체의식을 잃은 지 오래된 세대들이다. 단오장에 가면 신을 만날 수 있고, 옛 고향 친구도 만날 수 있으며, 잘하면 과부가 재혼을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누구 하나 어떤 의무감에서 나온단가, 돈이 없어서 못 오지도 않는다. 단오를 전후해서 눈에 못자리를 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남의 집 모내기 두레에 참석하면 단오 구경할 비용은 나온다. 오히려 가족이 같이 가기보다는 동류끼리, 그야말로 부인은 부인끼리, 남정네면 남정네끼리 가는 곳이 단오장이다. 그래야 할 말 못할 말 모두 내뱉을



수 있고, 자유롭게 하루를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 사회에 있어서 여성은 1년에 두 번 외출할 수 있으니 근친 길과 3월 화전날이다. 노래에도 “근친 길이 으뜸이요, 화전 길이 버금이라.”는 규방가사의 구절이 있는데, 강릉의 여인들의 경우는 단오날 한번 더 나올 수 있는 축복받은 여인들이었다. 그들은 단오장의 굿판에 가면 보살님으로 추앙받고, 손수 가족과 친지의 건강과 무사안녕, 그리고 풍농·풍어를 빌기 위해 소지(燒紙)를 대관령국사성황신(大關嶺國師城隍神)에게 올리는 것이다.

관중의 질은 민속문화의 질에 따라 달라진다. 서구적인 관중은, 까이요와의 이론을 적용해 본다면, 다분히 경기를 중심으로 한 관중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은 루두스적인 관념을 가진 관중이 지배적이라는 말과 통한다. 그러나 우리의 관중은 파이디아적인 관념을 가진 관중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질적인 차를 따질 것이 없다. 파이디아와 루두스의 갈림은 제의적이나 제의성을 상실한 경기냐 하는 문제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서구에서는 파이디아적인 면을 상실했기에 딱딱하고 규칙적인 룰이 지배하는 루두스만이 남아 있다. 그들 문화를 일러 플라스틱적이고 인공적<sup>6)</sup>이라고 표현한 것은 축제놀이문화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축제 속의 놀이가 사회질서 주변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 융합되어 어떻게 변질되고 아곤, 알레아, 미미크리, 일링크스가 타락하게 되면 어떤 현상을 빚게 되는가. 까이요와는 다음과 같은 <도표 3>을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도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아곤이 타락할 때 폭력과 권세욕, 사기가 판을 치게 되고, 알레아가 타락했을 때 미신이 생기고 점성술이 만연되며, 미미크리가 타락했을 때 소외감[따돌림], 이중인격이 생기고, 일링크스가 타락했을 때 알콜 중독과 약물 중독이 퍼져서 놀이문화의 세계가 문란해진다는 탁견(卓見)도 제시하고 있다.

축제의 중심기능을 뒤흔들기 해도 관중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데 있다. 그들은 그 속에서 서로의 정을 나누고 그 사회나 그룹 또는 지역의 일체감을 확인하고 이를 계기

6) Angus K. Gillespie, *ibid.*, p. 157.



	사회질서 주변에서 발견되는 문화적 형태	사회생활 속에 융합된(통합된) 제도화한 형태	타락
아곤 (경쟁)	스포츠	경제적 경쟁 경쟁시험	폭력 권세욕 사기
알레아 (운수)	제비뽑기 카지노 경마(전차) 경주장(마술경기장) 경마장 내기 (pari-mutuels)	증권시장의 투기	미신 점성술
미미크리 (모의)	카니발 극장 영화관 영웅숭배	유니폼 의식상의 에티켓	소외(따돌림) 이중인격
일링크스 (현기)	등산 스키 줄다리기 스피드게임	현기증의 제어를 필요로 하는 직업	알콜중독과 약물중독

〈도표 3〉<sup>7)</sup>

로 해서 단결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축제 참여의 제 1의적 동기는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자기의 정서를 맘껏 발휘하는 장소가 되면서 자기 부족에 대한 충성을 다지는 계기도 되었던 것이다. 원형축제(proto-festival)라 할 수 있는 영고와 무천의 기능 또한 그러했으리라고 추측된다.

축제의 구조는 개혁을 싫어한다. 그러면서도 부단히 변화는 내면으로부터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축제는 어느 누구도 지난 해와 똑같이 반복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고집스럽게도 전체적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내용과 스타일이 변할 뿐이다. 이는 시대가 지나면서도 노래의 구조는 변치 않고 가사만 변개(變改)되어 내려오는 양상과 흡사하다. 축제란 일정한 고정의 틀이 있다. 이를테면 신을 모셔 놓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제 1원칙이 있

7) Roger Caillois, *ibid.*, p.54.



## 중구의 축제

고, 제장(祭場)이 있어야 하고, 제장의 주위에는 오신(娛神)하는 마당을 마련하고, 제를 진행하는 제관 및 집행자가 있어야 한다. 이상의 요건이 모여 구조를 이룬다.

그밖에 모든 관중은 놀이마당에 참여하여 같이 놀고 같이 즐길 권리가 있다. 적어도 일반 관중은 다음과 같은 의식 속에서 축제에 참여를 한다.

첫째, 그들은 구조를 보러 온 것은 아니다. 구조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곳이야말로 원시적 구조의 축제의 원시태(原始態)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오늘날 그곳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학자와 대학생 그리고 주관자들인 것 같다.

둘째, 축제놀이는 참신성이 있어야 한다.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무엇을 얻으려 하는 무리가 축제의 관중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 한다. 평범이 아닌 비범을, 평상이 아닌 비상을, 따분하고 조용한 일상적 경험이 아닌 왁자지껄하고 흥미진진한 카오스적인 경험을, 보기보다는 행동하기를, 무기력이 아닌 생기를,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 무책임을 경험 하려고 모인다.

축제의 원형인 원시적 축제에는 다음의 <도표 3>과 같이 원시축제를 중심으로 여러 놀이와 싸움, 시회(詩會), 가회(歌會) 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도표 3>에 제시한 짝짓기는 중요한 원시축제(proto-festival) 기능의 하나였다. 에버하르트(Wolfram Eberhard)는 단오축제가 시련을 통한 희생(犧牲)을 고르기 위한 제의 경쟁이요 싸움인 것이며, 그 승리자는 근처 숲 속에 들어가 성적인 주연까지 받는다<sup>8)</sup>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시경 詩經》 속의 구애의 노래가 짝짓기 노래임은 이미 학계에 알려진 바 있거니와, 중국의 전통 속에 있는 그와 같은 민속이 중국 일부 지방에 아직도 남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추단(推斷)할 때 우리 고대(古代)의 제천의식 속에도 구애의 짝짓기 전통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개성과 평양의 단오도 유명하지만 강릉의 단오가 가장 규모가 크고 뿌리가 깊

8) Wolfram Eberhard, <The Dragon-boat Festival>, Alessandro Falassi, ed., ibid., p. 287.



다. 하늘을 향해 춤을 추는 무천(舞天)의 고장 강릉에는 원시무용의 형태가 오늘날도 많이 남아 있다. 원시부족시대의 짝짓기 놀이에는 구애의 상대를 위해서 가장 직정적(直情的)인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야 했을 것이다. 것처럼 남녀가 모여 짝을 짓는다는 것은 상스러운 것이 없다. 눈이 맞아 자연에서 동화하면 그것은 풍농을 가져오고 풍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원도에는 산간지방에서 밭의 수확을 위해 짝짓기를 했던 곳이 있다. “오월 단오가 되면 강릉 일대 보리밭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세간의 속설도 그리 흥할 게 없다. 또, 단오가 되면 과부가 구제되는 수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16세기에도 체코 슬로바키아 서부의 주인 보헤미아의 축제 때는 완전한 성적 자유[개방](sexual freedom)가 있었다고 한다. 그 시기는 우리나라의 단오에 해당하는, 양이 극(極)에 달하는 한 여름 저녁이다. 그곳 속담에 “He is a festival child(Un hijo de lafiesta)” 곧, “그 아이는 축제의 아이다(그 아이의 아버지는 축제이다.)”라는 말이 생길 만큼 옛날에는 축제 때 성적 개방이 있었던 것이다.<sup>9)</sup>

축제는 이처럼 설화나 언어처럼 통시적 시간의 연속성 위에서 발생·성장해 온 것이기 때문에, 축제의 연구란 우리가 연구하면 할수록 그 외연적 사항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생활사 및 정신사를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음력 5월 5일에 단오가 치루어지는 것도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대나무로 소(牛) 인형을 깎아서 갖는 수가 있는데 이 때 칠하는 색깔은 5색이다. 이 다섯 색은 오행(五行)인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를 말하는데, 세계를 지배하는 별이 다섯이라고 믿고 있다. 기상[日記]도 다섯 가지요, 곡식도 오곡이라고 해서 5라는 숫자는 중국인이 가장 즐기는 상징적 숫자이다.<sup>10)</sup>

그러면 중국의 소는 한국에서 어떻게 대치되고 있는가? 우리의 단군신화에 범이 나타난다. 조선 말기까지만 해도 단오 때 쑥범(艾虎)을 만들어 각신(閣臣)에게 주었던 바, 쑥범이란 쑥으로 만든 호랑이니 이처럼 쑥으로 호랑이를 만들었다는 것은 신화의 재현을 의미하는 것이

9) Robert J. Smith, *ibid.*, p.135.

10) Joseph Gaer, 《Holidays around the World》, Little, Brown & Company, Boston, 1953, p.18.



다. 오늘날도 시골에 가면 축을 베어 문 위에 달아매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축이 벽사(辟邪)와 재액(災厄)의 기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범 그림은 대문뿐 아니라 방문에도 붙였다. 이와 같이 우리는 범 주술 문화권 내에서 생활을 영위해 왔던 것이다.

## 2. 놀이의 주체

민중문화와 대중문화의 구별은 엄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론자들마저도 용어상의 문제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실상과 허상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수가 있었다.

우리 민중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자. 이 말은 영어로 folk란 말이 이에 해당하겠는데 우리 말로는 민중이나 mass의 문화와 folk의 문화는 차이가 크다. 오늘날의 mass media니 mass communication은 모두 차디찬 산업의 세계이다. 그것이 주는 악영향은 실로 선(善)에 못지 않게 크다. 우선 대중을 상대로 한 대중매체는 인간의 피를 말려가고 있다. 피의 유대와 공감대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피를 통해 단합했던 놀이문화뿐 아니라 정감어린 이야기마저도, 심지어는 동요의 세계마저도 앗아간 지 오래이다. 아이들에게서 달나라의 계수나무, 옥토끼 노래를 들은 지도 이미 오래이다. 다만 대중가요나 CM송을 노래하고 흔들 뿐이다. 그것이 그들 문화인 줄 알고 있다. 서구의 재즈나 록의 세계가 동심마저도 서구화시켜 왔다. 동요는 어린 시절 꿈의 세계이자 정의 세계이다. 어머니의 품과 같이 정감을 주고 장래의 인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그들이 커서 자손들이 옛노래를 들려달라고 한다면 CM송이나 불러야 할 판이다. 한국판이 아니라 서양판 속에서 춤추고 마냥 즐거워만 하고 있다. 따라서 민중(folk)의 세계가 사라지고 있다. folk은 mass와 달라 정의 세계요, 정감의 세계요, 환상의 세계요, 이상의 세계이다. 그것은 피로써 맺은 관계이다. 그러므로 대중이라는 mass와는 아주 다르다. 우리는 바보상자라고 하는 TV에 모든 정감과 정서의 세계를 빼앗기고 있다. 오



늘날 대중문화(mass culture)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중문화(folk culture)로의 지향과 발견·육성의 길 밖에 없다. 대중문화는 민중을 오도할 수도 있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이끌기도 한다. 서구사회에서의 독재자나 재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독재자, 재벌들도 mass media를 잡으려고 늘 혈안이었다. 근자 물의를 빚고 있는 어느 의사의 건강학을 보라. 그 방면에 문외한인 필자로서는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없으나, mass media를 관리하는 몇몇 방송국 관리자의 불찰로 그의 학설은 무지한 대중들에게 적어도 의학적인 면에서는 어필해 갔고 쇠고기, 돼지고기 파동에 쌀 파동까지 몰고 왔다. 심지어 그 의사는 익은 김치와 멸치까지도 건강에 나쁘다고 했다. 도그마에 빠진 신앙과 선교풍의 화술로 하루 아침에 영웅이 되었으니 얼마나 씩씩한 매스컴의 허구인가. 그러나 민중(folk)을 통한 민간사교법은 그렇게 일개인의 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회적인 설득은 허용치도 않거니와 설사 그런 과정이 있었다하더라도 쉽사리 진리가 되지 않는다. 민중은 중지(衆智)를 여과시키는 그물장치를 지니고 있다. 참된 진리라 할지라도 당대에 진리로 삼지 않는다. 그들은 수정·보완 과정을 치루어 나간다. 하물며 민중에게 진리일 수 없는 상황은 당대에 사라지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문화는 대중의 강세 때문에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다. 기계주의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들음으로써 민중문화는 힘을 잃었고 기계화의 가속으로 이제는 기계를 다룰 줄 모르는 민중이 오히려 바보로 대우받는 세상이 되었다. 이제는 어디 가도 축에 끼려면 기계를 다룰 줄 알아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마저도 컴퓨터화되고 있고 어지간한 옛날 장난감으로는 그들의 감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더욱 큰 문제는 지나친 개인주의에 빠져 집단 놀이로 즐기기도 보다는 전자오락실에 들어가 일링크스의 세계에 빠져드는 일에 더욱 힘을 쓴다는 것이다. 지나친 개인주의는 오히려 몰개성의 세계이다.

미국의 도슨(Richard Dorson)은 이런 지나치게 비뚤어진 현대판 민속, 관광 위주의 민속, 상품화된 민속을 일컬어 가짜 민속(fakelore)이란 용어를 빌어 쓰기도 했다. 놀이란 정적인 세계요 활동이라고 했거니와 그것은 따뜻한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이어야 한다. 인간과 인간과의 아곤과 알레아이어야만 공동의 장, 곧 공감의 장이 열린다. 차디찬 기계와의 싸움이나 놀이에는 정서가 없다. 그들은 흥분만 시키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기에 인간 자신도 기



## 중구의 축제

계화되고 로봇 같은 인간상을 만들어 가게 된다. 기계와의 승부 다음에는 파멸만이 올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도 흙을 밟거름으로 한 민속놀이 자료가 원형을 상실하지 않은 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또 그 놀이를 계승할 의무를 지닌다. 그 길만이 삶의 길이다. 인간은 흙을 밟는 운동을 해야 하고 흙의 놀이를 해야 건강하다. 인공적인 케미컬 정구장보다는 클레이 정구장이 몸에 좋다는 점은 이미 상식이거니와 아이들도 컴퓨터놀이나 하고 놀 때 건강은 고사하고 자외선으로 인한 눈병에다 정신장애까지 초래한다. 흙과 자연에서 노는 아이는 병들지 않는다. 성인놀이도 마찬가지다. 자연 속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냇가에서 천렵(川獵)을 하고 동산에서 그네를 뛰던 우리 조상네는 콜레스톨을 무언지 모르고 살았어도 백수(百壽)만 했다. 민중 놀이문화의 정착은 국민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sup>11)</sup>

민중 놀이문화의 재창조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마을마다 동제(洞祭)를 지내야 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자기 마을의 조상신 찾기가 할 수 있다. 어느 마을이고 나름대로 마을 신화가 있다. 그것이 없는 곳은 바로 이웃 마을의 신화가 자기 마을의 신화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 우리의 놀이는 신화의 신바람부터 일기 시작해야 한다. 일부 종교인들은 단견(短見)으로 우리의 조상신을 미신으로 돌려 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다. 서낭이 미신이라고 보는 관념은 자기의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다. 한 마을을 이룩한 선조의 위패를 당(堂)에 모시고 있는데 그 선조를 모시는 것이 어찌 미신이겠는가. 예수 · 공자 · 부처를 모신 곳과 서낭당은 같은 위상에 있는 것이다. 일본인들의 무서운 저력은 바로 그들의 서낭당인 신사문화(神社文化)에서 나왔다. 그들처럼 자기 주체성이 강해야 민족종교가 정착을 하게 된다. 망했다가 오뚝이처럼 다시 세계 제일의 1등국으로 부상한 일본은 자기 조상신을 극진히 모시고 있음을 묵과 해서는 안된다. 일본정신의 핵은 그들의 숭조사상(崇祖思想)에 있다. 그들에게는 기독교가 없어도 좋고 유교가 없어도 좋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것처럼 서구문명을 일찍 받아들였고 독일처럼 제국주의적인 국가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취사선택을 주체적

11) 宋錫夏, 前掲書, p.413. “사람의 體質 向上과 保健 卽 所謂 體育上에 運動競技가 絶對로 必要하다는 것과 우리 生活 營爲에 娛樂이 不可缺한 것은 意識 無意識間 世上이 是認하는 것이니 세삼스레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으로 잘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서구화를 했음에도 자기 조상신 모시기가 위주였다는 말은 동경시내에 교회가 별로 없다는 사실만으로서도 방증이 된다. 우리의 경우 우후죽순처럼 몇 집 건너 교회로 가득찬 서울 거리를 볼 때 한심한 생각이 든다. 기독교는 좋은 종교이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 신앙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즉 우리 풍토에 맞는 한국화한 기독교가 되고 한국문화를 부정하지 않는 종교 자세가 더 시급하다 하겠다.

### 3. 중구축제의 발전방안

중구축제는 지역과 개인의 자긍심을 일깨워 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구축제는 지역민 스스로가 이 축제를 통하여 즐거움과 협동심, 애향심 등의 고취가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축제를 찾는 많은 방문객에게는 축제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문객들은 축제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공간과 시간 그리고 축제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구의 다양한 축제를 찾는 모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듣기, 보기, 사기, 하기, 먹기, 느끼기, 즐기기 등의 한마당 축제 시간과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구축제의 행사내용의 정비·개편이 새로운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부단히 축제의 활력을 넣은 일이 중요하다. 또한 중구축제의 내용은 내실을 기하고 참여자를 확대하는 중구 지역주민의 축제로서 먼저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역량결집이 따라야 한다. 아울러 재정의 확충, 공간의 재구성, 관광자원과의 결합, 전국화·국제화 전략, 환경개선 등의 지속적인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 행사내용의 재구성

중구축제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보다 많은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2001 ~ 2003년도에 있었던 행사내용의 과감한 정리, 개편, 폐지하여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적극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전체행사를 주제별, 성격별 등으로 해마다 구성하는 것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중구축제가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 행사들이 개별적으로 분리 개최되어 중심행사의 특성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축제의 개념을 충실하게 할 내용이 빈곤하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중구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제성과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할 것이며, 주제와 이미지에 걸맞는 중심행사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관객의 흥미를 끌고 매력적인 행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심행사는 축제의 주제와 이미지에 부합되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의 흥미유발과 함께 흡인요인이 있는 매력적인 축제적 요소를 지닌 행사가 있어야 한다. 또한 중심행사가 있는 시간과 일자에는 다른 행사의 시간과 일자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여러 공간에서 동시다발적 행사가 개최되면 관람객들에게는 관람의 편의가 제공되겠지만 체계적인 유인과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축제 진행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구'라는 지역적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가 열려있는 축제의 지향점을 위해 지속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2) 공간의 재구성

축제의 공연, 전시, 체험이벤트 및 휴식 등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와 환경 구성은 축제의 주제에 부합되어 일관성을 가진 연출과 시설배치가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축제는 좋은 관광자원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전체 축제장은 연출의 일관성을 통해 주제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축제가 끝난 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주제의 일관성 유지는 이전 축제 개최시 조성된 관련 기반시설



이 차후 축제 개최시 재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축제의 기획, 운영상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재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축제장 구역별 연출은 관광객의 동선(動線)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첫째, 축제장의 출입구에서는 관광객에 대한 환영과 현장에서 새로운 경험을 기대할 수 있는 느낌을 유도해야 한다. 또 열린 공간으로서의 이미지와 편안하고 즐거움 출입공간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킬 수 있는 연출이 필요하다. 둘째, 축제의 본 행사장에서는 축제의 주제반영을 통해 새로운 체험과 신명성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연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축제주제와의 조화를 유지토록 해야 하며, 관련 공연·전시물의 역동적인 배치, 질서있는 관람유지를 위한 동선의 단순 및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관광객의 편의와 휴식, 관람의 여유 공간으로서 휴식공간의 연출에는 최대한 효율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휴식공간은 본 행사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와 연결이 필요하며, 또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관람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연출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광객 지향적인 휴식공간의 연출은 관람과 체험, 놀이, 그리고 식사 등이 모두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 3) 운영의 활성화

지역축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상이나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유용한 그릇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객 이외에 지역주민들도 축제에 적극 참여해야 축제가 보다 보람있고 즐거운 한마당 잔치로 승화되며,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게 된다. 축제의 전 과정에 걸쳐 지역주민이 소외되거나 피동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는 성공하기가 어렵고 그 생명력도 길지 못하다.

앞에서 살핀 바대로 국제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축제는 대체로 그 주제와 내용 세부 프로그램 등에 해당 지역사회가 보유해 온 문화적인 특성과 산업적인 특성, 자연적인 특성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 해당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고 있어, 외래 관광객에게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매력을 제대로 경험하게 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 축제를 관광자원화하려는 국내 지자체들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고객 지향적이고 시장 중심적인 축제가 되어 관광객들에게 호평받는 우수한 관광자원으로 지역축제가 자리매김 되려면, 보다 고도화된 축제의 기획, 운영 및 결산 등을 효과적으로 주도해가는 추진조직이 잘 마련 되어야 한다. 그러한 추진조직이 리더십을 가지고 각종 연관조직이나 지원조직들을 종횡으로 연계시켜 저비용·고효율적으로 고도의 협력 활동을 해 가느냐의 여부는 축제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체이다.

성공적인 축제의 개최를 위한 축제 추진조직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민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축제를 주관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둘째, 민간의 주체적 추진을 행정기관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조직한다. 셋째,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며 축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 4) 관광자원의 활성화

축제는 지역사회의 문화·경제적 효과 이외에 관광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실상 많은 지역들은 이러한 축제가 가지는 관광적 가치,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측면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축제가 가지는 관광적 가치는 그 자체로서 각 관광지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다양화하여 매력도를 높임으로써 관광객을 끌어들이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사적지, 위락시설, 전통시장, 쇼핑시설, 주제공원 등 기존의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역사적인 재연과 문화축제를 통하여 공연장 및 관광시설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일생에 한번 방문으로 충분하다는 관광지의 재 방문을 유도 할 수 있으며, 축제의 개최로 지역 관광지원의 홍보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다.



셋째, 축제는 관광산업이 당면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되는 계절성을 극복에 관한 것으로서 관광성수기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관광시즌을 창출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축제를 유치한 지역사회의 잠재적인 관광목적지로서 인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축제를 성공적인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축제 외적인 정책적 노력과 아울러 내방객들이 추구하는 바에 효과적으로 부합하는 축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기획을 해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특성 없는 축제를 조정하는 정책적 노력, 여기에는 걸러진 축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우선적인 지원확대, 그리고 이를 관광자원화하여 국가적인 관광홍보 차원으로 승화하는 문제 등 축제 외적으로 접근해야 할 노력들이 필요하다.

### ① 정부차원의 지원방법과 범위의 확대

문화관광부에서는 축제의 대내외적인 효과에 주목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축제 육성을 위해 지난 95년부터 전국의 480여개 지역축제 중 외래관광객 유치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여 육성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정 축제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와 프로그램 개선, 국내외의 홍보, 및 마케팅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 왔지만,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축제 자체에 대한 지원위주로 이루어진 나머지 축제 개최지역의 관광수용여건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축제를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개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약하다.

따라서 정부 지정축제에 대한 지원범위를 축제행사 자체에 대한 지원위주에서 주변 지역의 숙박시설과 휴식·위락공간 등의 확충·개선이 병행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축제의 내용, 투자의 내용과 지역의 가용 자원 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만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을 포함하여 잠재적인 관광객들의 생활수준, 문화의식 등이 조사되어야만 하며, 타 지역에 비해 자기 지역의 축제가 비교우위 경쟁력을 확보하



## 중구의 축제

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축제의 테마와 프로그램 설정, 세부적 추진방법 등을 세심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 ②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세계적으로 관광적 가치를 지닌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축제관련 예산확충 및 축제의 기획과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내 주민과 공무원, 자치단체장의 관심환기가 필수적이고 특히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요구된다.

우선 지역내 구성원 등의 관심환기를 위해서는 관광 담당부서에서 해당 지역축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축제의 경제적 중요성과 지역사회의 문화발전 그리고 지역 홍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역축제를 관광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많은 예산과 홍보전략 등의 측면에서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중앙정부의 지원 및 관심을 끊임 없이 유도하는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축제 자체에 대한 마케팅 노력과 국가의 관광홍보 전략과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지역축제에 대한 홍보는 축제자체의 상품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지역 전체적인 관광자원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축제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국가나 지역의 전체적인 관광자원의 매력성을 제고시키는 수단으로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관광홍보차원에서 축제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품 기획과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다.

### ③ 지역사회의 서비스 수준의 제고

한 지역축제가 관광지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축제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전체가 외래방문객에 대한 환대서비스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축제에 관계하는



인사들 만이 축제의 종사원이라는 소극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서비스 유기체처럼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지역사회 주민들을 전문적 운영 요원화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지역 향토사학자, 교직자, 공무원 퇴직자 등을 활용하고, 외래관광객을 위해서 청소년, 학생 등 별도의 자발적 안내원을 선발하여 지역축제를 안팎으로 지원토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주민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축제에 참여해야 한다. 즉, 주민들이 스스로 축제의 구성원으로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축제이건 지역주민들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테마의 선정과 세부 프로그램의 수립 등 지역 밀착형 기획과 운영이 필요하다.

#### ④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관광객들로 하여금 축제에 대한 방문욕구를 유발시키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 바로 홍보 마케팅이다. 홍보를 위한 매체는 대부분의 축제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매체의 선정 자체만으로 차별적인 홍보수단으로서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홍보의 혁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홍보활동을 통해 관광객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축제를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어야만 그 축제는 성공적으로 존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홍보매체가 범람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관광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공격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위해서는 홍보활동의 수단선택이 중용한데, 홍보활동의 단계마다 적절한 활동수단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의 TV, 라디오, 신문, 팸투어, 각종인쇄물 등 기존의 홍보활동 수단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미디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자료수집과 홍보활동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구분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단계별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상징하는 표상, 프로그램, 일정 등이 확정



## 중구의 축제

된 상태에서 상호 협력적 활동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홍보의 기준조건이 갖추어진 후, 단계별 홍보목표와 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초 홍보단계에서는 국내외적인 관심유도를 위해 주요 여행사 팸투어, 순회설명회, CM 발송 등을 실시하고, 구매 유도단계에서는 국내외 여행사 홍보, TV 광고, 신문광고 등을 실시하며, 축제이미지 실현단계에서는 프레스센터 운영을 통해 취재편의를 도모, 주요 행사 브리핑, 관련 방송 섭외, 그리고 평가단계에서는 매체모니터링, 관련기사에 대한 예방 및 사후관리 등의 홍보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⑤ 참여와 체험기회의 확대

축제참여는 크게 지역주민의 축제참여와 관광객의 축제참여로 구분 할 수 있다. 축제는 원래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의 발전 측면에서 기획되고 있으며 이것이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브랜드화 되고 관광자원화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지역주민을 축제의 장으로 참여시키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축제 자체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 경제적인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도록 하는 기획능력과 마케팅 활동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 지역의 축제가 관광객들에게 만족을 준 성공적 행사로 귀결되더라도, 그러한 만족이 축제 개최지역의 주민들과 지역사회, 해당지자체 등에 편익을 충분히 발생시키지 못한다면, 그 축제는 계속 지속되기가 사실상 어렵다. 설혹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비경제적 측면에서 개최한 축제라 할지라도 축제의 개최와 관련된 이해집단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편익도 어느 정도 발생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관광객들의 축제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그들의 재방문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체험과 참여를 통해 진행되는 축제 프로그램이 적극 강화되어야 한다. 축제에 대한 참여와 만족도를 끌어낼 수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학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축제를 구성하는 각종 이벤트에 참여케 함으로써 귀중한 체험을 통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얻게 하



는 것이다. 단순히 보고 즐기기만 하는 소비지향적 축제행사는 매력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축제 참여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축제 주최자와 기획자들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그들이 지역사회 주민과 관광객들을 얼마나 배려하는가 또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축제를 경험할 때 그들이 추구하는 참여수준과 참여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가, 만일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느낀 불편함은 없는가와 같은 점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관광객들을 위해 다양하고 세심한 서비스와 그것들로 이루어진 이벤트를 준비해야 한다.

#### ⑥ 관광상품화를 위한 아이디어 개발

축제의 관광자원화를 성공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드웨어적인 시설개발도 중요하지만 다른 축제와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독특한 아이디어의 개발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축제는 전국 어느 축제에서나 다같이 볼 수 있는 천편일률적인 축제 상품 그리고 축제 속에 이루어지는 똑같은 이벤트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축제로 전락한 예가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축제의 관광상품화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점은 대상의 특성 및 내용을 관광객들에게 충실히 제공하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개발이다. 예를 들어, 문화유적을 소재로 한 축제의 경우라면, 그 문화유적에 얽힌 역사적 사실이나 숨겨진 이야기 등을 충실하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관광안내 해설요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안내판, 안내해설 자료, 관련 이벤트 등을 정비 보완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을 넘어서 흥미 유발 및 욕구충족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개발은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지자체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민간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민간의 아이디어 확보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아이디어를 축제행사에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아이디어



발굴대회 등을 통해서 언제나 주민들의 의견을 축제의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시 아이디어 공모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또한 축제의 마케팅과 기획을 대행하는 민간사업자 선정 시 사업 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민간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참신한 아이디어 그 자체로서는 매력을 확보할 수 없어, 이를 관광객에게 다가가도록 하는 서비스체계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그 축제는 성공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축제의 관광자원화에 있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혹은 안내해설 프로그램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와 구조물과 건축물 같은 하드웨어의 적절한 균형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⑦ 사업 수익성 제고방안 도입과 적용

지역 자체의 특성을 바탕으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 시키려는 전략이 함께 계획수립 차원에서 고려되어야만 한다. 축제의 관광지원화는 지역개발과 연계된 사업인고로 자원과 예산이 소요된다. 이에 지역 자체의 재원만으로 이에 충당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지역의 기업 또는 지역 외의 연고기업 등으로부터 자금유치, 관련경비의 협찬 등과 같은 스폰서십과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의 기부금 모금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선진국 축제의 경우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으로부터의 스폰서십까지 유치하여 재원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확보는 축제의 관광자원화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된다. 따라서 축제를 개최하는 입장에서는 축제의 사업비 집행내역과 축제를 통한 수익사업의 결과, 그리고 직·간접적인 유발효과 등의 내용을 축제 개최 전후에 판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하겠다.

축제의 성공적인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수익상 제고방안으로는 가치유발형 이벤트, 수익추구형 이벤트, 그리고 저비용으로 많은 관광객들과 개최단체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비용절감형 이벤트가 종합적으로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우선 가치유발 이벤트가 되도록 하는 것은 지역특산물이나 자연환경 등을 소재로 다양한



이벤트를 축제의 가치를 제고시키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대행사가 본 축제의 내용을 희석시키거나 왜곡을 시키지는 않아야 한다. 다음으로 수익추구형 이벤트는 축제관련 상품의 전시 및 상품 구입 시 할인혜택 부여, 기획한정판매 등의 방법으로 관광객들이 구매를 자극하여 지역의 수익을 향상시키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비용절감형 이벤트는 축제개최의 주체와 이익집단들이 상호 의존적이거나 필요로 하는 내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로 제공하여 직접적인 금전적 거래 없이 상부상조의 결과가 발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sup>12)</sup>

이제 위에 논급한 이론과 한국식 판의 구조를 감안하여 중구 민속축제 한마당을 어떻게 벌려야 할 것인가 하는 축제화와 관광화 방안 몇 가지를 지적하기로 한다.

① 장소는 동대문 운동장과 같은 대운동장도 필요하고 청계천의 둔치에 소규모 축제장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축제판은 굿이라는 놀이판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남산과 청계천변의 굿은 과거에도 유명했다. 그리하여 신명나는 한국적 민속축제 판의 원래 모습을 재현하고 그 속에서 축제가 주는 교훈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또한 축제문화는 일회적(一回的)이고 일시적(一時的)인 싸움과 흥분·행운 이외에 지역사회를 결합시키고 공동체의식을 다지게 하는 축제로 연결된다는 것을 체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③ 축제와 놀이는 함수관계에 놓여 있다.

단오하면 씨름과 그네가 연상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민족고유의 명절 때나 또는 제의성·역사성을 고려해서 축제일을 잡아야 할 것이다.

④ 축제의 장(場)은 민족화합의 시간이고 단합의 시간인 동시에, 놀이의 공간과 대화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천변(川邊)의 둔치를 조화롭게 이용한 소규모 축제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⑤ 축제의 성패는 전체 주민들의 후원과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성의 있는 경영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본다. 축제의 존폐는 실로 그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12) 서정우,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연구》, 중앙대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p.45~62.



⑥ 서울 축제의 주신(主神)은 목멱대왕신과 삼각산신이므로 두 신을 모시는 가장행렬도 필요하다.

⑦ 경기도 여주, 이천, 광주 의 도자기 축제가 국제적으로 성공했듯이 서울의 독특한 상품을 소재로 한 축제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⑧ 난장뜨기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이 축제장에 몰려드는 이유는 먹 거리, 볼 거리, 할 거리, 살 거리를 희구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충분히 만족시켜주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축제의 성패는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이다.

⑨ 소규모 박람회를 열어 지역소개를 충분히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호이장하의 말대로 인간은 '축제적 인간'과 '유희적 인간'으로서의 두 면모를 체내에 안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충족시켜줌으로서 서울에 사는 보람을 느끼고, 내가 내 고장 민속을 체험하며 '서울에 산다'는 자긍심을 갖게 될 때 동질감이 형성되어 이후에 개최될 축제를 기대하게 될 것이며 적극적 참여가 될 것이다.



제 7 장

---

마무리





이상에서 우리 문화 속에서 낳고 성장한 놀이 문화를 구조·분류·어원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실로 플라톤이 그의 《대화편》에서 언급한 대로 올바른 삶의 방법은 놀이를 하듯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의 말은 축제의 심리를 의미하는데, 항시 신에게 감사하고 봉헌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참삶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플라톤의 말대로 우리 선민(先民)은 그렇게 삶을 영위해 왔던가? 한국인의 철학과 신앙은 둥근 원형구조임을 발견하게 된다. 둥근판 속에서 사유(思惟)하고 놀이를 펼쳐가는 한국인의 슬기로움이 돋보인다. 판은 한국식 축제의 무대이자 둥근 태양신과 달신의 모의구조였다. 강강술래의 원무를 비롯해서 농악대의 태극진법 등 대부분의 놀이가 원의 미학을 빼놓고 이해할 수 없다. 둥근 원은 신의 모습이자 생생력(生生力)을 상징하며 우리 문화의 모습이기도 하다. 단판과 단판이 모여 대판 놀이, 곧 대동놀이화되는 공식도 보게 된다.

갓가지 민속놀이 종류는 또 그 나름대로의 지역성을 해서 새로운 상징성을 첨가하고 있다. 사라져간 고려시대의 투란희(鬪卵戲)는 그저 흘러넘길 수만은 없는 종교적 심성이 자리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프로프(Vladimir Propp)의 이론을 빌릴 필요도 없이 계란싸움은 삶 — 죽음 — 삶이라는 삶의 주기성을 강하게 믿고 있는 북방민족의 사상이다. 알에서 알로 돌아가는 공식은 알(egg) ⇄ 삶(life) ⇄ 무덤(tomb)이라는 등식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이같은 순환공식을 이미지로 승화시켜 항시 그들 뇌리에 간직하고 있다.

신라 박혁거세나 기타 신화에서와 같이 인간은 둥근 알에서 나와 삶을 영위하다가 둥근 무덤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믿고 있었다. 한국의 무덤이 알과 같은 모양(특히 울릉도 무덤은 좀 더 달걀 모양임)을 하고 있음도 바로 미래에 부활을 한다고 믿는 신앙심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음, 축제놀이에 참석하는 관중을 미국의 경우와 대비해 보았다. 우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개 시골 축제놀이는 헌신(devotion)적이지만 도회의 축제놀이는 기분전환을 위한 오락이나 유희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대중문화의 경향과 추세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축제의 관중은 제의의식을 아직도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관중은 신앙성이 짙은 신화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들은 원형축제(proto-festival)를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대동놀이 곳



## 중구의 축제

판에서만은 매사의 근심과 피로를 풀려고 한다. 또 일상의 묵은 찌꺼기를 놀이를 통해 배설시키고 정신적 갈등을 해소시켜 보려고 한다. 오늘날은 이 정도로 족하지만 역사적으로 소급해 올라가 보면 이 축제놀이판이야말로 젊은 남녀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해결장이 되기도 했음을 밝혀 보았다.

필자는 장황하지만 소상히 역사상 남산에 엄존했던 목멱대왕신(남산신)과 삼각산신, 그리고 태백대왕신의 위상을 축제학적 입장에서 대비 고찰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해 중구축제 개발의 1차적 과제는 목멱산대제의 부활에 있으며, 그와 더불어 장충단제나 명동축제, 정동축제, 신당동 떡볶이축제, 장충동 족발축제 등 중구의 여러 축제와 놀이를 연계화시키고 개발하는 데 있다.

목멱산대제가 또, 서울특별시에서 새로 개발하고 있는 청계천 축제의 정신적인 중심축이 되어 서울축제의 주역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적해 두고자 하는 바는 민중의 놀이는 마땅히 각 지역단위별로 재구(再構)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각기 지역단위별로 자랑스러운 위대한 조상신이 있고 그에 따른 민족신화 내지 부락신화가 엄존해 왔다. 그들 신을 중심축으로 하는 신바람을 다시 일으킬 때 민족정기는 되살아나리라고 보며 주체의식도 강해지리라고 믿는다.

## ▣ 참고문헌 ▣

### □ 자료

- 《삼국사기 三國史記》  
 《삼국유사 三國遺事》  
 《경국대전 經國大典》  
 정교, 《동언고락 東言攷略》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東國李相國集》  
 김매순, 《열양세시기 洌陽歲時記》  
 이수광, 《지봉유설 芝峰類說》  
 유득공, 《경도잡지 京都雜誌》  
 종름, 《형초세시기 荊楚歲時記》  
 홍석모, 《동국세시기 東國歲時記》  
 《국조오례의 國朝五禮儀》(1), 법제체, 1981.  
 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한국민속대사전》, 민중서관, 1998.  
 《한국민속대관》,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72.  
 최영년, 《해동죽지 海東竹枝》, 1921.

### □ 단행본

- E. G. 캠프, E 와그너, 신복용역, 《조선의 모습》·《한국의 아동생활》, 집문당, 1999.  
 G. W. 길모어, 신복룡 역, 《서울풍물지》, 집문당, 1999.  
 W. R. 칼스, 신복룡 역, 《조선풍물지》, 집문당 1999.  
 경기도박물관, 《경기민속지》 3, 세시풍속·놀이·예술편 2000.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민속학연구실, 《민속놀이》, 푸른숲, 1988.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기도편, 민속원, 1999.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서울편, 민속원 1999.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 제당》 제1권, 서울·경기도편, 1995.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세시풍속》 1, 서울·경기·강원·충청도편, 1997.  
 김광언, 《한국의 민속놀이》, 인하대학교 출판부, 1982.  
 김내창, 《조선풍속사》, 사회과학출판사, 1992.  
 김선풍·김경남, 《강릉단오제연구》, 보고서, 1998.

- 김선풍 외, 《민속놀이와 민중의식》, 집문당, 1996.
- 김선풍 외, 《동작구의 민속문학》, 민속원, 1997.
- 김선풍 외, 《아시아인의 축제와 삶》, 민속원, 2001.
- 김선풍 외, 《한일비교민속놀이론》, 민속원, 1997.
- 김선풍 외, 《민속놀이론》, 민속원, 1997.
- 김선풍 외, 《한국축제의 이론과 현장》, 도서출판 월인, 2000.
- 김선풍 · 김인희 · 타오리판, 《한국민속과 중국 서남민족의 민속 비교》, 도서출판 박이정, 2003.
- 김선풍, 《아방리 줄다리기》, 광명문화원, 2003.
- 김선풍 · 임장혁 · 김경남 · 김이숙, 《전국 민속축제 현황조사 및 발전방안》, 서울특별시 청계천민속 조사보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 김영상, 《서울600년-낙산기술. 청계천변》, 대학당, 1996.
- 김용옥, 《도올의 청계천 이야기》 유교적 풍류의 미래도시, 통나무, 2003.
- 김춘식 · 남치호, 《세계 축제경영》, 김영사, 2002.
-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5.
-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1.
- 김흥우, 《한국의 놀이와 축제 1》, 집문당, 2002.
- 도유호 외, 주강현 해제, 《북한 학자가 쓴 조선의 민속놀이》, 푸른숲, 1999.
- 문화관광부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해설》, 놀이와 의식편, 1985.
-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6편, 세시풍속 및 민속놀이, 1980.
- 문화재연구소, 《세시풍속 한국 민속 관계 논문 목록》, 1992.
- 문화체육부, 《한국의 지역축제》, 문화체육부, 1996.
- 민속학회, 《민속놀이와 민중의식》, 집문당, 1996.
- 박경룡 · 김일림 · 홍윤정, 《명동변천사》, 중구문화원, 2003.
- 박진창, 《서울의 옛모습-개항 이후 1960년대 까지》, 서울특별시립박물관, 1998.
- 박태원, 《천변풍경》, 빛샘, 1999.
- 방종현, 《세시풍속집》, 연학사, 1946.
-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청계천 : 시간, 장소, 사람 : 20세기 서울변천사연구》, 2001.
-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의 하천》, 2001.
- 서울특별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 서울특별시, 2002.
- 서울특별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청계천 복원구간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2003.

-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청계천에 얽힌 전통민속놀이 재현을 위한 학술용역》, 서울특별시, 2004.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민속대관》, 서울특별시, 1993.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서울1~2》, 2002.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 민속편, 서울특별시, 1990.
- 서울학연구소, 《조선후기 서울의 사회와 생활》, 서울시립대학 부설 서울학연구소, 1998.
- 서정우,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2002.
- 손영식 외, 《조선 제1의 다리 광통교》, 조흥은행, 1994.
- 송석하, 《한국민속고》, 일신사, 1960.
- 송파문화원, 《송파다리밧기, 송파백중놀이, 송파산대놀이 : 송파무형문화재 합본》, 1998.
- 심우성, 《우리나라 민속놀이》, 동문선, 1996.
- 안호상, 《국학의 기본학》, 배영출판사, 1977.
- 어효선, 《내가 자란 서울》, 대원사, 2000.
- 여홍상, 《바흐친과 문화 이론》, 문학과 지성사, 1995.
- 이경제, 《청계천은 살아있다 : 조선시대 청계천과 그 주변 이야기》, 가람기획, 2002.
- 이상일, 《놀이 문화와 축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8.
- 이상일, 《민족심상의 예술학》, 시인사, 1984.
- 이상일, 《한국인의 굿과 놀이》, 문흥사, 1987.
- 이석래, 《풍속가사집-한양가 농가월령가》, 신구 문화사, 1978.
- 이석훈, 《조선세시기》, 동문선, 1991.
- 이송리, 《한국의 축제》, 성하, 1999.
- 이우성·임택현, 《이조한문단편집》, 상·중·하, 일조각, 1990.
- 이윤화 외, 《경북북부 유교문화 관광자원 조사연구》, 경상북도, 2000.
- 이응선, 《청계천을 떠나며》, 황금가지, 2003.
- 이재영, 《사진으로 본 서울의 어제와 오늘》, 서지원, 1993.
- 이찬·양보경, 《서울의 옛지도》,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학연구소, 1995.
- 임동권, 《한국의 세시풍속》, 서문당, 1999.
- 장정룡, 《한·중 세시풍속 및 세시가요의 연구》, 집문당, 1988.
- 장주근, 《한국의 세시풍속》, 형설출판사, 1984.
- 장철수 외, 《서울의 사회 풍속사》,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학연구소, 1995.
- 전경욱, 《한·중·일 연의 역사와 민속》, 태학사, 1996.
- 제해만, 《서울의 시, 시의 서울》, 외길사, 1994.



주강현, 《곳으로 보는 우리 문화 이야기》, 웅진출판 주식회사, 2000.  
 주강현, 《한국민속학 연구 방법론 비판》, 민속원, 1999.  
 무라야마 지준, 《조선의 향토오락》, 박전열 역, 집문당, 1992.  
 최상수, 《한국민간신앙의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9.  
 최길성, 《한국의 세시풍속》, 흥인문화사, 1969.  
 최완기, 《조선 시대 서울의 경제 생활》,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학연구소, 1994.  
 편집부, 《한양가》, 민창문화사, 1993.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의 축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7.  
 향토축제협의회, 《향토축제 조사보고서》(2차년도), 1984.  
 황헌만 사진·정승모 글, 《한국의 세시풍속》, 학고재, 2001.

□ 논문

김근태, 〈시흥동 다리밧기 놀이의 발굴과 재현〉, 서울문화 3집, 서울문화사학회 1997.  
 김명자, 〈송파답교놀이의 실태〉, 월간문화재 10, 1981.  
 김명자, 〈송파의 세시풍속의 나타난 문학성〉, 경희대 석사논문, 1982.  
 김명자, 〈전국 향토축제 현황〉, 문예연감, 1991.  
 김명자, 〈한국세시풍속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1990.  
 김선풍, 〈원주지방 민속놀이 연구〉, 《벽서 최승순박사회갑기념논총》, 1987.  
 김선풍, 〈삼각산신화와 단국신화의 구조〉, 강북문화원, 2003.  
 김선풍, 〈한국 씨름의 역사와 제의〉, 《중앙민속학》 제5호, 중앙대학교 한국민속학연구소, 1993.  
 김선풍, 〈단국신화·강릉단오제·목역산신화에 대하여〉, 《중구문화》통권 제5호, 중구문화원, 2001.  
 신창균, 〈향토문화재 현황〉, 문예진흥 4권 5호, 1978.  
 신현구, 〈세시풍속지를 통한 조선후기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4.  
 양진조, 〈해동죽지에 나타난 세시풍속 고찰〉, 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조현옥, 〈도애홍석모와 세시풍속시〉,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4.  
 한성국, 〈개천고〉, 〈향토서울〉 24, 서울특별시사편집위원회, 1965.  
 황루시, 〈도시축제로서 마을굿은 가능한가〉, 전통문화, 1월호, 1986.  
 (영문논문은 각주참조)



## ■ 색인 ■

- ㄱ
- 각저희(角觥戲) 96, 98, 100
- 강릉단오제 27, 53, 54, 141, 144, 145, 158, 159, 162, 165, 227
- 강태공부인지신(姜太公夫人之神) 211
- 강희맹(姜希孟) 203
- 거화희(炬火戲) 47
- 격구(擊球) 48, 50, 82, 96, 97, 98, 112, 114, 116, 117
- 격구희(擊毬戲) 96
- 고상진(高尚鎭) 180
- 골화(骨火) 174
- 공민왕신 212
- 곽곽선생 211, 212
- 곽곽선생신 211, 212
- 관어(觀魚) 96, 113, 114, 118
- 관조(觀潮) 96, 114, 118
- 국사당제(國師堂祭) 204, 208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181, 192, 193, 197, 203, 204,
- 국토신 180, 181, 204, 207, 213
- 군웅대신(軍雄大神) 211
- 궁술 44, 45, 47, 54, 56, 57
- 권필(權驛) 180, 181
- 귀신풀 184
- 귀희(鬼戲) 96, 111, 118
- 그라이마스(Greimas) 30
- 금산인삼축제 158, 162, 163
- 기(碁) 47, 107
- 길레피(Gillespie) 225, 227
- 김광언 49, 50
- 김수로대왕(金首露大王) 174
- 김창업 74
- 김치(金織) 178
- 김택규(金宅圭) 22, 26
- 김효원(金孝元) 178
- 까이요와(Roger Caillois) 20, 22, 24, 25, 31, 57, 228
- ㄴ
- 나옹화상(懶翁和尚) 211, 212
- 나옹(懶翁) 210
- 나옹화상신 212
- 나희(儺戲) 58, 96, 110, 111, 113, 115, 118
- 난장트기 246
- 남대문축제 125
- 내림(奈林) 174
- 노국공주(魯國公主) 211
- 놀이(pflagen) 33
- 농마희(弄馬戲) 114
- ㄷ
- Diana 36, 40
- Dromena 26

## 중구의 축제

- |                         |  |                   |  |
|-------------------------|--|-------------------|--|
| the folknik             | 225, 226, 227                                | 모래찢               | 43, 45, 46   |
| the folknik · 관객        | 226  | 모악산(母岳山)          | 173  |
| the outlaw              | 226, 227                                     | 목덕대왕(木覓大王)        | 210  |
| 단군신화                    | 101, 169, 172, 176, 178, 186, 188, 231       | 목덕산(木覓山)          | 169, 179, 180, 181, 185, 186, 190, 196, 204, 207, 211, 213, 214, 250 |
| 단양굿                     | 158  | 목덕산신사(木覓山神祠)      | 180, 185, 207, 208, 213, 214   |
| 단양일                     | 158  | 목덕산신화             | 208, 213   |
| 답교(踏橋)                  | 47, 85                                       | 목덕산축제             | 169, 191, 197  |
| 대화편                     | 24, 249                                      | 목덕신사(木覓神祠)        | 204  |
| 도슨(Richard Dorson)      | 233  | 무교다동축제            | 121  |
| 돌싸움                     | 58, 59, 60, 64, 66, 67, 74                   | 무뢰한들(the out-law) | 227  |
| 동국이상국집                  | 61, 62, 97, 98, 104, 105, 106, 108, 115, 117 |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 95   |
| 동맹(東盟)                  | 204  | 무천(舞天)            | 202, 228   |
| 동지(the winter solstice) | 31, 37                                       | 무학대사(無學大師)        | 210, 211, 212  |
|                         |  | 무학대사신(無學大師神)      | 211, 212   |
|                         |  | 미로놀이(maze)        | 20   |
|                         |  | 미미크리(mimicry)     | 20, 21, 22, 23   |
|                         |  | 미수기언지(眉叟記言)       | 177  |
|                         |  | 민중전(閔中殿)          | 211  |
|                         |  | 민중전신              | 206, 211, 212, 213, 214  |
|                         |  | 민치록(閔致祿)          | 205  |
| <b>ㄹ</b>                |  |                   |  |
| Legomena                | 26, 206, 207, 208                            |                   |  |
| 리오데자네이로                 | 137  |                   |  |
| 리치(Edmund Leach)        | 32   |                   |  |
| <b>ㄴ</b>                |  |                   |  |
| 마고성                     | 189, 190, 191, 192                           |                   |  |
| 만경대(萬景臺)                | 178, 180                                     |                   |  |
| 만월(full moon)           | 39, 40                                       |                   |  |
| 먹거리축제                   | 216, 218, 219                                |                   |  |
| 명동축제                    | 122, 123, 124, 142, 156                      |                   |  |
| 명성황후                    | 125, 205, 206, 207, 208, 213, 214, 216       |                   |  |
| 명성황후해원굿                 | 205, 214                                     |                   |  |
| <b>ㄷ</b>                |  |                   |  |
| 바디당골                    | 175, 177                                     |                   |  |
| 박전열                     | 75   |                   |  |
| 박주대(朴周大)                | 77   |                   |  |
| 박태원                     | 78, 80                                       |                   |  |
| 박혁거세(朴赫居世)              | 117, 176, 248                                |                   |  |
| 반 게네프(Van Gennepe)      | 34   |                   |  |
| 백두옹(白頭翁)                | 177, 179, 180, 213                           |                   |  |

- 백악산 180, 181, 184, 185, 192, 197, 198,  
200, 201, 204, 207, 213, 214, 217
- 백악산신사(白岳山神祠) 180, 184, 202, 210
- 백운대(白雲臺) 180, 181, 185
- 백제(白祭) 178, 186, 187, 188, 210
- 백틴(Baktin) 30
- 백희[百戲·雜戲] 110, 112
- 버들꽃네[柳花] 172
- 베로나 132, 134, 135
- 베트남 138, 139, 140
- 병치(並置·juxtaposition) 32
- 보아스(Boas) 176
- 부도지(符都誌) 190
- 북악산(北岳山) 68, 79, 80, 180, 182, 184,  
185, 204, 209, 213
- 블라디미르 프로프(Vladimir Propp) 117
- 入**
- Sabbath 36, 37
- solitaire 25
- Succoth 38
- 사직단 208, 209
- 삭전(索戰) 46
- 산해경(山海經) 212
- 삼각산(三角山) 181, 184, 185, 186, 192, 193,  
197, 198, 199, 200, 201, 214,
- 삼성암(三聖庵) 180
- 샷포로 136, 137
- 서양장기(chess) 20
- 선유(船遊) 114
- 성속이원론(sacred-profane dualism) 30
- 세덕신(歲德神) 190
- 소도(蘇塗)당골 177
- 송석하(宋錫夏) 43, 46, 47, 48
- 송악산(松嶽山) 185
- 수경(水經) 212
- 수박(手搏) 48, 100
- 수박희(手搏戲) 96, 98, 99, 112
- 수호성인제(守護聖人祭·patronal festival) 223
- 수희(水戲) 96, 113, 114
- 신당5동가구상가거리축제 128
- 신당동떡볶이축제 125
- 신명균 60, 79
- 신복룡 80, 81
- 신사문화(神社文化) 234
- 신채호(申采浩) 102
- 심우성 48
- 십자말풀이(crossword) 20
- 쌍륙[雙六·象陸] 49, 50, 110
- 씨름무덤 102
- 〇**
- Apollo 36
- Artemis 36, 40
- 아곤(Agôn) 20, 21, 22, 23, 206, 228, 229,  
233
- 아암산(兒岩山) 184
- 아태조비 211
- 아태조신 211
- 안조환(安肇煥) 75
- 안토닌 어타우드(Antonin Artaud) 22
- 알레아(alea) 20, 22, 23, 228, 229, 233

## 중구의 축제

알영성모(關英聖母)	174	<b>ㅈ</b>	
양의 축제(Dromena festival)	214	G. W. 길모어	81
양파경축희(兩派競逐戲)	98, 116, 118	자유활동(free activity)	19
어지러움(vertigo)	21	장대타기	46, 48, 57, 96, 115
에덴버러	133, 134	장득상 章得象	116
에버하르트(Wolfram Eberhard)	230	장충단제	126, 127, 217, 250
역어유해(譯語類解)	30	장충단축제	205
열경산(列慶山)	208	장충동족발축제	127
영고(迎鼓)	189, 190, 204	저포희(樗蒲戲)	96, 104
영묘전(永墓殿)	172	정견성모(正見聖母)	174, 180
오금잠신(烏金簪神)	178	정녀부인	180, 181, 185, 212, 213
웅녀성모(熊女聖母)	174	정녀부인신	179, 180, 204, 207
원형축제(proto-festival)	204, 213, 229, 249	정동축제	124, 214, 250
위기(圍碁·圍棋)	107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	210
위용성모(威庸聖母)	174	주몽설화	171, 174
유만공	82, 83,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118	주야평분시(晝夜平分時·equinoxes)	37
유화성모(柳花聖母)	174	죽마(竹馬)	96, 114
유후인	133, 135, 136	중로(中路)보기	46
유희분(柳希奮)	181	중학(仲學)	178
유희인(homo ludens)	22	지공	210
음의 축제(Legomena festival)	214	지신밟기	25, 44, 45, 46, 47, 48, 50, 53, 128
이능화(李能和)	210	지연(紙鳶)	62, 82, 95, 104
이니시에이션(initiation)	170	지이산(智異山)	184
이덕무	78	지점(至點·solstices)	37
이승헌	191, 192	지춘상	46, 47
인경산(引慶山)	208	<b>ㅊ</b>	
인수봉(仁壽峰)	180, 181, 185	차전(車戰)	34, 39, 45, 46, 116
일링크스(ilinx)	20, 21, 22, 23, 228, 233	창부씨(倡夫氏)	211
임기중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처용희(處容戲)	96, 110
임동권	50, 51	척초희(擲草戲)	114, 116

- 천왕랑(天王郎) 172
- 청춘경로회(青春敬老會) 34
- 초인동녀희(草人童女戲) 96, 116, 118
- 초제(醮祭) 204, 208
- 촌산지순 75
- 최남선(崔南善) 75, 103, 106
- 최상수 48
- 최영장군 26, 102, 162, 211
- 최영장군신 211, 212
- 추분(the autumnal equinox) 37
-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39
- 추천희(鞦韆戲) 106
- 춘분(vernal equinox) 37
- 충무로애견축제 126
- 칠성신 211
- ㄱ**
- 크로노스제우스 101
- ㄷ**
- 타부(taboo) 29
- 타일러(Thomas Tylor) 32
- 탈구기시간(脫拘忌時間 · desacralized time) 30
- 태백산신화 168, 176, 179
- 태백신화 169
- 터너(Victor Turner) 19
- 퇴우(退牛) 177, 178
- 투란희(鬪卵戲) 96, 105, 117, 249
- 트랜스(trance) 22
- ㄹ**
- feast 32, 33, 34
- festum 32
- fete 32
- fiesta 32
- fyuchtlee 33
- patience 25
- 포세이돈 101
- 풍류교(風流敎) 186
- 풍류도(風流道) 186, 190
- 프레이저(Frazer) 39
- 프로프(Vladimir Propp) 117, 249
- 플라톤 24, 249
- ㅎ**
- 하레스 101
- 하지(summer solstice) 37
- 함백산(咸白山) 177, 179, 180, 204, 213
- 해리슨 24
- 허황옥 174
- 혈례(穴禮) 174
- 호기(呼旗) 68, 76, 77, 96,
- 호기동희 115
- 호기희(呼旗戲) 89, 96, 115
- 호이징하(Johann Huizinga) 19, 20, 22, 23, 26, 103
- 홍제(紅祭) 178
- 화산희(火山戲) 96, 112, 113, 118

## 증구의 축제

증구향토사 관계 자료 제 8 집

---

발행처 : 서울특별시 증구문화원

발행인 : 남 상 만

기 획 : 증구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회

집 필 : 김 선 풍

발행일 : 2004년 2월 25일

인쇄·출판 : 상 원 사

---

© 증구문화원. 2004

비매품

100-220 서울특별시 증구 장교동 1번지 한화 B/D 1층

전화 : (02) 775-3001 FAX : (02) 775-3068

E-mail : cc100@junggu.seoul.kr

이 책은 증구의 예산을 지원 받아 발간하였습니다.



